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로 개원 30년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 본원이 개원하던 해 한국과 세계는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룩하였고 소련은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경제규범을 논의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북방정책이 추진되는 등 글로벌 경제와 정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KIEP는 바로 이러한 때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현실적 대안을 수립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설립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는 빛나는 성취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험난한 도전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APEC 가입, OECD 가입, 외환위기, DDA 출범,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환경 출현, 그리고 최근엔 자국중심주의의 발호와 첨예한 미·중 패권경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본원은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자부합니다.

개원 30년 만에 본원은 세계지역, 국제금융, 무역통상, 개발협력, 양자 및 다자 협력, 남북협력 등과 관련된 대외경제정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추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위상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KIEP는 세계 싱크 탱크 평가에서 2016년 이래 3년 연속으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뤼셀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빈국제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제경제정책 부문에서 세계의 선도적

글로벌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KIEP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DMZ 평화 경제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전 세계 싱크 탱크 및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그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연구 인력 및 연구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2019년에만 박사급 연구원 12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에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커진 오늘날 싱크탱크의 역할과 그에 대한 기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KIEP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해법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나이 삼십을 ‘이립(而立)’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서고 책임지는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개원 30주년과 30년사 발간을 2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다시 한 번 자축하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선도하고 세계적 담론을 이끄는 KIEP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영**



21세기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선봉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 2005년 9월 27일 현재의 CI를 선포하였다. KIEP CI의 주요 의미는 ‘신뢰’ ‘역량’ ‘열정’이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탄탄한 ‘신뢰’를 두꺼운 고딕서체로 나타내고, 워드마크 중간의 운동감 있는 사선 형태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상징한다. K(Korea)자 위의 빨간색은 정책연구를 향한 의지가 집중되어 나타나는 ‘열정’을 뜻한다.



30주년 기념 엠블럼

대외경제정책 연구의 허브로서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며 국가 경제정책의 기틀을 다져온 KIEP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30주년 기념 엠블럼이다.

Color identity

KIEP의 로고 컬러를 적극 활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위로 점점 밝게 빛나며 떠오르는 글로벌 싱크탱크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Design elements

‘30’이라는 숫자와 지구본 형태의 둥근 원을 디자인 요소로 결합하여 30주년을 맞이한 KIEP의 발자취와 글로벌한 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IEP를 역동적이고 빠른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함으로써 ‘0’의 구 형태를 완성하였고, 세계 속에서 빛나는 KIEP 로고를 배치하였다. 또한 ‘0’의 형태에 입체미와 속도감을 구현함으로써 다가올 미래, 세계경제의 변화를 주도하는 KIEP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3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숫자 ‘3’이 그 변화를 안정감 있게 받쳐 주도록 디자인함으로써 과거와 미래, 변화와 안정이 시각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차례

발간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며	이재영 원장	4
----------------------	--------	---

K I E P

CI 로고 · 엠블럼		6
-------------	--	---

KIEP 30주년을 축하하며

한 발 먼저 글로벌 이슈를 내다보는 대외경제의 망루(望樓)가 되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
새로운 통상질서를 헤쳐 나가는 기수의 역할을 기대하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5
대격변의 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경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8

회고와 기대

세계 굴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김적교 초대 원장	20
21세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선진한국의 길잡이가 되길	유장희 제2대 원장	22
고립무원의 2020년대 국제여건, 소프트파워 경제외교전략을 연구 제시하기를	양수길 제3대 원장	28
혼돈의 세계경제질서를 밝히는 한줄기 빛이 되기를	이경태 제4대, 제6대 원장	33
대전환의 시대 한국경제 대외지향 나침반, 세계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을	안충영 제5대 원장	40
국가 중대사 때마다 빛을 발했던 KIEP	채욱 제7대 원장	51
국책연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들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수행해 가는 연구원 식구들	이일형 제8대 원장	58
국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KIEP의 전략을	현정택 제9대 원장	62

제 1 부
개관

1. KIEP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정여천	71
2. KIEP 30년사의 구성	김준동	78

제 2 부
KIEP의 발자취

I. 국제거시금융		
1.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왕윤종	83
2. 세계경제 전망 및 국제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안성배	101
II. 국제통상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DDA 출범과 대응	강문성	109
2. APEC에 대한 주도적 기여	송유철	117
3.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	이홍식	135
III.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	이장규 · 양평섭	145
IV. 국제협력		
1.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일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정형곤	167
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권울	176
3. 글로벌 환경·자원 문제와 국제협력 확대	문진영	187

제 3 부
KIEP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I. 국제거시금융 연구	강태수	197
II. 국제통상 연구	배찬권 · 김영귀	205
III. 세계지역 연구		
1. 중국경제 연구	이승신	217
2. 선진경제권 연구	정성춘	226
3. 신흥경제권 연구	곽성일 · 박정호	233
IV.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연구	최장호	253

제 4 부 비 전 및 조 직 운 영	I. 국제적 위상	노 현 주	263
	II. 비전과 경영목표	우 은 영	269
	III.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우 은 영	273
	IV. 연구 지원활동	조 총 제	283

부 록	1. CI 로고의 변천		291
	2. 전(前) 임직원 명단 역대 원장 / 역대 부원장 / 전(前) 직원		292
	3. 현(現) 임직원 명단 원장 / 부원장 / 직원		310
	4. 조직 변천		313
	5. 발간자료 목록		326
	6. 포상 수상자 명단		418
	7.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426
	8. 연도별 주요 일지		456
	9.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457
	10. 동호회 활동		471
	11.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T/F 명단		472

KIEP 30주년을
축 하 하 며

•

회 고 와 기 대

한 발 먼저 글로벌 이슈를 내다보는 대외경제의 망루(望樓)가 되길

홍 남 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해 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30년간 KIEP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분야 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KIEP가 출범한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큰 물결 하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에 함께 하였고,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 경제는 미국·EU·중국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여 2018년 기준 세계 GDP의 76.4%에 해당하는 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는 수출 세계 6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이고,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였습니다. KIEP는 이 과정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세계경제는 소위 ‘역세계화(Slobalization)’라는 또다른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TO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던 교역 증가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라는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WTO의 위상이 약화되고,美中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이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도전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강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복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외부 충격에 강한 수출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주요 대외정책 기조로 삼아 교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개선시킬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증유(未曾有)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외경제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KIEP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30년

새로운 통상질서를 헤쳐 나가는 기수의 역할을 기대하며

유 명 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간 한국이 세계경제 흐름 속에 발맞출 수 있도록 KIEP가 지원해 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예측하고 미리 대안을 제시하는 대외경제의 제일 높은 망루(望樓)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개원 30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KIEP의 우수한 역량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가 서른이 되면 스스로 뜻을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되었다 하여 ‘이립(而立)’이라 했습니다. KIEP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 개발 선도’를 위한 뜻을 다시 한 번 세우고,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대외경제 정책연구기관으로 한 번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정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KIEP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IEP**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경제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IEP는 1990년 개원 이후, 그동안 세계경제 동향과 정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현안 연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중국·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KIEP는 각종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55개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KIEP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의 무역조치도 수입규제 위주에서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 등과 같은 비정형적인 조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교역과 규범도 블록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4차산업 기술발전과 자국 우선주의가 결합되어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되고, 주요국 중심으로 밸류체인의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범에 있어서도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디지털 규범이 정립되는 등 규범의 파편화 현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국제경제·통상 분야에 특화된 KIEP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험난한 통상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록 통상 싱크탱크 역할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요국 동향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미국, 중국 중심의 수출시장 구조를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이자 GDP, 인구 등에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협정문 타결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마련된 신남방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KIEP가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규범 분야에 대한 KIEP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통상규범의 수준과 현행 국내제도를 비교하여,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 제도정비를 통해 글로벌 통상규범 도입에 대비하고, 앞으로의 양자·다자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EP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KIEP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듯이, 앞으로도 대내외 경제·통상·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한발 앞선 사고와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글로벌 통상이슈 해결 논의에 앞장서는 기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KIEP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IEP**

대격변의 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 경 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룡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990년 시장경제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세계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부적 도전이 급증하던 시기에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며 대외경제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탁월한 연구기관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무역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통상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전략 개발을 통해 국가의 대외통상 협상을 뒷받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역연구를 통해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APEC 설립, OECD 가입, DDA 등 각종 WTO 협상, FTA 협상 등 주요한 방향을 설정할 때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KIEP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또다시 대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열강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통상분쟁 심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일부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연 등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따라 한국경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만연하는 시대에 접어들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통상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익에 기여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 선도적 모범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뛰어난 해안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이끌어온 역대 원장들과 경영진 여러분,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원 발전에 이바지한 전·현직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0년간 다져온 굳건한 토대에서 앞으로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EP**

세계 굴지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김 적 교

초대 원장 | 1989. 8. 23 ~ 1992. 3.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며 초대원장으로서 무한한 자긍심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1980년대 후반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진행 등 세계경제의 급속한 자유화 과정을 배경으로 태어난 KIEP는 그동안 KIEP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으며, 오늘날 유수의 세계적인 국제경제 및 지역연구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세계 10위권 경제 진입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 모두가 KIEP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집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경하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마찰 등 보호무역주의가 위세를 떨치는 등 대외경제 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KIEP와 같은 두뇌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며, 깊이 있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의 정책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 즉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EP는 이제 규모나 인적구성 면에서 어느 연구기관 못지않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KIEP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속 정진하여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KIEP의 탄생 30주년을 축하하며 세계 굴지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KIEP**

21세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선진한국의 길잡이가 되길

유장희

제2대 원장 | 1992. 3. 9 ~ 1997. 2. 13



벌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0주년이 되었다니 세월이 정말 유수(流水)와 같습니다. 사실은 1989년 일단 정부지원 재단 법인체로 출범했다가 1990년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됨으로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된 것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30년도 더 된 셈입니다. 처음 연구원이 설립될 당시 김적교 초대원장님과 창립 멤버들 몇이서 사당동 네거리 근처 농민신문사인가 하는 기관이 들어서 있는 사조빌딩에서 사무실 하나를 빌려 연구원 창립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고생한 멤버들로 김 원장님을 비롯하여 필자, 서장원 박사, 김박수 박사, 당시 기획원에서 파견나온 이장환 국장, 실무자로서는 서영태 과장, 이제은 과장, 그리고 여직원 김정아 씨 등이 일했습니다. 그 이후 연구원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섯 번을 이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속성상 국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1990년 무역센터가 있는 삼성동 지역에 사무실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소석빌딩으로, 그다음에는 해성빌딩으로, 그리고 군자빌딩으로, 삼성동 근처에서만 세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삼성동 지역에서는 신생 빌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상황이라 우리 연구원을 유치하려는 빌딩주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 덕에 비교적 싼 값에 더 나은 곳으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염곡동 지역에 정부산하 기관 오피스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KIEP는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그 중 한 빌딩에 입주하라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자체 빌딩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

에 우리 마음은 들떴었는데 빌딩 관리를 소보원에 맡긴다는 정부 결정이 내려져 약간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염곡동을 떠나 세종시에 입주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를 여러 번 하면 연구원 분위기가 항상 뒤숭숭하지 않았겠냐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반대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1989년 창립할 때같이 마냥 신선한 느낌이 있어 늘 재충전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그런 분위기리라 믿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지내 오면서 KIEP가 한 일은 실로 눈부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격동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나라의 대외정책을 건전하게 수립해 나가는 데 실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평해 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WTO의 출범, 미국의 개방압력, APEC 창설, OECD 가입, 북방정책, 지역연구 그리고 세계화 추진정책 수립 실무역할 등등 실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숨가쁘게 닥쳐오는 국제경제 문제들을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에 우리 박사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KIEP가 창립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원장 재임 중에 겪은 잊지 못할 경험(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 4월 우리 정부는 UNDP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나진-선봉지역의 개발계획 수

립에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북한정부(김일성)가 유엔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프로젝트인 듯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18명의 전문가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4월 28일 일본의 니가타 공항을 거쳐 입북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단장은 필자가 맡았습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평양의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아마도 남쪽의 민간 전문가 그룹이 북한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18명씩이나 정식으로 입북한 것은 남북한 관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7박 8일 북한에 머물면서 평양과 나진-선봉지역을 오가며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개발의 초안을 작성했고, 이를 떠나기 하루 전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측에서도 각각 자기들의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참여하였으나 중국은 나진-선봉지역보다는 훈춘을 중심으로 한 동북지역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우리 국제기획단을 맞아준 사람은 북한의 경제부총리인 김달현이었고, 이 행사의 총괄을 맡았던 이는 김정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그 밑에 이경일, 김성식 부의장, 림태덕 총무, 그리고 북한의 해외경제연구원 곽명수 원장 등 이를테면 대외협력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서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인지 1993년 6월에 김달현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북한의 경제기획단이 남한을 답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이들이 남한의 곳곳을 방문해 보고 싶다고 하여 경주와 부산 지역을 시찰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부산 방문 시에는 필자도 이들과 동

행하였습니다. 김달현은 한마디로 남자답고 호탕하며 자기 견해를 여과 없이 표현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보고 놀라는가 하면 거대한 크레인에 'DAEWOO'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저거이 설마 남조선 제품은 아니겠지요?"라고 하며 미제를 들여와서 국산인 것처럼 덧칠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질문이 무리가 아닌 것을 필자는 잘 압니다. 즉, 필자가 평양 고려호텔에 머물 때 호텔방에 '진달래'라는 브랜드의 컬러 TV가 있기에 궁금해서 TV 뒷면을 조사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제 산요(SANYO)마크를 긁어 내고 자기네 브랜드 '진달래'를 덧입힌 것이 드러났었습니다. 부산항의 'DAEWOO'라는 브랜드의 크레인도 아마 미제를 들여다 덧칠한 한국제인 것처럼 꾸몄을 것이라는 게 그때 김달현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김달현 일행의 남한 방문은 무사히 잘 끝났고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돌아갔습니다.

필자가 이 기억을 아쉽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남한을 방문했던 김달현 부총리 일행이 얼마 후 실각했거나 아니면 아예 종적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994년 7월에 김일성이 급사했고 김정일이 등극한 이후 대남 경제상호협력을 주장했던 이른바 '국제파' 관료들이 전원 숙청당한 것입니다.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김일성 생존 시 계획했던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말도 못 꺼낼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김일성이 살아 있었고 나진-선봉 개발계획이 빛을 봤다면 김달현과 그 주변 인물들이 북한 경제정책의 중심

세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달현이 우리와 같이 여행하는 중에 필자더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나진-선봉 계획 실현에 중심역할을 좀 해주라요”라는 주문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김일성이 죽지 않았다면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도 성사되고 따라서 통일의 물꼬도 잡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가 원장 재직 시 김일성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다가 망명한 조명철 박사를 당시의 안기부를 설득하여 1994년 10월 KIEP로 영입한 것도 김일성 사망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북한상황을 좀 더 선제적으로 소상히 파악하고 싶은 의도에서였음을 밝힙니다. 조 박사는 KIEP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잘 성장하였고 통일교육원 원장(차관급)도 역임했는가 하면 몇 년 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으로도 활약하였습니다.

필자의 재임 중 있었던 일 중에 기쁘고 보람된 일도 많았습니다. 그중 제1을 꼽으라면 단연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제 무역의 질서를 온전히 가꾸어 나가기에는 GATT라는 규범은 내용적으로 불완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가 1986년도에 시작되었으나 7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낸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강력한 규범과 이를 집행해나갈 능력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UR을 결론짓고 이를 집행할 WTO를 출범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침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

차 APEC 정상회의가 열렸고 당시의 의장인 클린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UR을 결론짓고 WTO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APEC의 제안이 효력을 발휘하여 UR을 지연시키거나 부정하려던 국가들의 자세를 긍정 쪽으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 뒤에는 물론 KIEP의 뒷받침이 컸음을 밝힙니다.

오늘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진로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간헐적으로 무역의 질서가 힘의 논리에 의해 도전받는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유, 공정, 호혜의 정신을 굳게 지켜가는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승자의 단 위에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21세기의 시대정신이며 또한 KIEP의 설립 정신이기도 합니다. **KIEP**

고립무원의 2020년대 국제여건, 소프트파워 경제외교전략을 연구 제시하기를

양수길

제3대 원장 | 1997. 2. 14 ~ 1998. 4. 16



KIEP는 30년 전 당시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응하고 또한 북방경제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정책과 해외지역 연구기관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높이 세웠던 보호주의의 장막과 정부의 부가장주의(父家長主義)를 거두어내기 위한 경제개혁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KDI에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일방적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던 경력을 배경으로 1997년 KIEP에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의 결과 WTO가 방금 출범하였고, 한국의 무역정책은 대내적 경제개혁의 혜택보다는 새로운 다자적 질서의 틀 안에서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호혜주의가 기조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 후 10여 년에 걸쳐 한·미 FTA를 포함해 다수의 쌍무적 혹은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 등 구(舊)사회주의국들과의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KIEP가 정부의 진취적 통상의 교와 기업들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대비해 제가 당시 이른바 정책연구와 지역연구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구체제를 통합하고자 내부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2000년대까지의 통상정책은 개방을 기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 2차대전 이후 다자주의를 견지, 옹호하고 유럽과 제휴해 글로벌화를 적극 추구해왔던 점이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2009년 Great Recession 등을 계기로 글로벌화의 여러 부작용이 도처에서 가시화되면

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제경제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제경제환경이 오랫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체로 우호적(benign)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날이 더욱 '도전적(challenging)'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추진해온 신진 선진공업국으로의 위상변화도 한국의 대외경제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driver)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이 70여 년간 공을 들여 주도적으로 구축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제1주의(MAGA)를 내세우며 일방주의로 다자주의질서를 흔들며 글로벌화를 반전(反轉)시키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통적 우방과의 우호 협력을 조롱하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받아 유럽의 통합주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고무(鼓舞)되어 이를 추종하고자 하는 나라가 동유럽과 남미 등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웃 일본의 아베정권이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무역정책을 한국에 대한 '압력외교'의 수단으로 차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이에 상호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방주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능가하는 위협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규는 뉴노멀(New Normal)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 여건에 일파만파의 충격이 예상됩니다. 그 여파로 WTO의 권능이 꺾잡을 수 없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통상마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2015)의 이행 추진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세 도입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UN 정상회의(2015)에서는 ‘2030 지속가능 발전의제’를 채택한 이후 빈곤개도국들의 빈곤탈출과 말라리아·콜레라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특히 한국에 대해 개도국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2020년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변화는 2020년대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들 시련은 30주년을 맞이하는 KIEP에 대한 막중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2020년대 한국이 처하게 될 국제여건은 한마디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대외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정말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KIEP가 그러한 대응의 일선에 서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사명을 재정의하고 역할을 재조명하며 연구수행방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외경제적 시련과 도전에 대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대외경제전략을 연구하고 가다듬어 나가며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항상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새로운 선진국으로서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추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정책

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추종하기보다는 선도(先導)하고자 해야 합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국내 기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 교류하여 연구의 국제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해외 각국의 통상외교를 연구함에 있어 대외적 정책현상을 넘어 그 이면(裏面)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요인(driver)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1주의를 이해하고 예측하려면 미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중간단계부터 시민사회와 개방적으로 대화하고 이들에 대한 실시간적 내용 전파를 강조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우물 안 개구리’적 경향을 최대한 완화해야 합니다.

대외경제여건상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KIEP에는 일대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연구의제가 넘치고 그 사명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국제여건 변화에서 오는 위기를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되, 배타적 민족주의로의 회귀본능을 억제하는 연구를 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국 우선주의에 오히려 역발상적인 국제주의로 대응함으로써 일본 등과의 진정한 동북아협력을 선도하고, 개방적 국제협력구조의 확대 재생산을 주창, 모색하는 KIEP로 거듭 태어날 것을 권고합니다.

차제에 KIEP의 연구주제를 ‘대외경제’에서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로 범위를 넓혀 국제적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를 연구할 것을 검토하도록

혼돈의 세계경제질서를 밝히는 한줄기 빛이 되기를

이 경 태

제4대 원장 | 1998. 6. 25 ~ 2001. 12. 24 / 제6대 원장 | 2005. 1. 31 ~ 2008. 5. 16



제안합니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프랑스의 국제관계연구원 (IFRI) 등을 연구해 참고할 만합니다. 국제경제문제는 국제정치문제와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KIEP**

KIEP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쓴 지가 벌써 10년 전 일이라니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나이 먹는 것과 세월 흘러가는 속도가 비례한다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이제 30번째 생일이 되었으니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로 접어드는 문턱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국제경제연구소로 발전하였고 이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도약대에 섰으니 진심으로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늙은이가 되면 남은 세월보다도 보낸 세월이 훨씬 길고 앞날의 계획보다는 과거의 회상에 젖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만, 저는 오늘은 KIEP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회고는 20주년 때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KIEP는 국제경제를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우선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계경제질서는 날이 갈수록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대전의 종전(終戰)과 함께 탄생해서 전후 세계경제의 번영에 크게 기여한 브레튼우즈체제는 지금 허울만 남아 있고 실질적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무역부문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WTO가 다자협상의 무대에서 사라진 지가 몇 년이나 지났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분쟁해결기능도 금년 말이면 종말을 고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양자간 또는 복수국가간 자유무역협상이 WTO 장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스파게티효과 등의 부작용 또한 작지 않아

서 WTO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일본이 강제징용 보복을 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특정국가와 특정상품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규범을 무시하는 반칙이 횡행하고 있는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WTO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숨어버리면 앞으로 더 많은 반칙이 더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무역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질적인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WTO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데 몸에 맞는 옷을 준비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무역질서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이미 있던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가 아니라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강대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은 뺄고 서로 물고 뜯는 싸움에 골몰하고 있으니 힘없는 나라들은 그 피해를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세계경제가 대침체의 오랜 충격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쉽게도 솟아오르던 기운이 꺾이고 다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앞날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무역조치는 2차대전 이후의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하에서 미국이 희생하고 중국을 필두로 하는 교역상대국들이 막대한 혜택을 누렸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과장된 것이지만 적어도 상대적 비교를 하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는 거시적 불균형의 산물이므로 관세부과를 통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중국과의 패권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미·중 양국이 관세전쟁을 계속하여 양국간의 교역이 현저하게 위축되는 경우의 세계경제 향방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교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 및 고용이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칠지에 대해서 학계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경제권과 미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양분되어서 두 진영 간에 느슨한 장막이 설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만에 하나라도 그 지경까지 사태가 악화되면 어떤 충격이 가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은 관세부과, 기술보호, 인력이동제약 등의 무기를 사용하다가 급기야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금융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막강한 금융력을 이용하여 중국기업과 은행에 대한 금융규제까지 휘두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경우에 중국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아마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도 큰 타

격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제예측을 할 때 불변의 전제로 삼고 있던 인간행동의 합리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설마설마하던 엄청난 사건이 현실로 나타나는 ‘회색 코뿔소’가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No Action Talk Only”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2008년 대침체 이후에 금융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여럿 도입되었습지만, 최근에는 다시 규제완화의 명분을 내세우고 금융자본에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그 충격이 오래 지속되고 특히 분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안정성은 금융자유화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금융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융건전성 감독을 게을리하다가 금융위기를 막지 못하면 득(得)보다 실(失)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이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6.8%까지 치솟아서 당연히 분배가 악화되었지만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도 분배지표는 상당기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분배지표가 나빠졌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의 충격을 온몸으로 받는 계층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자신들이 해고당할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든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고 난 후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행운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경우 과거의 경기 사이클에서는 불황 때 해고당했다가 6개월 정도 실업수당으로 버티면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귀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1년 이상 장기간 실업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제경제질서 대혼돈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미국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또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규모가 이미 세계 2위로 커졌고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습니다. 몸집에 걸맞게 세계경제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국중심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 설립, 일대일로사업, 아프리카-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독자적인 원조정책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자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누리고 싶은 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또는 미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체제이질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독재,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국가주도의 유사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 중국이 2인3각의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중국이 체제전환을 하지 않는 한, 미·중의 갈등은 지속되고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미국만의 힘으로 중국의 굴기(崛起)를 꺾기는 힘들 것이며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힘이 커질수록 체제이질성의 위험 또한 커질 것이고,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대립이 세계경제의 불안을 야기하는 상수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혼돈의 세계경제질서를 헤쳐나가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성찰과 폭넓은 시야, 그리고 균형감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칫 두 강대국간의 다툼에 휩쓸려서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되 국익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KIEP와 같은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이 막중해집니다. 정책결정자들이 편협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른다는가 국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킬 때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참다운 국익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오늘의 문제에 대입하여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보호주의와 배타적 자국우선주의가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국익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종을 울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는 교조적인 국내 정치와 경제체제를 열린 마음으로 교정하지 않고 한물 간 제국주의의 산물인 부국강병책을 고수하는 한, 중국은 결코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체제고수는 중국 자국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경로에서 장애요인이라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세계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는 비전까지 제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KIEP 후배님들께서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간 수준의 지적인 각성을 한국사회와 국제무대에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KIEP**

대전환의 시대 한국경제 대외지향 나침반, 세계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을

안충영

제5대 원장 | 2002. 1. 26 ~ 2005. 1. 25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와 대외지향전략 수립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고고의 성(聲)을 올린 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의 나이로 세계적 싱크탱크(Think Tank)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동안 KIEP는 세계경제 전환의 시기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해양화,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에 관하여 탁월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의 대외정책 수립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KIEP가 국내외에 걸쳐 굴지의 싱크탱크로서 현재의 위상을 이룬 것에 대하여 KIEP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그러한 명성과 평가를 지니고 있는 두뇌집단 KIEP에서 필자가 5대 원장(2002~2005)으로 봉직하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며 교수 출신인 필자에게 생동하는 국제경제와 통상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했던 고귀한 기회였습니다.

KIEP가 창원(創院)된 1990년은 한국경제가 장기 고도성장에 힘입어 본격적 개방체제로 넘어가는 중대한 변혁기였습니다. 한국경제는 당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低)의 호황으로 성장체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88올림픽의 성공적 마무리로 세계무대에 본격 데뷔하던 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경제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나, 대내적으로는 국내시장을 개방체제로 유도하던 무역 패러다임의 전환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 무역과 관세에 관한 GATT 체제가 공산품에서 농산물과 일부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 무역자유화를 논의하였던 우루

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KIEP가 출범하던 시기는 정치사적 측면에서 중국과 소련의 개혁·개방을 필두로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권이 스스로 붕괴되는 역사적 지각변동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방정책으로 구(舊)사회주의 진영과 국교정상화를 추구하여 한국경제의 대외지평을 전 지구촌 차원으로 확대하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인구 13억 명의 거대한 중국이 실사구시의 개방체제로 들어서고 러시아의 막강한 에너지 자원을 겨냥한 통상외교를 넓혀야만 하는 세계경제의 초(超)이념적 글로벌화에 한국은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도 탐색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외에 걸쳐 급변하는 대전환의 글로벌화 경제시대에 한국경제는 민족의 생존전략은 물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방위적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기 위하여 KIEP가 탄생한 것입니다. 본격화된 세계경제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경쟁에서 승자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자간 통상교섭이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진행될 때 우리는 상대 국가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우리의 협상전략을 가다듬는 지혜를 동원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붕 지구촌 경제는 서비스 분야까지 개방되어 본격적 무역·투자자유화까지 관리하는 WTO 체제를 출범

시켰습니다. 세계경제가 전면개방체제를 추구함에 따라 본격적 개방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문제에 관하여 DDA가 논의되면서 KIEP의 연구영역은 더욱 광역화되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KIEP의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WTO의 DDA 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추세 속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2개국 혹은 소수의 복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허용되는 현상에 연구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의 첨병으로서 EU와 NAFTA 등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여 장단기 FTA 추진 로드맵을 준비하고 KIEP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으로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남·북·중·러를 관통하는 철도연결망의 과제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나아가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이 본격 논의되었습니다. 외부충격에 의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자구적 협력 장치의 모색을 계기로 이른바 ‘동아시아 정체성(East Asian Identity)’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류를 바탕으로 ASEAN+한국·중국·일본의 정상들이 정례회동을 하게 되었으며, 역내 다자금융 협력장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필두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장기 비전을 정상회의의 어젠다에 올리고 그 후속 연구를 KIEP가 수행하였습니다. 동북아에서 일

본의 첨단기술제품과 중국의 저임 대량생산제품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샌드위치론에 입각하여 중국을 성(省) 단위 혹은 지역별로 접근하고 일본에 대한 만성적 무역적자의 구조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나아가서 EU·동남아·중동·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연구의 범역을 KIEP가 대폭 확장하고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태동에 부응하여 당시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품화하기 위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구체적 전략으로 경제자유지역의 지정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겨냥한 동북아 협력구상이 태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종래의 차관 위주 외자도입정책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입각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론 주도층 인사들과 비공식 전략대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OLS)를 연례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OLS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 이슈, 한·미 간 민간 사회교류와 이해증진,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및 경제협력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적 함의와 관련하여 필자는 동구권의 몰락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변화와 돌발 사태까지 포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의 집대성과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담은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2003, 2004)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의 민간 싱크탱크 기관들, 국무성과 백악관의 안보 관련 고위책임자들이 이 보고서에 대하여 대단히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의 운동이 세계적 추세로 전개되면서 한국은 미국·EU·인도 등 거대경제권뿐만 아니라 캐나다·호주 등 중강국,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도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징검다리로서 한국이 추구한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 관하여 고도의 계량적 기법을 동원하여 정태적이고 동태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KIEP가 그와 같이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통상전략을 입안하는 국책수립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KIEP의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필자는 APEC 경제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APEC이 추구하는 역내무역과 투자원활화 및 지식기반경제 건설 등에 관한 각종 연구와 이행전략을 APEC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연관된 정책건의가 APEC 정상선언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APEC 활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안은 APEC Education Foundation(AEF)의 활동입니다. 미국이 원래 제안하였고 한국이 동조한 AEF 사업은 APEC 역내 국가들에 디지털 교육기회의 확산을 통하여 교육능력 배양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교육소외계층에 온라인 교육기회를 강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AEF가 APEC의 이념에 기여한 공헌은 APEC의 정상선언문에도 몇 차례 언급된 바 있습니다. AEF는 한국정부의 국내 재정지원법에 따라 2009년 사업종료 때까지 23개의 재정지원

사업들을 이행하였으며, 그 내용과 교훈들을 담아 『AEF White Paper』(2009)로 출간하여 APEC의 대표적 교육능력 배양사업으로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2008년에 또다시 밀어닥친 전대미문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국제금융현상과 국제통상현상에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간 무역자유화에 이은 투자자유화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본시장의 간접투자에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의 하나이지만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은 선진국 수준은 물론 세계평균치에도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지역 및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FDI 유입에 진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KIEP가 본격적으로 정책연구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동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등 금융협력을 본격적으로 심화하고 공식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국제적 금융현상에서 지구촌 경제의 동시성과 상호연계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에서 투명한 흐름과 감독기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과 기축통화 사이 환율의 안정화 과제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기능적 통합영역을 확대하고 적극 추진하는 전략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형 세계경제체제는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등 지구촌적 환경과제를 도처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보듯 환경·무역·투자의 연계성은 앞으로 KIEP가 중점적으로 특화해야 하는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EU의 태동을 보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 묘사되기도 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전략을 한국은 중국·일본·ASEAN과 함께 가다듬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BRICs 등 여타 신흥국가들의 위상을 볼 때 이 세계적 신흥대국들과 그 주변지역 연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20개국은 당면한 금융과 통상 위기 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세계경제질서와 시스템 정상화를 논의하는 새로운 G20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의장국으로서 위기 이후 세계적 주제를 다루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계경제 위기 동안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의 현 수준 동결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와중에서 한·EU 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무역자유화에 대한 언행일치 국가로 세계에 각인되었습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는 새로운 대혼란의 시대격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4차 산업 기술혁명의 파고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을 긋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가치를 내걸고 anti-globalism, anti-immigration 정책으로 GATT/WTO 체제 아래 규범화된 세계무역의 자유질서(liberal order)를 보호무역주의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bilateralism)로, 원칙보다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거래 케이스별 이해득실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해와 직결되지 않으면 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서 미국이 세계경찰 역할(World Police Role)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신고립주의의 외교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동맹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안전보장장치가 필요하면 소정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와 연관되는 중대한 대외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아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중국경제를 미국경제에 필적하는 G2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도광양晦(韬光養晦) → 화평굴기(和平崛起) → 대국굴기(大國崛起)로 군사와 경제 대국화를 지향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국익 최우선(America First) 트럼프주의를 유발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제조 2025'계획으로 중국경제의 제조업 첨단화에 이어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49년에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패권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기술력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 냉전(美蘇冷戰)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미·중 패권경쟁이 때로는 피아(彼我)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태동시킬 예정입니다. 기존의 패권국에 신흥 패권국이 도전하면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투키디데스 함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경제의 새로운 지경학적 동태적 변화 속에 우리는 가공할 속도의 기술변화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AI, 5G, Big Data, IoT는 기술의 파열성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출현시키고 있습니다. AI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체계는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국제분업의 패러다임도 바꾸고 있습니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 또한 더욱 심화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국가간 기술경쟁의 추이와 산업재편, 첨단 기술력 향상 등 우리의 대응전략도 깊이 연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EU는 Brexit의 향방에 따라 새로운 EU 지역주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구촌화에 급속히 흡입되면서 지역주의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KIEP는 주요 국가별·지역별 연구와 전문가의 육성에도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한때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입장에 있었지만 마침내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세계의 빈곤국가

와 개도국에 원조와 발전경험을 제공하는 공여국가의 역할을 배가해야 합니다.

미국 주도의 단극패권(unipolar hegemony) 체제에 중국이 G2로 도전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퇴조하고 각국은 각자도생을 하는 민족주의적 경쟁체제의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통상과 안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나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순치(唇齒)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최적의 정책배합(policy mix)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의 유산으로 남은 분단국가를 비핵화된 한반도로 만들어 해양경제권과의 본격 교류를 대륙경제권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시작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육교적(陸橋的) 기능을 살려가야 합니다.

한국은 대내외에 걸쳐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국민적 지혜로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왔으며 그 결과 국가역량이 항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의 주변에서 중심무대로 이동, 중강국 소프트파워로서 선진국 문턱을 확실하게 넘어서야 합니다. 전통적 4강 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뿌리내려야 합니다. 스위스

국가 중대사 때마다 빛을 발했던 KIEP

채 욱

제7대 원장 | 2008. 5. 15 ~ 2013. 5. 15



나 네덜란드처럼 공정, 개방, 경쟁,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일관성 있게 추구하고 세계 최정상의 기술고슴도치(leading technology hedgehog)가 되어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고도기술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격 전개될 21세기, 파열적 기술변화의 융복합 시대, 상호 연결성이 점점 강화되는 명실상부한 무국경 지구촌 경제에서, 선진 한국,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한국, 그 토대 위에서 통일 한국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KIEP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선진화를 위한 싱크탱크로서 앞으로도 배전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할 도전적 과제에 대하여, KIEP의 연구자 여러분은 세계적 싱크탱크에서 봉직하면서 선진 한국경제의 향로를 설계한다는 무한한 자긍심을 지니고 본격적 국제관계의 다원화, 기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통상·금융·지역연구를 더욱 심층화, 과학화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한국의 국격(國格)을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지식향도(智識嚮導) 연구기관으로서,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경제의 대외지향의 나침반(羅針盤) 기능을 KIEP가 충실히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KIEP**

KIEP가 출범한 지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원장 임기를 시작한 다음 다음해에 20주년 행사를 치렀는데, 그 후 다시 1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세월의 흐름이 유수 같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서른 살 장년의 나이에 접어든 그야말로 원숙한 기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제가 KIEP에 첫발을 디뎠던 1990년 가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그해 초에 설립된 신생 연구원이었던 KIEP에 입사했던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리 큰 조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 박사님들의 표정이나 자세가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만만해 보였던지 제 자신이 은근히 위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KIEP에 근무하면서 많은 연구와 정부지원 업무에 참여했고, 2008년 5월 원장에 취임하면서 재임 5년 동안 또 다른 KIEP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23년을 몸담고 정을 붙여 왔으니 KIEP를 떠나는 날 그리도 아쉽고 애뜻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안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관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만 들자면 WTO를 출범시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한·미 FTA 협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APEC 활동과 OECD 회원국 가입 과정에서도 KIEP는 가장 주도적으로 정부를 지원했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등 우리 경제가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국가의 위기극복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KIEP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사안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 두 가지가 먼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안은 모두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고맙고 정겨웠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지만, 이 글에서는 특정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KIEP에 입사할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WTO의 출범을 예측하지도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케네디라운드 협상(1964~1967) 말기에 GATT에 가입했지만, 동경라운드 협상(1973~1979) 때까지만 해도 경제상황이나 시장여건상 무역자유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초기에만 해도 국제경제 이슈에 특화된 전문기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외경제 이슈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EP가 설립된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국제통상 및 국제거시금융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국제경제실에서 근무하게 된 저는 동료 박사들과 함께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협상 관련 전략연구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아서 국제경제실뿐만 아니라 KIEP의 거의 모든 연구인력이 분야별로 또는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 관련 연구 및 정부지원 활동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부서의 박사들은 물론이고 우수한 연구원과 연구조원들, 그리고 전산실, 자료실, 사무국 등 연구지원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일을 했던 기억입니다.

KIEP의 수많은 보고서들이 당시에는 생소했던 각종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각계각층에 전파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UR 총점점: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1992. 10)과 그의 증보판(1993. 12)에 이어 출간된 『WTO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1994. 7)은 당시 새로운 세계통상질서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가장 많이 읽힌 보고서로 손꼽힙니다. 단기간 내에 다수의 연구진이 참여해서 출간한 보고서라 아주 정교하고 세련되게 기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KIEP 대표보고서 중의 하나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을 하고 어울리면서 많은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KIEP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한글 통상용어들이 상당부분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원 설립 초창기라 업무 부담도 상당했지만 그야말로 끈끈한 동료애가 빛이 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동료애가 오늘날까지 KIEP의 멋진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KIEP의 활동이 두드러졌던 또 하나의 사안은 한·미 FTA 협상이었습니다. 모

든 FTA 추진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FTA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히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된 직후인 2006년 2월 말에 KIEP 한·미 FTA 연구단 단장으로 위촉되어 연구진을 구성하고 대정부 지원과 대국민 홍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관련 찬반 논쟁이 한창 가열된 시점에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KIEP는 견잡을 수 없는 숫자조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생산성 효과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가 장기적으로 7%까지 증가한다는 KIEP의 연구결과에 대해 당시의 한·미 FTA 반대 세력들은 KIEP가 정부와 야합해서 숫자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며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에 관한 연구에는 반드시 생산성 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주체는 분명 KIEP 연구진이었습니다. 생산성 효과의 반영근거와 산정방식은 수차례 공개설명회를 통해 밝혔지만, 반미라는 이념적 굴레에 갇힌 반대파들은 의혹제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 GDP가 향후 10~15년에 걸쳐 약 7%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계량적 연구결과 역시 전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나타난 효과를 보면 오히려 과소평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지 확인되었고, 미국에서 이익을 제기하여 결국 재협상에까

지 이른 상황에서 그들은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KIEP의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 그리고 인내가 없었다면 결코 성사되기 쉽지 않았을 FTA였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취임했던 2008년 후반 세계경제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에 빠뜨렸고, 신흥개도국들의 경제파탄과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경제 전망과 지역별·국가별 현황 조사 및 관련 정책연구에는 항상 KIEP가 중심에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당시 원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연구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 및 관련 정부부처, 국회 등을 누비며 각종 정보와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행히도 비교적 경기회복이 빨랐던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KIEP의 지역연구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외 교협력의 지평이 선진국 위주에서 동남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으로 크게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KIEP의 지역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의 신설이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중국전문가가 대폭 증원되었고, 그 덕분에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만 수행해 왔던 중국 연구를 권역 및 성에 기초한 보다 미시적 차원의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KIEP는 국가의 중대사를 거치면서 더욱 더 빛을 발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정책연구 및 정부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업적을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KIEP가 세계 유수의 대학 연구소나 이론 연구소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데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책연구원의 성격상 연구결과가 정부의 정책수립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다른 10년 후에 KIEP가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정책연구기관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KIEP가 국가의 중대사를 겪을 때마다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동료애입니다. 힘들 때에는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오해도 발생해서 직원들 간에 수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분위기에 이끌려 화해하고 더욱 끈끈한 동료애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가족으로 맞을 때마다 느꼈던 설렘도 제 마음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미나 또는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긴장된 모습, 그리고 첫 출근에서 업무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밝게 인사하던 모습 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직원이 이직할 때에는 유난히도 허전하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 잘 지냈던 비정규직 동료직원이 갈 곳도 없이 이직인사를 하러 원장실에 들를 때에는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유능하고 일하고 싶

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따뜻한 동료애에 바탕을 둔 ‘화합과 참여’라는 조직문화야말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KIEP가 계속 존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무언의 희생 속에서도 묵묵히 저를 따르고 지원해 주었던 선배 동료 후배 직원들께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KIEP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역대 원장님들, 연구부서 및 연구지원부서의 모든 KIEP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KIEP에 깊은 애정을 보여주셨던 정부, 업계, 그리고 학계의 모든 분들과 함께 KIEP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KIEP**

국책연구원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들의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수행해가는 연구원 식구들

이 일 형

제8대 원장 | 2013. 8. 2 ~ 2016. 4.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30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연구기관들 가운데 상위 1% 연구기관(TTCSP Global Ranking 2018)으로 발돋움한 것은 모든 연구원 식구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위원들, 날카로운 분석으로 연구를 뒷받침해주는 연구원들, 그리고 KIEP의 모든 활동을 조용히 그러나 뛰어난 효율성으로 지원하는 행정팀 직원들이 바로 30주년에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KIEP는 국책연구원이기에 그 책임이 민간연구원보다 더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성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체의 강한 discipline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관행에 젖어 현상유지만 하려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원의 성과는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연구원 식구들은 자기 개인보다는 국가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처음 KIEP에 합류했을 때 대부분의 식구들이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과 분야는 달랐지만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임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필자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된 상황임에도 무리없이 직(職)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야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을 만큼 연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저를 직간접적으로 보좌해 주셨던 분들 덕

분이기도 하며, 그래서인지 저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KIEP에 몸담았던 당시를 되돌아보면, 국제경제정책은 세 가지 추, 즉 국제거시금융, 통상, 그리고 지역경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문제는 물론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동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대북 교류와 중국경제의 일대일로 등 지역경제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했던 업무가 가중되었던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환율문제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의 국내 영향,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의 이슈에 대해 국제거시금융 분야에서도 다각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학교수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세종시 이전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우리 연구인력의 유출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국제거시금융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업무가 거의 중단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적극적인 외부전문가 유치와 내부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해당 분야 업무를 간신히 회생시킬 수 있었지만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것이 일원화된 보상체계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IEP의 위상이 계속 높아진 이유는 주요 핵심인력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기여로 연구의 품질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학문적 욕구를 뒤로 하고 국가의 유익을 위해 수고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대외정책을 담당하는 국책연구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1.5트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가간에 중요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식협상이 딛고 설 수 있는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APEC은 물론이고 G20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사국 업무 시작 몇 년 전부터 연구기관을 선임하여 사전 작업을 추진하게 합니다. 양자협력의 경우에도 정부는 국내 우수 연구기관들과 협의해나가며 국제협력을 추진합니다. 연구기관들의 이러한 선제적 및 병행적 역할을 1.5트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역할이 KIEP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KIEP는 1.5트랙을 추진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시기에는 특히 한·미 경제협력 제고, 중국의 일대일로, APEC, 유라시아 협력 그리고 G20 업무에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1.5트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고위급 정보와 학문적 깊이가 함께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잠재력은 이 분야에서도 크게 발휘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계 외진 곳까지 개의치 않고 방문하며 네트워크를 개척하던 분들,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유출해내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며 KIEP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KIEP에서 시의적절한 분석과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KIEP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KIEP 식구들의 헌신과 노력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척하며 나가야 할 경제 현안들에 대해 정부를 잘 보좌하여 1.5트랙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IEP**

국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KIEP의 전략을

현 정택

제9대 원장 | 2016. 6. 24 ~ 2017. 12.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3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KIEP가 위치하였던 세 곳에서 모두 일한 드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삼성역 근처의 해성빌딩이라는 곳에 연구원이 세 들어 있을 때 경제기획원에서 파견 나가 박사들과 함께 연구하였고, 양재동 소비자보호원에 있을 때는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가끔씩 나가 자료를 찾거나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지금의 세종시로 옮긴 후에 원장으로서 경영을 맡았습니다. 공적으로는 정부에서 오랜 기간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KIEP와 함께 한국이 개방경제정책을 통하여 선진국의 반열로 오르는 데 힘을 보탰다는 자부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KIEP가 해낸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KIEP가 설립된 계기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라는 해외 충격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준비가 거의 무방비였던 상태에서 국제통상의 전문지식을 결집하여 협상에 대응하고 국민들을 깨우쳐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쌀 관세화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한국이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창립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98년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추진전략을 채택하고, 칠레를 필두로 하여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는데,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한 나라는 한국 말고는 싱가포르와 칠레 등밖에 없습니다.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한국이

체결한 FTA 전부가 KIEP의 경제성 분석을 거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FTA와 같은 개방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국민 정서와 이에 기인한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KIEP와 구성원이 애꿎게 언론의 화살을 맞거나 국회에 소환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KIEP의 박사와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개방을 반대하는 토론자로부터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얼굴 벌겔게 달아 오른 내 모습을 TV 화면에서 본 어머니로부터 그런 데 나가지 마라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KIEP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서도 중심적인 일을 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의 한국 사무국으로 우리나라와 역내 전문가들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에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라는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80년대 중반 필자가 경제기획원 미국통상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로 발족하였던 곳으로, 미국 내의 한국경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현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의회 인사 초청 및 미국 주별 순회 간담회 개최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 모임인 OLS(Opinion Leaders Seminar)를 매년 개최하여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원장으로 재직 동안 두 번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도 하며 참가자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KIEP는 중국 베이징에도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그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필자가 주중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으로 근무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 이릅니다. 제2대 주중대사로 부임한 황병태 대사께서 외교부와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뿐 아니라 경제전문가도 필요하다고 하여 대사관에 KIEP에서 박사 한 사람을 파견토록 요청하였고, 더 나아가 KIEP 자체의 연락사무소를 베이징에 두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이후 KIEP의 북경사무소는 ‘죽(竹)의 장막’이라고도 불렸던 중국의 경제와 정치·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분석하여 국내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기업의 관련자에게 한국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소통 채널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일대일로 국제회의와 조어대의 국가경제발전포럼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장으로 참석한 것도 KIEP의 중국 네트워크 덕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회의 참석 때 중국 TV에서 안 하기로 미리 약속했던 사드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질문하여 애를 먹기도 하였지만.

KIEP는 국내 학계, 기업, 정부에 대외경제전문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KIEP의 울타리 내에서 계속 활용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정상 부득이 KIEP를 떠난 후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통상장관을 배출하고, 많은 대학의 국제경제학과에서 주류를 형성하여 KIEP 출신의 공저로 국제통상학 교과서를 만들었으며, 기업의 연구소장을 맡은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으로서의 KIEP는 다른 국책연구원이나 정부기관 또는 기업에 비해 나은 환경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물론 원장인 나에게 직접 고충을 토로하여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준 경우가 제법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경영진과 노사협의 회원 간, 연구팀과 행정팀 간, 선임과 신임 간에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말에 추진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KIEP가 가장 앞장서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 KIEP의 업무가 그만큼 동질성이 컸고, 직원들이 잘 협조하여 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이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개방과 협력의 글로벌 국제경제 시스템이었다고 보면,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패권전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충돌과 대립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브렉시트를 추구하는 영국 보수당 정부, 기존의 국제규범을 파괴하는 세계 곳곳의 ‘스트롱 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경제의 기본은 장벽을 낮추고 무역을 확대하면 교역 당사자 모두에게 득(得)이 되는 결과, 즉 윈-윈(win-win)의 게임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데, 패권전쟁의 시대는 상대를 제압해야만 내가 사는 안보의 논리가 우선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도 사실은 경제문제보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중 경쟁의 속성이 큼니다. 따라서 KIEP의 향

후 정책연구에서는 경제적 시각과 아울러 외교·안보적 측면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KIEP에 국제정치·안보·사회 전문가를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채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 박사·석사 위주로 움직이던 KIEP 체제에 다른 분야를 받아들이면서 팀워크 방법, 평가 보상 등 여러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KIEP에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하면 KIEP의 누구라고 하는 답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등 지역전문가들의 육성이야말로 KIEP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문가 육성을 위해 KIEP의 보직 운용 시스템도 바뀌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한이 차면 자연히 보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직을 안 주더라도 자기의 연구분야에서 좋은 업적을 내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잘 유지토록 하고, 더 큰 보상이 돌아가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KIEP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세계 8,000여 개 연구기관 중 국제경제정책 분야 5위,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KIEP의 연륜에

비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지켜나가고 앞으로 더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IEP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KEI와 중국의 KIEP 북경사무소에 추가하여 다른 지역에도 연락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중에도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유럽은 설치 필요성이 높는데, 유럽사무소 준비를 위한 파견관이 나가 있다가 철수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로서, 적절한 시점에서 꼭 다시 추진·성사시켜야만 합니다.

KIEP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연구기관이지만, 출연연구원을 관리하는 연구회가 설립되고, 국무조정실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통제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성인 자율성이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2017년 12월 연구회 이사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KIEP를 비롯한 연구원 원장과 박사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빈번하게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출연연구기관을 만든 이유는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정책 수립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싱크탱크(Think Tank)로부터 듣고자 하는 것이므로, KIEP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 연구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KIEP**



01

제 1 부 개 관

-
1. KIEP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2. KIEP 30년사의 구성
-

1.

KIEP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정 여 천 KIEP 신북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1. KIEP 설립의 시대적 배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89년 8월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설립 허가를 얻은 재단법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해 말에 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이 통과·발효됨으로써 1990년 1월 17일을 기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KIEP 설립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1980년대 후반은 세계경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세계사적인 전환기였다. 당시의 세계경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십 년에 걸쳐 두 차례의 석유위기가 휩쓸 이후로 성장률 저하와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불균형 상태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고용 증진과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수입 규제와 수출촉진을 위한 개입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뚜렷해진 국제무역의 불균형 현상은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이와 대비되는 서유럽 및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연쇄적으로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애초에 석유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달러 강세와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악화에 따른 국제경쟁

력 저하로 인해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해서도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오던 중남미와 서유럽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아 미국 정부는 상호주의와 공정무역을 표방하면서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협정(OMA) 등의 정책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와 같은 자국의 경쟁력이 강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교역상대국들에 대해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통상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은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를 통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인 일본과 독일에 대해 통화절상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로써 통상마찰은 직접적인 무역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조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서유럽 국가들을 대표하는 EC도 자국에 대해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던 일본 및 신흥공업국들에 반덤핑판정을 위시한 수입규제 강화에 나섬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통상마찰의 격화에 직면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보호주의 추세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다자주의 원칙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질서 확립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는데, 그 결과 출범한 것이 1986년 9월에 시작된 GATT의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였다. 즉 UR의 추진은 불확실성에 빠진 세계무역질서를 자유무역 원칙을 토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자간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유럽의 EC 회원국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고실업을 해결하고 일본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당시까지 관세동맹에 머물고 있던 EC의 경제통합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2년까지 EC를 단일시장으로 변모

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유럽법(SEA)이다. 이 법이 1988년에 EC의 각 회원국에서 발효되자 비유럽 국가들은 처음에는 EC의 이러한 움직임을 유럽 요새화(Fortress Europe)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더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논의를 시작하는 등 EC의 단일시장 추진은 점차 세계적으로 지역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을 추동한 요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제무역의 불안정성, 불확실성뿐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과 체제전환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규정하던 알타체제, 즉 동서 냉전체제가 점차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정치, 외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소련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들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은 세계경제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안요인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다가왔다.

위와 같이 1980년대 후반에 세계경제에 밀어닥친 격랑의 물결은 대한민국에 있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었다. 한국경제는 1980년대 중반에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현상이라는 대외여건의 호전과 안정화 정책으로 다져진 경제체질 강화에 힘입어 1986년에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바 있으며, 1987~1989년 사이에는 연 11%가 넘는 고성장과 함께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경제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상응하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오랜 수출주도 성장이 낳은 부작용과 불균형의 시정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강화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해 대외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도적 전환이 점점 더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9년 들어 한국의 수출은 해외로부터의 수입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결국 다음 해인 1990년에는 다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말았다.

2. KIEP 설립의 목적

1980년대 말에 닥친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 중에서 특히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당시 국내에서 확산되었다.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중요한 무역대국의 하나로 부상한 한국은 과거처럼 수동적으로만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는 안 되며, 세계경제의 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내외 여론 주도층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토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전담할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IIE), 독일의 키일(Kiel)연구소,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에는 해외경제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연구기관들이 설립되어 있었다. 당시의 한국에도 경제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이 다수 있었으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경제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고,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외 산업과 기술경제에 특화된 연구기관으로서 일부 무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는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국내 산업연구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을 뿐 대외경제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은 아니었다. 대외경제 문제는 특히 국내 경제주체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국내경제 연구와 병행할 경우 중립적이고 올바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989년에 대외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전담할 KIEP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의해 1990년 1월에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식 출범한 KIEP는 위에 서술된 것처럼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질서 개편 과정에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외경제정책 수단을 연구·개발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IEP는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과 세계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 및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되, 그 방법론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는 연구기관이 될 필요가 있었다.

3. KIEP의 주요 기능과 활동

설립 초기 KIEP의 연구 분야 중 국제경제정책 분야에서는 당시 주요한 대외경제 현안이었던 UR 협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EC 통합이 세계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 현황과 대응방안, OECD 가입 여건 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제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간 아·태 협력 구상과 대응전략 연구, 2000년을 향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전략,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전략과 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아세안 경제협력 증진방안, 흑자 시대의 해외투자정책과 대개도국 진출전략, 베트남의 경제개발 현황과 우리의 진출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북방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한민국 접근전략과 우리의 대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일본 및 대만의 대중국 경제교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 대소련 지역별 진출전략, 동구 각국의 산업 현황과 우리의 협력전략 연구, 북한의 교역 현황과 남북경제교류 전망,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추진 현황과 우리의 대응전략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활동 이외에도 KIEP는 연구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특히 KIEP는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석학들과 주요 국제기관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을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과 상호 활발한 토론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KIEP는 우리 국내의 국제경제 관련 연구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교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KIEP가 개최한 국제세미나 중에서 특히 EC의 경제통합, 한·미 간 경제정책 협력, OECD와 NICs(신흥공업국) 간 워크숍, 1990년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각국 경제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국제세미나 등은 국내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제세미나 개최 이외에도 KIEP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에 설립된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운영, 대외경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축적의 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로 성장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KIEP는 소수·정예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순수한 학술적 연구보다는 정책연구와 정책수단 개발을 위한 실질적 연구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해왔다.

위와 같은 KIEP가 처음 출범할 무렵의 주요 기능과 활동은 그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 변화에 발맞추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 강화되어왔다. 특히 1997년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로 KIEP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비롯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였으며, 당시 정부에 의한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의 결과 KIEP의 해외지역연구 분야가 더욱 강화되고 세분화되었다. 1998년에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외경제정책 핵심 과제의 하나로 채택함에 따라 KIEP는 FTA 정책의 로드맵 작성에서부터 소규모 경제권인 칠레에서 시작하여 미국, EU, 중국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들과의 FTA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어젠다협상(DDA)이 출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전통적인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라는 세계경제의 두 가지 흐름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밖에도 KIEP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ODA의 확대와 개발협력 정책 수립,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중국 각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신흥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방안 연구를 국내에서 주도해왔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일 경제관계의 근본적인 조정,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 경제관계의 변화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외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로서 KIEP의 역할과 기능은 계속 변화·발전할 것이며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KIEP**

2.

KIEP 30년사의 구성

김 준 동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KIEP 3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경제가 국제경제환경에 노정(露呈)되어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된 글로벌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KIEP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의 초기에 편집진이 당면한 과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지난 30년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원의 지난 30년간의 업적들은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과 같이 특정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해외지역연구의 경우와 같이 개원 이래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그 시기를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 편집진은 시대적 접근방법과 주제별 접근방법을 혼용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즉, 시대적 구분은 과거, 그리고 현재 및 미래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었거나 연구하고 있고 향후 연구할 세부 주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다. 주제별 접근에 있어서는 본원의 30년 업적에서 큰 획을 긋는 연구주제들을 선정하였다.

우선 「KIEP의 발자취」라고 명명하여 과거의 업적을 정리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국제거시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세계 경제 전망 및 국제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를 다루었다. 전자에서는 OECD가입, 외환위기와 FDI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한 업적을 정리하였다. 후자에서는 본원에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의 연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주요국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응 관련 연구도 정리하였다.

두 번째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DDA 출범과 대응’, ‘APEC에 대한 주도적 기여’,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에 대한 업적을 정리하였다.

세 번째 해외지역연구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해외지역연구의 특성상 별도로 세부 주제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으로 명명하여 지난 30년간 본원에서 해외지역연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원에서 그동안 수행한 해외지역연구가 너무 방대하여 편의상 20년사를 집필하였던 2010년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KIEP의 발자취」 중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일 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글로벌 환경·자원 문제와 국제협력 확대’ 등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제3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KIEP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이라는 큰 제목을 설정하여, 국제거시금융 연구, 국제통상 연구, 세계지역 연구(중국경제 연구, 선진경제권 연구, 신흥경제권 연구)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연구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신흥경제권 연구는 신남방경제 연구와 신북방경제 연구를 포괄한다.

그 외에도 제4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세계적 위상 제고를 TTCSP 순위와 MOU 체결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현임 이재영 원장님의 취임 시 향후 3개년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정리하고, 2020년 사업계획을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라는 제목하에 요약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연구 지원활동을 맡고 있는 연구조정실의 업무를 각 팀별로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본원의 업적을 한 권의 책자로 담아 전·현직 임직원들의 열(熱)과 성(誠)을 다 정리하는 것은 무리한 작업일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한창일 때 설립되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기여하기까지 본원이 정부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해온 과정은, 본원의 전·현직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글로벌 도전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응해온 시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KIEP**



02

제 2 부 KIEP의 발자취

I. 국제거시금융

1.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세계경제 전망 및 국제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II. 국제통상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DDA 출범과 대응
2. APEC에 대한 주도적 기여
3.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

III.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

IV. 국제협력

1.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일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3. 글로벌 환경·자원 문제와 국제협력 확대
-

I. 국제거시금융

1.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왕 윤 종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



KIEP 30년의 발자취를 국제거시금융 분야에서 살펴봄에 있어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OECD 가입 및 이후 OECD 관련 연구,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추진된 외국인직접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연구,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연구는 지난 KIEP 20년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주제다. 필자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재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데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1. OECD 가입과 한국경제의 선진화

1994년 2월에 개최된 「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이 OECD 가입을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한국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가입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한국경제 설명자료 작성 및 OECD 사무국이 회원국들에 회람하는 자료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1년 출범한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다. OECD 회원국이 된다는 의미는

이른바 '선진국 그룹'에 합류한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비판 여론이 강했다. 당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회원국이었다. 아직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못 되는 국가가 무슨 OECD냐는 비아냥거림의 목소리도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OECD 가입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려면 폐쇄적인 금융 및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했다.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외화부채가 증가하게 되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늘 잠재하게 된다. 튼튼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OECD 가입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국제기구로서의 OECD는 장점이 많다. 우선 회원국간에 경제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 및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정책 교육의 현장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현장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OECD에 가입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실익이 있겠냐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의 속도 조절에 신중을 기하였고, 이를 회원국

에 설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마침내 1995년 4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OECD 가입준비사무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19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는 한국가입초청을 결정하였고, 동월 25일에는 OECD 가입협정에 서명하였다. 가입협정 서명식에 참여하였던 필자는 이제 한국경제가 선진화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를 남겼구나 하는 보람을 느낀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에서 송유철 교수는 한국의 OECD 가입이 갖는 의의 및 효과를 잘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정책연구의 측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이 수행했던 OECD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OECD 가입이 과연 우리 경제의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얼마만큼 선진화에 기여하였냐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OECD는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지금과 비교해 볼 때 OECD의 위상이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환경, 경쟁정책, 노동, 국제투자, 부패방지 등 향후 WTO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이 선행적으로 OECD에서 논의되었다. 따라서 OECD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가장 발 빠르게 접촉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寶庫)였다. 지금보다는 확실히 정보의 부족에 목말라 하는 시절이었기에 OECD 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보고서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 공급원이었다. OECD 가입 이전에는 주로 OECD의 논의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가입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포지션을 정하는 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가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입 이전의 대표적 연구로는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김태준 1990)과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과 한국의 자유화』(김태준 1992)가 있다. OECD 가입에 앞서 OECD 양대 자유화규약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자본자유화의 과제를 제시한 가장 앞선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무역과 경쟁정책: OECD의 논의』(김정수 1993),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홍유수 1993), 『OECD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김학

OECD 논의현황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정책 세미나



수 1994) 등 국제규범 및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려면 OECD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후 다른 정책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제도를 연구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OECD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가입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는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왕윤중 1995)라는 보고서를 필자가 작성하였다. OECD 투자규범은 1961년 OECD 설립 당시부터 제정된 양대 자유화규약(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1976년 제정된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또한 OECD는 기존의 투자규범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다자간 투자협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동 보고서는 OECD 투자규범의 소개와 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개선 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와 김준동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김준동·왕윤중 1996) 제하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향후 추진 계획을 OECD 회원국들에 소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에 관한 영문 보고서와 논문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당시만 해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영문 보고서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의 세계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OECD 가입 즈음에 발간된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채 옥 외 1996) 보고서는 한국의 OECD 가입 추진 배경과 득실을 분석하고 OECD 가입 이후의 대책에 관해 상세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입과정에서 OECD 각 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 대상이 되었던 금융, 자본이동, 국제투자, 환경, 재정, 무역, 노동, 농업 등 분야별 협의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경제의 선진화와 OECD 가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997년 말 한국에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파고를 헤쳐나가지 못하고 결

국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적 국난을 경험해야 했다. OECD 가입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자본자유화의 비용이 이렇게 큰 것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OECD 가입 이후에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왕윤중 외 1997)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성봉 외 1999)은 OECD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다.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한국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OECD의 기업지배구조 논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OECD 부패방지협약에 관한 연구로는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김종범 1998),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장근호 1999) 등의 연구가 있다.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패방지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된 연구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OECD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이성봉 외 1998),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강성진 1999) 등은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면서 관련 과세 및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이 정책적 과제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규범은 과세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의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 올 1999), 『무역과 경쟁 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 경제의 시사점』(윤미경 외 1999),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양준석 외 1999), 『OECD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 과제: 농업』(송유철 외 2000), 『OECD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 과제: 환경』(윤창인 2000),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양준석 외 2001),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 논의를 중심으로』(윤창인 2004), 『OECD/DAC 주요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권 올 외 2009) 등 OECD 주요 위원회의 논의를 잘 정리한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이후 『OECD

DAC의 ODA 평가체계와 한국의 개선과제』(권 올 외 2012), 『OECD DAC 각료급 회의 개최결과와 정책적 시사점』(권 올 외 2016) 등 ODA 관련 연구를 제의하고는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소개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KIEP의 정책연구가 단순히 OECD의 논의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더 주제별로 심층적으로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에서 김관호 교수는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계화의 방향과 개념의 정립, 외국인직접투자 연구의 중추적 역할, 해외직접투자 연구의 본격화, 신통상의제의 선도적 연구를 잘 정리한 바 있다. 김관호 교수의 정리를 참고로 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경제의 세계화 추진과 연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선 필자가 집필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왕윤중 1994)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단순히 자본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기업의 기술과 경영기법 등 긍정적 파급효과에 주목한 연구다. 사례연구와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기술이전효과의 국내 파급경로를 파악하고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소개하였듯이 필자는 OECD 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외국인투자의 개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분석한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왕윤중 1995)를 발간하였다. 또한 김준동 박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김준동 1996),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김준동 1997) 등 두 개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전자의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의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긍

정적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했고, 후자의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김관호 교수가 언급하고 있듯이 당시만 해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환경은 대단히 폐쇄적이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였다. 우리 경제가 개방화,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통해 외국기업과 경쟁함과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외국기업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경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OECD 가입 이후 1997년 4월 OECD와 공동으로 다자간투자협정(MAI)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동년 7월 같은 주제로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당시 OECD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해서는 김관호 교수의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양자간 투자협정과 MAI의 비교』(김관호 1996), 『최근의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김관호 외 1998)가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M&A형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왕윤중 1996),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국경간 M&A의 역할』(왕윤중 외 1998)이라는 제하의 두 권의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전자는 공장신설 및 증설 등 공장설립형 외국인직접투자(Greenfield FDI)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못지않게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연구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M&A형 외국인직접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후자의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헐값으로 매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점에 작성되었다. 환율이 크게 치솟아 우리 기업의 가치가 달러 표시 기준으로 크게 떨어졌던 점은 사실이며, 헐값 매각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 유동성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점을 최초로 강조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풍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시장경합성의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도 본격적으

로 수행되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산업 공동화, 국내 고용의 감소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아울러 외국시장의 접근성 개선과 비용우위 등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무역을 통한 세계화에서 직접투자를 통한 세계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면서 국내기업의 활동 범위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대표 집필자로 편집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심층보고)』(왕윤중 편 1998)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원자료를 입수하여 수익성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고, 해외현지조사를 통해 풍부한 사례를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자부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추세에 편승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를 경계한 보고서도 있었다. 『일본 대미직접투자의 전개 및 평가』(김관호 1995)는 일본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충분히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추세에 편승했을 때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는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과 관련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지만수 2002)은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있어서 권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백권호 2002),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오동윤 외 2002) 등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보고서가 활발히 집필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투자대상 국가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외환위기, 국제금융체제, 금융협력 관련 연구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되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등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 상륙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과도한 외화부채를 동원한 몸집 불리기 식의 고도성장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고, 혁신과 지식자본에 기초한 경쟁력을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신화를 창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국제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도 확장되어,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본격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선 관리변동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환율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었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자본이동에 따른 영향 분석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또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편, 지역금융협력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체계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하에서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체제 개혁, 지역금융협력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필자는 IMF 측 실무진과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작성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 초 재정경제원에 파견 근무를 하게 된 필자는 IMF 측이 요구하는 거시경제 및 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의향서 작성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참가하였다. 물론 고위급 회담에서 최종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결정되지만 실무진이 작성한 의향서의 초본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IMF의 프로그램은 외환시장의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방, 자본자유화,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998년과 1999년에 출간된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 I, II』(왕윤중·이성봉·장형수·황상인)는 한국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

고, 이행상황 및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보고서였다. 세계은행 출신의 장형수 박사가 같이 참여한 동 보고서는 단순한 홍보자료의 차원을 넘어 한국에 적용된 IMF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고 있어 아직도 소중한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당시 학계에서는 IMF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책임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릴 수만은 없었다. 중요한 점은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해외로부터의 차입도 정상화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대외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내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동 보고서의 제 II 권에서 필자는 “지나치게 국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던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IMF 프로그램이 가져온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킨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년사』에서 회고한 바 있듯이 필자는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업 활동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기에는 정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와 이에 따른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은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흔히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통화당국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본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하게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기에, 기업의 환위험 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필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왕윤종 외 1999)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집필했다. 동 보고서는 우리 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

험 관리실태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었다. 반면에 대만의 경우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대만 수출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변화된 환율제도하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2000년에 발간된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정재식·양두용·주상영 2000)는 국내에서 최초로 외환시장 자유화가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다. 외환시장의 미시적 구조에 관한 이론과 합리적 기대 가설의 틀 안에서 외환시장의 효율성이 자유화 이후 얼마만큼 제고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자본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와 자본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보고서도 출간되었다. 필자가 참여한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왕윤종·김성현·김소영 2001),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강삼모·왕윤종·김성현·김소영 2002) 영문 보고서는 당시 한국경제에 관한 국내 보고서가 대부분 국문으로 작성되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인지도를 높였다. 아울러 영문 Working Paper 시리즈가 활발히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해외학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외 인지도는 계속 상승하였고, 그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전 세계 8,162개 연구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평가에서 2019년 국제경제정책 분야에서 세계 5위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1위를 차지했고 벨기에 브뤼겔(Bruegel),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오스트리아 빈국제경제연구소(WIIW) 등 세계 굴지의 연구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 새삼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강삼모·왕윤종 2002)은 변동환율제

도하에서 환율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수출가격의 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세계시장에서 가격 설정자로서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환율이 절상되는 시기에 달러 표시 수출가격을 상승시킬 수 없어 기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수출기업은 환율이 절하될 경우에 채산성이 개선되고 환율이 절상되면 채산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가격설정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채산성 확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세월이 상당히 흐른 현재, 과연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만큼 가격설정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국제금융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1999년 9월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간의 협의체(포럼)로 G20이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포럼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포럼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기에 이른다. G20 포럼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개 신흥시장국이 참여하는 포럼으로 우리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동 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는 국제금융체제 개편 문제는 정책적으로 연구 수요가 크게 증대된 주제였다. 이에 필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진과 함께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김세직·양두용·왕윤중·황상인 2000)를 집필하였다. 동 보고서는 당시 IMF에서 논의되고 있던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로써 CCL,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외채의 경제적 효과와 효율적 관리방안, 민간 부문의 책임분담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필자가 존경하는 박영철 교수님과 함께 집필한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2000)는 Working Paper 형태로 발간되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하버드 대학의 Jeffrey Sachs 교수, 일본 게이오 대학의 Sakakibara 교수(전 일본 재무차관), UC Davis의 Wing They Woo 교수와 MIT 대학 출판사에서 연 3회 발간하는 저널 Asian Economic Papers(AEP)를 2002년 출범시켰다. 위에 소개한 논문은 AEP 창간호에 실렸다. AEP는 명실공히 아시아 경제에 관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저널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과학 분야의 SSCI 등재지가 되었다. AEP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을 집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컨퍼런스 프로시딩 형태로 발간된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사공일·왕윤중 2000)는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이 국제금융 분야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포럼이 정상급 회의로 격상됨에 따라 존경하는 사공일 박사님께서 대통령의 고문 역할로 국제무대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하셨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가 중요한 주제였다면 지역 차원에서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역금융협력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포괄적인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ASEAN+3 재무차관회의에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역내 금융지원 메커니즘의 수립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ASEAN 통화스와프협정에 한국, 일본,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같은 해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소위 치앙마이 구상(CMI: Chiang Mai Initiative)이라고 불리는 역내 양자간 통화스와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역내 금융협력은 비록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꾸준히 발전을 거듭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양자간 통화스와프협정이 다자간 형태로 전환되었다. 또한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

필자가 집필에 참여한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왕윤중 외 2000)은 이 분야 연구의 시초였다. 영문 보고서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es”(왕윤중·김태준·유재원 2000)는 양자간 통화스와프협정을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조종화 외 2001)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한 단계 진화 발전한 형태로 통화협력에 대한 구상을 다루었다.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신관호·왕윤중·이종화 2003)는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이 유럽과 같이 역내 공동통화의 도입과 같은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할 경우에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로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도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02년 국내 국제금융 분야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영문 보고서 “Currency Union in East Asia”(주한광 외 2002)가 출간되었다. 필자는 지역금융협력과 관련한 연구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영철 교수님과도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연구했던 내용을 정리한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Beyond”(2005)는 세계경제 분야의 대표적 저널인 The World Economy에 실렸다.

4.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 연구

필자는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떠나 민간기업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 연구소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늘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참고자료로 유용했다. 따라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널리 읽힌다는 점을 현재 재직 중인 연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하고자 한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시경제 분야의 주요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4년에 발간된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양두용 외 2004)라고 생각한다. 동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수준이 얼마나 발전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실물경제에 비해 우리 경제의 금융산업은 충분히 국제화,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필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보고서라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고인이 된 안형도 박사의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은 같은 맥락에서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연구한 보고서다. 금융산업의 발전은 때로는 실물부문을 견인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로의존성이 작동한다. 하루 아침에 한국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에는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라는 큰 제목하에 세 편의 보고서가 집필되었다. 적정 외환보유고의 규모 추정, 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도의 통화정책 등 각각이 모두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의 추정은 제2의 외환위기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일차적인 방어 수단의 확보에 관한 연구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 체제하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통화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통화정책의 이슈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직접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타 연구기관에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즉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기관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책연구기관이 쓴 소리를 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

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용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통화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덜란드는 독일이 금리를 변동하면 불과 15분 만에 똑같이 금리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다. 초대 유럽중앙은행장인 네덜란드 중앙은행장 출신의 Wim Duisenberg가 Mr. Fifteen Minutes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이동이 순식간에 가능한 개방체제하에서 아직도 환율 안정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다.

2006년 양두용 박사는 두 편의 영문 보고서를 편집·출간하였다. 당시로서는 두 주제 모두 글로벌 거시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한다. 제목을 보면,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양두용 2006)와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다. 당시 글로벌 불균형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서 유동성은 풍부했고, 국제금융시장이 평온한 것으로 보였지만, 과다 유동성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잠재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보고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잘 짚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후자는 한·중·일 3국간 거시금융 분야의 공동연구로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2007년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야(前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야 연구로는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송원호 외)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제금융 전문가들의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가 미진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견잡을 수 없이 국제금융시장은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야 연구를 보면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조종화 외),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오용협 외),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윤덕룡 외) 등의 연구가 있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소 거리가 먼 주제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

다. 이러한 문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 주제가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연구 주제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제도적 경직성에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구 주제의 신속적인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09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연구들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모색』(윤덕룡 외),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재편과 시사점』(오용협 외),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윤덕룡 외),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 의존도의 합리적 조정』(윤덕룡 외), 『금융위기 중 외환시장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 외국인 채권투자와 해외펀드의 환헤지 행태를 중심으로』(허인 외) 등 비교적 다른 연도와는 달리 거시경제 분야의 연구가 많았다. 2010년에도 외환시장, 국내 채권시장 등 대외충격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한 실증분석이 포함된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2012년에 발간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동은 외)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경과된 시점이긴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등 새로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의 거시금융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다. 특히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였던 구제금융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구제금융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라 마땅히 정리되어야 할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킴으로써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 건전성 정책을 통한 보완과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적 완화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에 집착한 결과 오히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일부 회원국의 재정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인 재정정책의 효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재정승수가 추정된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수단을 사실상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 발간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임태훈 외) 역시 주목할 만한 연구보고서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국제자본이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요인을 추적하는 것은 자본 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선진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의 자본흐름에 미치는 요인을 세계적 요인(Push factor)과 개별 국가의 특성 요인(Pull factor)으로 구분하여 주식과 채권자본의 순유출입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자본흐름에 전 세계적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항시 글로벌 위험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별 국가의 펀더멘털 요인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할 경우 그만큼 세계경제의 돌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KIEP**

2.

세계경제 전망 및 국제거시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안 성 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국내총생산 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대외개방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는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거시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외환경을 편견 없이 균형 있게 파악하는 일은 정책 수립 과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이기도 하다. 본원은 설립 초기부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본원이 발간하는 다양한 연구 저작물 중 한 축을 꾸준히 담당해온 부분이 ‘세계경제 전망’인 것에서 드러난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성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4.5%로 성장하던 세계경제는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연 3.6%로 성장하며 속도가 둔화되었다. 안정적 다자질서 속에 글로벌 가치사슬이 고도화되면서 효율성을 높여온 세계화는 여러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면서 국경간 장벽을 높이는 보호주의를 가져왔고, 이어 최근에는 주요국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의 고령화, 양적완화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의 지연, 자산가격 버블과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절에서는 먼저 ‘세계경제 전망’의 연혁과 발간 절차를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다시 높아진 대외 충격에 대한 관심 및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에 관련
한 본원의 국제거시연구를 돌아보고자 한다.

1. ‘세계경제 전망’의 발자취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본원에서 출간된 첫 번째 연구는 『1990년대 국제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이다. 이 연구를 통해 1990년
대를 시작하면서 1980년대와 구별되는 대외환경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머리말에서 “가속되고 있는 소·동구권의 변화와 동서경제교
류의 확대, 동·서독의 통일, 1992년으로 예정된 EC 통합,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 금년 말로 다가온 우루과이라운드의 마무리 등은 모두 90년대의 국
제경제질서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세계화와 지역
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당시의 급박했던 대외환경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세계경제 전망’이 지속된 연구로서 구체화된 것은 1992년 말 발간된 『1993년도
국제경제환경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유장희 1992)부터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통화기금(IMF)과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세계 및 각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인용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해석과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련의 보고
서 제목에 ‘세계경제 전망’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면서 경제 전망 보고서로서 체계
화된 것은 『1994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유장희 1994)에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상 진행과 함께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개방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상승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
하여 국제금리, 환율, 유가 전망 등을 포함하였으며, IMF, OECD, 세계은행(World
Bank), 중국국가통계국, 세계통계조사연구소(DRI) 등 다양한 기관의 전망치를 인
용하면서 주요 상대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서언에는
“본 보고서는 94년 세계경제 전망수치의 제시보다는 여러 경제예측기관의 전망을
소화하여 94년 세계경제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세계경제

를 보는 시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정책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고 하면서 경제 전망에서 해석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외환위기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였던 1997년 말에는 1998년 전망 보고서를 발
간하지 못하였으나, 1999년 전망부터는 1998년 10월 창간되어 2006년 9·10월
호까지 발간된 월간 『KIEP 세계경제』의 각 연도 12월 특집호로 공개되었고, 이
를 묶어 정책연구 혹은 종합심층연구의 형태로 출간하기도 했다. 이 시기부터는
정책 보고서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고 현황, 전망 및 이슈를 주로 다루는 전망 보
고서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전 보고서의 한 축을 이루며 세계경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응을 제시하던 ‘대외경제정책과제’ 부분이 제외되었다. 2007
년 전망부터는 「오늘의 세계경제」의 형태로 발간되었으며 국제금융시장, 국제통
상환경, 세계지역경제의 세 부분으로 정립되었다.

세계경제 전망이 최근의 형태를 갖춘 것은 2012년 전망부터다. 구성을 살펴보
면 먼저 ‘세계경제 전망’에서는 세계경제성장률과 국제금융·상품시장 및 통상환경
의 변화를 전망하고, 다음으로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서 세계성장의 주요 리스
크 요인을 다룬 후, ‘주요 지역별 경제 전망’을 소개한다. 2013년 전망부터는 연
중에 업데이트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연 2회 발간체계를 갖추게 된다.

2. ‘세계경제 전망’ 발간 절차

전망 보고서로서 KIEP 세계경제 전망이 발간되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세계경
제 성장률 전망치와 세계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보고서 작성 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보고서 집필진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지역
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원은 다
양한 발간물을 통해 지역의 경제 현황과 이슈를 소개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전망
은 각 지역의 이슈들이 어떤 방식과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힘쓴
다. 비록 작은 규모 경제에서 발생한 사건도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리스

크가 증폭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작업은 보고서 발간 6주 전, 집필진을 구성하면서 시작된다. 거시금융, 무역 통상 및 각 지역 연구자로 구성된 집필진은 35명 내외이며 발간 5주 전에 열리는 준비회의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주요 이슈와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회의에서 큰 주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각 집필진이 수집·분석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간 3주 전 초고를 취합하고 모든 집필진이 참여하는 초고 검토회의를 거친다. 보고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경제성장의 변화를 설명하는 공통요인인 미국 달러화를 위시한 주요 통화의 환율과 금리, 유가 및 곡물가격을 포함한 상품가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교역량 변화가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주고받는 영향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 간 상호작용도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집필진 상호간에 토론을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초고회의가 4시간까지 길어지기도 한다. 초고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 원고의 취합은 발간 2주 전에 이루어진다. 각 부문 집필진은 수정 원고를 통해 각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국제거시금융실의 전망 총괄팀은 이에 기반하여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도출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최근에는 세계경제 전망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대응해야 할 대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 전망'의 발행 초기에는 해외 주요 전망기관의 전망치를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9년 이후 정책대응 부문을 줄이고 전망 중심의 보고서로 재편한 이후 자체 전망치 산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2011년부터 본원은 주요 지역 및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전망치를 요약하여 보고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지역별 성장률과 세계경제 성장률 사이의 이론적 괴리에 있다. 각 지역 전문기관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더욱 심도 깊은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좋으나, IMF, OECD 등이 발표하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이들의 가중 평균치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세계 간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된

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지역 연구자의 분석에 따라 각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취합하고, 이를 종합하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산한다. 한편,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의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경우 KIEP 거시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 본원은 IMF의 세계경제 분석 모형인 GIMF(Global Integrated Monetary and Fiscal Model)를 우리 경제에 맞도록 수정한 모형과 옥스퍼드(Oxford)사가 개발한 옥스퍼드 글로벌 거시모형(Oxford Global Economic Model)을 시나리오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독립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 집필과 관련하여 최근의 중요한 시도 중의 하나는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다. 본원이 보유한 연구 네트워크의 주요 자산인 '대외경제 전문가풀'은 2019년 10월 현재, 대외경제의 주요 주제별·지역별 8개 연구회, 22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전망부터는 대외경제 전문가풀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계경제 및 지역별 성장률 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KIEP 자체 전망치의 외적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보다 균형 잡힌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외 충격 가능성과 영향

IMF 외환위기 후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러나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충격의 재발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이동은 외 2011)은 중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유가충격,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변동,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 경기의 재침체, 중국 성장률 등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일본 대지진, 미국 9·11 테러, 중국 쓰촨성 대지진 등 재난에 해당하는 충격이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에 미치는 영향』(안지연 외 2011)은 국지적 재난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국제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친 문제는 본질적으로 유동성 위기이나 진행과정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가격변동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환율변동성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지속해왔는데,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윤덕룡·김소영 외 2010),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윤덕룡·강삼모 외 2011),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윤덕룡·김소영 외 2018)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국가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허인 외 2012)에서는 대외채무의 종류와 기축통화 보유여부에 따라 국가채무의 국가 신용도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맞서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양적완화에 돌입하였는데, 이로 인해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입된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산 및 원자재 가격 버블을 형성시키기도 하였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이동은 외 2011)은 글로벌 유동성을 선진국 통화량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의 확대가 국제상품시장과 자금수여국의 거시 및 금융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정영식 외 2018)과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 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안성배 외 2017)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글로벌 저성장 국면 장기화에 대한 대응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조종화 외 2014)는 미·중 간 무

역불균형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였다. 패널 분석을 통해 선진국에서는 재정수지 개선 및 노년층 비율 상승이 경상수지 개선을, 소득불평등의 상승은 경상수지 악화를 가져왔음을 보였다. 향후 정책 추진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제구조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국면의 원인 및 대응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김원기 외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2011년 이후 유럽과 일본의 성장정체에 비해 미국의 차별적 성장 모멘텀이 있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 경제의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사이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나, 투자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강유덕 외 2015)에서는 저성장에 대응하는 유럽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특히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정부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경로를 미리 경험한 일본의 저성장 대응 정책은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 외 2014)에 소개되어 있다.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한민수 외 2016)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국의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구조개혁 및 브렉시트를 들고,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신관호·한치록 2016)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현재는 구조적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 지속가능성이 도전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KIEP**

II. 국제통상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DDA 출범과 대응

강 문 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배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경제를 부흥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개발, 통상, 금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었다. 통상 분야에서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되면서 전후 국제통상질서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한국은 1967년 GATT에 서명하면서 국제통상질서에 편입되었고,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에 근거한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수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후 총 아홉 차례의 다자통상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다자무역체제의 기틀을 확대하고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출범하게 된 협상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다. 과거의 다자통상협상이 관세인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것에 비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업,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부문 등에 규범이 마련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외연이 확대되었고, 더욱 체계적인 분쟁해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규범 측면에서 그 범위와 절차가 대폭 개선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재건을 위해 설치되었던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이어 통상 분야에서 국제기구 설립이 현실화한 것 역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다.

1989년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연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WTO 출범 이후 첫 다자통상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 등 총 9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2001년부터 개시되었다. 그러나 DDA 협상은 2003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의 실패, 2004년 7월 패키지 합의,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추가 합의, 2013년 발리 패키지 합의, 2017년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등을 거쳐 진전되어 왔으나, 향후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DDA 협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던 2002~2008년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야별 협상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정부의 협상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다자무역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을 분석하

[표 1] 다자통상협상의 역사

차수	명칭	연도	참여 국가 수	협상 내용
1	제네바	1947	23	관세협상
2	안시	1949	29	관세협상
3	토키	1950-51	32	관세협상
4	제네바	1955-56	33	관세협상
5	딜론라운드	1960-61	39	관세협상
6	케네디라운드	1963-67	74	관세협상, 비관세조치 등
7	도쿄라운드	1973-79	99	관세협상, 개발이슈 등
8	우루과이라운드	1986-94	117	관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9	도하개발어젠다	2001-현재	164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서비스 등

자료: Hoekman and Kostecki(2009),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고 향후 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인 것으로 평가된다.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관한 연구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통상협상에 대한 국내의 인식이 저조하던 1990년대 초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종합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출간하여 다자통상협상에 대한 통상 연구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내 대중에게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 의제별 협상의 진행상황과 전망』(공동집필 1990), 『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공동집필 1992), 『UR 총점검: 최종협정의 분야별 평가』(공동집필 1993),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공동집필 1994) 등인데, 다수의 연구진이 공동집필하였다. 또한, 분야별 보고서로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방안』(박태호 1990),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손찬현 1990),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김태준 1991) 등이 있다.

이러한 종합보고서 및 분야별 보고서를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체적인 협상 전략과 분야별 협상 전략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정책 제언을 정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는 정책 담당자, 통상 관련 전문가, 국제통상 전공 대학원생 등이 우루과이라운드를 이해하는 데 교과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련 사회적 논의를 유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공동집필뿐만 아니라 분야별 보고서 작성 등 원내 연구 활동을 통해 해당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었고, 이렇게 육성된 분야별 전문가는 국내외 다자통상체제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DDA 협상에 관한 연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WTO 출범 이후 첫 다자통상협상인 DDA 협상이 개시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DDA 협상 관련 연구는 협상의 흐름과 밀접히 연계되어 진행되어왔다. 협상 초기 분야별로 수많은 제안서가 제출되는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당 분야별 협상 분위기를 파악하고 각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는 데 연구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2002~2005년 동안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해 주요 국가의 입장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한국정부에 다양한 협상 전략을 제공하였다.

DDA 협상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관련 보고서와 같이 총괄보고서와 분야별 보고서로 나뉘어 집필되었다. 특히, 분야별로 서로 주고받기의 가능성이 큰 통상협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DDA 협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총괄보고서는 그 의미가 높다고 판단된다. 총괄보고서로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채 욱·최낙균 2000), 『DDA 협상 총점검 - 2002』(최낙균 외 2002),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최낙균·박순찬 2002), 『DDA 협상 총점검 - 2003』(최낙균 외 2003),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서진교 외 2006),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서진교 외 2009),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김준동 외 2012),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서진교 외 2014) 등이 있다. 특히, 상기 보고서 중 일부는 분야별 협상 결과를 복수의 시나리오로 설정한 이후 그 효과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한국정부의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DDA 협상은 분야별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분야별로 쟁점 사항을 선별하고 해당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우리의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DDA 협상의 9개 분야 중 농업이 한국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농업 분야 협상에 특화된 보고서

로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송유철 외 2000),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송유철 외 2002),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안』(송유철 외 2003) 등이 발간되었다.

상대적으로 한국경제가 비교우위를 보유한 제조업을 포함하는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의 경우 관세인하가 핵심 의제였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최낙균 외 2000),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최낙균 외 2001),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최낙균·정재호 2002),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협상방안』(최낙균 2004) 등의 보고서를 통해 CGE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계량 분석을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비스 분야의 DDA 협상은 크게 시장접근과 국내규제 관련 규범 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라는 큰 범주의 협상과 세부 분야에 대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해당 세부 분야 역시 고유의 특징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협상 자체의 어려움과 함께 연구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의 총괄보고서로는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김준동 외 2000),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김준동 외 2000) 등이 DDA 협상의 사전연구로 진행되었는데, DDA 서비스협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김준동 외 2001),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김준동 외 2002),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김준동 외 2003) 등과 같은 세부 분야별 연구가 진행되었다.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핵심 의제 외에도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강문성 외 2002),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윤미경·최윤희 2002),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남상열·권 올 2002),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이창수 외 2004) 등과 같은 보고서가 발간되어 DDA 협상 관련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이 다자무역체제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체제에 초점을 두게 되고 2008년 이후 DDA 협상의 진전이 지연되자, DDA 협상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향후 DDA 협상의 미래,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에 관한 연구로 초점이 전환되었다.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김준동 외 2012)의 연구는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를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법 절차적 문제점, EU 집행위의 역할 부재,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WTO 회원국 간 대립 고조, FTA 확산, 신규 가입국 확대에 의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역학구도 변화 등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서진교 외 2013)의 연구는 무역원활화, 농업의 일부 이슈, 개발 및 최빈 개도국 관련 이슈 등 3개 의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는 발리(Bali) 패키지의 경제

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서진교 외 2014) 연구는 발리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의 작업계획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정부의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서진교 외 2016) 연구는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 DDA 협상 방향의 전환을 예측하고 한국정부의 분야별 DDA 협상대책을 제시하였다.

4. 다자통상체제에 관한 연구

DDA 협상 관련 연구는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기초연구 없이 진전될 수 없으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DDA 협상 관련 연구 외에도 다자무역체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였다. 특히, WTO 내에서 진행된 분쟁해결 사례연구를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려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채 욱·서창배 1998),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 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채 욱·서창배 2001)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국제경제, 국제관계 측면에서 거대한 국가가 WTO에 가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수행되었는데,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9),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정인교 2001),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이재영 외 2007)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DDA 협상의 교착과 더불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다양한 허점(loop-hole)이 제기되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자무역체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서진교 외 2008)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점, 불확실한 규범의 존재, 지역무역협정과 조화 등에 초점을 두고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분석

하였다. 또한, 『WTO 체제의 개혁방안과 우리나라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서진교 외 2018) 연구 역시 WTO 체제의 지배구조(governance) 및 의사결정과정,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미비, 투명성 제고 및 통보강화 방안, 개발도상국 세분류 문제 등의 개혁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다자통상정책을 포용적 통상 강화, 다자통상의 지속 가능성 강화, 양자 및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영국의 EU 탈퇴, 미·중 통상마찰의 심화, 한·일 통상마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전망, WTO의 개혁 방향 등에 대한 통상 전문가, 정책입안자,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증대시켰으며, 그에 따른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KIEP

2.

APEC에 대한 주도적 기여

송 유 철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 출범하였고 북미와 중남미, 그리고 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APEC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8%, GDP의 약 60%,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ASEAN 6개국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각료회의로 출범하였다. 이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었고, 몇 차례의 회원국 확대를 거쳐 현재는 21개 회원국¹⁾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이 출범한 1989년 당시 국제교역질서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라는 두 가지 흐름이 혼재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던 시점이었다. 한편으로는 GATT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UR 협상이 진행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한 인접국가들 간에特惠적 성격의 통상 및 정책협조 관계를 수립하려는 지역주의 경향이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1992년 유럽단일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북미에서도 이에 맞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ASEAN을 제외한다면 별다

1) 최초 12개국에 더해 1991년 중국, 홍콩, 중화 타이베이, 1993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페루, 러시아, 베트남 등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른 지역주의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을 모두 포함하는 APEC은 아태지역의 역동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무역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고히 해나가자는 데 목표를 두었다. 출범 초기 역내경제협력에서 APEC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엇갈린 전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PEC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에 기초한 열린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목표를 공고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왔다. 또한 조직 면에서도 APEC은 정상회의, 각료회담,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로 구성된 국제협의체로 발전하였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의 달성을 장기 비전으로 하여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994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하였다.²⁾

아태 공동체 비전 달성을 위한 이행 프로세스로서 APEC은 보고르 목표로 대표되는 무역·투자 자유화(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Facilitation)와 함께, 경제기술협력(ECOTECH: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비즈니스 원활화(BF: Business Facilitation)를 3대 축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에 따르며, 비구속적(non-binding)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정상회의는 Retreat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정상들 간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한국은 APEC을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국들, 선진국과 개도국, 미주와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과 중국, 아세안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 시한인 2020년에 가까워짐에 따라, 2020년 이후 APEC의 새로운 비전을 도출해내기 위한 APEC VISION GROUP의 활동이 진행 중이다.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은 APEC의 출범과 궤를 같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 제1차 APEC 각료회담부터 각종 회의의 준비작업과 전문가의 회의참석을 주도하였으며,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 준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 개발을 통하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은 APEC의 협력방향 및 방안, 부문별 협력전략 수립, APEC을 매개로 한 역내 경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하여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의 APEC 관련 주요 연구업적과 기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APEC의 새로운 방향 모색

APEC 초창기에는 APEC의 성격 정립과 협력과제의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은 APEC의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5년 발간된 『아태 경제협력의 신



구상』(이재성 1995)은 APEC에서 지향하는 아태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중심으로 그간의 대화와 협의 위주의 느슨한 협력 단계에서 무역자유화, 기술이전 촉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PEC은 역내 경제협력의 구심체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추구를 표방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국지적 블록화를 견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APEC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되어 APEC의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제1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경제공동체(Community of Asia Pacific Economies)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1994년 보고르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 원활화, 기술협력 등 협력목표의 균형 있는 추구(a balanced package of trade liberalization, facilitation, and technical cooperation)”를 골자로 하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APEC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아태지역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및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의 실현을 이루는 데 합의하였다. 제3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오사가 실행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제4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마닐라 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 그리고 경제기술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발간된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안형도 외 1997)는 11개 개별실행계획의 실천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슈별로 핵심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은 마닐라 실행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APEC 각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APEC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논의의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국의 APEC 자유화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선구적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박성훈 2000)은 APEC의 협력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협력수준도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교역체제하에서 APEC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다자간 교역체제하에서 APEC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확고한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과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이경태 외 2001)은 APEC 회원국이 취한 자유화 조치 중 분야별 조기자유화와 개별실행계획은 별로 성과가 없는 반면, 정보기술협정과 지역무역협정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APEC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2. APEC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APEC에서 무역·투자자유화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역내분업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중시되어왔다. 그러나 자유화 이슈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자유화가 APEC 회원국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요구되었다.

1996년 발간된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김상겸 1996)는 APEC 자유화가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의 OECD 가입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정인교 1996)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무역·투

자자유화가 역내무역과 회원국들의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균형 연산모형(CGE Model)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 연구는 APEC 국가들이 회원국 상호간 관세를 인하할 경우, APEC 회원국 전부가 보다 높은 후생수준에 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세인하폭이 증가할수록 각국의 후생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역외국가인 유럽과 기타지역은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APEC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려면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방적 지역주의가 배타적 지역주의에 비하여 오히려 역내국가들과 역외국가들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은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하에 APEC에서의 일방적 무역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보고르 선언의 목표인 2010/2020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997년 발간된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정인교 1997)에 따르면 APEC이 회원국의 발전단계에 차등을 두고 3단계에 걸쳐 순차적인 자유화를 추진할 경우에도 자유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회원국의 후생수준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 연구는 ‘Updating’ 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추진될 경우의 추가적 자유화효과를 분석하고 있어 APEC 회원국 모두에 가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다.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면서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유재원 외 1997)은 부문별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한 후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였다. 보고서에서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통합이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회원국별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한국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미국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이 문제는 무산되고 말았다.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와 관련하여 개방적 자유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배타성의 유지는 불가피하며, 그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한홍렬 1995)은 자유무역시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원산지규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APEC에서의 원산지규정의 제정 또는 조화는,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원산지규정이 갖는 무역장벽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무역이 저해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도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정책보고서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

APEC에서는 무역과 함께 투자 분야에서의 자유화 및 원활화의 중요성도 일찍부터 강조되어왔다.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주요 투자제도의 검토』(김상겸 1996)는 UR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을 발전시킨 APEC 투자협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투자제도의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APEC 투자협정은 회원국들 간의 이해대립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지속적 추진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수립 등의 정책제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부분에서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김상겸 외 2005)은 ‘부산 로드맵’에 기초한 구체적인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2005년 한국의 주도로 추진된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보고르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역원활화와 무역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에 대해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의 관세, 비관세,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장벽이 보고르 목표를 채택한 1994년 당시보다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보고르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김상겸 외 2006)는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의 핵심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무역원활화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APEC 회원국들과 무역거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실시하여 ‘KIEP APEC 무역원활화 지수(APEC Trade Facilitation Indicator of KIEP)’를 개발하였으며,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여 이 지수와 교역규모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의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위의 정량화 작업에 기초하여 APEC이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APEC이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설정한 역내 무역 거래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APEC 경제협력 주요 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김상겸 외 2008)은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 ‘금융협력’과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경제협력 사업 강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김상겸 외 2010)는 APEC 경제통합 활동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한 이후 2010년 13개 회원국에 대한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APEC의 경제협력 활동 성과를 검토·제시하고, APEC 활동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활동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동 연구는 한국이 역내 경제통합 활동에 보다 강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APEC 회원국들이 보고르 선언에서 언급된 자유로운 무역·투자환경 조성이라는 모호하면서도 야심찬 정책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보고르 목표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APEC과 개별 회원국들이 기울인 개선노력은 역내 무역, 투자의 확대와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였으며, 그 가시적인 성과를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APEC의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 이후 APEC 경제통합이라는 과제를 한국이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수·경직적인 제도 재편을 포함한 국내 규범·제도·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의 체질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김상겸 외 2011)는 APEC 결성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결성에 대비하여 역내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의 특성을 검토하고, 경제통합의 효과 배가를 위한 원산지규정 조화 및 통합 방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며 이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WTO 중심의 다자, ASEAN, EU, NAFTA 등의 양자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산지규정 현황을 검토한 이후 APEC 원산지규정 협력이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APEC 원산지규정 협력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가장 현실적이고 정량분석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APEC 역내 인프라 개발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권 올 외 2013)은 2013년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년도 계획(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이 채택됨에 따라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 정비, 정부역량 강화, 금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의 개발과 투자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민간재원 조달 및 민관협력(PPP)과 관련하여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역내 인프라 분야의 기업진출 기반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넓혀나가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APEC 환경상품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임경수 외 2013)에서는 APEC에서의 환경상품 논의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발성 및 비구속성의 원칙’과 ‘정상선언을 통한 추진동력’이라는 APEC 논의 특징에 기인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APEC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국 환경상품의 무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을 수행하여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한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타 일반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환경협상에 대비하여 적절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상품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정 철 외 2014)는 국제무역환경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와 거대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추진 및 복수국간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와 역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가 역내 경제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하게 된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 교역의 상당 부분이 APEC 회원국들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에 따른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및 APEC 경제협력과 아·태지역 내의 경제통합 논의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생산 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을 통한 분업 또는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효과로 연결시켜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중간재 교역 통계를 이용하여 아·태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 및 경제통합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APEC에서 형성되는 생산 네트워크가 회원국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태지역 내의 생산 네트워크 확대를 감안한 정책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아·태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통합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경제통합 논의와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전략과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PEC’s Liberalization Efforts on Environmental Goods”(임경수 외 2015)는 2012년 9월 APEC에서 54개의 환경 상품에 대한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는 합의에 따라 APEC 환경 제품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다른 회원국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보고서는 APEC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상품 자유화 준비과정에서 진행된 추가 논의를 다루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PEC 보고르 목표 이행 현황 점검과 향후 전망』(곽성일 외 2017)은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의 노력은 APEC 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투자의 감소로 보호무역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보고르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APEC은 2020년 보고르 목표 달성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목표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방향 모색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 시사점』(김상겸 2017)은 APEC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통합 관련 논의 현황, 쟁점 및 통합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APEC 경제통합 사업 참여와 기여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회성, 전시성 이슈의 발굴은 지양하되 기존에 APEC 정상 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성과가 부진한 분야, 한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 국내 개혁 과제와 맞물려 진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승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 검토를 제안하였다.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곽성일 외 2018)에서는 APEC이 2018년 핵심주제를 디지털 경제를 통해 역내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기회 창조, 디지털 미래의 수용(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으로 설정한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경제가 생산성 향상, 혁신을 통한 구조개혁 촉진,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강화,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통해 APEC 무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노동력 대체,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등의 위협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APEC 내에서 디지털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규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토대로 적절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PEC은 Post-2020 비전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도상 회원국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 뒤처진 국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APEC 경제기술협력

APEC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는 개도국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양한 경제기술협력

중 핵심적인 중소기업 문제와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APEC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협력방안』(안형도 1996)은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검토하여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벤처자본 관련 워크숍에서 태동되었다. 워크숍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하여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벤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나아가 벤처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으로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토론결과를 요약하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과 수단에 대한 정책제안을 첨부하였다. 이 보고서는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PEC에서의 과학기술협력 현황과 그 중요성을 다룬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홍유수 1996)은 한국이 APEC을 통하여 전개되는 과학기술협력에서 국익을 도모하고 APEC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면 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과학기술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기술력 제고 노력을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고등교육의 혁신, 출연연구소를 비롯한 공공·민간 연구소들의 국제화 장려, 그리고 과학기술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APEC 회원국들의 기술수준과 기술관련 규범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협력은 실상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렇지만 EU의 경험을 고려하면 과학기술협력은 경제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EU의 과학기술협력 경험을 분석하고, APEC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표준적합 및 기술장벽: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손찬현·이시욱 1996)은 역내 기술장벽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EU가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정신으로 상호인정원칙을 채택하여 역내 회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유통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여타 회원국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APEC에서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APEC 과학기술협력은 개도국들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상의 어려움,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실행까지의 초장기성 문제 그리고 역외국가들과의 조화문제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노재봉 1997)는 특히 자원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Eco-Tech 분야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도국의 수요에 맞춘 협력과제의 발굴과 ODA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한국의 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APEC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홍유수 2002)은 APEC 차원에서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2000년 APEC 개별 국가경제의 정보화 실적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APEC 역내의 정보화 격차는 향상되어 왔거나,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Ecotech를 통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47개 경제의 회귀분석을 통해, 소득, 교육, 네트워크정책, FDI, R&D 등이 정보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toward Green and Inclusive Growth in East Asian APEC Economies”(전신영 2013)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도 및 식량안보 향상이라는 공동 난제를 지닌 동아시아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농업생산성 및 생산량 증가와 적절한 농업무역 발전을 통해 식량문제를 개선해 나가되, 연관된 사회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데 APEC의 아시아 지역간 농업무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APEC 회원국간 농업기술 협력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협력을

통해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기술·금융지원,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마련,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인프라 개발, 농산물시장 개방 시의 충격에 대한 대처 등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in Chinese Taipei: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Economies”(이진상 외 2017)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이 정부의 효율적인 중소기업정책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APEC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지하자원, 인구규모, 국토 면적과 같은 풍부한 생산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기술발전 수준,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APEC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4. APEC 정상회담 의제 개발

1993년부터 개최된 APEC 정상회의는 협력의 방향과 완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세미나와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는데 일부는 정책보고서나 정책자료 형태로 발간되었다.

1997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5차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발간된 『제5차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안형도 1997)은 1993년 이후 개최된 정상회의의 결과를 분석한 후 제5차 회의에 임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오사카 회의와 제4차 마닐라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실천방안에 합의한 만큼, 또 다른 협력과제를 추가하기보다는 협력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협력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APEC이 EU에 비교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APEC 정상들이 단기적 성과나 전시효과에 초점을 맞추

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지지하고 아태지역의 공동체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PEC 회원경제의 현황과 대한관계: 밴쿠버 APEC 정상회의 배경자료』(1997)는 APEC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일별한 후, 한국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분야의 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은 일종의 APEC Factbook으로 정책담당자들뿐 아니라 APEC 연구자들에게도 유용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되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매년 정상회담의 결과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에 관한 심층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한국의 APEC 활용 및 기여에 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2018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박은빈 2018), 「2017 APEC 정상회의 결과와 포용적 성장의 향후 전망」(곽성일 외 2017), 「2016 APEC 정상회의 결과와 FTAAP 향후 전망」(정 철 외 2016) 등).

5. APEC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내외 APEC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APEC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Leaders' Education Initiative를 채택하고 APEC의 구체적인 역할개발과 국제기구로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회원국 간의 정보·문화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해 각국에 연구센터(ASC: APEC Study Center)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 27일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원 장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국립 APEC 연구센터(APEC National Study Center)로 지정하였고 이 센터가 APEC 관련 연구기관들의 네트워크인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은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APEC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APEC/PECC Newsletter를 발간하고 각종 APEC 관련 연구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정구현 외 1996)는 APEC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호주,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및 영국의 전문가들은 정치, 무역, 자본자유화, 산업화, 직접투자 등 지역협력의 주요 이슈별로 APEC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이 국제세미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아태지역의 핵심적인 APEC 연구센터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working paper로 발간된 “Assessing APEC Trade Liberalization”(Pangestu 1997)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1997년 KIEP 주최 전문가 초청세미나는 APEC 관련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세미나 결과는 “Challenges for APEC in 1997: A Canadian Viewpoint”(Edwards 1997)로 발간되어 우리나라의 APEC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APEC의 실질적 역할에 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APEC의 새로운 비전과 지역통합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Mckay 2005)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보고르 목표 달성시한과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들의 자유화수준을 평가하여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PEC의 새로운 비전과 관련하여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문휘창 외 2006)나 『APEC 경제협력 주요 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김상겸 외 2008)과 같이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포괄하는 유일한 광역협력체로서

APEC이 어떻게 실질적 협력성과를 창출하는가는 APEC의 발전과 성공을 좌지우지할 관건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APEC 연구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가 기대된다.

6. APEC 관련 정부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립 APEC 연구센터로 지정되어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KOPEC(사단법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가 해산되고 그 고유업무가 APEC 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으로 흡수·이관되어 명실상부한 APEC 연구 중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APEC/PECC과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국제적 네트워킹 추진, 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지원, 연구발주 및 자체적 연구 수행, 각종 연구 결과물 발간, APEC/PECC Korea 웹진 발행, 연례학술대회 및 라운드테이블 소집 등을 통하여 APEC의 발전방향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APEC 회원국의 각종 경제자료를 수집하고 합의된 통계방식에 의거해서 이를 관리하며, 회원국간 주요 경제상황, 현안과제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 정보 및 전문 인력을 이용하여 정부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정책 등을 건의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APEC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KIEP**

3.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

이 홍 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한국의 FTA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다자체제인 GATT 체제로 대변될 수 있다. 세계무역은 GATT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여덟 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화의 범위를 크게 확대시켰고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의 급격한 증가였다. 한국은 이러한 지역주의(regionalism)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해 일찍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1970년대까지 한국 통상정책의 주된 기조는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이었다.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은 1967년 GATT에 가입하면서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은 수출촉진정책으로 공업화에 성공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통상정책은 중상주의 기조를 띤 수출촉진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무역장벽을 높이고 수출을 통한 공업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입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보호무역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 전략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과의 마찰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80년대 산업과 통상정책의 기조를 정부주도형에서 탈규제화와 경쟁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90년대 초 우루과이 협상 타결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고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완화

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GATT/WTO의 다자체제에 바탕을 두고 시장개방과 탈규제화,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1994년 미국이 전통적인 다자체제 고수 태도에서 벗어나 NAFTA를 체결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 지역주의(regionalism) 확산이 가속되었다. 그러나 1998년 11월,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할 의향을 표명하기 전까지 한국은 지역주의 확산이란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국이 지역주의를 포용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국외적으로는 지역주의 확산과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정부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시장친화적인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진행된 지역주의 확산은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은 FTA를 적극 수용하여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 시장을 확보하고 FTA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겪는 상대적 차별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1998년 칠레를 시작으로 추진된 FTA 협상 결과 2004년 말 한국은 칠레 및 싱가포르와 FTA 체결에 관한 실질적 타결을 보았고 EFTA와의 FTA 체결도 순조로워 보였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이 아니었다. FTA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거대경제권, 그리고 우리의 잠재적 시장인 ASEAN, 인도와의 FTA 체결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선진 통상국가로서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지만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해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미국, EU, ASEAN 등을 포함해 5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한국은 FTA의 체결로부터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건설적인 경제성 성과를 내었다. 201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김영귀 외 2014)에 따르면 총 경제성장률 3% 중 FTA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1.19%를 차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로 인해 수출입의 총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양국뿐만 아니라 다자간 교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한국은 다양한 FTA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 세계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한국과의 교역량이 높아 경제통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주목된다.

2.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에서 FTA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3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라는 연구를 시작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공동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FTA와 같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 또는 과거에 일어난 사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해당 경제의 국내총생산 및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경제현상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FTA로 인한 효과를 여타의 요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책변화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인 계량분석(Econometrics)과 일반균형연산(CGЕ: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선제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외에도 정성적인 분석과 문헌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되었다.

2012년 11월, 한·중·일 FTA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이 한·중·일 FTA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 GDP 증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한·중·일 FTA로부터 발생할 경제성장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배찬권 외 2012),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 방안』(조미진 외 2010) 등을 통해 기존 FTA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창재 외 2012),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 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최낙균 외 2013)에서는 동아시아 FTA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문준조 외 2012)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정부 및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제도를 명시하였다.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이시영 외 2012) 연구를 통해 FTA에 대한 국민적 동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한·중·일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부터 한국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이 FTA 체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12년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FTA 선제적 연구를 기발효 FTA의 성과 분석, FTA 체결의 영향 분석, 그리고 FTA의 정책적 방향 제시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1) 기발효 FTA의 성과분석

한국은 2019년 현재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다. 한국은 2000년 초반부터 적극적인 FTA 전략을 추진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협상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다.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발효된 FTA의 성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체결될 FTA의 성과예측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배찬권 외 2012)과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김영귀 외 2014)에서 기존에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FTA 체결 이전 예측 분석, 체결 이후 경제 변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목표 제시를 목적으로 기존에 발효된 FTA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한국의 수입은 10.4%, 수출은 9.8% 증가했고, 제3국과의 교역규모 감소 없이 FTA 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는 등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였다.

하지만 FTA 체결 이후 교역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한·칠레 FTA 및 한·EFTA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의 증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생각했을 때 무역 적자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주 수입품은 칠레의 경우 돼지고기와 포도, 원자재 등이었고, EFTA의 경우 특히 자본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들은 국내의 부족한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 및 ASEAN과의 교역 역시 FTA 발효 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관세 폐지의 효과보다는 FTA 체결에 따른 호혜적인 교류의 활성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 체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상품들이 무관세였으며 ASEAN의 경우 FTA 발효 초기에 특혜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역 증가의 원인이

관세 폐지 이외의 것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향후 체결 될 FTA의 성과를 위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교역패턴이 나타난 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이들 보고서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장려와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FTA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했다는 결과에 비추어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FTA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2013년 수행된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김영귀 외 2013)는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이 동아시아와 추진하는 포괄적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체결하는 FTA의 경제성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앞으로 진행 될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즉, 비관세 장벽 완화와 투자 장벽 감축의 효과를 나누어 각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경우 역내국 간의 교역 증가가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관세장벽 철폐는 중장기적으로 칠레 0.58%, 인도 0.20%, EU 0.63%의 실질 GDP를 상승시켰는데, 이에 비해 비관세 장벽 완화는 칠레 0.61~1.06%, 인도 0.38~0.71%, EU 1.64~2.22%로 관세 철폐에 의한 실질 GDP 상승분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즉 비관세 장벽의 완화가 관세감축을 시행할 때보다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관세인하보다는 비관세 장벽 완화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비관세장벽은 국가와 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CGE 모형 내 감축대상 외생변수로 나타난 리스크 프리미엄의 축소를 통해 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되

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역내국 간의 FDI를 고려했을 때 FTA는 FDI를 약 27% 상승시키는데, 이 효과는 지리적 인접성과 FTA의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FTA는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해 역외국의 투자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재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증대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2) FTA 체결의 영향분석

이미 발효된 FTA의 영향분석에서 벗어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는 한국이 FTA를 통해 얻게 될 실질 GDP의 증가와 후생 증가분의 정확한 예측치를 제시해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한·중·일 FTA를 통해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0.32~0.44%, 중장기적으로 1.17~1.45% 증가할 것이며, 후생은 단기적으로 71.98억~98.25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116.11억~163.4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자료의 확보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FTA, 개방에 대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역내국간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생산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최근 동아시아 역내국간 생산과정의 통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분업의 활성화와 상호보완을 통한 생산효율성의 향상 등 FTA 체결을 통한 통합의 진전이 생산과정상 부가가치 창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을 밝혔다. 동 연구는 원산지규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도 함께 분석하였는데 원산지규정상 부가가치 기준이 강화된다면 협상참여국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효과가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참여국의 수가 늘어날수록 분업에 따른 생산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동아시아 가치사슬은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서비스업으로

의 확장을 통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구체적 제언은 향후 FTA의 성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FTA 외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같은 다자간협정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김종덕 외 2014)를 통해 한국이 참여하게 될 경우 주요 논의사항인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이행요건 등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TPP 회원국 내에서 한국의 전 분야 평균 개방수준이 중간정도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개방수준이 높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개방수준이 낮은 분야는 큰 무역 장벽으로 남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와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만 이 연구가 시행되었던 2014년과 달리 한국이 최종적으로 TPP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12월 30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발효되었다.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한국도 CPTPP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이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CPTPP 참여국과 다수의 FTA를 체결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물론 장기적인 차원에서 CPTPP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FTA의 정책적 방향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등의 연구에서 FTA로 인해 나타날 중장기적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FT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하였다. 동 연구는 국민 여론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어려우며, 추진 이후에도 참여가 없다면 FTA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서 여론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일 FTA보다 한·중 FTA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연구가 진행되던 시점에 언론이 한·중 FTA에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며, 오히려 FTA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각각의 FTA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연계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FTA의 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각 FTA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 국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법적 체계와 제도는 FTA의 규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는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해 내재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동, 환경, 기업 등 분야를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특히 노동과 환경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임을 언급하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을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포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15년의 기간 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 FTA의 성공적인 발효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적용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에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KIEP**

III.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

해외지역연구 지평의 확장

이 장 규 전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양 평 섭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



1. 세계지역연구센터 설립 과정

본원의 해외지역연구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북방정책’과 더불어 사회주의권 국가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원의 해외지역연구는 정책연구에 중점을 둔 북방경제실과 기초 지역연구에 중점을 둔 북방지역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다. 연구원은 1992년 1월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의 조사 기능을 흡수하여 부설 북방지역센터를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지역정보센터로 개칭하였다. 199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의 세계화(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북방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정보 수요도 급증했고, 이에 맞추어 해외지역연구 대상도 동서남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해외지역연구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4월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였고, 2011년 4월에는 브릭스 국가의 부상에 맞추어 신흥지역연구센터로 재편하였다. 해외지역연구의 기능 조정 필요에 따라 2013년 8월에 센터를 해체하고 거대 지역연구실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2018년 4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지역연구의 수요 증대에 맞추어 선진경제권, 신북방지역, 신남방지역, 중국 등을 포괄하는 세계지역연구센터를 부활시켰다.

2. 2010년 이전의 지역연구: 북방에서 신흥지역으로

여기에서는 2010년 이전에 본원에서 수행한 지역연구에 관해서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시간적으로 2010년을 선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니고 2010년에 본원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서적을 발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주년 기념 발간서적을 참고하면, 여기에서 기술한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본원에서 수행한 지역연구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개원 30주년 기념 발간서적으로서 아무래도 20주년 이후, 즉 2010년 이후 연구원의 연구성과 및 활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북방정책과 북방 지역연구의 확산, 세계화와 지역연구 활성화, 지역연구의 기능 조정, 그리고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 확대라는 소제목을 만들고, 본원이 수행한 지역연구의 흐름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북방정책과 북방 지역연구의 확산

1980년대 후반 동서 냉전이 완화되면서 유럽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은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개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에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종전의 반공 일변도 노선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은 1989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1990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중국, 이후에는 베트남 등과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주의권 국가 혹은 체제전환국가와의 관계 개선은 필연적으로 경제교류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들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혹은 체제전환국이라는 특성은 우리에게서는 상당히 생소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당시 한국과 북방지역 국가들의 경제교류 확대를 지원하는 연구로는 『중국 경제

특구 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오용석 1991),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백권호 1992), 『중국 수입구조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정영록 1993), 『우리의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이창재 1993),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정중재 1993)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혹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심층적인 지역연구도 발표되었다.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홍유수 1992),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박제훈 1993), 『중국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김시중 1993),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김익수 1993),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이보근 1993),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최수웅 1992), 『중국의 외환관리제도』(양평섭 1993),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정여천 1993) 등의 연구는 해당 지역의 특정 부문, 특정 제도 및 정책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특정 국가 이외에도 관련 경제권역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손병해 1992),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김학수 1993)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2) 세계화와 지역연구 활성화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국제화)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에서 핵심 키워드였고, 이에 따라 해외지역연구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되었다. 세계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계 여러 지역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었고, 해외지역연구에 의한 정보제공을 공공 인프라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확산되었다.

본원에서 북방국가의 지역연구 비중은 여전히 중요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해외 지역연구가 동서남아, 중남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부존자원이 부족하며 국내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무역·투자 진출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였고, 이는 세계화 시대에 구사회주의권, 동서남아, 중남미와 같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의미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당시 예상외로 한·중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났고, 중국

연구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당시 본원의 지역연구 중 가장 빠르게 확대·심화된 분야는 중국 연구다. 종전의 거시적인 연구 이외에도 중국의 산업, 권역별 연구 등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시의성 있는 중국 현지의 1차자료 번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당시의 주요 연구보고서로는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보근 1994),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최수웅 1995),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 관계: 재정제도 개혁을 중심으로』(박윌라 1997),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5),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정영록 1995), 『중국의 공업화 전략과 외국인 직접투자』(전재욱 1996),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조현준 1996),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박상수 1994) 등이 있다.

또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1994),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1995),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1996),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1996) 등의 1차자료가 번역·발간되었고,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최수웅 1994), 『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박윌라 1996), 『일본의 중국 동북3성 진출현황과 전망』(최수웅 1994),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김경호 외 1994), 『환발해만 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 현황』(김경호 1994) 등의 미시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러시아 지역연구는 제도개혁, 정치동향, 투자환경,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개발 등의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이 이슈들에 대한 높은 연구수요를 반영한 것이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이창재 1994),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정여천 1996), 『러시아 수출입 제도』(윤찬혁 1994), 『러시아의 증권제도 및 시장현황』(1995), 『러시아의 자유경제지대 추진현황』(정용주 1995), 『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서승원 1994), 『러시아의 은행제도』(이성규 1994),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이성규 1994), 『서방의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서승원 1996),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송체계』(서승원 1997), 『러시아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제도적 여건』

(정용주 1997), 『러시아의 최근 양대 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최병희 1996), 『한·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정여천 1996), 『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사회현황 분석』(정용주 1996) 등이 있다.

동남아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연구의 중심이 ASEAN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ASEAN이라는 지역통합체의 위상이 갈수록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연구로는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그 시사점』(노재봉 1994), 『ASEAN 자유무역지대의 설립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오상면 1994), 『ASEAN 자유무역지대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원용걸 1996), 『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원용걸 1996),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양평섭 1994)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메콩강 유역 개발 현황과 한국의 참여방안』(정재완 외 1997),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ODA를 중심으로』(김완중 1995),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김완중 1997),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과 과제』(권 율 1997), 『對미얀마 경제협력강화방안: 투자와 ODA를 중심으로』(정재완 1996),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권 율 1997) 등이 있다.

한편 중남미 지역, 서남아 지역은 1980년대에는 우리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세계화 시대에는 이들 지역연구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중남미 관련 조사·연구보고서로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 방향』(김원호 199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분석』(김형수 1996),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정선우 1996)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중남미 국가의 국가편람이 다수 집필되었고, 서남아 관련 조사·연구보고서로는 『한국의 인도 진출전략』(이성량 1996), 『주요 선진국의 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협방향』(조충제 1994) 등이 있고, 『인도 편람』(조충제 1993), 『파키스탄 편람』(이주원 1993) 등이 출간되었다.

3) 외환위기와 지역연구의 기능 조정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정부출연금으

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역시 구조조정의 면제대상은 아니었다. 본원의 지역연구 인력도 구조조정 대상이었지만, 정책연구기관 중에서 지역연구는 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일원화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미주지역, 구주지역, 아주지역 등의 지역을 위주로 연구조직이 구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연구조직의 변화와 함께 지역연구의 목적 혹은 성격 등에도 일정한 변화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하다. 무엇이 지역연구인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갖는 연구가 권장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해외지역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각종 정책, 산업, 금융 등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복합적·정책적 지역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역연구에 대한 방향 설정도 해당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의 지역연구 성과는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경제교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인해 연구 및 정책수요가 많은 국가임에 틀림없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중국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이장규 외 1998), 『중국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서석흥 1998),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전재욱 외 1998),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김익수 1999),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지만수 2002),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조현준 2002)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은 다른 지역, 국가에 비하면, 일차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본원은 수시연구자료를 통해서 이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구주지역에 대해서는 당시 유로화 출범으로 상징되는 유럽경제통합의 심화가 중요한 이슈였다. 이에 대응하여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대EU 통상환경의 변화』(이종화 외 1998),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정여천 외 1998), 『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협력분야의 성과와 발전전략』(이종화 2000),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 모형분석을 중심으로』(이종화 외

2001),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이창재 외 1998)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미주지역에 대해서는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 과제』(조윤제 외 1998), 『한·브라질 21세기 협력 비전과 과제』(김원호 1999),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김홍률 2002) 등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일본 및 아주지역의 연구로는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김양희 외 2001),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김양희 2002),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분석: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이흥배 외 2002),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박대근 외 2002),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분석』(권 올 외 2002),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김홍중 2002)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4) 신흥시장의 부상과 통상협력 강화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에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 등 신흥개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고속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BRICs 국가와 한국은 에너지·자원, 플랜트·SOC 및 IT 부문 등에서 협력이 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원의 신흥시장 연구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9월에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EU 및 일본의 선진국 3개 국가(지역)가 동시에 경기불황을 겪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진국 시장을 대체하는 의미에서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신흥시장의 개척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BRICs 국가 등 신흥국가의 고속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이들 신흥국가에 대한 지역연구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7년에 발간된 총 13권의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김홍중

외 2007)은 본원이 수행한 신흥시장 연구의 대표작이라 부를 만하다. 그 밖에 본원에서 수행한 BRICs 등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당시의 지역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에 대한 연구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지만수 외 2004),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지만수 외 2005),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박월라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이장규 외 2006),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신구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정형곤 외 2007),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이승신 외 2009),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2, 3 권)』(이장규 외 2009)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 방안』(유태환 외 2005),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이순철 외 2006),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조충제 외 2010),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이순철 외 2007), 『한·인도 CEPA 이후 대(對)남아시아 통상정책』(조충제 외 2010) 등의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정여천 외 200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이재영 외 2006),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이재영 외 2007),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이재영 외 2010) 등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연구로는 『對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김원호 외 2004),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김원호 외 2004),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김원호 외 2006),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권기수 외 2010),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김진오 외 2010), 『한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성과와 과제』(권기수 외 2009) 등을 들 수 있다.

BRICs 국가를 제외한 새로운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간략히 소개하면,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김홍중 외 2004),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김홍중 외 2003),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통상확대 전략』(김홍중 2002),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박복영 2004),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박복영 외 2006),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박복영 외 2006),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 기업의 진출확대방안』(김홍중 외 2003),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이재영 외 2007),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박영호 외 2009),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박영호 외 2010),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정인교 외 2003),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권 율 외 2003)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3. 2010년 이후 지역연구: 지역연구의 심화와 융합 강화

여기에서는 2010년 이후 연구원의 해외지역연구의 방향과 성과를 살펴본다. 201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해외지역연구 방향이 조정되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의 새로운 수출 활로로 부상한 브릭스 국가에 대한 연구 수요가 급증했고,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2011년 4월에 세계지역연구센터를 신흥지역연구센터로 확대·개편하였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해외지역연구는 신흥시장과 전략지역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미·중 통상 갈등 등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출로를 찾아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맞추어 연구원의 해외지역연구도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본원은 중국 시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

북방지역 및 싼남방지역 등의 싼흥지역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본원은 국내 해외지역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해외지역연구 수요가 복잡다기화하면서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학제간 융복합형 지역연구 필요성이 증대되어 연구원의 지역연구가 종합연구로 발전해갔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중국종합연구와 세계지역전략연구 사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지역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원은 국내 모든 지역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싼흥지역 통합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지역대학원과 함께 공동으로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사업(GPAS)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지역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전문가 사이트(CSF)와 싼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도 운영하고 있다.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략지역 연구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경제권의 위축을 대신할 시장으로 부상했던 브릭스 국가들의 고속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이들 싼흥국가에 대한 보완적 시장으로 전략지역에 대한 연구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2011년 4월에는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싼흥지역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중국, 인도, 아세안,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경제협력 대상지역(국가)에 대해 심층연구를 확대하였다.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큰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장기적,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폭넓게 협력의 토대를 다져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싼흥경제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신흥경제국 투자 및 교역 증대, 자원에너지 확보, 가치사슬에 기반을 둔 산업협력 고도화 등 경제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9~2010년간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인도, 동남아(아세안), 2012

년에는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2014년에는 터키·동유럽으로 지역을 넓혀 심층연구 사업을 수행한바, 2015~2018년간 주요 싼흥경제권을 총망라하는 ‘포괄적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으로 확대·보완하여 추진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북방지역, 중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등으로 연구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2009~2018년) 무역, 투자, 금융, 산업발전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전략지역(국가)의 정치외교·사회·문화적 발전 잠재력과 향후 협력증진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 총 77편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전략국가 진출 및 협력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지역별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를 포함한 내수시장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 관련 연구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지만수 외 201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 사례 연구』(박월라 외 2011),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이승신 외 2012),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문익준 외 2012), 『중국의 도시화 추세와 정책적 시사점』(최필수 외 2012), 『중국의 싼흥시장 진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최필수 외 2013),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문익준 외 2013),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양평섭 외 2013)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원과 에너지 외교의 전략 거점 대상지역으로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러시아 관련 연구로는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전 모색』,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이재영 2011),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방안』(이재영 외 2012)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의 사업다각화 정책분석, 중앙아시아 투자환경과 싼태 분석, 대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협력방안 모색 등 중앙아시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으며, 그 연구성과로

『중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조영관 외 2010), 『중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 조사』(윤성학 외 2010), 『중아시아 6개국 에너지 관련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전략』(윤성학 외 2010) 등이 있다. 전략지역으로 새롭게 떠오른 인도와 자원외교 대상지역으로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인도 관련 연구는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조충제 외 2011),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전략비교와 시사점』(조충제 외 2012)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전략지역의 하나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연구로는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11),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12),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13)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전략 지역으로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추진방안』,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박영호 외 2011), 『해외 정책 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박영호 외 2012),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新경제협력 방안 모색』(한바란 외 2012) 등을 들 수 있다.

전략지역 이외에 아시아와 선진 국가에 대한 지역연구로서 먼저 일본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정성춘 외 2010), 『G-2시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시사점』(김규판 외 2012),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김규판 외 2013) 등이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김태운 외 2010),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김태운 외 2011),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 방안』(김태운 외 201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김태운 외 2013) 등이 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강유덕 외 2011), 『유럽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강유덕 외 2012),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강유덕 외 2013) 등이 있다.

2) 대(大)지역 연구체제 구축과 성과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주창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유라시아 역내 교통·물류·에너지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맞추어 연구원은 신흥 지역센터를 해체하고, 아시아태평양, 구미·유라시아, 동북아 등 대(大)지역 연구체제로 전환하였다. 연구의 범위도 경기순환적인 단기적 동향에만 국한하지 않고, 저성장 시기에도 국가·지역별로 보다 장기적이며 핵심적인 경제이슈에 대한 심층적 연구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저성장 시기에서 에너지·자원,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였다.

먼저 아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중국, 일본, 동서남아, 대양주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에 대한 연구는 2012년부터 시작된 한·중 FTA 협상 지원을 위한 연구, 중국의 내수시장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 중국과 한국의 국가전략 연계 모색을 위한 연구가 강화되었다. 관련 연구로서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2008 주요국별·지역별 통상전략세미나

와 산업 고도화의 시사점』(문익준 외 2014),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김부용 외 2014),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 방안』(정지현 외 2015),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 평가』(이장규 외 2015),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정지현 외 2015),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노수연 외 2015),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이승신 외 2016),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지역별·분야별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정지현 외 2016), 『중국의 주요 제조업 혁신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이현태 외 2017),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 지역별 분석』(이상훈 외 2017), 『중국의 지역별 문화산업 육성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일본과 동북아 경제협력 방향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김규판 외 20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 외 2015),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김규판 외 2016),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최보영 외 2015), 『한·중·일의 서비스 무역 규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최보영 외 2017),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김규판 외 2018)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와 동서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통상 및 산업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동남아 관련 연구는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곽성일 외 2015),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방안』(오윤아 외 2015),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곽성일 외 2016),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곽성일 외 2017) 등이 있고, 인도 관련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 전략이 한·인도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웅 외 2014),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조충제 외 2015),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이웅 외 2016),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이웅

외 2017)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김보민 외 2014),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윤여준 외 2015), 『미국의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윤여준 외 2017),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강유덕 외 2014),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김홍중 외 2016),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조동희 외 2017) 등이 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로는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제성훈 외 2014),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 방안』(이재영 외 2015),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확대방안』(박정호 외 2016),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박정호 외 2017) 등이 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연구로는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15),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권기수 외 2016), 『남미공동시장



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제 세미나

(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간 협력 활성화 방안』(권기수 외 2017),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이권형 외 2015),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이권형 외 2017),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박영호 외 2015),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박영호 외 2016),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박영호 외 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역연구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로는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정지원 외 20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정지원 외 2015),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 방안』(문진영 외 201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문진영 외 2017),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 인도, 중국, 싱가포르를 중심으로』(조충제 외 2017) 등이 있다.

3)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연구 강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이노믹스(J-nomics)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해양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과, 대륙전략으로서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G2(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려는 대외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본 원은 2018년 4월 세계지역연구센터를 부활하는 동시에 해외지역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지역연구센터 내에 중국경제실, 선진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신북방경제실 등 4개 실을 신설하였다.

먼저 신남방지역에 대한 연구는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기업의 진출 방안』(곽성일 외 2018), 『ASEAN의 서비스산업 규제현황과 시사점』(라미령 외 2018), 『한국의 대인도 수

출 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조충제 외 2018),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 교역 확대 방안』(정영식 외 2019),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문진영 외 2019) 등을 들 수 있다. 신남방 지역에 대한 협동연구로서 2019년부터 세계지역전략 협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에서는 경제 분야 이외에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북방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과 신한반도 경제지도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국제협력 확대와 남북경제협 재개에 대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연구로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전략 평가와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박정호 외 2018),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박정호 외 2019) 등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는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정형곤 20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최장호 외 2015),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임수호 외 201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최장호 외 2017),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정형곤 외 2018), 『남북한 CEPA 체결을 대비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최장호 외 2018),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최장호 외 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신흥지역에 대한 연구로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연구성과로는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국내 기업 진출 확대방안』(이권형 외 2018), 『아프리카 농업개발 잠재력과 한국의 협력방안』(박영호 외 2018) 등이 있다.

중국 지역연구에서는 미·중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 전략 이외에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한·중 FTA 발효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현상백 외 2018),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분야별 특징과 지역별 추진사례 연구』(이상훈 외 2018), 『신흥

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양평섭 외 201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양평섭 외 2018),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현상백 외 2019),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 유형과 사례 분석』(이상훈 외 2019) 등이 있다.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연구성과로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조동희 외 2018),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김규판 외 2019),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조동희 외 2019) 등을 들 수 있다.

4) 중국 종합연구와 권역별·성별 연구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2008) 시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동시에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곤경에 빠졌다. 미국이 자국의 경기회복을 위해 출시한 수차례의 양적 완화정책은 사실상의 보호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도 중국과 인도는 약 6%,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은 2009년에는 0.8%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에는 6.8%로 회복하여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이 중국의 경기부양정책을 잘 활용한 것이 주요하였는데, 중국의 재정 투자 확대와 연계되어 있는 LCD, 자동차 부품, 냉연강판 등의 대중수출이 크게 상승하였고, 2009년에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상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한 점유율은 2008년에 비하여 다소간 높아지거나, 아니면 일본 및 대만과 달리 하락추세는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자원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이며, IMF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미약하나마 역내에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9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중국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협동연구의 형식을 빌어서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직접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어떤 형태로 중국종합연구를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견해를 취합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연구를 최초로 시도하였거나, 지역연구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중국종합연구는 이들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학제간 종합연구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출발하였다.

본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동 사업을 인계받은 이후 10년간(2011~2019년) 25개 산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총 104건(사회·문화 분야 23건, 인적자원 분야 19건, 법·제도 분야 15건, 지역연구 21건, 기술·경제 분야 26건)에 달한다. 이는 본원이 중국 연구의 허브(Hub)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중국이 생산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부각되면서 제후경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권역별, 성별로 세분화하여 시장에 대한 접근전략을 만들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연구원은 2010년 2월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중국 지방경제와 산업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중국의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성과로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특징과 협력방안』,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지역별·분야별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중국의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등 15건의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24건의 연구자료, 52건의 성별기초자료를 발간하는 등 중국 지역별 진출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4. 해외지역연구 허브(Hub)로 자리매김

본원은 앞서 살펴본 기본연구사업 이외에도 세계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 및 정보 제공, 포럼 운영, 학연 연계사업, 지역전문가 양성사업 등을 통해 국내의 해외지역연구 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첫째, 본원은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오늘의 세계경제」, 「KIEP 기초자료」, 「세계경제 포커스」,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등 현안 대응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1년 중국의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지역 기초자료」를 2017년부터 「KIEP 기초자료」로 확대·개편하여 전 세계의 주요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역의 현안을 신속하게 분석·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지역경제포커스」를 2018년부터는 「세계경제 포커스」로 개편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998년부터 연구원의 사이트를 통해 북경사무소가 제공하는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은 중국 현장의 목소리를 국내에 전달하는 중요한 루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 본원은 국내의 국제대학원과 협력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육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본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각 지역에 대한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제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국제대학원과 'KIEP-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 방안(GPAS: Graduate Program for Area Studies)'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지난 7년간(2012~2018년) 총 35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493명의 학생에게 현지조사 기회를, 176명의 학생에게 해외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청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KEEP(KIEP Emerging Economies Pathfinder) 프로젝트를 GPAS 참여 국제대학원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역량을 갖춘 지역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셋째, 본원은 해외지역연구의 허브로서 신흥지역 통합학술회의와 대학 연구소

등과의 공동 및 협동 연구를 통해 국제 연구기관과 학계를 연계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해왔다. 2014년부터 국내 유수의 15개 지역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KAAS)'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8년까지 총 5회의 회의에서 총 220건의 해외 지역관련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500여 명의 지역연구 학자와 지역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규모의 신흥지역 세미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넷째, 본원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공동연구, 연구협력 협정)과 해외방문 학자 초청프로그램(CRES Visiting Fellows Program) 등을 통해 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해왔다. 특히 해외방문학자 초청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지역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해외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한 세계지역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에는 세계 34개국에서 총 97명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참여하였다.

다섯째, 본원은 중국전문가포럼(CSF: China Specialist Forum)과 신흥개도국 지식정보포털(EMERiCs: Information for Emerging Countries)을 통해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 학술,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해외지역연구의 지원자(supporter)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중장기 對중국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CSF 비즈니스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의 학술, 오피니언 분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업계와 학계가 모두 활용 가능한 전문 사이트로 자리잡고 있다.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브릭스 인포(BRICs Information Center)를 확대·개편하여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EMERiCs는 60여 개의 신흥개도국에 대한 국내의 우수기관의 경제정보, 인물정보, 학술정보, 비즈니스정보, 통계분석정보 등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흥개도국 중 CIS, 브라질,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본원의 중점 연구지역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KIEP**

IV. 국제협력

1.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일국제협력의 새로운 접근

정 형 곤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1. 동북아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동북아지역은 경제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고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1/5을 생산하는 지역이나 향후 10년 또는 15년 내에 전 세계 GDP의 30%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일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미 24%를 넘어섰고, 유럽 인구의 네 배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과 시베리아의 무한한 자원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은 지속적으로 역내 교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 및 안보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중·일 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문제 외에도 동북아 역외지역의 보호무역주의, 경제의 블록화 현상 등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다. 유럽과 같은 협력 질서가 동북아에도 자리잡게 되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화의 하나가 한·중·일 FTA이다. KIEP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및 일본의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경제연구소(IDE-JETRO)와 함께 한·중·일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한·중·일 FTA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왔다. 연구결과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되었고, 이로써 3국간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9년에 한·중·일 공동연구진은 3국 정상에게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한·중·일 정상에 의해 수용되었고 이후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라는 틀 속에서 정부간 공식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2013년부터 한·중·일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2019년 4월까지 15차에 걸친 협상이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한·중·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외에도 KIEP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최낙균 외 2008)을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 검토하였고, 특히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양국간 수출산업의 경쟁, 민감분야 개방에 대한 이견, 특히 중국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한·중·일 FTA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중·일 FTA는 경제문제 외에도 외교, 안보,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세계화와 더불어 초국적기업이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국경간 M&A 및 전략적 제휴 등 해외시장 진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세계경제의 통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한·중·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정형곤 외 2010)이 집필되었다. 한·중·일 상호간 투자는 3국간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산단위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이고, 상호간 외교·안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더욱 증진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호간의 투자는 시장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동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특히 3국 상호간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호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

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역내 교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국내 규제개혁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협정 표준모델 확립, 既투자협정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등 중국 및 일본과의 통관협력 강화, 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한 투자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 FTA 추진 활성화, 한·중·일 투자협정에 대한 홍보, M&A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기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전 세계의 개방화 흐름과 더불어 WTO DDA 협상이나 양자간 FTA에서도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동 분야의 직접투자 유치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KIEP에서는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정형곤 외 2011)을 발간하였다.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3국간 서비스 부문의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3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협상전략 마련을



2003동북아경제중심 세미나

위해서도 주요한 연구였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KIEP에서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한·중·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경쟁력 비교』(정형곤 외 2009)를 발간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의 세계화 및 경쟁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자사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심기능을 제외한 기타 분야를 외부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부터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 엔지니어링, 경영컨설팅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들 산업이 기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중·일 FTA를 대비, 우리나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시장주도로 기능적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중·일 3국은 이러한 기능적 통합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중·일 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였고,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을 연차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물론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중단되고는 있으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그나마 3국간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한·중·일 3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

실상 동북아에서의 제도적 통합 노력은 동아시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1997년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2005년에는 아세안+6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출범했다. KIEP에서는 동북아의 연구지평을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이창재 외 2011)를 발간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일인당 평균소득이 세계 평균치에 이르는 시점을 동아시아 시대 도래의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향할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역내시장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안정된 국제정치·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 세 변수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시대가 도래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FTA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한·중·일 FTA가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권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내 경제협력과 경제자유화 논의가 RCE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지역이자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또한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세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정형곤 외 2017)을 발간했다. 동 연구는 국제경제학에서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논의되어온 FDI 결정요인을 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한국기업의 아세안 진출전략과 한국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협력

동북아는 불안정한 지역이다. 동북아는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으로 항상 갈등의 불씨가 내재되어 있다. 상호 불신과 대립, 견제가 기본 질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불신과 대립의 동북아시대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북병 속에 북한이 하나 더 있다.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은 2019년 현재 미국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비핵화과정이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안보위협만큼 위협적인 것이 북한경제의 불안정이고 북한체제의 지속성 여부이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북한경제가 과거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북한방문자들의 언급이 있으나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부 충격에 직면해 있다.

KIEP는 북한경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먼저 북한 내부에 대한 연구로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정형곤 외 2011),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정형곤 외 2012),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홍익표 외 201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정형곤 외 2014) 등의 연구가 있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현황과 향후 변화 가능성 등을 진단하였다. 특히 북한경제의 변화 관련, 시장화의 정도와 시장화로 인한 북한당국의 개혁정책 등을 근거로 북한경제의 체제변화에 대한 전망을 하였으며,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개혁방향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와 체제전환에 관한 이슈는 KIEP가 북한연구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연구 역시 KIEP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분야다. 『북·중 분

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최장호 외 2015)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최장호 외 2016)가 발간되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추가되면서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무역동향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잇따른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분석과 함께 이후 북한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해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본원은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사전에 인지하여,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바,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정형곤 외 2018)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발표함으로써 정부를 비롯해 북한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3. 통일 준비와 통일국제협력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대박이라는 기치하에 통일연구가 북한연구에 있어서 큰 주류를 이루었다, 본원 역시 이러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북한경제의 내구성과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붕괴에 따른 통일비용과 통일 시 한국경제가 누리게 될 경제적 이익, 즉 ‘통일대박’이 북한경제 연구에 있어서 주류를 이루었다. KIEP에서는 북한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한반도 통일 시 주변 국가들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연구를 주변국 학자들에게 위촉하여 한반도 통일 시 이들 국가들이 얻게 될 경제적 편익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우선 한국 학자들 중에서 성한경 교수가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2014)를 연구하였고, 강문성 교수와 연구진이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2014)을 연구하였다. 특히 통일 시 얻게 될 외교안보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재성 교수에게 위탁과제를 맡겨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

2014 남북한 경제통합
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
미나



일외교 전략』(2014)을 수행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2014)은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가 연구를 했고,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2014)에 대한 연구는 후카오 교지(深尾京司) 교수 외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2014)은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ebin) 외 연구진이 수행했고,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2014) 연구는 진징이(金景一) 교수 외 연구진이 수행했다.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국에 미치는 편익에 대한 이러한 보고서는 한글과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KIEP 보고서로 발간되었고 이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연구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최장호 외 2017)이 발간되었고, 통일과정에서 중간단계로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해 분석한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임수호 외 2016)도 수행되었다. 그 밖에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방안에 대한 연구로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김영찬 외 2016),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임수호 외 2016)이 추진되었다.

KIEP는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IWH: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독일 재무부장관 간 합의하에 KIEP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가 양 정부의 지원하에 독일통일과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 매년 연말에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KIEP-IWH 공동보고서로 출간하였다. 첫 번째 보고서는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정형곤·Gerhard HEIMPOLD 편 2017)로 출간되었고 두 번째 보고서는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정형곤·Gerhard HEIMPOLD 편 2018)로 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과거 분단국가에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를 토대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비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과거 동서독의 협력사례를 토대로 남북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보고서는 통일 관련 정책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 향후 통일 및 통일 이전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진행중인 할레경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는 향후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EP**

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권 율 KIEP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1.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최근의 여건 변화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무역, 투자, 금융 등 국가간·지역간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에서 소외된 개발도상국의 부채, 빈곤, 선진국과의 격차(development gap) 심화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기후변화와 생태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커다란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5년 UN 사회개발 정상회의, 2000년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2001년 WTO 도하 각료회의, 2002년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와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이들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저개발국의 주변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저개발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UN, OECD, G20 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이슈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의 SDG

이행역량을 지원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의 정책적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을 갖도록 중장기 개도국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역할이 제고되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개도국으로부터 협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신흥 공여국으로서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다. 개도국에 대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KIEP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세계화의 심화를 통해 야기된 지구 공동의 빈곤퇴치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왔다.

2. 대외원조정책 관련 연구성과

그동안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면서 정부는 1987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하고, 우리의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으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무상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KIEP는 대(對)개도국 원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외원조정책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김학수 1991)과 양자간 경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김학수 1991)이 정책자료로 발간되

었다. 분권화된 원조체제로 인해 유·무상원조의 상호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대외원조정책의 조정을 위한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김학수 1993)의 연구성과를 발간하였다.

한편 지역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한·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경제사업으로 제기된 공단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의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권 울 1993)을 조사보고서로 발간하고, 중점지원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체계적인 원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주요국의 對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권 울 1994)을 발간하였다.

KIEP에서 ODA 정책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한국 대외원조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고서로 『OECD 중소규모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김학수 1994)은 한국과 경제규모 및 ODA 운용체제가 유사한 OECD 선진공여국의 주요 정책사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이창재 1995)과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원조사업의 상호연계문제를 중심으로』(권 울 1995)는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과 운용체제를 비교평가하고, 대외원조정책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OECD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제고해야 하는 입장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권 울 1999)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OECD의 주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ODA에 대한 주요 규범과 정책권고를 분석함으로써 개도국과의 상호보완적 경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시사점을 제공하였다.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채택하면서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IEP는 국제협력의 흐름에 부응하여 개도국의 빈곤퇴치

에 초점을 둔 ODA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원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원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ODA 정책의 선진화와 운용체제 개혁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KIEP는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의 ODA 개혁과제』(권 울 외 2006)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대외원조정책 개선방안으로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원조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김홍종 외 2007)에서는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연구를 통해 최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 통상전략연구에서 ODA의 국별·지역별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원조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제적으로 한국경제의 위상이 증대되고 개도권 경제와의 협력관계가 확대되면서 KIEP는 2008년 6월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ODA팀을 신설하고, ODA 정책과 개도국 지역연구를 연계한 정책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DAC 가입 이후 ODA 사업의 전략성, 원조정책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정책평가, 국별평가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KOICA, EDCF 등 원조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원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역량 강화와 ODA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발협력 관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적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박복영 외 2008),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권기수 외 2008),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박영호 외 2008) 등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2010년 DAC 가입을 목표로 정부는 2009년 1월 정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4월에는 2008년 특별검토 이후 개선사항, DAC 가입 이후 활동계획, DAC 주요 규범 이행현황과 계획 등을 중심으로 서면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6월 DAC 사무

국 실사단이 방한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선진 원조공여국 그룹인 DAC 가입을 위해서는 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규범과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권고사항과 의무사항을 따라야 하므로 원조정책과 집행 측면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는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권 올 외 2009) 정책연구를 통해 DAC 가입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 무역, 여성, 빈곤 등 주요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적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DAC 가입 및 원조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KIEP는 ‘OECD/DAC 주요 규범과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2009년 3월 개최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DAC 가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선진국 및 대량 배출국의 국내대책 및 협상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정성춘 외 2009)을 발간하였

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 관련 개도국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 사업 및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정지원 외 2010)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남남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외원조전략과 추진체제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권 올 외 2010)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3.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ODA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정지원 외 2011)를 통해 개발재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DAC 전통공여국의 원조 확대 공약의 이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개발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도국 및 신흥공여국의 남남협력,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정지원 외 2011)을 정책연구로 발간하여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의 주요 의제인 남남협력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본 후 남남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추진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09 OECD DAC 세미나



MDG 목표 설정 이후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빈국이 가장 중요한 수원국 그룹으로 다루어지고,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어젠다,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최빈국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함에 따라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권 율 외 2012)을 발간하고, 최빈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조사업 개발, 국별·지역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박영호 외 2012) 연구가 추진되었다. 한편 동남아 지역개발과 최빈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 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김태운 외 2012)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최빈국의 개발격차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의 대메콩 지역개발 참여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16)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국가로 한국이 선정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정지원 외 2013)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GCF의 목적과 비즈니스 모델,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식, 지원 우선순위, 모니터링 및 평가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이행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가 채택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해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정지원 외 2014)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배경과 재원 확대의 당위성을 분석하여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가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핵심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로 부상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정지원 외 2015)를 발간하고, 환

경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실현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함에 따라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권 율 외 2016) 연구보고서를 통해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를 분석하여 새로운 개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PCD)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해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주요 지원정책이 ODA와 정책적 일관성을 갖도록 종합적인 개도국 협력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과 주요 공여국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 평가를 위해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허윤선 외 2017)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ODA 평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ODA 사업에 영향력 평가를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우리나라 ODA 평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12 지역별·부문별
ODA 세미나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전략과 실질적인 수단 및 제도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정지원 외 2018)을 연구하고, 주요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다양한 금융수단 및 비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재원 조달 등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분쟁, 재난, 빈곤 등으로 난민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권 울 외 2019) 연구를 추진하였다.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억 명이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에 달해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6월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등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맺음말: 향후 과제 및 전망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최근 주요국의 전략적 매핑(strategic mapping)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주요 개발의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은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를 확대하여 SDGs를 설정하고, 국제개발환경의 변화와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UN, OECD, G20 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이슈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의 SDGs 이행역량을 지원하고 있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주요 협력분야에서 원조 및 비원조 정책 간 정책일관성을 갖도록 중장기 개도국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

발과제가 상호 연계되고 통합되면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협력강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KIEP는 ODA 정책연구뿐만 아니라特惠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확대,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및 난민 지원 등 개도국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KIEP는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ODA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ODA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연구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신흥공여국으로서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왔다. DAC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은 개발협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많은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ODA 예산 확정기준으로 2019년 3조 2,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과 경제규모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의 ODA 규모를 감안하여 4조 원 수준으로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 적정 ODA 지원규모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은 민족간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북지원 규모를 ODA로 계상하기 어려우나, 국제사회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개도국 지원과 북한지원의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도 개선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을 통한 대규모 북

한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ODA 규모 확대와 규범준수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

개도국에 대한 협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연구와 연계된 ODA 연구를 통해 국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도국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가 시급하다. 또한 SDGs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KIEP는 개발재원을 중심으로 이행수단에 대한 연구와 함께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민간자금 동원과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개발협력 연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범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UN 산하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를 상호보완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과도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여 주요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KIEP**

3.

글로벌 환경·자원 문제와 국제협력 확대

문진영 KIEP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



최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국내에서 주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한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가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와 책임이 점증하고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KIEP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1992년 UN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기후재원(climate finance) 의제를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연구해 왔다. 또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채택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분화된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후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비한 연구도 수행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해양 플라스틱 등 국제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와 대응이 앞으로도 필요한 상황이다.

1. 기후재원 의제의 선도적 연구와 GCF 사무국 유치 지원

본원은 2009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부터 정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당시 협상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2010년)과 맞물려 글로벌 환경·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논의 동향 및 쟁점 분석』(정지원 외 2010)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면서 기후 재원과 기후 ODA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설립을 합의하였다. GCF 설립 합의 후 2011년 1년간은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가 구성되어 기금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운영지침(Governing Instrument)을 수립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정지원 외 2011)은 GCF 설계에 있어 주요 쟁점과 논의동향을 정리하였고, 특히 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주요 다자기금과 개발원조기구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후재원 의제의 선도적 연구와 GCF 사무국 유치 지원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금인 GCF의 유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본원도 시의적절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2012년 10월 GCF 사무국의 국내 유치가 결정되었고, 그해 11월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GCF 사무국의 국내 유치를 기념하고 GCF의 향후 발전방향 및 GCF 이사회 등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단순히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본원은 GCF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GCF를 중심으로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정지원 외 2013)은 GCF의 재원조성과 활용에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당면과제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GCF는 물론 기후변화체제 일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 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무국 유치 이후 정부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기후재원 의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UN 기후변화협약 상설위원회의 논의에도 주목하게 되었다. 2013년은 당사국총회와 GCF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서 다루어졌으며,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조성하기로 한 장기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루는 국제회의가 2013년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등 GCF 사무국 유치를 전후로 기후재원 이슈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다. 2014년 베를린 공여회의 및 19차 리마 당사국총회 등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102억 달러의 초기 재원을 공약하게 되었다.

2.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채택에 대응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합의의 핵심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이분화된 접근방식을 벗어나 모든 당사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G20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자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서 글로벌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정지원 외 2015)가 진행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필요한 각국의 부담배분 분석체제를 고안하여 주요 국가의 감축 및 재원 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현황 및 전략을 고찰하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UN 기후변화협약 협상 대응과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관점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기후체제의 태동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에 대비한 글로벌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국제기구(OECD, UNESCAP)와 해외 주요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본원이 기상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저탄소경제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소개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활동하는 주요국 관계자(11인) 등을 초대하여 이회성 IPCC 의장(당시 부의장)과 개도국 협력비전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세미나 행사 이후 10월에 개최된 IPCC 의장선거에서 이회성 의장이 당선되어 행사 개최의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 채택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기여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면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포함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문진영 외 2016)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에 포함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계획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상쇄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탄소상쇄사업의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원칙들을 정리하고,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파리기후협정이 2016년 11월 발효되면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하는 탄소가격제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문진영 외 2017)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탄소가격제로 내재화될 경우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탄소배출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탄소배출 비용을 분석하였다.

탄소가격제 등의 정책수단 도입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채택에 대응

인프라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문진영 외 2018)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 장애요인 등을 심층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되어온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를 유형화하여 분석한 뒤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 환경 이슈에 대응

기후변화 이외에도 다양한 자원, 환경 이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 대기, 남극, 공해(公海, high seas) 및 심해저 등의 국제공유지는 지구 생태계의 주요 근간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의 보고이며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문진영 외 2013)는 먼저 우주, 심해저, 남극 등의 국제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정리하면서 국제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특히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거버넌스 제도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후발국 간의 관계, 민간의 참여범위 등을 포함하였다. 각 공유지별로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공유지의 부존자원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이에 맞서 자원과 환경의 보존 및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수십 년 동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의 생산과 수출을 일부 국가에 의존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의 불확실성은 점증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문진영 외 2014)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분석하고,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기존 우리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변국의 곡물 확보 동향을 비교하고 향후 곡물 도입에 있어 잠재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이슈가 2010년 후반에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관련 연구도 수행하였다.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문진영 외 2017)은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협약(CLR-TAP: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생태계 위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도 본원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KIEP**



03

제 3 부 KIEP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I. 국제거시금융 연구

II. 국제통상 연구

III. 세계지역 연구

- 1. 중국경제 연구
- 2. 선진경제권 연구
- 3. 신흥경제권 연구

IV.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연구

I. 국제거시금융 연구

국제거시금융 연구

강 태 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1. 국제거시금융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우리나라 경제보복 등에서 보듯이 국가간 갈등과 충돌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체제 출범 이후 다자협력체제가 약화되고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보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다자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의구심이 강하게 대두된 결과이기도 하다. 주요국간에 정책공조가 크게 약화되는 추세는 이러한 ‘의구심’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EU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방향 선회와 조정 속도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 저출산·고령화 확산 등도 대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물과 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제구조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선진국의 정책수행 방식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정책의 투명성이 크게 낮아지고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추세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상당 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과도한 외국인 자본 유입은 신흥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켰다. 아울러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충격이 다른 국가로 전이되는 현상(spill-overs)이 심화되었다. 2018년 이후 미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이 spill-overs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바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가 초래하는 대외 리스크에 맞서 위험요인의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능력 배양, 대응방안 마련, 국제간 정책 협상 시 필요한 논리 개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원의 국제거시금융실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정책 대응 연구를 크게 강화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최근 국제거시금융 연구

1) 국제거시 연구 - 국제경제환경 및 거시경제구조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을 보인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체제가 출범하여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보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미·중 무역전쟁과 같이 국가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경제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경제환경 변화는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가간 협업구조를 약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변화를 야기한다. 지속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도화 추세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진입 및 확대가 생산성, 투자 및 노동 등 진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철수 결정 요인 및 다국적기업의 철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파급효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예컨대 2019년 2월 GM은 한국의 군산공장 생산라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GM 군산 공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다. 다국적기업의 축소 및 철수

는 본사의 일방적 의사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퇴출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 대응방안』(한민수 외 2019)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철수 및 축소가 국내 노동시장,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축소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1980년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보다 낮았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세로 2019년 현재 43.1세로 고소득국 평균(41.0세)을 상회하고 있으며, 2040~2045년 사이에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산업화 시작과 더불어 사망률 감소로 인구증가율이 상승하고, 산업화의 성숙과 더불어 출생률 감소가 나타나 인구증가율이 하락한다. 이러한 사망률 감소와 출생률 감소 과정에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배경이자 결과이다. 한편, 인구구조 고령화는 경상수지 및 순대외자산과 같은 대외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장년층이 두터워 노년을 대비한 가계 저축이 기업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거나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김효상 외 2019)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대외변수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예측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후생을 높이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윤덕룡·이동은 2016)은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임을 실증분석 및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이 거시경제 구조를 재편시키고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산업구조와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발달에 따른 제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아마존 효과’)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역관계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의 평단화현상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노동시장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등 과거와 다른 추세를 보인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가계소득 증가가 지체되는 주요 통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소비 및 내수의 위축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IT 및 통신, 자동화 등 기술혁신, 자본재의 상대가격 하락, 국제무역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편입 정도,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 내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안성배 외 2019)은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에서 작동하는 파급경로를 분석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후, 이의 상승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였다. 한편, 『개방경제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안성배 외 2018)을 통해 기존 금융혁신의 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화두의 한 부분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 국제금융 연구 -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동조화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미국 통화당국(Fed)은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하는 한편, 세 차례에 걸친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 시행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결과 미 연준 대차대조표는 2008년 9월(0.9조 달러) 대비 5배(4.5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volatility)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장기간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risk take-on)가 증가한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등 국제자본 흐름의 방향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은행대출 등을 통한 신용증가로 이어져 신흥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의 경제상황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글로벌 GDP의 63%를 지탱하는 신흥국시장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경제성장에 기여한 순기능이 있지만, 국내신용의 과도한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이 초래되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자본유출 충격으로 인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강태수 외 2015)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해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를 소개하고 동 정책수단의 효과를 추정 분석하였다.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 요인 변화 분석』(정영식 외 2018)은 금융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과 신흥국의 금융불안 결정요인 변화 및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불안, 통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충격이 한국 금융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의 확대 및 글로벌 유동성 증가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변수(자산가격, 레버리지, 신용성장, 해외자본의 유출·입 등)가 자국 기초여건보다 국제금융시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금융충격의 국제전이현상(spill-overs)을 야기하였다.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김경훈 외 2017)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정책금리가 장기금리로 연결되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약화와 국가간 장기금리의 동조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강태수 외 2018)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 세계에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따른 위상변화를 감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 해외투자 가운데 민간부문의 해외증권투자가 공적 외환보유액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주도하고 있다.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강태수 외 2019)은 내외국인의 급격한 증권투자 증가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교란 요인 완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외국인의 증권투자 확대가 환율 및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와 관련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3. 향후 국제거시금융 연구의 방향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의 저서 『이번엔 다르다』는 모든 금융위기가 비슷한 진행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하지만 과거 실현된 경제현상의 유사성과는 다르게 미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통상질서의 재편, 글로벌 가치사슬 고도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성장·저물가·저성장의 전환기적 흐름, 국제금융시장의 동조화 등 최근 경제현상은 기존의 거시·금융 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시금융 실’의 연구는 경제현상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하고 더욱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2020년에는 다음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경상수지 결정요인』(한민수 외 예정)은 환율과 경상수지, 주요 거시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환율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비추어 적정한지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기초로 환율 정책관련 대응논리를 마련하

고자 한다.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평가와 개선방안』(강태수 외 예정)은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과거 10년간 추진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대외부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신흥국 등이 도입·운용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김효상 외 예정)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신용팽창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파급 구조를 살펴볼 예정이며, 현 상황에서 돌발할 수 있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당국의 국제금융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IEP**

II. 국제통상 연구

국제통상 연구

배 찬 권 KIEP 무역통상실 연구위원
김 영 귀 KIEP 연구조정실 연구위원



지난 몇 년간 국제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신흥개도국들이 부상하고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는 DDA 협상의 정체를 기점으로 그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최근에는 핵심 기능으로 간주되던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조차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였다. 또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세계무역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역의 성장기여도 감소와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에서의 눈부신 기술발전은 기존의 산업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필연적으로 국제 무역과 투자에서도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통상 규범 제정과 기술 및 플랫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경쟁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에 올라섰음에도 소수 품목과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통상분쟁 등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강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 및 플랫폼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 15년간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으로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으

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가 처한 통상환경을 다자주의의 약화, 자국우선주의와 산업보호주의, 무역과 투자의 구조적 변화, 우리 수출구조의 취약성으로 나눠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과 본원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현황

1) 다자주의의 약화

통상질서의 큰 흐름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주류였다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FTA로 대표되는 양자주의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WTO 차원에서의 복수주의와 메가 FTA로 특징되는 지역주의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는 각료선언조차 없이 종료되는 등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DDA 협상의 실패를 받아 들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원인으로는 컨센서스에 기초한 의사결정방식의 비효율성, 회원국 확대와 개도국의 위상증대로 인한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 증대, WTO를 이끌 리더십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WTO를 주도하던 미국이 그 역할과 분쟁해결기능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WTO가 중국의 산업지원정책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WTO 패널이나 상소기구가 회원국들의 권리나 의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축소시키는가 하면 회원국들은 협상보다는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WTO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대한 개편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복수국간 협정과 같이 뜻이 맞는 국가끼리의(like-minded countries) 협상을 통한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 자국우선주의와 산업보호주의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개방화가 급진전되면서 국가간 소득격차는 점차 줄어든 반면 국가 내에서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은 나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한 반면, 그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불평등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선진국 경제의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더 심화되었는데, Milanovic의 ‘코끼리 곡선’은 지난 30년간 선진국 중하위권 노동자들의 소득이 가장 더디게 증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실업이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 및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TBT, SPS와 같은 기술조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무역관련 투자조치, 유통제한, 판매 후 서비스 제한, 정부조달 시장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등의 제도적 조치뿐 아니라 환경 및 노동이슈, 환율조작국 지정, 반이민법 제정 등 비무역조치 또한 활용되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적 지원과 미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자국투자 확대요구 또한 증대하고 있다. 리쇼어링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지칭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리쇼어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외에도 관세부과와 국경세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과 외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 간에는 첨단 미래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여 광범위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간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분쟁은 무역불균형 문제를 넘어 미래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적자 해소 이외에도 지재권, 강제기술이전, 비관세장벽, 사이버 범죄 등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제조 2025' 등 산업정책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자국산업 육성정책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재조정)과 더불어 수입산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국산화를 가속화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체와 세계무역의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과 무역의 구조적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OECD에서는 향후 미래의 모습으로 개인이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이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시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크나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 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 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형태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기존 생산구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성장기와 안정기를 거치면서는 생산과 소비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분산형 제조,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향후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통상의 위상은 날로 높아질 전망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논의도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무역 및 기술 변화에 따른 규범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이다. WTO 차원에서도 2019년 3월부터 76개국이 전자상거래 협상을 준비하였다. 향후 몇 년간은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

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체결·개정될 지역 무역협정에서도 디지털 통상에 관한 규범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4)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성

우리나라는 세계 6~7위권의 수출강국이나 국가 및 품목의 편중도가 심한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제1위 교역상대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에서 약 2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홍콩을 포함하면 대중(對中) 수출비중은 34.4%까지 높아진다. 제2위는 미국으로 약 12%, 제3위는 베트남으로 8%, 제5위는 일본으로 약 5%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약 59.5%에 달할 정도로 지역적 편중도가 심화된 상황이다.

품목별 집중도 역시 높아 MTI 3단위 기준으로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5%에 달한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약 21%, 석유제품이 약 7.7%, 자동차가 6.8%, 평판디스플레이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 경기 부침 또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술변화에 우리의 수출구조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기업규모별 집중도 역시 우려할 만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상위 5대 기업 수출집중도는 0.23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0.21)과의 차이는 0.02에 그친다. 그러나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독일과의 격차가 0.11까지 확대된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 제조업의 상위 5대 기업의 비중은 약 29.7%, 10대 기업의 비중은 43.1%, 20대 기업의 비중은 56%에 달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2000년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및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약 33.2%에 머물고 대기업 종사자의 연평균 급여상승률이 7.8%인 데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6.3%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모별 격차를 줄

일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은 포용적 통상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16개의 FTA를 체결하여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 했으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의 FTA 활용률이 약 80%에 달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2013년 56.5%에서 완만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63.9%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활발한 FTA 정책이 오히려 대기업과 소수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집중도 심화는 무역의 성장 및 고용 기여도가 하락하는 현상과 맞물려 낙수효과의 소실과 분배 구조의 악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초창기 생산 자동화의 확산 등 생산구조에서의 노동대체기술의 발달은 수출의 고용효과를 감소시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 KIEP의 국제통상 연구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하에서 본원은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진단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세계무역 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최낙균 외 2017)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의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보호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조문희 외 2017)는 이른바 신보호주의 무역정책의 주된 수단인 비관세조치의 확산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무역과 통상의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를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규엽 외 2017)은 우리나라 디지털 상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디지털 상거래 지원,

통관절차와 소비자보호 향상, 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도출하였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 영향 분석』(최낙균 외 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혁신과 활용 수준을 주요국별·산업별로 비교하고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함으로써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비전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방안』(이규엽 외 2018)은 주요국의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과 데이터 규제 혁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의 방향 정립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최근의 국제통상환경 변화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원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본원의 향후 연구방향을 크게 ① 다자주의 약화와 지역주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규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② 자국우선주의와 산업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 ③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책 제시, ④ 한국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하면서 개방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적 통상정책 방향으로 나눠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WTO 체제하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양자 FTA 내지는 지역경제통합의 틀 가운데서 병행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체결해왔던 FTA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신통상 규범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 10월 기준 55개

국과 16개의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의 FTA 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관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조문희 외 2019)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교역, 제도, 후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자유무역협정 개선방향 및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FTA 내에 확산·강화되고 있는 환경·노동 규범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통상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이천기 외 2020 예정) 연구에서는 FTA 신통상규범 중 환경 및 노동 챕터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관해 법적·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향후 FTA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및 노동 규범 관련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분쟁사례를 검토한다. 한편 최근 체결되어 통상규범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USMCA와 CPTPP에서의 관련 규정과 우리나라 FTA와의 규정을 비교하고, 환경과 노동 규범의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일방적 통상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영향과 대응방안 마련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이 추진중인 통상정책은 무역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직접 투자나 일자리 등의 국가경제 전반의 문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김종덕 외 2019)에서는 세계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이 확연한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주요 행정적 무역제재조치(administered protection) 및 이에 따른 각국의 보복조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무역과 보완/대체 관계에 있는 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또는 해외직접투자)에의 영향,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한국의 GDP, CPI, 수출, 환율, IP, 이자율 등 거시변수에 주는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균형잡힌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조문희 외 2020 예정)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고려한 국제무역 이론모델을 기초로 일방적 통상정책으로 인한 무역비용의 증가가 무역구조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정체현상을 보이는 주요 원인으로 보호주의적 성격의 일방적 통상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들이 일방적 통상정책에 대응하여 해외부품 국산화, 리쇼어링(reshoring), 우회 수출, 현지 투자 등 생산 및 수출 활동에서 새로운 최적화 선택을 함으로써 무역구조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보호무역 조치가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토대 연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통상정책의 최근 동향과 특징을 도출하고 이와 맞물려 나타나는 국제무역구조의 변화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기 위해 실증분석과 정책실험을 통해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상정책적 대응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통상정책상의 변화는 크게 데이터 관련 국제규범 논의 확대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를 들 수 있다. 유럽에서는 2018년 5월 25일 일반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었고, 중국 역시 2018년 5월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18년 6월 소비자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Act)이 통과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데이터 정책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규엽 외 2019)에서는 주요국과 한국의 데이터 정책 변화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법·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 데이터 정책의 변화가 무역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분석과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데이터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는 데이터의 역할이 생산요소, 정보기술, 정보, 생산방법, 총생산성 등에서 혼재되어 있어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 지식재산권과 데이터의 소유 등 고려 요소에 따라 그 파급범위 또한 상이

하다. 따라서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정량분석 모형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데이터의 정의, 범위, 역할 등에 대해 검토하고, 데이터 관련 현황 및 통계분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데이터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모형을 정립하고 무역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체결된 CPTPP, USMCA 등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로벌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김현수 외 2020 예정)에서는 WTO TRIPs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먼저 살펴보고 FTA에서 나타나는 TRIPs 플러스 조항들에 대한 내용 및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최근 추세처럼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경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혁신의 편익과 경쟁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선행 이론연구들을 정리하고 Valdes and McCann(2014)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강화의 시장확대효과와 시장지배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FTA 협상에서의 주요 이슈 및 대개도국 쟁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학술적 논리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4) 포용적 통상정책 방향 제시

그간 추진해왔던 자유무역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세계화 및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과 그 지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와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함으로써 포용적 통상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구경현 외 2019)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무역통상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8.8%와 전체 종사자의 87.9%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구성요소다.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으나, 효과적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실증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역 품목 수준, 혹은 기업체 수준의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데이터는 무작위 추출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보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무역구조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적·외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특히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가 심화되었다. 신흥개도국과의 교역확대 및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별 혹은 직업/직무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중국,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확대로 국내 경쟁산업의 위축과 오프쇼어링에 따른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국가들과의 생산연관관계 및 분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특정 직업/직무군에 대한 노동수요가 늘어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산업 및 직업별 소득과 직업안정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어떤 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큰 이익 혹은 손해를 봤는지, 더불어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소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구경현 외 2020 예정)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적 통상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KIEP**

III. 세계지역 연구

1. 중국경제 연구

이 승 신 KIEP 중국경제실 연구위원



1. 중국경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금융허브를 육성함과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는 곧 지난 40여 년간의 개혁·개방 정책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고 발언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미국이 자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선언하며 촉발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의지 실현 가능성은 물론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미·중 관계 및 세계무역 환경이 미·중 간 무역갈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중 간 갈등은 최근 수십 년간 중국경제의 급격한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경제심 및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향후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잠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미·중 간 갈등을 세계경제의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여기는 국내외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과잉 투자,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등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도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변수다. 한편, 2013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대(對)중 수출 및 무역 수지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력 제품군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부진한데 특히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재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간재 수출 비중¹⁾이 높아 미·중 통상마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외에도 2017년에는 사드 사태로 인해 한국의 소비재 수출 비중이 2015년 4.8%에서 2017년 2.9%로 급감한 바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반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중국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정치적 동향,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정세의 변화는 중국과 세계,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어 중국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본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산업 및 사회구조 변화 등 중국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최근 중국경제 연구의 주요 내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저성장 기조의 뉴노멀이 자리 잡으면서 중국경제도 기존의 지속적인 고속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 중국은 이러한 저성장 국면을 새로운 정상 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표현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시행해왔다. ‘신창타이’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로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의 전환, 둘째로는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소와 투자 위주의 성장 동력이 혁신으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제 중국경제 연구에서 경제구조 및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전

1)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79.5%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본원은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시사점』(현상백 외 2019)에서 중국의 혁신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경제성장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5년 이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眾創業, 萬眾創新)’ 정책을 실시하여 혁신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장려정책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창업 관련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서 연간 500만여 개의 신생기업이 신설되는 창업 붐이 일고 있다. 또한, Baidu, Alibaba, Tencent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시작으로 DJI(드론), Weiyi(의료), 공유경제 등 신산업에서도 다양한 유니콘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나타나며 청년 창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창업 정책을 통한 혁신형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전략으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제시하였고, 100대 국정과제 중에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 국민 방문 시 벤처창업분야 협력을 한·중 경제협력 8대 방향²⁾ 중 하나로 제시했고, 2018년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베이징 중관촌(中關村) 창업거리를 방문하여 한·중 창업 교류를 강조한 바 있다. 본원은 상기 연구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 현황을

2)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한·중 경제협력 8대 협력방향으로는 △제도적 기반 구축 △교역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에 따른 질적 성장 도모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환경 분야 협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 있음.

파악하고, 2019년에 시행 5년차에 접어드는 중국의 창업 생태계 발전전략인 ‘만중혁신, 대중창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자금, 인력, 기술의 투입에서 중국정부의 역할과 중국창업 정책의 성공 및 한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월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벤처투자 활성화 협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 1월에 한국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주)가 한·중 양국의 민관이 함께 출자하고 한·중 벤처캐피탈(VC)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1억 달러 규모의 ‘한·중 벤처캐피탈 공동 운용 펀드’를 조성하여 운용 중이다. 그 밖에 2015년 10월 중국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한(訪韓) 때 제안을 계기로 ‘한·중 벤처·창업 협력 플랫폼’과 창업지원 기관인 ‘글로벌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설립되어 운용하고 있는 한중 벤처·창업 협력 플랫폼인 ‘청두 한중 창업·혁신 단지’는 한국기업 입주율이 저조하여 양국 협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 창업지원 기관인 글로벌 혁신센터(KIC: Korea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한 데 이어 2017년 2월에는 창업공간(K space)을 설립하였다. 상기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벤처·창업 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도 분석하여 한·중 간 벤처·창업 분야 협력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0년은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시진핑 집권 2기(2018~2022년)의 중반이 되는 시기다. 「13차 5개년 계획」에 나타난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은 중고속성장 유지, 신성장 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지속적 개혁과 개방, 빈곤퇴치 등 민생향상에 역점을 둔 바 있다. 그중, 대외개방전략에서는 진입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개방 확대, 외환관리 완화 및 자본 항목 자유태환 추진, 일대일로 건설,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높은 수준의 FTA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발언권 확대 등을 추구한다고 제시하였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와 함께 성장의 질적 제고, 민간경제의 활성화, 생산 및 분배의 불균형 해소, 구조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내적 과제를 안고 있다. 중

국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소비 주도의 모델로 전환하여 추진 중이지만 현재 중국의 민간소비 수준은 전 세계 평균 및 선진국의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제구조개혁에서 시진핑 1기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공급 측 구조개혁은 시장기제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구조개혁의 주요 부분인 국유기업 개혁의 속도 및 실효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한계 국유기업 퇴출 등 최근 기업 부채 감소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 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어 이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통상 분쟁, 안보 이슈 및 대중국 신뢰성 문제, 정치·사회·경제적 갈등 등 주변국과의 마찰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대외경제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13차 5개년 계획」이나 「상무발전 13·5 계획」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계획 내용을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협력 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과거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대외협력의 분야가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협력은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구 내에 조성한 한국공업원에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사업과 2012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한 제도협력에 기반한 협력사업으로 협력의 유형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로는 충칭(重慶), 후베이(湖北), 랴오닝(遼寧), 산둥(山東)에 소재한 한국공업원을 들 수 있으며, 산둥성 칭다오시(靑島市)에는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조성된 한·중 무역협력구가 있다. 한·중 FTA 기반 협력사업 사례로는 양자간 투자 촉진 및 산업협력을 위해 조

성된 산업단지로 한국 새만금에 위치한 한중산업단지와 중국의 산둥성 옌타이(山东省烟台), 장쑤성 옌청(江苏省盐城), 광둥성 후이저우(广东省惠州)에 조성된 중한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본원은 『중국 주요 지역의 대외협력 유형과 사례 분석』(이상훈 외 2019)에서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협력 전략과 유형,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중 간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의 혁신·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 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전략, 대외경제협력 및 제도개혁 등이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구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협력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한·중 FTA 발효라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서비스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본원은 정부의 중국 정책연구 수요에 부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중(駐中) 대한민국 대사가 급변하는 대중국 진출 환경을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전략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국 新전략 연구』(양평섭 외 2020 예정)를 추진한다. 이는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국제질서의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중국 정책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및 미래의 한·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적 변수들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및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대중국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향후 중국경제 연구의 방향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발히 이뤄졌으나 중국 경제·산업 고도화로 인하여 기존의 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중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새로운 한·중 협력의 모멘텀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한·중 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 분야의 협력수요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국내적으로도 대외 협력에 있어 제조업 기반의 협력을 넘어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대내적인 필요와 미국의 금융시장 개방 요구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2018년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博鳌)포럼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천명한 이후 은행, 자산운용사의 외국지분 규제를 취소하고 증권, 펀드, 보험사 등 외국지분 비율을 확대·철폐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협력 방안』(현상백 외 2020 예정)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현황과 정책을 분야별·지역별로 분석하여 새로운 한·중 협력 모멘텀으로서 한·중 금융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금융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과도한 대중 수출의존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매우 매력적인 소비시장이며, 향후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소비시장 확대 외에도 설비 및 기계부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 외, 한·중 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실버, 의료, 문화, 환경, 스마트 시티, 행정 자동화, 유통, 금융, 융합 IT 등 서비스 시장에서의 신규 경제협력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중국은 2011년 이후 내수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수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내수시장

은 단일시장이라기보다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과거 연해지역 중심에서 중·서부 내륙지역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의 대중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시장을 다수 지역시장의 집합체로 보고 각 지역별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여 이를 감안한 지역맞춤형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개발전략과 지역경제 일체화 정책, 산업정책이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역간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내 경제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도 이러한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 방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도시화의 진전, 신유통채널의 확대 등으로 중국의 소비는 양적 확대와 더불어 소비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소비재의 수입구조와 소비재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별 산업구조, 입지여건, 경제적 기초 등의 상이함은 생산의 지역구도와 교역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역별 내수시장,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시장의 구조와 경쟁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특히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중국 지역경제의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상훈 외 2020 예정)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과 2018년 두 시점 간 지역별 소비와 생산구조, 내수용 수입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차이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변화도 고려한 진출 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과 소비 측면에서의 지역경제 구도 변화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징과 이에 따른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제도협력이나 산업협력,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중국의 중요성 증대에 부합하여 종전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던 중국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원의 중국 연구진은 경제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의 인력도 충원하여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중국의 역할 및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한·중 관계 재정립 방안 수립을 위한 융·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KIEP**

2.

선진경제권 연구

정 성 춘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1. 선진경제권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한국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그러한 연유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직접적이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선진경제권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만한 중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경제권에서 발생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식견을 우리 사회에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선진경제권에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과 이후의 불확실한 사태 전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개시 등이 지난 10여 년간 선진경제권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경제적 사건들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일파만파 세계경제에 퍼지게 되는데 이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나갈 수 있다.

둘째는 선진경제권이 다양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하는 정책방안들을 분석하는 연구다. 통상적으로 선진경제권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다수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후발자로서의 이익이 여기에 있으며, 선진경제권의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유럽의 고용정책, 미국의 신통상정책, 일본의 신성장전략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원은 선진경제권에 관한 지역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전문가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EU, 일본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미국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통상정책, 미·중 경제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유럽 연구에서는 유럽재정위기 이후 발생한 고용문제에 대한 유럽의 대책, 브렉시트 등 유럽공동체에 닥쳐온 위기와 그 대책, 유럽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조화 노력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본 연구에서는 아베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서의 아베노믹스, 그중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규제완화정책, 그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일본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한다.

2. 최근 선진경제권 연구의 주요 내용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에는 위기 이후 선진경제권의 대응에 대해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박복영 외 2012)에서는 미국금융위기가 단순히 금융산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책패러다임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미국의 제조업 증시정책, 수출확대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상당부분 현실화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정성춘 외 2012)에서는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노베이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시하였고 당시 신산업 분야로서 에너지 환경산업(차세대 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 차세대 에너지제어시스템), 의료복지산업(의약품, 의료기기) 육성을 도모했다. 이 정책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었으나 정책기조는 아베 정부에 의해서도 계승되어 최근에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강유덕 외 2012)에서는 2010년 초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으로 촉발된 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유럽사회가 3년간 시도해온 각종 시책들의 효과와 한계, 개별 국가차원을 넘어선 유럽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 개혁요구와 이에 따른 개혁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재정정책의 조율이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 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절차 등 유럽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재정규율 강화, 역내 불균형 해소, 재정통합 강화 등의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에 전개된 유럽의 움직임에서도 영국의 EU 탈퇴 희망 등 유럽통합을 저해하는 상당한 도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본원의 주요 선진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들 선진경제권의 향후 전개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주요 연구를 보면 미국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제조업 강화정책, 그리고 양적완화정책으로부터의 출구전략 등이 주요 주제였으며, 유럽 연구에서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고용확대정책 등을 연구하였고, 일본 연구에서는 아베정부의 성장전략, 산업경

쟁력 강화방안 등이 주요 주제였다. 이러한 연구주제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된 2010년대 중반의 선진경제권에서는 자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정책으로의 전환, 전통적인 제조업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강화, 심지어는 브렉시트와 같이 정치경제적인 통합에 반(反)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관계를 중심으로』(윤여준 외 2017)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고찰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특히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 강화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였다. 또한 미·중 간의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중국에 대한 의존이 강한 우리 경제로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대외적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김홍중 외 2016)에서는 브렉시트가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질지를 예상하면서 브렉시트가 실제로 실현될 경우의 거시경제적 효과,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효과,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브렉시트에 관련된 시장 및 정책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낮추어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김규판 외 2016)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시책 가운데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노동시장 개혁 등 네 가지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이행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민간투자 확대, 노동시장 개혁, 규제개혁,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하여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우리 정부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일본에서도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특히 기업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전후 형성된 전통적인 일본형 노동시장과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4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이 일본사회의 핵심의제로 대두되었음을 제시하였다.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김홍중 외 2019)은 중소기업정책, 산업정책, 일자리 창출정책의 각각의 관점에서 EU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주요국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는 선진경제권에 서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2019년 연구주제들도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고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김규판 외),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조동희 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후자는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다. 공정한 경쟁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정하면서도 혁신지향적인 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3. 향후 선진경제권 연구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원의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의 핵심 이슈를 적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선진경제권의 향후 경향을 상당한 예견력을 가지고 전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시점에서 볼 때, 향후 5년간의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방향은 ‘혁신’과 ‘포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엄청난 양의 데이터 축적, 통신망 발달에 따른 데이터의 활용도 증가, AI의 발달에 따른 데이터 처리속도의 증가, 이러한 여건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의 확대 등 선진경제권에서는 어지러울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을지가 향후 선진경제권의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며, 본원의 향후 5년간 주요 연구테마가 될 것이다. 또한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진경제권의 핵심 연구과제의 하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0년에는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김규판 외), 『산업간 융·복합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강구상 외), 『EU의 역내 노동시장 통합분석 및 정책시사점』(조동희 외)이라는 세 가지 연구를 통해 선진경제권에서 진행되는 혁신과 포용의 조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의 관점보다는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특히 ① 건강·의료·간병, ② 이동(Mobility), ③ 제조(‘모노즈쿠리’), ④ 인프라·도시재생 등 4개 분야를 중점 연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도 해결하면서 새로운 산업도 육성할 수 있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에 틀림없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정책 연구에서는 산업간 융복합이 발생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경쟁정책이 당면한 새로운 도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미국과 유럽이 거대 IT 기업의 대두에 대응하여 경쟁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지를 고찰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됨과 동시에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와 구매자가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기업결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EU의 정책대응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다.

EU의 노동시장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는 역내 노동시장 통합 현황, 노동시장 통합의 영향분석, 노동시장 통합의 부작용 파악 및 대비책 도출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U의 역내 노동시장 통합은 ‘노동이민’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이 가열되고 있다. 영국 국민의 과반수가 브렉시트를 찬성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우익 정당이 약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노동시장 통합에 따른 노동이민의 급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저

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노동시장의 통합 문제를 현황, 영향, 부작용, 대응책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유럽사회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선진경제권 연구는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경제권에 비해 더 많은 정보와 연구성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의외로 선진경제권에 대한 연구자원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본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선진경제권에 대한 지역연구자를 찾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경제권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본원의 선진경제권 연구가 향후 더욱 강화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KIEP**

3. 신흥경제권 연구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연구위원



1. 신남방지역 연구

1) 신남방지역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신남방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ASEAN 지역의 가치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이 중견국으로서 세계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려면 특정국에 의존된 교역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4년(2015~2018년) 동안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3%로 특정국에 집중되어 왔다.¹⁾ 특히 THAAD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비시장적 조치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를 겪으면서 한국은 교역지역 다변화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신남방지역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한 시장은 아니지만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을 기점으로 신흥시장의 총 GDP가 선진국의 총 GDP를 추월했다(그림 1 참고). 2000년에 세계 GDP에서 신흥시장이 차지하던 비중은 43.2%였지만, 2020년에는 60.5%에 이를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²⁾ 중국을 제외한 신흥시장의 총 GDP는 2019년에 선진국의 총 G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참고). 신흥시장 가운데에서도 신남방지역의 핵심 협력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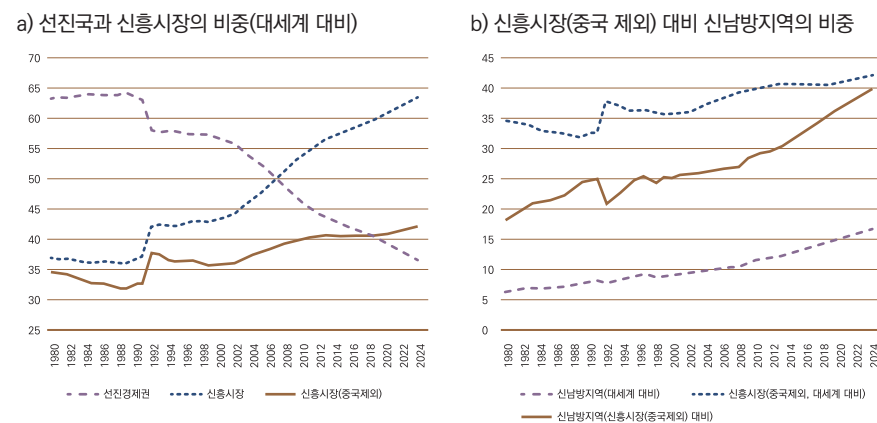
1) 한국무역협회, KITA.NET. <http://stat.kita.net/stat>. 해당 연도자료 활용(검색일: 2019. 8. 2).

2)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PPPSH@WEO/OEMDC/ADVEC/WEOWorld>(검색일: 2019. 8. 2).

트너인 인도·ASEAN 지역은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다. 신흥시장(중국 제외) GDP 대비 양 지역의 GDP 비중은 1980년 18.1%에서 2020년 36.5%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2024년이 되면 신흥시장(중국 제외)의 약 40%를 인도·ASEAN 지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잠재시장으로서 인도·ASEAN 지역의 가치는 크다. 2015년 말 ASEAN은 경제공동체를 출범하고 인구 6.4억 명, GDP 2.5조 달러의 거대경제권으로 이미 부상했고, 인도는 2024년이면 GDP 규모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³⁾

둘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충돌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입지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중립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신남방지역은 시장 다변화 지역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도는 G20, BRICs 등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현재 UN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려고 노력 중이다.⁴⁾ 특히 모

[그림 1] 세계 GDP 대비 신흥시장 비중



주: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GDP 비중.

자료: IMF DataMapper, <http://www.imf.org/external/datamapper/PPPSH@WEO/OEMDC/ADVEC/WEOWORLD>(검색일: 2019. 8. 2).

3) <https://connect.ihs.com/home>(검색일: 2018. 7. 4).

4) The Times of India, "US likely to raise issue of India's Security Council membership at UN"(2017. 8. 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us-likely-to-raise-issue-of-india-security-council-membership-at-un/articleshow/59910717.cms>.

디 정부는 출범 이후 ASEAN은 물론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세력의 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면서,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균형, 평화, 안정을 도모하는 4자안보협의체(QUAD)에 참여 중이다. 한국의 경제·외교적 생존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외교·안보적 역량을 보유한 인도와의 협력은 가치가 있으므로 인도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한편 ASEAN은 전통적으로 대외협력에 있어 높은 포용성을 보여왔다. 자신들의 존립토대인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위해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다자체제 형성에 매우 유연하다.⁵⁾ ASEAN이 중심이 되어 'ASEAN 플러스(+)'의 형태로 ASEAN+1, ASEAN+3, ASEAN+6 등 다양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ASEAN은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동아시아 역내 다층적·다기능적 협력체 형성을 주도해왔다. 2015년 말 ASEAN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이후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국제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 완전한 형태의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도 국제 및 지역기구 참여와 다자간 거래 지원, 지역 포럼 참여 등을 장려하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요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공조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2018년 7월 한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지지를 인도·싱가포르 순방에서 확인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한국이 기능할 수 없고, 평화경제의 실현도 요원하다. 북한과 오랜 외교관계를 유지해온 ASEAN이 북한의 외교적 '숨통' 역할을 하면서 평화체제의 중요성을 북한에 설득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ASEAN은 전통적으로 각국의 독립과 주

5) ASEAN 중심성(ASEAN Centrality)은 포용성과 개방성의 토대이며, ASEAN 공동체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존재해왔다.

권을 강조해왔으므로 비핵화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북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언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신남방지역은 잠재시장으로서의 가치, 대외협력 파트너로서의 가치,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시장잠식형 해외진출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관점의 연구뿐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남방지역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남방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신남방지역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협력방안을 마련할 때다. 신남방지역을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서 삼고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뿐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의 충격으로부터 한국은 새로운 안전망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엄중한 대외경제 여건하에서 신남방지역과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파트너와 함께 대안을 준비하려면 신남방지역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2) 신남방지역 연구의 주요 내용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ASEAN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초보적인 경제통합 형태인 ASEAN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1993년 제안했고, 2002년 이를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리고 조금 더 진화한 경제통합체 추진을 위해 ASEAN은 2003년 ASEAN 정치·안보공동체(APSC),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ASEAN 협력선언 II(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권 율 외 2003)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동남아와 FTA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증대를 위해 중국, 일본이 노력 중이므로 한국도 ASEAN과 FTA 추진을 포함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안정적인 수출과 투자시장을 신남방지역에서 확보하기 위해 2007년 한·ASEAN FTA, 2010년 한·인도 CEPA를 타결했다.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대인도·대ASEAN 통상정책과 함께 한·ASEAN FTA와 한·인도 CEPA의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무역을 중심으로』(김한성 외 2009),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김태운 외 2010),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조충제 외 2010),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웅 외 2014),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조충제 외 2018)이라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5년 말 ASEAN이 경제공동체를 출범함에 따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일시장·단일생산기반 구축, 경쟁력 갖춘 경제지대, 균형경제발전,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4대 축으로 하는 ASEAN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은 역내 무역투자구조의 변화와 생산네트워크의 확장을 가져와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곽성일 외 2015)이라는 연구는 ASEAN 역내 교역의 비중이 여전히 낮고, 해외직접투자(FDI)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ASEAN 역내 회원국들의 산업 및 무역이 상호 경쟁적이다 보니 FDI 유입을 위해 산업정책 및 투자 유인정책을 빠르게 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ASEAN의 변화와 통합노력은 해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투자유입의 증가로 신남방지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역내 산업구조 변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 노동시장 구조변화, 도시화 진전, 인프라 수요 확대 등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면서,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역내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도는 권역별로 다른 산업구조를 보유하게 되었고, ASEAN 지역도 회원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인도의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이순철 외 2007),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김태운 외 2010),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김태운 외 2013),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조충제 외 2012) 등의 연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기초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들어 신남방지역에서 한국기업들이 그들만의 생산네트워크를 완비하면서 현지 로컬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변영하는 협력관계 추구를 위해 현지 로컬기업과 한국기업이 함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곽성일 외 2016)이라는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계 대기업과 함께 동반진출하여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곽성일 외 2017)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여 아세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의 대ASEAN 투자와 교역이 베트남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곽성일 외 2016)을 통해 주목하고 ASEAN 전역으로 교역 투자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201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목표가 경제·외교의 다변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에 집중된 한국의 교역과 투자를 메콩지역과 인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집중된 한국 생산네트워크를 메콩지역과 인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역내 교역 확대 방안: 인도, 아세안을 중심으로』(정영식 외 2019)라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과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적 변화를 정리하고 한국, 인도, ASEAN 지역을 가치사슬로 연결함으로써 과거와 차별화된 교역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첨예화됨에 따라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은 한국에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편 2017년 11월 한국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뿐 아니라 사회문화협력, 정치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제협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회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

전과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문진영 외 2019)이라는 연구를 추진했다. 2015년 말 출범한 ASEAN 공동체는 ASEAN 사회문화공동체(ASCC), ASEAN 경제공동체(AEC), ASEAN 정치안보공동체(APSC)를 포함하는데 이 구조는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비전으로 추구하는 사람공동체(People Community), 번영공동체(Prosperity Community), 평화공동체(Peace Community) 등 3P 공동체의 구현과 결을 같이한다. 특히 ASEAN 사회문화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신남방정책의 사람공동체와 지향점이 같다. 따라서 경제협력 방안의 마련에 집중해온 과거의 연구를 확장하여 빈곤, 환경, 노동 문제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이슈를 분석함으로써 ASEAN과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방안을 제시한다.

3) 향후 신남방지역 연구의 방향

한국과 신남방지역 간 협력은 오랜 기간 지속해왔다. 인도와는 1973년 12월 외교관계 수립을, ASEAN과는 1989년 부분 대화 관계 수립을 공식적인 협력의 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는 인도에 대하여 한국의 대인도 정책은 남·북한 대결로 인한 정치·외교 중심의 관계형성 및 유지에 머물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정상의 상호방문과 함께 한·인도 관계는 무역·투자에 중점을 둔 실리적 협력 관계로 전개되었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꾸준히 격상되어온 양국관계는 2015년 5월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ICT,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실현을 위해 인도에 1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지원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017년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경제·외교 협력 수준을 한반도 주변 4국(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하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를 함께 발굴하기로 하였다.

대ASEAN 지역 정책은 대인도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진화하였다. 1990년대 이전, ASEAN은 한국을 자신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하나이자, 남·북한 경쟁에서 한쪽을 편들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회피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1980년대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ASEAN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한국이 ASEAN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경제와 기능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과 ASEAN의 관계는 발전해왔다. 그 결과 ASEAN은 2018년 기준 한국의 제2위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제1위 방문지역이 되었고, 8,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ASEAN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류 전파로 ASEAN 지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신남방지역 정책은 실리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되었다. 한국기업의 신남방지역에 대한 투자진출은 1990년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본격화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현지시장 진입으로 투자목적이 변했다. 인도와 ASEAN 지역의 내수시장 확대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0년대 인도는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고, ASEAN 지역도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기존 연구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남방지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협력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협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 전파로 인한 신남방지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남방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대외위험에 대한 노출 증가와 함께 현지 소비시장뿐 아니라 요소시장 내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신남방지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면서 정치, 안보를 포함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신남방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대외여건의 변화가 신남방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중 패권경쟁이 신남방지역 정세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신남방지역에 진출한 한

국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일대일로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대해 인도, ASEAN의 대응을 살핍으로써 한국의 대응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구체화하고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2017. 12), 『국가국방전략(NDS)』(2018. 1), 『인도·태평양전략(IPSR)』(2019. 6)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보가 ‘항행의 자유’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하고 일대일로 정책이 투자 수혜국을 채무의 덫에 빠트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를 강조한다. 또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 규칙과 규범 준수를 위해 역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추진 원칙은 신남방정책의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가치와 결을 같이하므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보완적인 활동 부문을 발굴해낼 수 있다면 조화로운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프라 개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과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관련된 인프라 사업에 대해 신남방지역의 반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이 함께할 부문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5G 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 운용 능력과 미국의 자본 및 장비 역량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기회』(최인아 외 2020 예정)라는 연구를 추진하여 인도, ASEAN 회원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수요를 고찰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인도, 한·ASEAN 간 전략적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편 신남방지역은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앞서

언급했다. 인도는 2024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ASEAN 지역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지만 2017년 인구 6.4억 명, GDP 2조 7,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미 거대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신남방지역을 생산기지나 소비시장으로 보던 관점을 한 단계 높여 번영의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도 새로운 미래협력의 모색을 강조한다. 신남방지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기보다는, 경제 성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발전단계를 건너뛰려 하므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신남방지역과 함께할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7년 11월 선포된 신남방정책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마련을 강조하므로, 장기비전이나 막연한 사업보다는 양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정책입안자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헌연구를 통한 협력 방안 제시보다는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남방지역 출신 연구자와 활발한 교류에 기반한 연구 추진을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국경간 디지털화(digitalization) 및 서비스의 공급, 각종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정보 이동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통상 로드맵을 2019년 1월 발표했고, 2019년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참여하는 등 관련 시장의 확대 및 법규 수립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 관해 2019년 4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에서 신남방지역과 제조업, 인프라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디지털통상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남방지역은 거대한 시장과 발전 잠재력으로 인해 시장(데이터) 선점을 위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치열한 각축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신남방지역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투자,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신남방지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단편적이다.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분석

6) <https://connect.ihs.com/home>(검색일: 2018. 7. 4).

과 시사점』(김정곤 외 2020 예정)은 이러한 연구의 갭을 메꿀 것으로 예상되며, 신남방지역의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입장에 부합하는 제도 동조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에 유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덧붙여 인도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응용 및 상용화 기술역량, 그리고 ASEAN의 역동성을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 인도는 우수한 IT 분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글, 아마존, 인텔, 시스코 등 주요 글로벌 IT 기업은 이미 진출했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한국기업도 합류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노이다, 벵갈루루, 델리 R&D 센터를 설립하고 IoT,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과 함께 인도는 저임금의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첨단기술산업의 전통적 강국인 미국과 영국에 이어 스타트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디 정부는 창업 자금 지원, 창업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창업지원 정책 ‘Start-up India’를 적극 시행 중이고, 인도의 경제성장과 디지털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벤처 투자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인 스타트업 선도 국가인 미국, 유럽과 달리 새롭게 부상하는 인도와의 협력은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 관련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과 신남방지역의 정책 및 실물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수요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현황과 정책시사점』(한형민 외 2020 예정)이라는 연구가 시의적절한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신북방경제 연구

1) 신북방경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공간적으로 신북방경제권은 과거 북방정책의 대상 국가들(당시 공산권 국가들) 가운데 현재 유럽연합(EU)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신흥국)을 의미한다. 이는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대상국

들이며, 총 13개국으로 구성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북방경제권은 동슬라브 지역 3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과 몰도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코카서스 지역 3개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몽골을 포함한다.

신북방경제권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북방지역이 보유한 전략적 가치 및 중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볼 수 있다.

첫째, 신북방지역은 대외경제협력 다변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기타 광물 등)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원자재 중심의 북방국가와 제조업 중심의 한국), 역사·문화적 유대(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를 가지고 있는 북방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대내적(주력산업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생산확대 및 수출증대 한계) 핵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한국은 미·중 통상분쟁,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 등과 같은 중대한 대외경제적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에서 북방경제협력은 △북방유라시아 新시장 개척, 대중국 의존도 완화 등을 통한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의 신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일조할 수 있다.

둘째, 신북방지역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인프라(유형, 무형) 구축을 위한 공간이다. 한반도에서 갈등과 대립 심화, 전쟁 발발 위험성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북방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 경제협력(특히 극동시베리아 개발 참여, 초국경협력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 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할 것

이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남북한)와 주변 강대국(중국과 러시아 vs 미국과 일본) 간 안보적 측면에서 긴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러 3자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남북화해와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유·무형의 한반도 통일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신북방지역은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간이다. 교통, 물류, 에너지 등의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연계성 강화 및 가치사슬 형성은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전략적 강조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북방지역 국가들의 핵심 국가 전략 방향과의 점진 모색 및 개발 사업(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극동개발,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 등)에 대한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국제협력 제도화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다양한 역내 통합과정(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중국의 신실크로드와 일대일로 전략 등)의 진행 및 다자협력체(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 CAREC·CICA·EurAsEC 등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체, GTI, 중·몽·러 경제회랑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북방경제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통상협정(러시아 및 EAEU와 FTA, 몽골과 EPA 등) 체결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역내 다자기구 참여 및 소다자주의 협력 등을 활용하여 유라시아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감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 촉진자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신북방지역은 대륙 정체성 회복과 해륙 복합국가건설 토대 마련을 위한 공간이다. 한반도는 북방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지만, 남북 분단과 냉전의 잔재로 인해 현재 한국은 일종의 ‘고립된 섬’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과거 만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문명교류의 영역을 확장해나갔던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기억한다면, 한국은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연계성

을 복원함과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진정한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극동지역에서 양자(한국, 러시아) 및 다자(한국,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북한 등) 경제협력 체제 구축,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몽골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 증진 작업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은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을 토대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대륙 정체성’ 회복 △‘북방정책과 환동해 협력’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해륙 복합 국가건설’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차원의 국가 전략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북방경제권 연구는 대외경제협력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인프라 구축, 유라시아 경제통합 참여와 국제협력 증진, 한국의 대륙정체성 회복과 해륙 복합국가 건설토대 마련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근 신북방경제 연구의 주요 내용

2017년 9월 7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외교 버전이며,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에 포함된 하나의 정책 방향이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12월 7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창설되어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론타워가 구축되었다.

KIEP는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북방전략 마련에 일조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신북방경제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연구다.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박정호 외 2017),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이재영 외 2017)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경제통합체로서 2015년 1월 1일에 출범했다. 관세동맹(Custom Union)의 일원이었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창설회원

국으로 참여했으며, 공식 출범 직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공화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EAEU의 회원국은 총 5개국이다. EAEU 지도부는 2025년까지 현재 EU와 유사한 통합체인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건설하기 위해 부문별 통합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EAEU는 2015년 5월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는 등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온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EAEU의 투자환경 분석 및 진출방안 마련, EAEU와 FTA 체결 및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확대, 유라시아 신시장 개척, 교통 및 물류 루트의 다양화,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및 다변화,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프로젝트 진행 등을 통해 한국의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북방경제 성장 모델 창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협력 방향』(박정호 외 2017)에 관한 연구다.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왔다. 그 덕택에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신의 경제발전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해오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건설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중앙아시아 개발협력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정책 동향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강점,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특화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푸틴 4기(2018~2024)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연구다. 『푸틴 집

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박정호 외 2018), 『푸틴과 러시아 극동개발 20년: 한-러 극동 협력 심화를 위한 新방향 모색』(박정호 외 2019) 등의 연구를 추진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에 들어서 신동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극동 연방관구에 대한 일련의 재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먼저 러시아 연방정부의 결정으로 2018년 11월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소속되어 있었던 2개의 연방주체(부랴티아 공화국과 자바이칼 변경)가 극동연방관구로 전격 편입되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극동지역 행정 중심지 변경(기존 하바롭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이전 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2019년에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2018년 러시아 정부는 북극 개발 및 북극 항로 관련 제반업무(주로 경제 부분)를 극동개발부에 이관함에 따라, 이 기관은 극동북극 개발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상술한 극동지역 관련 주요한 정책 변화들은 대내적(푸틴 집권 4기 새로운 극동지역 개발정책의 기본 방향과 관련 국가 프로그램 실행) 및 대외적(신동방정책의 심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러시아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한·러 협력 방안』(박정호 외 2019)에 대한 연구다.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산업 디지털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다른 주요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 발전전략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4월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유망 시장에서의 신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TI)’를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다. 그렇지만 과학 기술계에서 보여준 과거의 역사적 성공 사례와 현재의 기초과학 분야 및 혁신 역량을 감안하면, 경제력 순위와 상관없이 주목해야 할 과학기술 강국(에너지, 방위산업, 우주 항공, 원자력, 첨단 무선 및 레이저 분야 등)이다. 따라서 러시아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는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과 산업협력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 전략은 로봇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양자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스마트 공장 건설 등에 한국의 기술과 제품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로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박정호 외 2019)를 들 수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 발발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상당히 경색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와 저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기인한 나진·하산 프로젝트 및 남·북·러 삼각협력 무산 등이 양국 관계발전의 직간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러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자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주요국(독일,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연구는 한국의 대러시아 관계발전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즉 새로운 대러시아 경제협력 증진 및 극동 개발협력 참여방안을 수립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신북방경제 연구의 방향

주지하듯이, 2020년은 한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양국은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과 러시아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과제이며, 그 일환으로 한·러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지하듯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에 직면하고 있는바, 혁신 산업 육성을 통한 천연자원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과 첨단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푸틴 집권 4기 핵심 국정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차원에서 최근 러시아의 해외투자 패턴과 투자유치 정책 기조의 변화(에너지 중심에서 에너지, 물류, R&D 등으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 간에 사회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 등 경제 환경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푸틴 집권 4기 지역개발정책(특히 극동연방관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전략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다소나마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속에서도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에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2020년 교역 300억 달러와 인적교류 100만 명)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2030년 교역 1천억 달러)이 제시한 경제협력 목표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상호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우선적인 과제들 중 하나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플랫폼 활성화, 혁신산업 투자협력 및 제3국 공동 투자진출방안 마련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KIEP**



IV. 한반도 신경제 구상 연구

북한의 대외경제와 체제전환 관련 연구 및 평화경제

최 장 호 KIEP 신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



1. 평화경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주요 대북정책으로 관여정책 중 하나인 햇볕 정책을 추진하였다.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화해를 하는 한편, 경협을 통해 남북 양측이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그 기반에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군사적인 대남 도발이 줄어들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론이 자리하였으며, 당시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경협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금강산관광(1998. 11)과 개성공단(2004. 12)이었다.

그러나 제2차 북핵위기(2002. 10) 이후, 북한이 비밀리에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북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여론 일각에서 북한이 남북경협으로 벌어들인 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하는 금액이 남한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는 ‘대북 퍼주기’론을 제기하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압박·봉쇄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대북 압박·봉쇄 정책은 남북통일은 이룩되어야 하고, 북한에 대한 경협은 남한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지원과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을 통해 북한 정권의 통치 기

반을 약화시키고 조기 붕괴를 유도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을 즈음하여 대북 퍼주기론이 제기되자, 이에 맞서 국제경제학의 자유주의 논의를 한반도 실정에 맞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일련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평화경제론'의 시작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햇볕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제경제학의 자유주의와 대북강경론의 기반이 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가 충돌한 양상이었는데, 자유주의는 정의와 질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에 기반을 두고, 무역과 투자를 매개로 한 국가 간 경제협력과 통합이 국가간 분쟁을 줄이고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¹⁾한 반면, 현실주의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임을 전제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국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군사적 무장을 강화해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햇볕정책은 남북경협이 남북한 경제통합과 평화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대북 퍼주기론은 남북경협이 북한의 핵무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위시로 한 적극적인 대북 교류협력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면서 관련 논의가 근본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남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제1차 2006. 10)을 이행하였고, 남북 간의 군사적 마찰(2008. 7 금강산 관광객 피격)도 지속되었다. 이에 자유주의(경제평화론)를 한반도 정세에 맞춰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것이 평화경제론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경제론의 대표적인 연구로 조 민(2006)²⁾, 김연철(2006)³⁾, 홍성국(2006)⁴⁾을 꼽을 수 있으며, 관련 논의를 더욱 확장시킨 연구로 이정철(2008)⁵⁾을 꼽을 수 있다.

1) 이 논의는 경제평화론으로 통칭되기도 함.

2) 조 민(2006),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통일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

3) 김연철(2006), 「한반도 평화경제론: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4) 홍성국(2006), 「평화경제론」, 도서출판 다해.

5) 이정철(2008),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북한연구학회보』, 12권 1호.

평화경제론은 햇볕정책이 의지하였던 자유주의(경제평화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연철(2006)은 평화경제론은 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통한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축, ②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추구(국제경제학의 자유주의), ③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구성 등 3개를 축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경협이 단계적으로 중단되었고, 평화경제와 관련된 학계 논의도 이어지지 않았다. 북한은 연이은 핵실험(제2차 2009. 5, 제3차 2013. 2), 천안함 피격(2010. 3), 연평도 포격(2010. 11), DMZ 폭탄지뢰매설(2015. 8)을 단행하였으며, 그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금강산 피격 사건(2008. 7)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는 한편,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시켰으며, 5.24 조치(2010. 5)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과의 남북경협을 전면 중단하였고, 급기야 개성공단을 중단(2016. 2)시키기에 이르렀다. 시기를 같이 하여 남북경협 재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도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017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었고, 그에 호응하여 평화경제가 재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북한에 투자되었던 자산이 남북 안보 불안으로 성과 없이 대부분 중단되어 사업가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이에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북한이 군사안보적 도발을 멈추게 하고 남한에서도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평화경제론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추사에서 광복 100주년 이 되는 2045년이 남북통일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까지 밝혔다.

2. 평화경제의 정의와 주요 내용

평화경제론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여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다시금 평화 구축을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추진 원칙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일상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특수성, 즉 분단 체제 지속, 북핵문제의 확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안보 불안으로 인한 남북 교류협력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한다. 남북·동북아·동아시아에 경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이 군사·안보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이익을 창출하여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 ‘남북한 간 합의서 작성 및 각종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익 공동체를 형성한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이익 공동체가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자평화안보협력체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경계구상(특히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지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평화경제의 지역적인 확장을 추구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이익 공동체 형성이 ‘동북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정착에 국제사회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북·중·일·러는 경제규모와 역사적 이질성이 커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하더라도 양측이 얻는 이익의 규모가 다르며, 이것이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경제협력의 장애를 넘어 비대칭적인 이익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공동체’의 구성이다.

3. 향후 대북 정책 연구의 방향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압박·봉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부나 하나의 정책만을 추구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과 압박·봉쇄 정책을 적절히 병행하여 적용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KIEP 통일국제협력팀은 정권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부침 없이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정책 개발과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KIEP 통일국제협력팀의 명칭은 국제사회로부터 남북한 통일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관련 북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와 남북경제협력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업무로 ‘북한의 대외경제와 체제전환 연구, 북한과 관련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할 것이며, 주요 연구 분야로 ‘북한의 대외경제 분야 연구,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 경제협력 연구,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구,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 대북제재 연구’ 등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연구 방향은 ‘평화경제’를 포함한 대북 관여정책은 물론, 대북 압박·봉쇄 정책과 관련된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기본연구과제로 동남아 『CLMV(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최장호 외)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

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소수의 국가만이 기대에 부응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도 정권 안정, 남한과의 체제경쟁 등을 이유로 체제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CLMV 국가와 유사하게 기대 이하의 경제성장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 북한이 체제전환기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 동기와 체제전환 과정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를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언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경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경제의 이론화, 체계화, 구체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추진 전략과 중장기 비전을 제안할 것이다. 관련 과제를 발굴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고 관련하여 지지를 얻을 것이다.

다음으로 관련 부서 설립 취지에 맞게 북한경제와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먼저 북한의 대외관계 연구를 통해 북한경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것이다. 대북 제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의 대외경제와 대외관계, 대북투자 및 외화수급 현황 등을 연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12월 이후 북한 경제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핵 병진 노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 총 집중 노선으로 변경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 포전담당제와 제조업 분야에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통해 집단주의 생산방식에서 개인이 생산·분배의 단위가 되는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국제협력팀은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즉 수출입 통계 분석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가 정책기조에 맞춰 어떤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분석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 추진 방안과 안정적인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경협제도 개선방향을 연구한다. 정부는 남북경협은 여건이 조성될 경우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KIEP의 통일국제협력팀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

추진 시나리오와 경협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과거 KIEP 통일국제협력팀이 수행한 『남북한경제통합 분석모형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최장호 외 2017) 연구는 대통령의 2018년 광복절 축하에서도 인용된 사례가 있다. 앞으로 관련 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남·북·중·일·러 다자협력 방안을 연구하여 동북아 안정과 국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KIEP 통일국제협력팀은 GTI(Greater Tume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현재 GTI는 국제기구로의 법적전환을 현안 문제로 다루고 있다. KIEP는 GTI의 RIN(Research Institution Network, GTI 연구기관협의체)의 회원 기관으로 GTI가 동북아경제협력을 주도하는 한국·중국·몽골·러시아 4개국의 정부간 다자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의 북한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남·북·미·중·일·러를 포함한 동아시아 다자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북한경제 연구자는 물론, 일본의 북한경제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미나를 정례화하는 한편, 중국의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례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여 교류하도록 하겠다. 미국 KEI가 주도하고 있는 한·미 Opinion Leaders' Seminar, 중국 연변대학이 주도하는 조선반도 포럼, 두만강 포럼 등에 참여하여 주요국의 동아시아 연구자와 교류 협력하도록 하겠다. **KIEP**



04

제 4 부 비 전 및 조 직 운 영

I. 국제적 위상

II. 비전과 경영목표

III.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IV. 연구 지원활동

I. 국제적 위상

국제적 위상

노현주 KIEP 대외전략위원회 연구원



1. KIEP의 현 위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9년 1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 The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¹⁾이 실시한 「2018 전 세계 싱크탱크 평가(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에서 3년 연속 ‘국제경제정책’ 부문 세계 5위, 아시아 및 국내 1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KIEP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벨기에 브뤼젤(Bruegel),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오스트리아 빈국제경제연구소(WIIW)에 이어 동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유수의 글로벌 싱크탱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아울러 전 세계 8,200여 개 싱크탱크 중 33위 반열에 오른 KIEP는 ‘대외관계 및 대중 참여 프로그램’,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 ‘인터넷 활용’, ‘2개 이상의 싱크탱크 간 협력’, ‘신규 아이디어 또는 패러다임 개발’ 등 5개 분야에서 국내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KIEP는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부문에서도 국내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내 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은 총 17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KIEP가 세계적인 담론을 선도하고 연구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 전략 수립에 이

1)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은 2006년부터 매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과 설문조사, 평가 등을 통해 글로벌 싱크탱크의 경쟁력을 평가해왔다. 2018년에는 전 세계 8,162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학자, 정책 담당자,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평가에 참여했다.

마지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KIEP는 전 세계 싱크탱크 평가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중국, 인도, 일본, 한국) TOP 싱크탱크’와 ‘국제경제정책’ 부문에서 3년간 각각 3위, 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정책’ 부문에서도 2년 연속 2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개발정책’(67위→35위), ‘최고의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81위→66위),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70위→58위) 부문에서는 특히

[표 1]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주요 부문별 KIEP 순위

카테고리	2018 국내 순위	2018 세계 순위	2017 세계 순위
국제경제정책 (Top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ink Tanks)	1위	5위	5위
외교정책 및 국제관계 (Top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Think Tanks)	1위	58위	60위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Think Tanks with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Policy)	1위	36위	-
대외관계 및 대중 참여 프로그램 (Think Tanks with the Best External Relations/ Public Engagement Program)	1위 (국내유일)	40위	49위
최고의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 (Best Think Tank Network)		66위	67위
인터넷 활용 (Think Tanks with the Best Use of the Internet)		42위	43위
2개 이상의 싱크탱크 간 협력 (Best Institutional Collaboration Involving Two or More Think Tanks)		31위	30위
신규 아이디어 또는 패러다임 개발 (Best New Idea or Paradigm Developed by Think Tanks)		39위	3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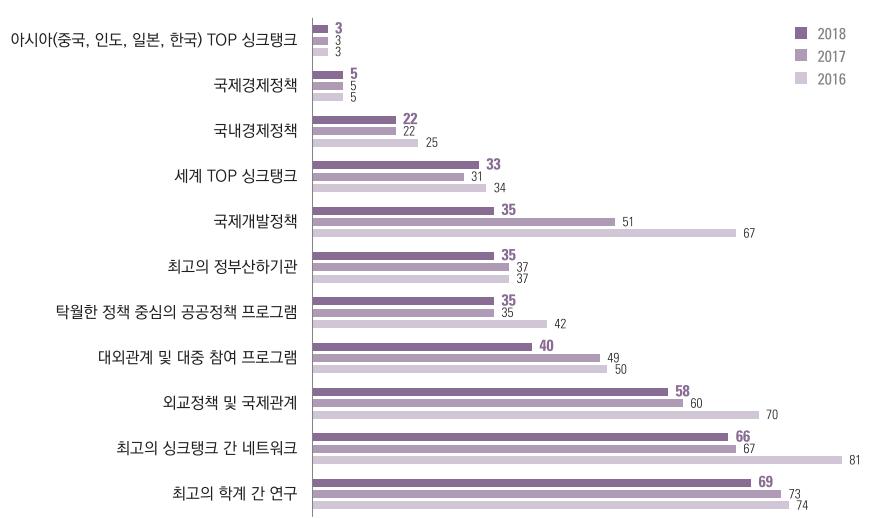
자료: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9.1), 2017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8.1)에서 KIEP 순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높은 순위 도약을 보였다.

이 외에도 ‘최고의 학제간(Transdisciplinary) 연구’, ‘대외관계 및 대중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근 3년간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EP가 과거의 업적이나 현재의 성과에만 안주하지 않고 꾸준한 발전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KIEP는 TTCSP와 공동으로 「Annual Forum on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 Launch」 학술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2018년에는 ‘왜 싱크탱크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2019년에는 ‘포용성장 및 포용국가를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본 포럼은 매년 TTCSP 보고서 발표를 기념하여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미국 워싱턴 D.C.와 전 세계 2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다. 국내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을 대표하여 KIEP가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내외

[표 2] 최근 3년간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에서 KIEP의 순위 변화



자료: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9.1), 2017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8.1), 2016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7.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성장 및 정책에 관한 현안이슈를 논의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KIEP는 이 외에도 2019년 2월 한경비즈니스가 실시한 「2019 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조사²⁾에서 ‘경제·산업’ 부문 국내 2위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3년 연속 동 순위에 이름을 올린 KIEP는 대외적 영향력, 연구보고서의 질, 연구인력의 역량 부문 등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얻어 한국을 움직이는 대외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조사를 진행한 한경비즈니스는 KIEP의 최근 주요 연구과제로 신남방·신북방·신통상정책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거시금융 등을 꼽으며 국내 국책연구기관 중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출처: 『한경비즈니스』, 1213호, 2019. 2. 27.).

KIEP는 앞으로도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과 세계 지식 사회에 밑거름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돋움해나갈 계획이다.

[표 3] 국내 100대 싱크탱크 중 KIEP의 위상

순위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점수
1	한국개발연구원	460	426	456	1,342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4	287	296	847
3	산업연구원	241	287	249	777
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21	255	249	725
5	한국금융연구원	215	218	243	676

자료: 2018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9.1), 2017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2018.1)에서 KIEP 순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한국의 100대 싱크탱크」 조사는 평가 대상을 경제·산업, 정치·사회(여성·노동, 환경 포함), 외교·안보 등 세 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부문별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싱크탱크의 대외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으로 구분되며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과가 산출된다.

2. MOU 및 해외 네트워크 현황

KIEP는 현재까지 전 세계 34개국의 공공/연구기관들과 총 74개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MOU는 세계지역연구 및 국제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KIEP의 핵심적인 해외 네트워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KIEP 체결 MOU 기관의 국가·지역별 현황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	동남아	인도 서남아	러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동	합계
3	27	4	7	5	5	6	13	4	74

1999년 10월 페루 Univerisad Del Pacifico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까지 20년간 해외기관들과 MOU 체결을 통해 다양한 현지 정보자원을 활용해오고 있다. 체결기관과는 지속적인 세미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인적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연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과 가장 많은 총 26건의 MOU를 체결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유럽(프랑스,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북아메리카(미국), 남아메리카(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 아프리카(모로코), 아시아(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 MOU 체결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이 중 아시아 내 MOU 체결 건수가 52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기관 다양화는 한층 더 폭넓은 연구 활동 및 지식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향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KIEP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KIEP**

II. 비전과 경영목표

비전과 경영목표

우 은 영 KIEP 연구조정실 책임행정원



1. 비전

대외경제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국내 경제·사회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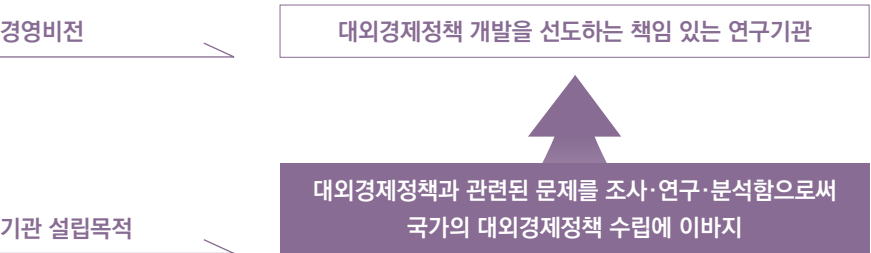
2. 경영목표

1)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정책 연구

포용적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대외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외정책수단을 개발하였다.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의 통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고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및 금융 혁신이 성장과 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정책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통상정책 및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영비전, 기관 설립목적, 3대 경영목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2018~2021)



경영목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2018~2021)

경영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Ⅰ.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정책연구	Ⅰ-1. 신보호주의와 통상질서 재편에 선제적 대응	[Ⅰ-1-①]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대외경제 및 통상정책 과제 발굴 [Ⅰ-1-②] 통상환경 변화 및 대외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지원 강화
	Ⅰ-2. 국가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전략 지원	[Ⅰ-2-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국제경제 연구 발굴 [Ⅰ-2-②] 연구과제의 융·복합 및 협동연구 확대
	Ⅰ-3. 세계지역연구의 국가적 허브(Hub) 구축	[Ⅰ-3-①]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남방·신북방 정책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현)지원 [Ⅰ-3-②]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 및 신흥지역 연구 저변 확대
Ⅱ. 연구성과 확산 극대화 추구	Ⅱ-1.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 강화	[Ⅱ-1-①] 타깃그룹별 효과적인 홍보수단 구축 [Ⅱ-1-②] 정부정책 담당자와의 정책 연계체계 강화
	Ⅱ-2. 연구결과와 국제적 확산	[Ⅱ-2-①]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확대 [Ⅱ-2-②] 연구성과 및 학술지(EAER) 국제화
	Ⅱ-3.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 강화	[Ⅱ-3-①]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체계화 [Ⅱ-3-②] 현안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차별화
Ⅲ. 능동적인 연구환경 조성	Ⅲ-1. 고객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확립	[Ⅲ-1-①] 자율적 토론문화 확산을 통한 기관운영 [Ⅲ-1-②] 내외부 고객 의견에 대한 피드백 강화
	Ⅲ-2.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Ⅲ-2-①]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Ⅲ-2-②] 연구역량 증대를 위한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
	Ⅲ-3.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Ⅲ-3-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 고양 [Ⅲ-3-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및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인 우리나라가 G2 중심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모든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지역연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활용방안도 제시해나갈 것이다.

2) 연구성과 확산 극대화 추구

연구성과 확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 및 확산 체계를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왔다. 고객에 맞는 홍보수단 및 성과확산 도구를 개발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과 연구결과물로 국민과 정책 담당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증진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국제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왔다. 또한 연구결과물을 홍보하고 본원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단계적 노력을 수행하며, KIEP 북경사무소, 미 KEI 등을 비롯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생한 현지 생산 정보를 연구에 반영하여 현장감 있는 연구 결과물을 창출할 것이다.

3) 능동적인 연구환경 조성

외부 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고 열정적인 토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해왔다. 직원들이 제안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해당 이슈를 연구원의 주요 회의체에서 논의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탁월한 장점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교육훈련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요소들과 관습을 제거하여 변화와 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KIEP**

III.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주요 연구영역과 활동분야

우 은 영 KIEP 연구조정실 책임행정원



1. 주요 연구영역

국제거시금융실 :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거시부문 연구**
 - 국제거시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
 - 세계경기변동에 대한 연구
 - 외환 및 자본 시장에 대한 연구
 - 국제거시모형에 대한 연구
- **국제금융부문 연구**
 - 국제금융분야 현안에 대한 연구
 - 지역 금융·통화 협력에 대한 연구
 - 국제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및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

무역통상실 : WTO, 다자통상, 지역무역협정 등 세계무역투자 및 통상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한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을 연구하고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의 무역·투자정책에 대한 연구**

- 무역구조에 대한 연구
- 수출입 및 국제직접투자에 대한 연구

• **다자통상 연구**

- WTO 및 다자차원의 국제무역질서 정립에 대한 연구
- 다자무역협상의 영향 및 협상전략에 대한 연구
- DDA종합연구센터 사무국 업무

•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및 효과에 대한 연구
- 지역무역협정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중국경제실 : 중국의 경제금융 동향과 대외경제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경제정책과 통화금융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개방 및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중국지역 경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별 경제금융동향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통화금융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선진경제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경제권의 주요 통상전략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연구·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일본, 유럽, 미주 등 선진지역 경제지역 경제 연구**

- 일본, 유럽, 미주 국가 혹은 지역별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 **다자간 경제협력 이슈 연구**

-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경제협력 관련 연구
- 동아시아 무역, 투자 등 부문별 협력에 대한 연구

신남방경제실 : 신남방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와 아세안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신남방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의 종합적 분석,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남아·대양주 및 인도·남아시아지역 경제 연구**

- 동남아·대양주 및 인도·남아시아 지역 국가 혹은 지역별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주요 경제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 **국제개발협력 연구**

- 세계 주요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비교연구 및 동향분석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한 연구
- 국제개발협력 관련 컨설팅 사업

• **글로벌 경제이슈 및 관련 국정과제 연구**

- 에너지, 환경 등 국제사회의 공통의제 대응 연구
- 국정과제 중 글로벌 경제와 연관된 주제에 대한 연구
- G20 등 다자경제협의체의 경제 이슈 연구

신북방경제실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경제 연구**

- 러시아·유라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국가 혹은 지역별 경제동향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 해당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경제관계 및 對韓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 **통일 관련 국제협력 연구**

-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에 대한 연구
- 북한 경제의 체제전환 관련 연구
- GTI 등 동북아경제협력 관련 연구

2. 활동분야

국제거시금융연구 관련 활동

• **세계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수시로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주요 지역별·국가별 거시경제 상황을 전망함으로써, 정부나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아시아경제패널(Asian Economic Panel) 주관 및 학술지 발간**

- 세계적으로 우수한 아시아경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아시아경제 연구, 특히 지역 협력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Asia Economic Panel을 운영
- 본 패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기초로 Asian Economic Papers 학술지를 발간하고 국제세미나를 개최

• **KIEP 국제거시모형 운영**

- KIEP 국제거시모형은 IMF의 GIMF 모형의 일종으로 GIMF 모형과의 호환성을 바탕으로 GIMF 모형의 개발 속도에 맞추어 계속 업그레이드하며, 기본과제 및 연구자료 등 보고서를 통해 모형의 활용도를 높임.

무역통상연구 관련 활동

• **중장기 통상전략 운영**

-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획, 도전, 위험 요인을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종합적·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선택 가능한 통상전략을 모색
-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경제현안 해결방안에 기여하는 통상전략 개발 연구

• **무역자유화 종합연구 사업**

-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정책과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2020년 WTO 각료회의의 성과도출 가능성과 WTO 개혁 관련 이슈를 연구함으로써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종합적 통상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KIEP 무역모형 및 통상 DB 구축사업**

- 관세·비관세 장벽의 진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신통상 규범 정립 논의 등 새로운 정책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응용모형 개발과 적용
- 국제경제 전망과 통상정책 연구에 활용되는 기존 무역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평균관세, 특혜관세, 관세환급 등을 고려한 세부 산업별 관세통계 구축

•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운영**

- APEC 연구컨소시엄은 APEC 경제협력에 대한 대학 및 정부출연기관의 부문별 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APEC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의 대APEC 정책수립에 기여

-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및 그 산하조직의 국제회의 등 활동에 참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태평양지역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고 전파

세계지역연구 관련 활동

• KIEP 북경사무소 운영

- 중·미 통상 분쟁 심화, 중국 경제성장 방식 전환, 한·중 관계의 변화,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 필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 등 중국과의 협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현장성·시의성을 갖춘 중국 정보 생산
-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정보의 입수와 분석을 위해 중국 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 간의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내 연구를 지원

• 미 KEI 운영

- 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정치 및 남북문제 등 안보관계)에 걸쳐 한·미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네트워킹 확대 및 대미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
- 주요 경제동향의 수집 및 분석, 미국 현지에 한국의 경제현황을 알리고 양국간의 협상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
-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미 양국 정부, 국회/의회, 언론계 및 업계 주요인사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홍보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 세계지역 전략연구

- 한·아세안, 한·서남아 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함으로써 각 지역에 대한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신남방정책 이행을 지원

• 전략지역 심층연구

- 신흥경제권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전략지역 연구 수행,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대, 전략지역에 대한 정보, 자료 및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역량 강화 및 전략 수립에 기여

• 중국종합연구

- 중국의 중요성 증대에 부합하여, 종전에 부분적으로 접근하던 중국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전체로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수행

• 중국 권역별·성(省)별 연구단 운영

- 중국을 단일경제권으로 보지 않고 권역별·성별 주요 지방정부의 경제 동향·정책, 투자환경, 내수시장의 특성 및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맞춤형 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중국의 스마트산업 및 관련 소비시장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의 신성장산업 전략 및 대중 협력·진출 방안 마련

• KIEP - 국제대학원 공동 지역연구 활성화방안

-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지역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역연구 지향 및 지역연구 인력 저변 확대의 필요에 따라, 본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경제전문가와 해외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외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지역연구 및 강의를 통해 저변확대 프로그램을 운영

국제협력 관련 활동

• 세계지역 연구네트워크 강화

- 지역연구 활동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지역연구 인프라로서의 기능 제고
- 해외 학자,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본원의 신흥지역연구 역량 강화 및 신흥지역연구 활동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싱크탱크로서의 입지 강화

•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

- 동아시아 경제협력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관리, 자료 교류, 초청 및 관련 세미나 개최, 협력연구 등을 추진

- **신흥지역 지식네트워크 운영**

- 신흥지역 관련 심층정보와 현장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함으로써 신흥지역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업의 성공적인 신흥지역 진출을 위한 지식정보의 공유 기반을 구축

-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역, 물류, 에너지, 관광, 건설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의 정부나 기업에 원조·투자 및 협력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방안**

- 동북아 경제통합의 심화 및 확대의 구심점 제공을 위한 동북아경제공동체 관련 국제세미나와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개최 및 보고서 작성

- **G20 연구지원단 운영**

-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주요 의제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제반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의제별로 우리나라의 입장과 대응전략을 수립

- **DMZ 평화경제 국제 포럼**

- 신한반도 체제 준비를 위한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간의 연구 네트워크 기반 강화 및 관련 연구 축적
-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별 행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
- 해외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와 평화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감대 확산

기타 활동

- **대외경제전문가 풀 운영**

- 정부, 학계,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국내 대외경제 전문가를 망라하는 ‘대외경제 전문가 풀(Korea’s Official Pool of International Economists)’을 활용하여 세미나 및 공

동연구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들을 국제협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한 국제행사 사전 타당성조사 전담 시행
- 국제행사의 실효성 강화 및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제고 **KIEP**

IV. 연구 지원활동

연구 지원활동

조 총 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1. 연구기획사업

연구 기획·조정

- 연구사업 기획·선정: 시의적절한 연구사업 기획 및 이슈 선정, 수요조사 실시
- 연구사업 조정·관리: 연구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연구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을 통한 효율적 연구관리
- 연구수요조사, 정책연구협의회, 과제선정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연구성과 향상 및 연구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평가 추진

예산 관리·운영

- 예산계획 수립·편성: 기관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의 유기적 연대를 통한 예산계획의 수립 및 편성
- 집행 통제 및 관리: 예산편성, 예산전용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운영

2. 출판편집사업

중장기 연구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주제별 보고서로 발간

-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전략지역연구, 중장기통상, ODA 연구 등
- Policy Analyses, Conference Proceedings, Working Paper, World Economy Brief 등

연구결과와 시의성 제고를 위한 현안대응자료 발간

- 「오늘의 세계경제」, 「KIEP 세계경제포커스」, 「KIEP 기초자료」, 「북경사무소 브리핑」
- 「정책연구브리핑 모음집」

국제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영문학술지, 영문 웹진 발간

- 「East Asian Economic Review」(EAER) 발간
- 영문 웹진 「KIEP Newsletter」 발간

발간물 출판품질 관리

- 출판 관련 교육: 원고작성지침, 바른 글쓰기 등
- 보고서 집필 참고자료 제공
- 교열교정업무 고도화: 매뉴얼 보완 제공
- 영문 editing을 통한 영문자료 품질 관리

연구성과 정보확산

- 인포메이션 카드 발간
- 성과확산중점기관 정비, 신규 발굴
- GPAS 사업을 활용한 연구성과 정보확산
- 발간물 배포선(온라인 포함)의 전략적 운용

- 연구성과 확산도구 개발 및 관리
- 발간자료 확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발간자료회원제 운영 및 관리
- 국제도서전 위탁전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등

3. 대외홍보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기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활동

- 언론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홍보 체계 강화
- 연구원 주요사업 및 성과에 대한 언론 간담회 개최
- 언론 취재 지원 강화를 통한 보도율 제고
- 기관 국·영문 홈페이지에 각종 홍보 관련 콘텐츠 업데이트
- 연구원 SNS 채널(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운영

포괄적 언론 네트워크 구축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 출입기자단 포함 국내외 연구원 관련 기자 리스트 DB 구축 및 수시 업데이트

임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트레이닝 제공

- 보도자료 작성법, 미디어 대응수칙 등 안내

연구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확산 계획 수립

- 프레스킷, PPT, 홍보동영상, 기관홍보물 등 각종 홍보자료 기획 및 제작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동향 파악 및 연단위 주요 홍보·확산 계획 수립
- 홍보위원회 개최를 통한 언론홍보 진단 및 홍보업무 개선을 통한 효과성 제고

4. 윤리강화사업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의 적절성 관리·감독
- 자체감사 실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 확보

연구원 전 직원의 청렴한 공직 마인드 제고 및 청렴의식 고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2에 근거한 청탁금지법 등 부패·청렴 관련 교육 실시
- 감사관련 정보,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부패방지자료 등 감사정보공지

연구윤리 강화

- 임직원의 연구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연구윤리교육 실시
- 연구원 발간 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프로그램 운영
- 연구윤리 준수환경 구축을 위한 체계적 점검절차 운영

정부시책 지원역량 강화

- 공시자료 및 대외자료의 사전 검토 강화를 통한 자료의 진실성 강화
- 경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방만경영 사례의 사전 방지

5. 정보관리사업

정보수집

- 주요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 세미나자료, 통계자료 수집
- 시의성 있는 특정이슈 및 주제별 정보자료 수집

- 연구수요 및 이용통계에 기반한 온라인 DB 구독 갱신
- 전자저널 collection 및 e-book 확대

정보관리

- 소장 연구보고서의 지속적인 디지털화
- 소장 자료 서지데이터 품질관리
- 소장 자료 장서점검 실시 및 불용자료 폐기
- 자료관리시스템(LAS) 업그레이드에 따른 안정화
- Internet Librarian 2019 Conference 참석
- 정보서비스 품질, 전자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동향 파악

정보 서비스

- 전자도서관포탈 재구축에 따른 안정화
- 연구과제별 레퍼런스 제공
- 통합정보 웹진 「주요경제동향속보」 제공
- 정보서비스 관련 원내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온라인 DB 및 통계소프트웨어 이용자 교육 실시
- 원문검색 및 상호대차 서비스

기록물 관리

- 기록물 이관, 정리, 재분류 등 기록물 관리
-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

6. 전산운영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 지식정보시스템(KINIS)의 메일, 전자결재, 통합검색 등 기능 및 프로세스 개선
- 경영정보시스템 및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모바일 웹페이지를 포함한 연구원 웹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기능 개선
- 데이터 백업 및 장애발생 대비 통합백업시스템 및 PC 데이터 백업시스템 운영

전산자원 운영 관리

- KINIS, 경영정보시스템, 웹사이트, EMERiCs, CSF 등 운영 서버 관리 및 백본스 위치, 워크그룹스위치, KREONET(국가연구망) 회선 등의 네트워크시스템 운영
- PC 및 노트북,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 세계최고의 정보통신전시회인 CeBIT에 참석하여 최신 정보기술 및 동향 수집 및 향후 전산 인프라 운영 적용

정보보안 관리

- 침해사고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침입방지 시스템, 웹방화벽, 보안USB관리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상시 정보보안 점검
- 출연연사이버안전센터와의 관제업무 협력
- 정보보안담당자 및 직원대상 정보보안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내부관리계획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비
- 개인정보 보유 현황 주기적 점검
- 웹사이트 개인정보유출차단솔루션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위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KIEP**

부 록

01. CI 로고의 변천
02. 전(前) 임직원 명단
역대 원장 / 역대 부원장 / 전(前) 직원
03. 현(現) 임직원 명단
원장 / 부원장 / 직원
04. 조직 변천
05. 발간자료 목록
06. 포상 수상자 명단
07.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08. 연도별 주요 일지
09.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10. 동호회 활동
11.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T/F 명단



01

CI 로고의 변천

1989년 개원 이래 30주년을 맞는 2019년까지
KIEP의 변화하는 위상과 비전에 맞추어 CI와 로고도 변화해왔다.



KIEP 로고

1990 - 1996



1997 - 2004



2005 - 현재



KIEP 엠블럼

20th Anniversary Emblem



30th Anniversary Emblem



전(前) 임직원 명단

역대 원장

역대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 전 경력
1	김적교	1989. 8. 3 ~ 1992. 3. 9	독, 보훔대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자문위원 한양대 교수 및 동대학원 경제연구소장 한양대 명예교수
2	유장희	1992. 3. 9 ~ 1997. 2. 13	미,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미국 컴먼웰스대 정교수 서울대 초청교수 이화여대국제대학원 원장
3	양수길	1997. 2. 14 ~1998. 4. 16	미,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통개발연구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4	이경태	1998. 6. 25 ~ 2001. 12. 24	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5	안충영	2002. 1. 26 ~ 2005. 1. 25	미, 오하이오 주립대 경제학 박사	중앙대 경제학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등 회장
6	이경태	2005. 1. 31 ~ 2008. 5. 16	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OECD 대사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7	채 욱	2008. 5. 15 ~ 2013. 5. 15	미,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분과위원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통상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일형	2013. 8. 2 ~ 2016. 4. 20	영, 워릭대 경제학 박사	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 IMF 중국주재 수석대표 대한민국G20국제협력대사
9	현정택	2016. 6. 24 ~ 2017. 12. 28	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역대 부원장

역대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 전 경력
1	유장희	1989. 8. 5 ~ 1992. 3. 8	미,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	미국 클라크대 조교수 미국 커먼웰스대 정교수 서울대학교 초청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장
2	서장원	1992. 3. 14 ~ 1994. 6. 30	미, 코넬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UNDP 경제자문관 아시아태평양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	박태호	1994. 8. 1 ~ 1997. 3. 7	미, 위스콘신 매디슨대 경제학 박사	미국조지타운대 조교수 세계은행 자문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4	홍유수	1997. 3. 10 ~ 1998. 6. 30	미, 노스웨스턴대 경제학 박사	미국 노스웨스턴대 객원교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5	김박수	1998. 7. 1 ~ 2000. 6. 30	프, 그레노블대 경제학 박사	국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사우디대사관 경제조사관
6	채 욱	2002. 3. 18 ~ 2005. 5. 8	미,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자문위원 산업자원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7	최낙균	2005. 5. 9 ~ 2006. 6. 30	미, 텍사스 오스틴대 경제학 박사	통상산업부 장관 자문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위원 외교통상부 뉴라운드협상 대책위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8	이창재	2006. 7. 1 ~ 2008. 6. 8	프, 파리1대 경제학 박사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 소련부 부장 동아시아연구회 회장
9	김박수	2008. 6. 9 ~ 2009. 6. 30	프, 그레노블대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	정여천	2009. 7. 1 ~ 2012. 3. 5	독, 뮌헨대 경제학 박사	
11	김상겸	2012. 3. 5 ~ 2014. 1.19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12	김준동	2015. 6. 22 ~ 2018. 4. 8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89	남선학	3급관리원	1989. 10. 20	1989. 11. 20
1990	윤수연	에디터	1989. 9. 1	1990. 7. 10
	나인강	연구원	1989. 11. 1	1990. 7. 13
	여동욱	에디터	1990. 1. 1	1990. 7. 31
	최윤재	책임연구원	1990. 1. 1	1990. 8. 21
	최유숙	에디터	1990. 8. 1	1990. 8. 22
	신동관	기능원	1990. 8. 1	1990. 9. 30
	한일석	에디터	1990. 8. 1	1990. 9. 30
	이형구	연구자문위원	1990. 7. 16	1990. 9. 30
	이선애	기능원	1989. 11. 1	1990. 10. 31
	서영태	2급관리원	1989. 8. 5	1990. 12. 5
1991	서상록	초청연구위원	1990. 4. 1	1991. 2. 26
	이상학	책임연구원	1990. 7. 3	1991. 2. 28
	박광작	초청연구위원	1990. 2. 19	1991. 2. 28
	장익태	초청연구위원	1990. 3. 1	1991. 2. 28
	윤유정	연구조원	1990. 8. 13	1991. 3. 30
	이미연	3급관리원	1990. 8. 28	1991. 5. 20
	송양훈	연구원	1990. 6. 25	1991. 6. 18
	김해나	에디터	1990. 10. 1	1991. 8. 24
	조규호	연구원	1990. 2. 26	1991. 9. 7
	월리암슨	에디터	1990. 8. 13	1991. 10. 19
	임호상	연구원	1991. 9. 1	1991. 10. 26
	임창렬	초청연구원	1991. 7. 9	1991. 12. 14
	박진우	연구원	1990. 3. 19	1991. 12. 31
	장미경	연구조원	1990. 8. 13	1991.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주한광	초청연구원	1990. 5. 20	1991. 12. 31
	박성민	연구원	1989. 10. 1	1991. 12. 31
1992	이명규	2급관리원	1992. 1. 1	1992. 1. 10
	허태균	2급관리원	1992. 1. 1	1992. 1. 31
	인치승	조사역	1992. 1. 1	1992. 1. 31
	한국은	조사역	1992. 1. 1	1992. 1. 31
	유병호	책임조사역	1992. 1. 1	1992. 1. 31
	강창숙	기능원	1989. 10. 20	1992. 2. 7
	남종호	연구원	1992. 1. 1	1992. 2. 7
	허정희	기능원	1992. 1. 1	1992. 2. 15
	권기백	연구원	1990. 1. 15	1992. 2. 15
	이민우	연구원	1992. 1. 1	1992. 2. 15
	임호상	연구원	1992. 1. 6	1992. 2. 22
	박일봉	3급관리원	1992. 1. 1	1992. 2. 29
	오용석	연구위원	1990. 1. 1	1992. 2. 29
	강창숙	기능원	1989. 10. 20	1992. 2. 7
	김적교	원장	1989. 8. 5	1992. 3. 9
	주미선	사서조원	1992. 1. 1	1992. 3. 31
	장규상	연구원	1992. 1. 1	1992. 3. 31
	정재황	연구원	1992. 1. 1	1992. 3. 31
	신영재	연구원	1990. 6. 25	1992. 4. 14
	이홍표	책임조사역	1992. 1. 1	1992. 4. 25
	정병익	연구원	1992. 1. 1	1992. 4. 30
	황인춘	연구원	1992. 1. 1	1992. 4. 30
	김현경	기능원	1992. 1. 1	1992. 5. 20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연구용	연구원	1992. 1. 1	1992. 5. 31
	권계자	연구조원	1989. 9. 1	1992. 6. 20
	이윤석	연구원	1992. 1. 1	1992. 6. 30
	손병해	초청연구위원	1991. 7. 9	1992. 7. 8
	김성준	연구원	1991. 7. 1	1992. 7. 11
	변영환	연구원	1991. 1. 21	1992. 8. 1
	이장영	연구위원대우	1990. 3. 19	1992. 8. 3
	김진천	초청연구위원	1991. 12. 2	1992. 8. 13
	김창남	초청연구위원	1991. 9. 1	1992. 8. 31
	김석운	연구원	1992. 1. 1	1992. 9. 8
	김혜란	연구원	1991. 9. 1	1992. 9. 30
	정구선	연구원	1992. 1. 1	1992. 9. 30
	전도신	연구원	1992. 4. 1	1992. 10. 2
	박성민	에디터	1992. 5. 27	1992. 8. 31
	권순만	연구원	1992. 8. 1	1992. 10. 7
	정진우	연구원	1992. 6. 8	1992. 10. 8
	조 이	에디터	1991. 11. 26	1992. 11. 25
	오진용	선임전문위원	1992. 1. 1	1992. 12. 31
	손수경	에디터	1991. 9. 1	1992. 12. 31
	서은옥	연구원	1992. 3. 1	1992. 12. 31
	이상엽	연구원	1992. 4. 1	1992. 12. 31
1993	문종철	연구원	1992. 1. 1	1993. 2. 10
	강영무	연구위원	1990. 4. 1	1993. 2. 28
	배진영	연구위원대우	1990. 7. 1	1993. 2. 28
	이문식	책임조사역	1992. 1. 1	1993. 2. 28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강인수	책임연구원	1991. 9. 9	1993. 2. 28
	유재원	연구위원대우	1989. 10. 16	1993. 2. 28
	정민민	연구원	1992. 2. 26	1993. 3. 3
	임호상	연구원	1992. 2. 26	1993. 3. 6
	김희정	연구원	1993. 1. 27	1993. 3. 31
	이인영	연구원	1990. 3. 15	1993. 3. 31
	전우석	연구원	1991. 4. 8	1993. 3. 31
	이준규	연구원	1993. 1. 1	1993. 5. 3
	김종만	연구위원대우	1989. 10. 23	1993. 6. 14
	구본우	연구원	1992. 11. 2	1993. 6. 30
	한상춘	연구원	1989. 10. 18	1993. 6. 30
	최일용	3급관리원	1989. 11. 1	1993. 7. 3
	임순영	사서조원	1991. 12. 9	1993. 7. 24
	윤건수	책임연구원	1990. 11. 5	1993. 7. 31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1989. 10. 1	1993. 8. 3
	차상민	연구원	1992. 1. 1	1993. 8. 5
	김정아	연구조원	1990. 2. 1	1993. 9. 9
	김윤동	연구원	1993. 7. 12	1993. 9. 30
	최현덕	3급관리원	1989. 11. 16	1993. 11. 2
	이명숙	에디터	1990. 1. 8	1993. 12. 9
	이수현	연구원	1993. 9. 27	1993. 12. 31
	김태준	초청연구위원	1989. 10. 16	1993. 12. 31
1994	최영수	연구원	1991. 5. 1	1994. 1. 3
	윤영숙	연구조원	1990. 12. 1	1994. 1. 15
	장석준	초청연구위원	1993. 10. 25	1994. 1. 23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4	하태현	전문위원대우	1992. 1. 1	1994. 2. 5
	장미선	연구조원	1990. 8. 13	1994. 2. 15
	조정구	책임연구원	1992. 4. 1	1994. 2. 28
	심기준	연구원	1992. 9. 29	1994. 4. 8
	김근영	3급관리원	1992. 1. 1	1994. 5. 2
	장성혁	기능원	1992. 4. 16	1994. 5. 2
	김경희	연구조원	1992. 1. 1	1994. 5. 3
	남상혁	연구원	1992. 4. 20	1994. 5. 19
	서영덕	에디터	1992. 12. 1	1994. 5. 31
	심마지	에디터	1992. 9. 24	1994. 6. 23
	김정수	선임연구위원	1990. 4. 1	1994. 6. 30
	최수전	에디터	1992. 7. 1	1994. 6. 30
	장현진	연구원	1992. 7. 13	1994. 7. 9
	임수영	연구원	1992. 2. 17	1994. 7. 31
	최연준	연구원	1990. 10. 15	1994. 8. 4
	박상현	연구원	1992. 1. 1	1994. 8. 13
	최성기	연구원	1992. 8. 1	1994. 8. 13
	김원식	연구원	1993. 8. 16	1994. 8. 16
	이명숙	에디터	1994. 7. 1	1994. 8. 31
	박제훈	연구위원대우	1990. 6. 4	1994. 8. 31
	장태구	초청연구원	1993. 8. 1	1994. 8. 31
	이효구	초청연구위원	1994. 3. 4	1994. 8. 31
	김철삼	책임연구원	1993. 8. 1	1994. 9. 22
	지치상	연구원	1992. 2. 17	1994. 10. 11
	장광익	연구원	1993. 3. 17	1994. 11. 4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조총제	연구원	1993. 4. 16	1994. 12. 5
	박성민	에디터	1994. 10. 17	1994. 12. 31
	최연주	연구원	1993. 10. 4	1994. 12. 31
1995	임웅순	연구원	1993. 12. 27	1995. 1. 3
	김영돈	연구원	1992. 1. 1	1995. 1. 5
	최현덕	3급관리원	1994. 8. 8	1995. 1. 7
	양평섭	조사역	1992. 1. 1	1995. 1. 7
	오상면	초청연구원	1994. 11. 1	1995. 1. 31
	최수전	에디터	1994. 10. 1	1995. 2. 2
	이순철	연구원	1994. 9. 22	1995. 2. 4
	우강업	연구원	1994. 5. 24	1995. 2. 14
	홍순규	연구원	1993. 12. 27	1995. 2. 28
	김익수	연구위원대우	1991. 6. 24	1995. 2. 28
	백권호	전문위원대우	1992. 1. 1	1995. 2. 28
	정중재	전문위원대우	1992. 1. 1	1995. 2. 28
	유진수	연구위원대우	1990. 10. 1	1995. 2. 28
	한홍렬	연구위원대우	1991. 6. 24	1995. 2. 28
	안종석	조사역	1992. 1. 1	1995. 3. 2
	한형구	조사역	1992. 1. 1	1995. 3. 16
	유영수	기능원	1992. 1. 1	1995. 5. 15
	김경호	조사역	1992. 4. 1	1995. 6. 12
	올리버	에디터	1992. 12. 16	1995. 6. 17
	구지연	에디터	1995. 2. 6	1995. 6. 30
	임천석	연구위원대우	1992. 1. 1	1995. 6. 30
	채수찬	초청연구위원	1995. 2. 3	1995. 7. 2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채규영	연구원	1993. 11. 17	1995. 7. 8
	정미선	연구조원	1992. 6. 22	1995. 7. 8
	박영옥	에디터	1994. 9. 15	1995. 7. 14
	송성숙	기능원	1989. 10. 20	1995. 8. 2
	이창건	에디터	1994. 8. 8	1995. 8. 7
	민충기	연구위원	1989. 10. 16	1995. 8. 12
	신시진	에디터	1995. 7. 14	1995. 8. 14
	김남두	연구위원	1989. 12. 15	1995. 8. 31
	성극제	연구위원	1991. 8. 19	1995. 8. 31
	한영섭	초청연구원	1995. 4. 15	1995. 8. 31
	이성희	3급사서	1992. 2. 19	1995. 9. 2
	이주원	조사역	1992. 1. 1	1995. 10. 4
	신정식	연구원	1992. 12. 24	1995. 10. 9
	강승우	연구원	1995. 5. 11	1995. 11. 15
	강흥구	소장	1990. 1. 16	1995. 12. 31
1996	윤찬혁	조사역	1992. 1. 1	1996. 1. 4
	성신영	연구조원	1989. 10. 20	1996. 4. 3
	한정혜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 10. 20	1996. 5. 4
	현지연	에디터	1995. 7. 1	1996. 6. 27
	정채웅	초청연구원	1996. 2. 1	1996. 6. 30
	박미라	연구조원	1992. 1. 1	1996. 7. 5
	차인경	연구원	1995. 1. 1	1996. 7. 10
	강루가	에디터	1995. 8. 21	1996. 7. 15
	신진섭	연구원	1995. 11. 1	1996. 7. 15
	유용호	연구원	1995. 10. 16	1996. 8. 7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이은정	연구원	1995. 8. 7	1996. 8. 7
	김시중	연구위원	1990. 6. 4	1996. 8. 30
	안세민	연구원	1995. 11. 20	1996. 8. 31
	우수명	연구원	1995. 2. 6	1996. 9. 4
	유수현	연구원	1995. 5. 8	1996. 10. 1
	윤영순	주임연구조원대우	1992. 1. 1	1996. 10. 7
	홍정균	연구원	1996. 3. 4	1996. 10. 14
	오재원	에디터	1995. 9. 25	1996. 10. 31
	이성량	연구위원대우	1995. 9. 11	1996. 12. 28
	이재성	연구위원	1994. 7. 19	1996. 12. 31
1997	임병철	연구원	1991. 8. 29	1997. 1. 3
	김건홍	연구위원	1995. 3. 1	1997. 1. 11
	김익겸	에디터	1992. 1. 1	1997. 1. 31
	최종구	초청연구원	1996. 10. 23	1997. 1. 31
	유장희	원장	1989. 8. 5	1997. 2. 14
	안창선	연구원	1994. 7. 1	1997. 2. 19
	이유미	에디터	1991. 5. 14	1997. 2. 28
	한택환	연구위원	1992. 9. 16	1997. 2. 28
	주상영	연구위원대우	1994. 7. 11	1997. 2. 28
	박성훈	연구위원대우	1993. 4. 12	1997. 2. 28
	이경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0. 8. 13	1997. 3. 10
	박태호	선임연구위원	1989. 10. 7	1997. 3. 17
	김태형	책임연구원	1995. 8. 1	1997. 4. 30
	이은형	에디터	1995. 7. 21	1997. 5. 10
	김단종	전문연구원	1990. 10. 15	1997. 5. 15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1997	서재희	전문연구원	1991. 10. 2	1997. 6. 7
	이시욱	전문연구원	1992. 2. 1	1997. 6. 23
	황수건	연구원	1996. 2. 26	1997. 7. 5
	이정녕	소장	1996. 2. 21	1997. 7. 7
	이용훈	전문연구원대우	1992. 1. 1	1997. 7. 12
	이언우	2급관리원대우	1990. 7. 9	1997. 8. 2
	우영수	연구위원대우	1994. 8. 12	1997. 8. 2
	이성호	주임기능원	1989. 9. 1	1997. 8. 4
	김정훈	연구원	1997. 3. 1	1997. 8. 14
	박해식	책임연구원	1991. 1. 1	1997. 9. 8
	이정연	연구위원대우	1994. 3. 4	1997. 9. 13
	김유진	전문연구원	1993. 8. 1	1997. 10. 4
	김영미	연구원	1995. 1. 1	1997. 11. 5
	표세진	연구자문위원	1996. 4. 8	1997. 12. 15
	강대형	초청연구위원	1997. 4. 8	1997. 12. 19
	이장환	1급관리원	1990. 1. 1	1997. 12. 31
1998	김형수	전문연구원	1994. 11. 21	1998. 1. 12
	정용주	전문연구원	1992. 1. 8	1998. 2. 2
	김인배	부연구위원	1995. 10. 16	1998. 2. 23
	정재룡	초청연구위원	1998. 2. 20	1998. 2. 24
	이호생	부연구위원	1993. 1. 19	1998. 2. 28
	정영록	연구위원	1990. 11. 13	1998. 2. 28
	정동수	초청연구위원	1998. 2. 24	1998. 3. 14
	양정선	에디터	1996. 9. 9	1998. 3. 23
	성신영	연구조원	1997. 4. 14	1998. 3.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이명재	연구원	1996. 3. 7	1998. 4. 4
	이인구	연구원	1996. 1. 15	1998. 4. 8
	양수길	원장	1997. 2. 14	1998. 4. 16
	우승균	에디터	1996. 10. 21	1998. 4. 20
	민동유	에디터	1996. 7. 10	1998. 5. 22
	정지윤	연구조원	1992. 8. 20	1998. 6. 8
	권기성	초청연구위원	1997. 12. 19	1998. 6. 24
	박동식	초청연구위원	1998. 6. 24	1998. 6. 24
	한상진	전문연구원	1992. 11. 2	1998. 7. 13
	채수찬	초청연구위원	1998. 2. 1	1998. 7. 31
	원용걸	부연구위원	1995. 8. 1	1998. 8. 22
	정 훈	책임연구원	1997. 6. 18	1998. 8. 22
	강흥구	연구자문위원	1996. 1. 1	1998. 8. 31
	함경철	에디터	1997. 7. 28	1998. 9. 4
	윤한영	에디터	1998. 4. 15	1998. 9. 15
	정간채	전문연구원	1992. 11. 2	1998. 10. 8
	권소영	3급관리원	1993. 7. 26	1998. 12. 31
	이원권	3급관리원	1995. 8. 16	1998. 12. 31
	장광희	3급관리원	1994. 5. 1	1998. 12. 31
	유재석	기능원	1992. 8. 18	1998. 12. 31
	남수중	연구원	1995. 11. 1	1998. 12. 31
	정선우	연구원	1995. 2. 6	1998. 12. 31
	정은화	연구원	1995. 1. 1	1998. 12. 31
	백해정	연구조원	1992. 1. 1	1998. 12. 31
	안미숙	연구조원	1995. 11. 1	1998.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이미경	연구조원	1992. 1. 1	1998. 12. 31
	이미선	연구조원	1992. 4. 13	1998. 12. 31
	차선헌	기능원	1995. 6. 1	1998. 12. 31
	노 호진	전문연구원	1992. 1. 1	1998. 12. 31
	이문봉	전문연구원	1991. 8. 29	1998. 12. 31
	이성규	전문연구원	1993. 12. 27	1998. 12. 31
	황혜경	전문연구원	1994. 7. 11	1998. 12. 31
	강준선	주임기능원	1989. 8. 7	1998. 12. 31
	김종례	주임연구조원	1992. 1. 1	1998. 12. 31
	조화순	주임연구조원	1992. 1. 1	1998. 12. 31
	김상심	주임연구조원대우	1990. 8. 13	1998. 12. 31
	이보근	연구위원	1992. 1. 1	1998. 12. 31
	이오경	주임연구조원대우	1989. 8. 8	1998. 12. 31
1999	박형아	연구조원	1997. 3. 1	1999. 1. 30
	신은자	전문연구원	1989. 12. 1	1999. 2. 28
	이보근	초청연구위원	1999. 1. 1	1999. 2. 28
	김관호	연구위원	1993. 7. 7	1999. 2. 28
	권재중	연구위원	1993. 8. 1	1999. 5. 6
	이재준	전문연구원	1996. 9. 1	1999. 6. 1
	정지웅	전문연구원	1997. 8. 4	1999. 7. 3
	백정호	전문연구원	1996. 10. 1	1999. 7. 24
	장항석	초청연구위원	1998. 11. 10	1999. 7. 26
	박성희	3급관리원	1998. 10. 1	1999. 7. 31
	서장원	선임연구위원	1989. 8. 5	1999. 7. 31
	제 프	에디터	1998. 7. 1	1999. 8. 10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노상욱	책임연구원	1997. 1. 1	1999. 8. 18
	김애리	연구원	1998. 4. 10	1999. 9. 10
	제시카	에디터	1999. 8. 1	1999. 9. 15
	최윤정	연구원	1997. 1. 1	1999. 10. 25
	배선영	초청연구원	1999. 2. 12	1999. 11. 15
	신철원	전문연구원	1994. 7. 11	1999. 11. 30
	임석규	초청연구위원	1999. 7. 26	1999. 12. 29
2000	이수림	연구조원	1990. 8. 13	2000. 1. 31
	신동화	전문연구원	1996. 10. 1	2000. 1. 31
	최혜란	주임연구조원대우	1992. 1. 1	2000. 1. 31
	최수웅	연구위원	1992. 1. 1	2000. 3. 31
	김대영	전문연구원	1995. 11. 1	2000. 5. 15
	이영우	전문연구원	1995. 3. 29	2000. 6. 2
	최용석	책임연구원	1998. 10. 1	2000. 6. 8
	문송원	2급관리원	1992. 1. 1	2000. 6. 14
	서승원	전문연구원	1992. 1. 1	2000. 6. 30
	최병희	전문연구원	1992. 2. 26	2000. 6. 30
	임효성	전문연구원	1997. 7. 21	2000. 7. 24
	장형수	연구위원	1997. 7. 28	2000. 8. 31
	박광희	초청연구원	2000. 9. 4	2000. 9. 4
	블루스	에디터	1999. 9. 13	2000. 9. 12
	조이제	연구자문위원	1992. 7. 18	2000. 9. 30
	한정철	전문연구원	1994. 9. 26	2000. 10. 31
2001	유완영	연구자문위원	2000. 1. 14	2001. 1. 13
	이재승	초청연구원	2000. 9. 1	2001. 2. 28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01	황승경	연구조원	1996. 8. 23	2001. 3. 3
	추연욱	연구원	2000. 12. 26	2001. 3. 29
	전재욱	부연구위원	1995. 3. 10	2001. 3. 31
	김규판	전문연구원	1992. 3. 13	2001. 3. 31
	김병희	전문연구원	1996. 11. 8	2001. 3. 31
	전창호	전문연구원	1995. 2. 6	2001. 4. 2
	김종근	전문연구원	1995. 11. 1	2001. 4. 6
	왕중식	전문연구원	1998. 9. 17	2001. 5. 14
	신승민	전문연구원	2000. 5. 15	2001. 5. 21
	전준모	전문연구원	1995. 5. 11	2001. 7. 13
	김종범	부연구위원	1995. 6. 1	2001. 7. 23
	최인범	연구위원	1990. 3. 13	2001. 7. 31
	정재식	부연구위원	1998. 6. 1	2001. 8. 20
	박지연	연구원	2000. 4. 24	2001. 8. 31
	Goldsmith	에디터	2000. 10. 1	2001. 10. 31
	윤진나	연구원	2000. 1. 1	2001. 12. 16
	이경태	원장	1998. 6. 24	2001. 12. 24
2002	이기성	연구원	2000. 12. 1	2002. 1. 19
	황상인	부연구위원	1996. 1. 6	2002. 2. 28
	박상수	전문연구원	1992. 1. 1	2002. 2. 28
	김우진	전문연구원	1994. 11. 7	2002. 4. 6
	황선하	연구원	1999. 12. 13	2002. 4. 26
	에스더유	에디터	2001. 11. 1	2002. 6. 5
	정후영	연구원	1998. 10. 1	2002. 6. 10
	윤광철	3급관리원	1998. 10. 1	2002. 6. 1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허용석	연구원	2001. 6. 20	2002. 7. 19
	서용석	기타	2000. 4. 3	2002. 8. 2
	정미향	주임사무원	1992. 2. 17	2002. 8. 17
	원신희	연구원	2000. 4. 4	2002. 8. 25
	이종화	부연구위원	1997. 7. 14	2002. 8. 31
	조유미	연구원	2001. 6. 20	2002. 9. 27
	이성미	전문연구원	1996. 3. 11	2002. 9. 30
	강지영	연구원	2001. 4. 12	2002. 10. 12
	김정진	연구원	2002. 7. 18	2002. 10. 22
	정윤재	연구원	2002. 10. 26	2002. 12. 20
	이강연	연구자문위원	1999. 6. 17	2002. 12. 31
2003	장영민	전문연구원	1997. 2. 1	2003. 1. 2
	박희양	연구원	2002. 11. 1	2003. 1. 15
	김세직	초청연구위원	2000. 1. 18	2003. 1. 17
	양준석	연구위원	1997. 11. 1	2003. 2. 28
	최익현	전문연구원	1995. 5. 11	2003. 3. 24
	Satoru	초청연구위원	2000. 10. 7	2003. 3. 31
	남윤석	연구원	2003. 3. 1	2003. 5. 22
	김은경	연구원	2002. 4. 22	2003. 6. 30
	박시원	연구원	2002. 5. 30	2003. 6. 30
	백웅재	연구원	2002. 7. 18	2003. 7. 22
	김나영	연구원	2003. 3. 1	2003. 7. 31
	하유정	연구원	2001. 4. 16	2003. 8. 7
	강삼모	부연구위원	2001. 9. 1	2003. 11. 11
	이우정	초청연구위원	1999. 10. 29	2003.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04	정인교	연구위원	1996. 1. 15	2004. 2. 28
	박지연	연구원	2003. 6. 9	2004. 3. 26
	오동윤	전문연구원	2000. 4. 17	2004. 3. 31
	왕윤종	선임연구위원	1993. 4. 12	2004. 4. 19
	박순자	주임연구조원	1992. 1. 1	2004. 4. 30
	Jeanette Louise Rimmer	에디터	2003. 6. 1	2004. 5. 31
	노재봉	선임연구위원	1990. 6. 1	2004. 7. 19
	조현준	부연구위원	1992. 1. 1	2004. 8. 31
	박효진	연구조원	2004. 9. 15	2004. 10. 22
	박상민	연구원	2003. 9. 15	2004. 10. 29
	박영곤	전문연구원	1996. 11. 4	2004. 10. 31
	김완중	전문연구원	1995. 2. 6	2004. 12. 20
	현하정	연구원	2003. 8. 28	2004. 12. 31
2005	안충영	원장	2002. 1. 26	2005. 1. 25
	유태환	부연구위원	2003. 7. 10	2005. 2. 28
	전종규	부연구위원	2003. 6. 18	2005. 2. 28
	박순찬	부연구위원	2001. 8. 16	2005. 2. 28
	이지연	연구원	2003. 9. 22	2005. 4. 12
	이동훈	연구원	2005. 3. 16	2005. 5. 13
	홍수연	연구원	2004. 12. 1	2005. 5. 31
	정소영	연구원	2005. 5. 18	2005. 6. 7
	홍유수	선임연구위원	1990. 4. 1	2005. 6. 30
	김은국	연구원	2003. 3. 1	2005. 7. 11
	한윤선	연구원	2005. 3. 1	2005. 7.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강정실	연구원	2003. 3. 1	2005. 8. 5
	권경덕	전문연구원	1996. 9. 9	2005. 9. 9
	엄수아	에디터	2004. 6. 1	2005. 10. 19
	김선영	연구원	2005. 1. 1	2005. 12. 31
2006	유종희	주임연구조원	1993. 11. 17	2006. 2. 1
	서창배	전문연구원	1995. 3. 29	2006. 2. 20
	김홍률	전문연구원	1995. 11. 1	2006. 2. 22
	맹정주	초청연구위원	2005. 6. 21	2006. 2. 23
	이지현	연구원	2003. 8. 18	2006. 2. 24
	강문성	연구위원	2000. 7. 1	2006. 2. 28
	윤미경	연구위원	1997. 8. 25	2006. 2. 28
	이인엽	연구원	2004. 12. 1	2006. 4. 30
	강수미	주임연구조원	1996. 1. 1	2006. 4. 30
	최영란	연구원	2005. 11. 16	2006. 5. 4
	김별화	연구원	2006. 5. 15	2006. 5. 31
	우수아	연구원	2005. 5. 18	2006. 7. 3
	박미희	연구원	2005. 10. 21	2006. 8. 8
	전종현	연구원	2005. 7. 13	2006. 8. 16
	이창수	연구위원	2001. 9. 21	2006. 8. 21
	홍수연	연구원	2005. 10. 21	2006. 8. 25
	손찬현	선임연구위원	1989. 9. 1	2006. 8. 27
	은종학	부연구위원	2005. 11. 1	2006. 8. 31
	송유철	연구위원	1996. 10. 2	2006. 8. 31
	임홍수	연구원	2002. 3. 25	2006. 10. 16
	이종숙	연구원	2006. 6. 14	2006. 11. 13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06	유민우	연구원	2006. 3. 15	2006. 11. 14
	윤엘리자	에디터	2005. 11. 7	2006. 12. 1
	강인수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김관호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김세원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박성훈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유진수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최병일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한홍렬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김현정	에디터	2003. 1. 2	2006. 12. 31
	박순찬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유재원	초청연구위원	2006. 4. 5	2006. 12. 31
	윤창인	선임연구위원	1993. 3. 25	2006. 12. 31
	김권식	전문연구원	2001. 6. 1	2007. 1. 31
2007	이정수	연구조원	2007. 1. 1	2007. 2. 8
	김소영	연구원	2006. 2. 1	2007. 2. 23
	이호진	부연구위원	2005. 8. 1	2007. 2. 28
	이필립	연구원	2006. 3. 24	2007. 2. 28
	황주성	연구원	2005. 5. 1	2007. 4. 12
	이재원	에디터	2006. 12. 21	2007. 4. 30
	김혜성	연구원	2006. 8. 1	2007. 5. 23
	남상열	연구위원	1999. 7. 16	2007. 5. 31
	구은아	연구원	2006. 10. 9	2007. 6. 22
	최광해	파견관	2007. 4. 23	2007. 7. 10
	정승호	연구원	2005. 11. 14	2007. 7. 13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남승희	전문연구원	2002. 2. 18	2007. 7. 13
	편주현	연구원	2007. 2. 16	2007. 7. 25
	이준희	연구원	2006. 2. 1	2007. 7. 31
	이홍배	부연구위원	1997. 2. 1	2007. 8. 31
	이홍식	부연구위원	2003. 7. 1	2007. 8. 31
	김원호	선임연구위원	1994. 6. 7	2007. 8. 31
	이성봉	연구위원	1997. 6. 9	2007. 8. 31
	이광우	연구원	2006. 5. 17	2007. 9. 4
	이종국	에디터	2006. 12. 1	2007. 10. 26
	강민우	연구원	2007. 7. 30	2007. 12. 31
	김세원	초청연구위원	2007. 4. 24	2007. 12. 31
	이철취	초청연구위원	2007. 10. 16	2007. 12. 31
	2008	남영숙	연구위원	2003. 9. 1
이미아		연구조원	2007. 1. 1	2008. 5. 2
이경태		원장	2005. 1. 31	2008. 5. 15
이창영		초청연구위원	2007. 8. 1	2008. 7. 22
신종협		부연구위원	2006. 7. 1	2008. 7. 31
이유경		연구조원	2008. 2. 18	2008. 9. 30
박영철		초청연구위원	2007. 4. 26	2008. 9. 30
안형도		선임연구위원	1995. 4. 3	2008. 10. 25
주용식		초청연구위원	2007. 10. 17	2008. 11. 30
홍유수		초청연구위원	2005. 7. 1	2008. 11. 30
Corey G. Crago		에디터	2007. 12. 3	2008. 12. 2
정효정		연구조원	2007. 1. 1	2008. 12. 2
구연수		연구원	2006. 4. 1	2008.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09	양두용	연구위원	2000. 2. 14	2009. 1. 5
	백유진	연구원	2008. 8. 1	2009. 2. 28
	송백훈	부연구위원	2005. 9. 1	2009. 2. 28
	송원호	부연구위원	2003. 5. 1	2009. 2. 28
	이순철	연구위원	2005. 7. 18	2009. 2. 28
	임해준	부연구위원	2004. 6. 1	2009. 2. 28
	정미진	연구원	2007. 4. 26	2009. 4. 23
	이상현	연구원	2007. 7. 18	2009. 4. 30
	오형범	연구원	2004. 11. 23	2009. 5. 20
	남종현	초청연구위원	2009. 3. 1	2009. 5. 31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1989. 8. 5	2009. 6. 30
	강찬주	연구조원	2006. 2. 1	2009. 7. 16
	박혜원	에디터	2008. 12. 1	2009. 7. 17
	김두현	초청연구위원	2008. 1. 3	2009. 8. 12
	이인구	부연구위원	2005. 6. 13	2009. 8. 31
	배희연	전문연구원	2001. 9. 24	2009. 9. 8
	엄부영	전문연구원	2001. 11. 19	2009. 10. 1
	박수완	전문연구원	2004. 7. 23	2009. 10. 7
	이희연	연구원	2009. 4. 29	2009. 10. 19
	이민하	연구원	2009. 6. 15	2009. 10. 28
	이현도	3급관리원	2009. 5. 1	2009. 10. 31
	우승혜	연구원	2006. 12. 4	2009. 12. 3
	김연수	연구조원	2006. 4. 17	2009. 12. 31
	유혜신	행정원	2009. 7. 1	2009. 12. 31
	윤창인	초청연구위원	2007. 1. 1	2009.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이슬비	연구조원	2006. 9. 14	2009. 12. 31	
	홍현주	연구조원	2006. 3. 13	2009. 12. 31	
2010	김예지	연구조원	2010. 1. 1	2010. 1. 15	
	오용협	연구위원	2004. 5. 1	2010. 1. 31	
	석희원	연구조원	2007. 2. 21	2010. 2. 20	
	이민옥	연구원	2007. 4. 16	2010. 3. 19	
	박은경	연구조원	2008. 5. 20	2010. 5. 19	
	남윤정	연구원	2005. 1. 11	2010. 6. 7	
	민유경	전문연구원	2001. 3. 1	2010. 6. 15	
	이연지	연구원	2007. 7. 2	2010. 7. 1	
	허윤선	연구원	2007. 7. 2	2010. 7. 1	
	김연실	연구원	2007. 7. 30	2010. 7. 9	
	김진아	연구원	2010. 6. 21	2010. 7. 16	
	권정윤	연구원	2010. 1. 1	2010. 7. 31	
	나은엽	연구조원	2009. 2. 1	2010. 8. 31	
	이혜림	연구원	2010. 8. 9	2010. 9. 9	
	남호선	전문연구원	2006. 4. 1	2010. 9. 26	
	노희선	연구원	2010. 7. 26	2010. 11. 25	
	강대창	부연구위원	2010. 4. 2	2010. 12. 31	
	2011	현정혜	연구조원	2010. 9. 1	2011. 2. 7
		이혁구	부연구위원	2010. 2. 1	2011. 2. 28
지만수		연구위원	2002. 5. 1	2011. 2. 28	
현혜정		부연구위원	2006. 6. 1	2011. 2. 28	
이경희2		전문연구원	2007. 4. 18	2011. 4. 30	
최보연		연구원	2010. 1. 11	2011. 5. 13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11	신세영	행정원	2010. 4. 1	2011. 5. 31
	박철형	전문연구원	2006. 2. 1	2011. 6. 2
	김상규	주임사무원	1992. 1. 1	2011. 6. 30
	박상아	연구조원	2010. 4. 12	2011. 6. 30
	양영목	책임행정원	1991. 5. 16	2011. 6. 30
	박해연	전문연구원	2008. 4. 3	2011. 7. 19
	박민아	연구조원	2009. 7. 27	2011. 7. 26
	양주영	전문연구원	2007. 12. 1	2011. 7. 31
	김성은	연구조원	2010. 1. 1	2011. 8. 12
	김양희	선임연구위원	2000. 9. 1	2011. 8. 16
	손기태	부연구위원	2009. 6. 1	2011. 8. 23
	성한경	부연구위원	2006. 8. 1	2011. 8. 30
	김한성	연구위원	2005. 8. 22	2011. 8. 31
	박영준	부연구위원	2009. 6. 22	2011. 8. 31
	양성일	행정원	2011. 9. 1	2011. 9. 6
	송영관	연구위원	2004. 5. 1	2011. 9. 14
	장민정	연구조원	2010. 5. 24	2011. 9. 14
	백유진	연구원	2008. 8. 1	2011. 9. 30
	이보람	연구원	2011. 1. 1	2011. 10. 4
	김세은	연구조원	2010. 1. 1	2011. 10. 7
	황지영	전문연구원	2008. 1. 1	2011. 10. 10
	노유연	전문연구원	2006. 5. 11	2011. 10. 21
	이정민	행정원	2011. 10. 26	2011. 11. 11
	곽소영	연구원	2011. 1. 1	2011. 12. 31
	김보혜	연구원	2010. 4. 1	2011. 12.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박월라	연구위원	1992. 1. 1	2011. 12. 31
	박지희	연구원	2011. 9. 1	2011. 12. 31
	이지선	연구원	2011. 4. 1	2011. 12. 31
2012	박희정	연구조원	2010. 2. 2	2012. 2. 1
	이수지	연구원	2011. 10. 7	2012. 2. 6
	최지은	연구조원	2010. 2. 10	2012. 2. 9
	강승호	연구위원	2012. 1. 1	2012. 2. 29
	김도연	연구원	2010. 4. 2	2012. 2. 29
	장용준	부연구위원	2009. 7. 1	2012. 2. 29
	조미진	연구위원	2006. 11. 1	2012. 2. 29
	조명철	선임연구위원	1994. 12. 1	2012. 3. 10
	홍익표	전문연구원	1996. 1. 1	2012. 3. 20
	이경희	전문연구원	1996. 1. 1	2012. 3. 23
	오승환	전문연구원	2007. 5. 7	2012. 4. 10
	박연경	연구원	2011. 8. 29	2012. 5. 3
	신현준	전문연구원	2004. 12. 27	2012. 5. 5
	김수월	주임연구조원	1992. 1. 1	2012. 6. 24
	김박수	초청연구위원	2009. 7. 1	2012. 6. 30
	배승빈	전문연구원	2007. 2. 21	2012. 6. 30
	오창배	책임행정원	1989. 10. 12	2012. 6. 30
	이경아	연구원	2012. 7. 1	2012. 7. 1
	박지애	연구조원	2010. 9. 1	2012. 7. 11
	김민희	전문연구원	2009. 5. 11	2012. 7. 13
	박수경	전문연구원	2008. 4. 1	2012. 7. 18
	오현정	연구원	2010. 11. 22	2012. 7. 23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김수경	연구조원	2011. 3. 21	2012. 7. 31
	김보미	전문원	2011. 12. 5	2012. 8. 5
	오민아	전문연구원	2006. 6. 1	2012. 8. 19
	정연주	선임전문원	2010. 7. 5	2012. 9. 10
	이시영	연구원	2009. 5. 1	2012. 9. 30
	강형덕	연구원	2012. 5. 21	2012. 10. 31
	고은아	연구조원	2012. 2. 6	2012. 10. 31
	김균태	전문연구원	2000. 12. 13	2012. 12. 3
	정휘도	전문원	2012. 8. 20	2012. 12. 19
	사덕호드자애브 세르조드	부연구위원	2007. 9. 17	2012. 12. 30
	윤성학	부연구위원	2009. 5. 6	2012. 12. 31
	이창재	선임연구위원	1990. 10. 1	2012. 12. 31
	최규종	연구위원	2012. 1. 1	2012. 12. 31
2013	이상훈	부연구위원	2010. 2. 1	2013. 1. 31
	이한빛	사무원	2012. 10. 24	2013. 2. 8
	박복영	선임연구위원	2002. 11. 1	2013. 2. 11
	김정수	초청연구위원	2012. 4. 1	2013. 2. 15
	안지연	부연구위원	2010. 8. 1	2013. 2. 28
	이종운	전문연구원	2001. 11. 13	2013. 2. 28
	조두연	부연구위원	2012. 5. 29	2013. 2. 28
	김정곤	전문연구원	2004. 1. 1	2013. 3. 17
	서주희	연구조원	2011. 4. 1	2013. 3. 31
	정혜원	연구원	2011. 7. 18	2013. 5. 8
	채 욱	원장	2008. 5. 16	2013. 5. 15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백석훈	연구원	2012. 5. 14	2013. 5. 20
	박은선	연구원	2012. 4. 23	2013. 5. 22
	김희진	행정원	2013. 6. 10	2013. 6. 10
	한바란	부연구위원	2009. 7. 27	2013. 7. 19
	김미수	부연구위원	2012. 8. 6	2013. 8. 5
	허 인	연구위원	2009. 4. 1	2013. 8. 31
	편주현	부연구위원	2012. 9. 3	2013. 9. 2
	김충명	사무원	2013. 2. 21	2013. 9. 23
	조영관	부연구위원	2009. 5. 1	2013. 10. 31
	최윤영	연구조원	2013. 6. 26	2013. 10. 31
2014	강대창	부연구위원	2011. 1. 1	2013. 12. 31
	최규종	초청연구위원	2013. 1. 1	2013. 12. 31
	김태윤	부연구위원	2009. 6. 1	2014. 1. 1
	맹윤경	전문원	2012. 8. 27	2014. 1. 10
	장윤희	연구원	2013. 3. 1	2014. 1. 31
	박진아	연구원	2013. 10. 21	2014. 2. 21
	노효신	연구조원	2013. 11. 6	2014. 2. 28
	서정민	부연구위원	2009. 8. 1	2014. 2. 28
	유혜민	연구원	2012. 11. 19	2014. 2. 28
	이한나	연구원	2013. 4. 1	2014. 2. 28
	임태균	부연구위원	2012. 9. 3	2014. 2. 28
	조영관	초청연구원	2009. 5. 1	2014. 2. 28
	임민경	전문연구원	2010. 1. 11	2014. 4. 1
	박지연	부연구위원	2013. 10. 31	2014. 4. 2
	이승진	전문연구원	2009. 5. 11	2014. 4. 9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14	전혜린	전문연구원	2010. 6. 7	2014. 5. 19
	이남기	연구조원	2014. 2. 28	2014. 5. 20
	서영경	연구원	2013. 1. 1	2014. 6. 12
	김지영	연구조원	2011. 9. 14	2014. 6. 17
	윤서영	전문연구원	2009. 5. 1	2014. 6. 20
	이상희	연구원	2011. 7. 18	2014. 6. 25
	강대창	초청연구원	2010. 4. 2	2014. 6. 30
	김지연	전문연구원	2007. 7. 2	2014. 7. 16
	여지나	전문연구원	2005. 1. 4	2014. 7. 29
	이동은	연구위원	2009. 5. 20	2014. 8. 31
	주진홍	전문연구원	2008. 8. 1	2014. 9. 12
	임경수	연구원	2010. 3. 16	2014. 9. 30
	김유미	연구원	2011. 10. 26	2014. 10. 25
	이기청	연구원	2014. 5. 9	2014. 10. 31
	유혜신	선임행정원	2009. 7. 1	2014. 11. 10
	고은혜	연구조원	2013. 12. 16	2014. 11. 15
	서혜원	선임전문원	2010. 12. 1	2014. 11. 24
	선주연	부연구위원	2012. 7. 30	2014. 11. 28
	김정수	초청연구위원	2013. 12. 1	2014. 11. 30
	박해식	초청연구위원	2014. 1. 16	2014. 11. 30
	김태환	초청연구위원	2014. 4. 8	2014. 11. 30
	최윤선	연구원	2014. 3. 10	2014. 11. 30
	양홍은	전문연구원	2010. 8. 9	2014. 12. 11
	우미정	전문연구원	2002. 12. 16	2014. 12. 11
	조윤제	초청연구위원	2014. 9. 1	2014. 12. 12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원도연	초청연구위원	2014. 5. 8	2014. 12. 14
	권태균	초청연구위원	2013. 10. 1	2014. 12. 20
	박희민	연구조원	2011. 10. 7	2014. 12. 24
	박소연	연구조원	2012. 6. 25	2014. 12. 25
	박월라	초청연구위원	2012. 1. 1	2014. 12. 31
	이재완	초청연구위원	2014. 1. 29	2014. 12. 31
	이창재	초청연구위원	2014. 8. 19	2014. 12. 31
	최지영	초청연구위원	2014. 1. 29	2014. 12. 31
2015	주미화	전문원	2013. 7. 24	2015. 1. 7
	김보민	부연구위원	2013. 8. 26	2015. 1. 23
	김윤옥	연구원	2012. 8. 6	2015. 1. 30
	문익준	부연구위원	2011. 7. 18	2015. 2. 27
	고희채	전문연구원	2006. 2. 1	2015. 3. 6
	최윤정	전문연구원	2000. 3. 27	2015. 3. 6
	신아영	연구원	2015. 1. 12	2015. 3. 17
	최필수	부연구위원	2011. 1. 18	2015. 3. 30
	김미정	연구조원	2012. 6. 12	2015. 3. 31
	최윤선	연구원	2014. 3. 10	2015. 5. 14
	박희진	연구원	2015. 1. 8	2015. 5. 15
	이현태	초청연구원	2015. 5. 6	2015. 6. 14
	박현정	전문연구원	2005. 8. 17	2015. 6. 26
	김은지	전문연구원	2000. 5. 1	2015. 6. 30
	홍이경	연구원	2012. 6. 25	2015. 7. 6
	정순배	행정원	2014. 9. 23	2015. 7. 31
	최영준	행정원	2014. 10. 1	2015. 7. 3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김준엽	연구원	2013. 1. 1	2015. 8. 17
	윤정모	연구위원	2015. 5. 18	2015. 8. 24
	황지선	연구원	2014. 4. 29	2015. 8. 28
	박나리	연구원	2011. 10. 26	2015. 8. 30
	김부용	부연구위원	2010. 1. 25	2015. 8. 31
	문성만	연구위원	2014. 7. 7	2015. 8. 31
	제성훈	부연구위원	2012. 7. 9	2015. 8. 31
	이주미	연구원	2012. 3. 19	2015. 9. 13
	정지우	전문연구원	2006. 2. 6	2015. 9. 15
	임태훈	부연구위원	2013. 9. 2	2015. 10. 31
	이준규	연구위원	2004. 8. 23	2015. 11. 26
	조종화	선임연구위원	1989. 10. 7	2015. 12. 2
	김이한	초청연구위원	2015. 4. 14	2015. 12. 6
	박현주	연구원	2015. 2. 26	2015. 12. 31
2016	이승은	전문연구원	2014. 8. 11	2016. 1. 8
	선정은	전문원	2014. 1. 15	2016. 1. 22
	박지연	연구원	2013. 10. 31	2016. 1. 31
	장성진	사무원	2014. 2. 10	2016. 1. 31
	정형수	연구원	2015. 8. 10	2016. 1. 31
	이승래	부연구위원	2012. 8. 6	2016. 2. 29
	이해정	연구원	2011. 5. 1	2016. 3. 4
	이민영	연구원	2013. 6. 10	2016. 3. 31
	정윤민	연구조원	2014. 7. 7	2016. 3. 31
	배재연	연구조원	2015. 2. 16	2016. 4. 7
	안선하	연구원	2015. 7. 1	2016. 4. 10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이일형	원장	2013. 8. 2	2016. 4. 20
	김선빈	행정원	2014. 10. 1	2016. 5. 8
	천소라	부연구위원	2015. 8. 31	2016. 5. 8
	황지영	연구원	2008. 1. 1	2016. 5. 10
	손미연	연구원	2015. 1. 8	2016. 6. 7
	박재은	연구원	2012. 5. 7	2016. 6. 17
	김상규	주임사무원	1992. 1. 1	2016. 6. 30
	김성남	에디터	2009. 8. 1	2016. 6. 30
	김윤실	책임전문원	1989. 11. 1	2016. 6. 30
	이계은	책임행정원	1989. 8. 5	2016. 6. 30
	이서진	연구원	2015. 9. 1	2016. 7. 31
	이신애	연구원	2014. 8. 1	2016. 7. 31
	강유덕	연구위원	2009. 5. 18	2016. 8. 31
	노수연	부연구위원	2010. 2. 1	2016. 8. 31
	박수정	연구조원	2015. 10. 1	2016. 8. 31
	홍석기	연구원	2015. 7. 1	2016. 9. 1
	권가원	연구원	2014. 10. 20	2016. 11. 14
	허유미	연구원	2015. 8. 25	2016. 11. 21
	정현주	연구원	2016. 6. 1	2016. 11. 30
	정주영	연구원	2016. 4. 18	2016. 12. 19
	김도희	연구원	2014. 12. 22	2016. 12. 22
	박경훈	연구원	2014. 12. 22	2016. 12. 29
	임호열	선임연구위원	2014. 4. 14	2016. 12. 31
2017	김신주	연구원	2016. 3. 28	2017. 1. 1
	이창재	초청연구위원	2015. 1. 7	2017. 1. 1

전(前) 임직원 명단

전(前) 직원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2017	심규진	초청연구위원	2015. 12. 28	2017. 2. 21
	김정은	책임전문원	1996. 7. 1	2017. 2. 20
	김태원	연구원	2017. 2. 13	2017. 3. 1
	이신애	연구원	2014. 8. 1	2017. 3. 1
	표학길	초청연구위원	2014. 3. 1	2017. 3. 1
	이효영	부연구위원	2013. 11. 25	2017. 3. 7
	이준원	전문연구원	2010. 12. 20	2017. 3. 12
	김정곤	부연구위원	2013. 3. 18	2017. 3. 20
	신세린	연구원	2015. 5. 26	2017. 5. 26
	김찬수	사무원	2015. 7. 1	2017. 7. 1
	오지윤	연구원	2016. 10. 6	2017. 7. 18
	권익중	사무원	2015. 3. 2	2017. 8. 1
	방호경	선임연구원	2003. 3. 1	2017. 8. 1
	이보안	연구원	2016. 5. 24	2017. 8. 8
	김원기	부연구위원	2015. 8. 17	2017. 8. 27
	권기수	연구위원	1995. 2. 6	2017. 9. 1
	황희정	초청연구위원	2017. 3. 9	2017. 9. 6
	김준영	연구원	2007. 7. 30	2017. 9. 13
	이혜민	특임위원	2015. 7. 27	2017. 10. 27
	양효은	전문연구원	2015. 7. 7	2017. 11. 15
	박준규	사무원	2016. 10. 24	2017. 12. 1
	곽소희	초청연구위원	2017. 9. 6	2017. 12. 18
	유서경	연구원	2017. 6. 19	2017. 12. 26
2018	오혜경	연구원	2017. 2. 15	2018. 1. 1
	임호열	초청연구위원	2017. 1. 1	2018. 1. 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김세은	선임행정원	2011. 12. 9	2018. 1. 28
	황운중	부연구위원	2014. 7. 21	2018. 3. 1
	최은혜	연구원	2017. 3. 2	2018. 3. 2
	김수진	전문연구원	2015. 3. 9	2018. 3. 9
	임수호	연구위원	2015. 5. 18	2018. 3. 12
	이 웅	연구위원	2011. 7. 18	2018. 3. 28
	이재영	선임연구위원	2005. 4. 1	2018. 3. 29
	강민수	행정원	2017. 3. 27	2018. 4. 1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2015. 4. 6	2018. 4. 6
	나우현	연구조원	2017. 4. 10	2018. 4. 10
	박미선	연구조원	2013. 4. 8	2018. 4. 16
	이서영	전문연구원	2015. 5. 27	2018. 5. 2
	왕윤중	초청연구위원	2018. 1. 1	2018. 5. 31
	전수경	연구원	2017. 6. 1	2018. 6. 1
	이장규	선임연구위원	2001. 3. 20	2018. 6. 30
	한재훈	주임사무원	1991. 5. 6	2018. 7. 1
	남시훈	부연구위원	2016. 8. 8	2018. 8. 3
	최보영	부연구위원	2013. 9. 16	2018. 8. 31
2019	김효은	연구원	2017. 3. 2	2019. 1. 1
	오혜경	연구원	2017. 2. 15	2019. 1. 1
	권용범	행정원	2018. 3. 5	2019. 1. 11
	권세연	전문원	2018. 8. 5	2019. 2. 9
	장종문	전문연구원	2012. 5. 21	2019. 2. 9
	이현태	부연구위원	2015. 6. 15	2019. 3. 1
	최혜린	부연구위원	2014. 8. 1	2019. 3. 1

퇴직년도	성명	최종직위	입사일	퇴사일
	안정은	연구원	2015. 5. 11	2019. 3. 20
	이수영	부연구위원	2016. 5. 16	2019. 3. 27
	김수진	전문원	2015. 3. 9	2019. 5. 1
	신웅재	연구원	2019. 1. 28	2019. 5. 1
	이시은	전문연구원	2012. 1. 1	2019. 5. 1
	전수경	연구원	2017. 6. 1	2019. 6. 25
	이장규	초청연구위원	2018. 7. 1	2019. 6. 30
	김상겸	선임연구위원	1992. 9. 16	2019. 7. 1
	나우현	연구조원	2018. 4. 10	2019. 7. 1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2000. 6. 19	2019. 7. 1
	김승환	초청연구위원	2019. 2. 22	2019. 7. 8
	이민주	연구원	2018. 3. 29	2019. 7. 20
	송영철	전문연구원	2009. 1. 19	2019. 8. 28
	김경훈	부연구위원	2015. 8. 31	2019. 9. 1
	오윤아	연구위원	2011. 7. 1	2019. 9. 1
	이승권	주임사무원	1989. 12. 27	2019. 9. 1
	정효림	연구원	2019. 7. 1	2019. 9. 1
	허윤선	부연구위원	2015. 9. 7	2019. 9. 1
	신꽃비	부연구위원	2015. 8. 3	2019. 9. 17
	김민제	연구조원	2014. 3. 12	2019. 10. 9
	김지수	연구원	2018. 8. 20	2019. 10. 9
	서주원	전문원	2016. 3. 7	2019. 10. 26
	임소정	연구원	2014. 7. 7	2019. 10. 28

현(現) 임직원 명단 *

원장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 전 경력
이재영	2018. 3. 29 ~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관 러시아 극동국제관계대학교 명예교수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대학교 방문학자

부원장

성명	재직기간	학력	취임 전 경력
정 철	2018. 3. 29 ~ 현재	미국 미시건대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아 공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자문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

* 2019년 11월 30일 현재

직원 (가나다 순)

직위	성명
선임연구위원	강태수, 권율, 김규판, 김준동, 김흥중, 서진교, 양평섭, 윤덕룡, 정성춘, 정여천, 정철, 정형곤
연구위원	곽성일, 김영귀, 김종덕, 문진영, 박영호, 박정호, 배찬권, 안성배, 이권형, 이승신, 정영식, 정지원, 정지현, 조충제, 한민수
부연구위원	강구상, 구경현, 김정곤, 김현수, 김효상, 라미령, 류한별, 박영석, 연원호, 예상준, 오수현, 윤여준, 이규엽, 이상훈, 이주관, 이천기, 장영신, 정민현, 정재욱, 조동희, 조문희, 최원석, 최인아, 최장호, 한형민, 허재철, 현상백, 홍성우
초청연구위원	김상겸, 김석환, 최낙균
선임연구원	강준구, 김진오, 김혁황, 나수엽, 이철원, 이형근, 정재완, 정지선
전문연구원	강민지, 강부균, 강은정, 곽소영, 권혁주, 금혜윤, 김도연, 김민성, 김수빈, 김영선, 김예진, 김제국, 김종혁, 김홍원, 나승권, 민지영, 박나연, 박미숙, 박민숙, 박지현, 박진희, 박혜리, 백종훈, 손성현, 송지혜, 신민금, 신민이, 양다영, 엄준현, 오윤미, 오종혁, 오태현, 유새별, 유애라, 이보람, 이상미, 이성희, 이재호, 이정균, 이정미, 이정은, 이주영, 이진희, 이한나, 이현진, 임지운, 장윤희, 정동연, 정민철, 조고운, 최유정, 최준영, 홍진희
연구원	강반디, 김미림, 김범환, 김소은, 김승현, 김유리, 김은미, 김주혜, 김지현, 김초롱, 노현주, 문수현, 박은빈, 백민지, 손원주, 유광호, 유인지, 윤지현, 윤형준, 이효진, 임유진, 장경혜, 장민규, 정민지, 최재희, 최지원, 최현양, 한하린, 현채원
책임전문원	김혜정, 배선희, 송대영, 안태경, 이혜정, 정다송

현(現) 임직원 명단 *

직원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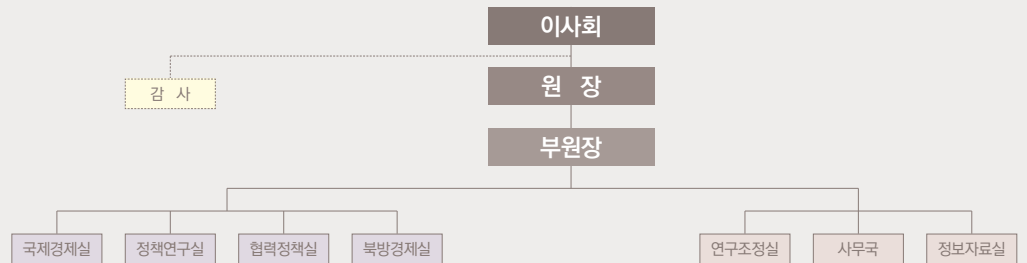
직위	성명
선임전문원	강경미, 박지애, 박현모, 이창현
전문원	박찬미, 손근혜, 주미화, 허유라
책임행정원	강성일, 김도경, 박영환, 우은영, 정성욱, 황문재
선임행정원	강세영, 곽효정, 김수정, 남호식, 박순정, 박지연, 박현규, 신승혜, 최서영, 한상윤, 황태정
행정원	김미선, 김영은, 박나영, 성현
주임사무원	김동혁, 박근용, 심재호, 임영숙, 함승임
주임연구조원	김미사, 김민서, 김정아, 김정운, 엄혜란, 엄희애, 이강희, 정순복, 최현주
사무원	강규원, 김용호, 김홍욱, 박철민, 윤희선, 정현철
연구조원	권정진, 김하영, 김새날, 김진아, 성은비, 최민정, 한진희

* 2019년 11월 3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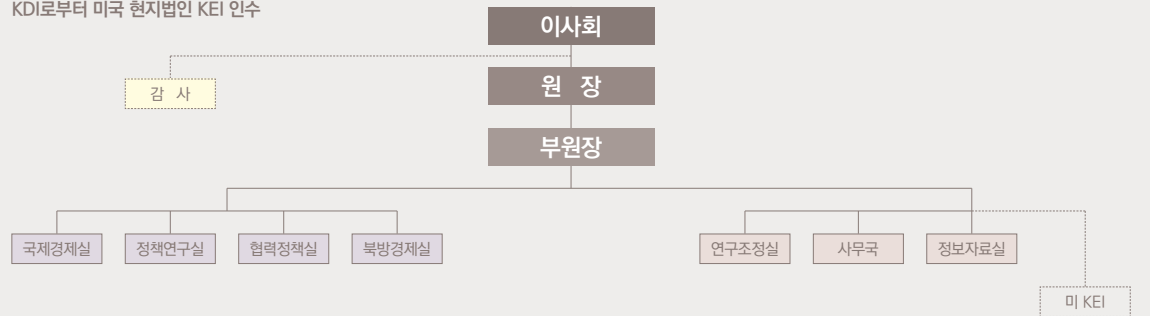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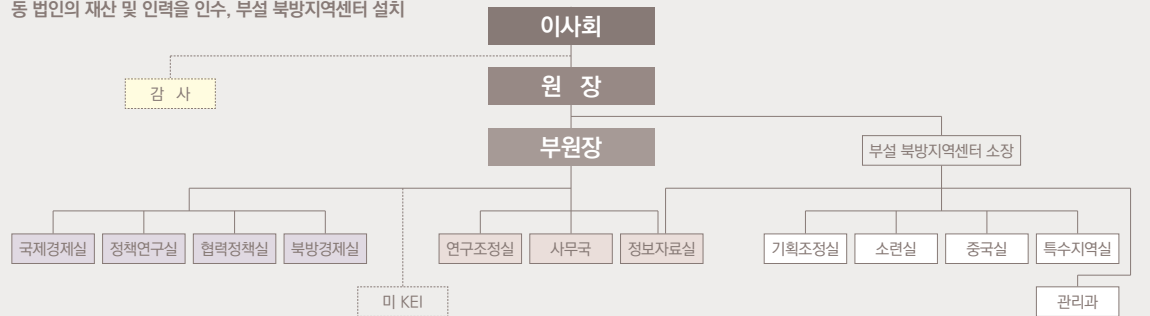
1989. 8 ~ 1990. 12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직



1990
특별법인 출범(1989.12.27)
KDI로부터 미국 현지법인 KEI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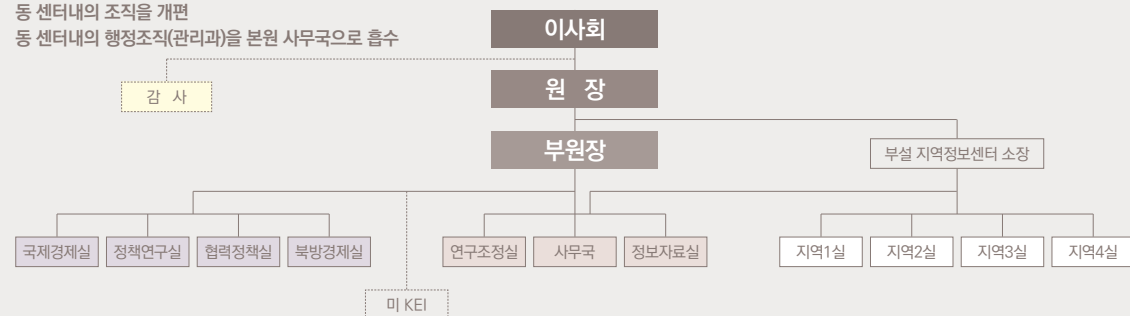


1992.1
(사)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
동 법인의 재산 및 인력을 인수,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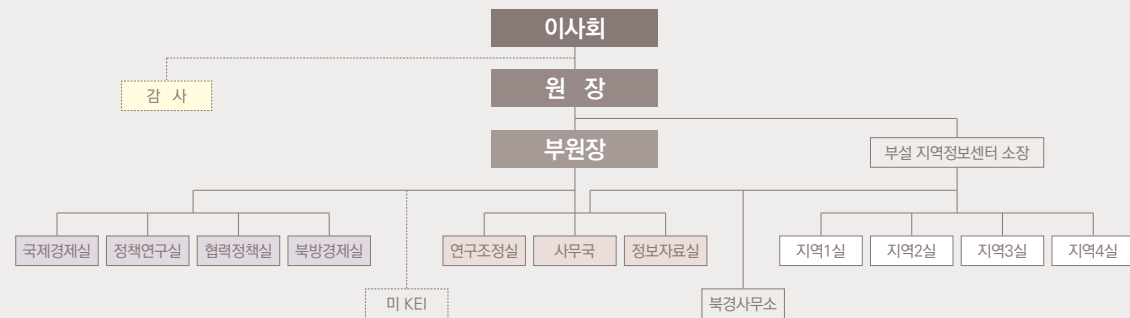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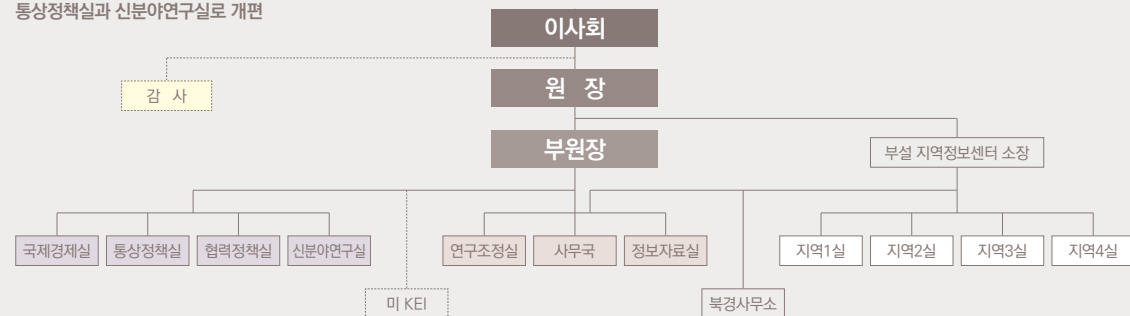
1992. 10
부설 북방지역센터 명칭을 부설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동 센터내의 조직을 개편
동 센터내의 행정조직(관리과)을 본원 사무국으로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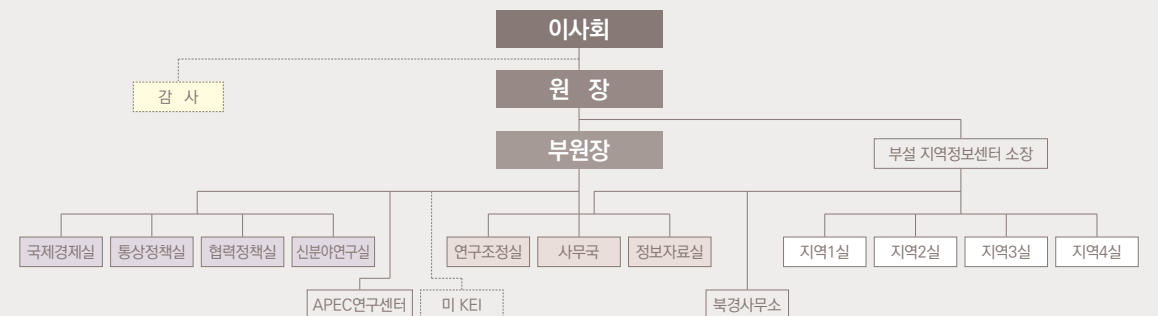
1993. 6
북경사무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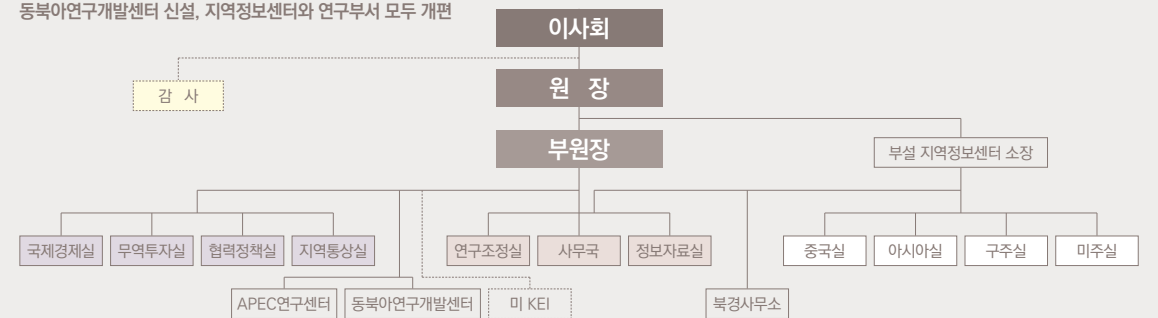
1994. 4
정책연구실과 북방경제실 폐지
통상정책실과 신분야연구실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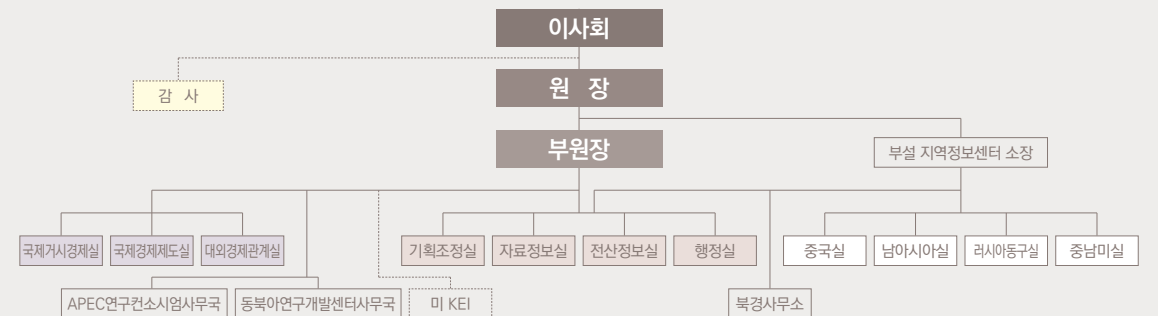
1995. 3
APEC 연구센터 신설



1997. 1
통상정책실·신분야연구실을 무역투자실·지역통상실로 개편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와 연구부서 모두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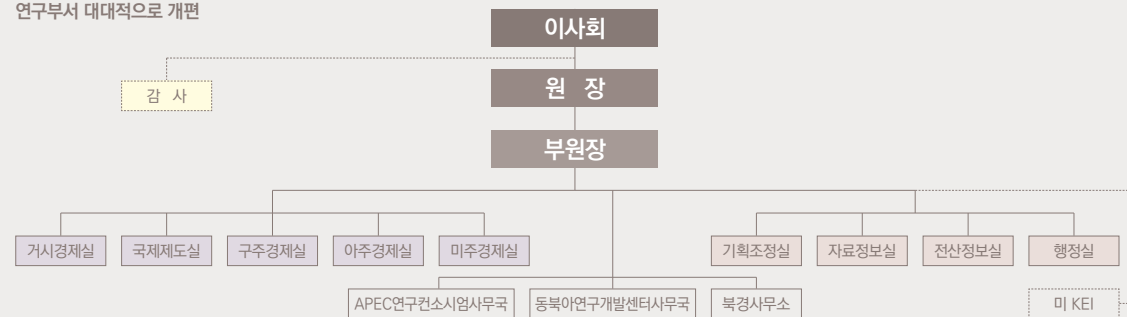


1997. 3
연구부서 및 지원부서 대대적으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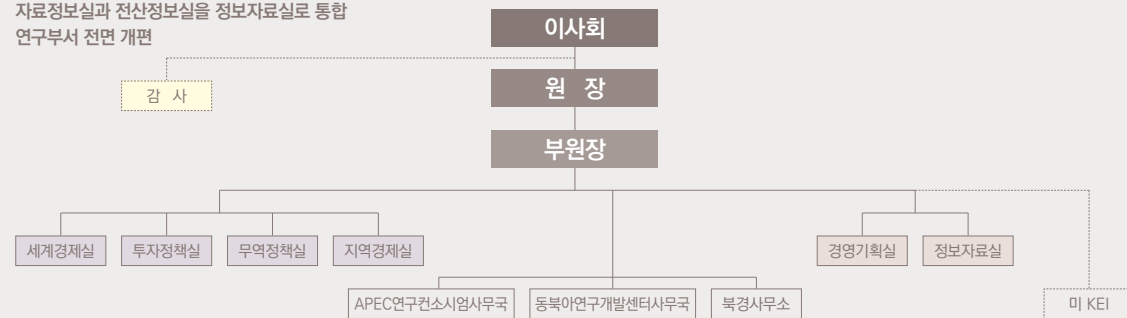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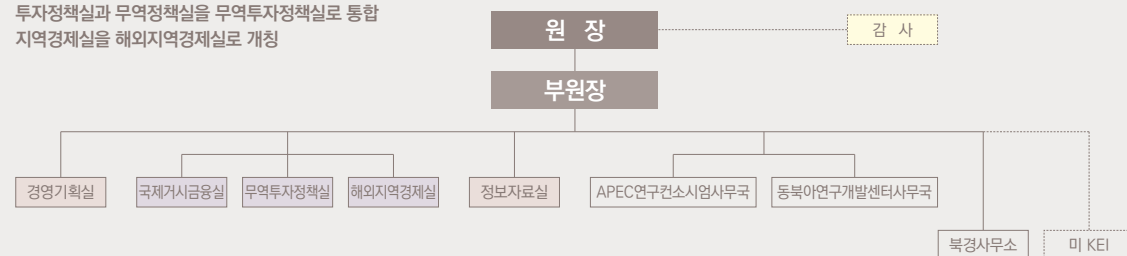
1997. 7
부설기관 폐지, 본원 조직으로 통합
연구부서 대대적으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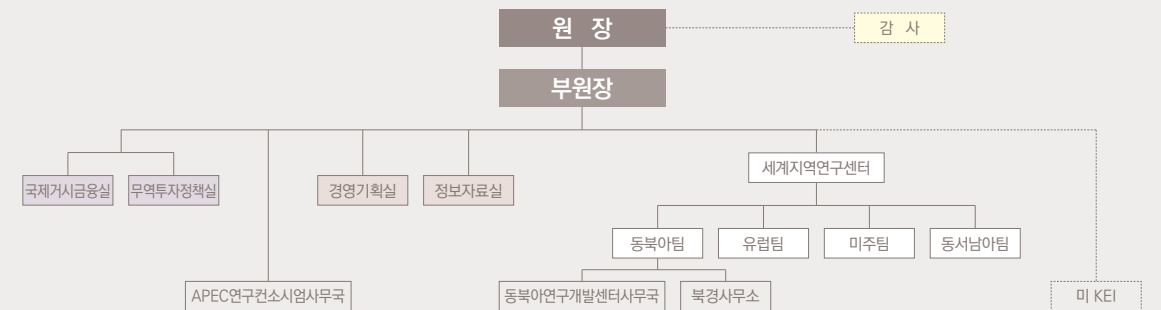
1998
기획조정실과 행정실을 경영기획실로 통합
자료정보실과 전산정보실을 정보자료실로 통합
연구부서 전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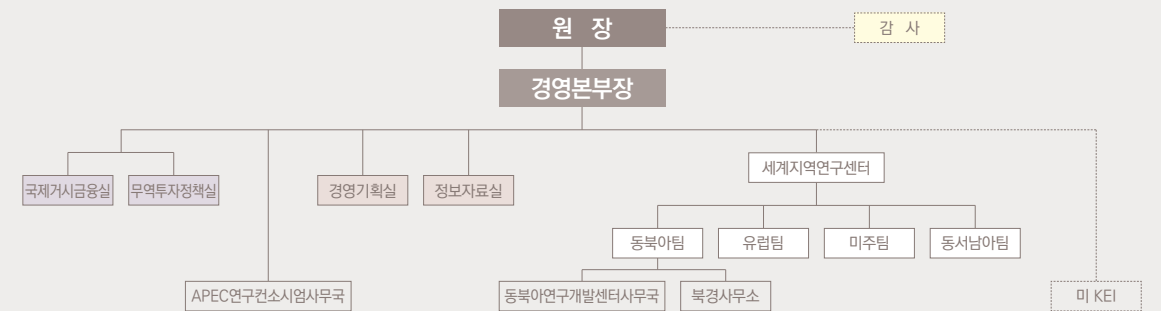
1999
연구회 체제 출범
투자정책실과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정책실로 통합
지역경제실을 해외지역경제실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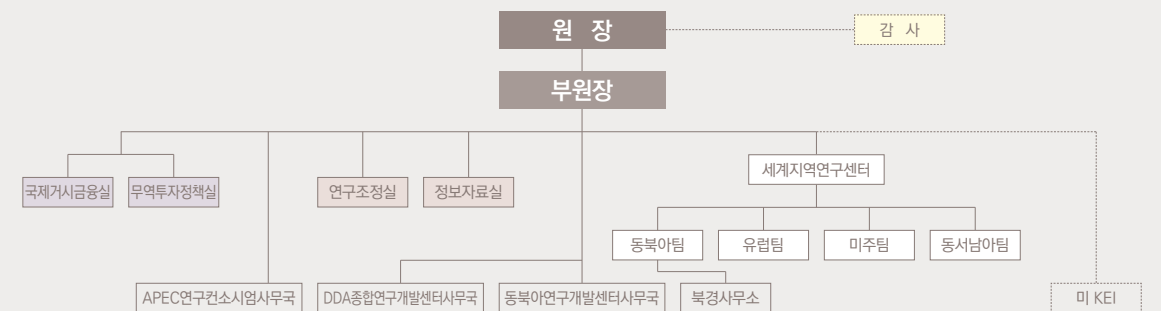
2000
해외지역경제실을 세계지역연구센터로 확대 개편



2001
부원장제 폐지, 경영본부장체제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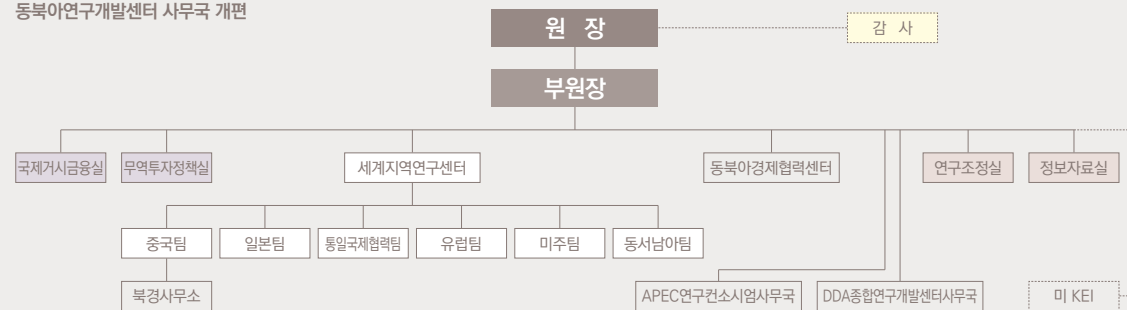
2002
부원장제 부활, DDA 사무국 신설, 연구조정실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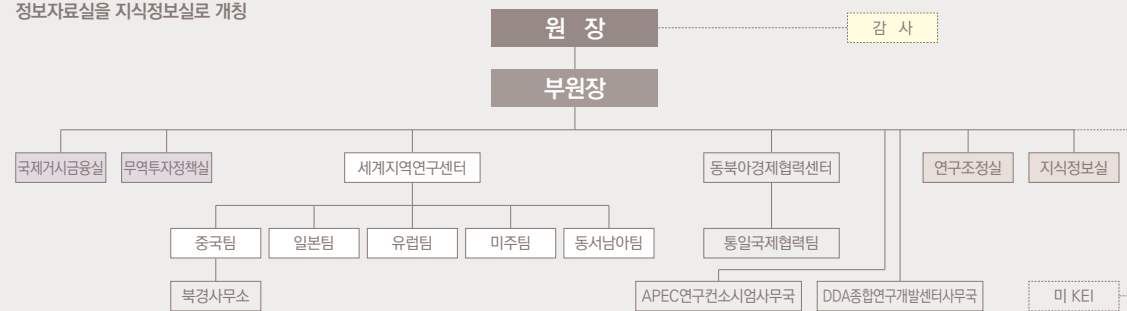
* Doha Development Agenda 중합연구센터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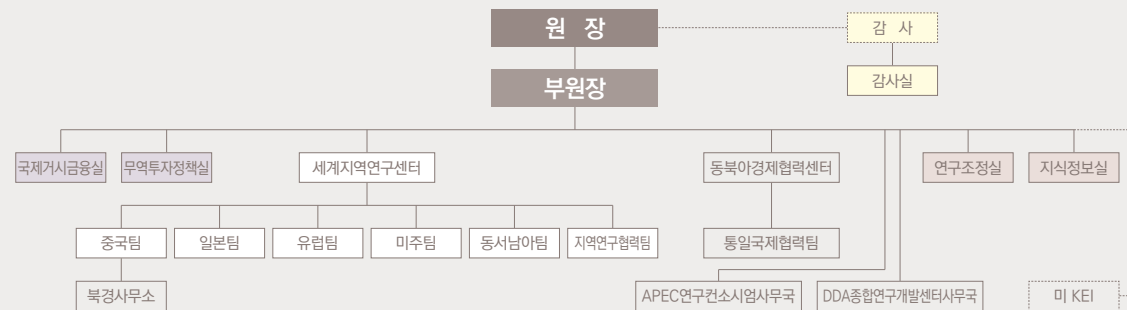
2003. 4
중국팀·일본팀·통일국제협력팀 산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사무국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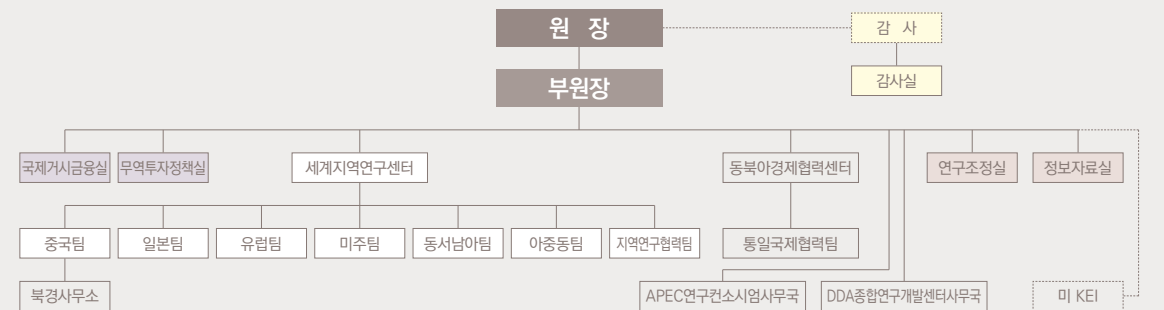
2005. 5
통일국제협력팀을 동북아경제협력센터에 둠
정보자료실을 지식정보실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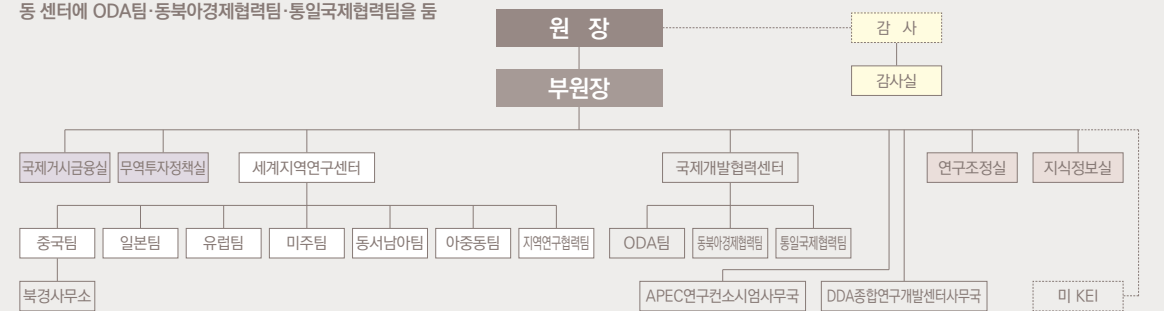
2006. 1
감사실 산설, 세계지역연구센터에 지역연구협력팀 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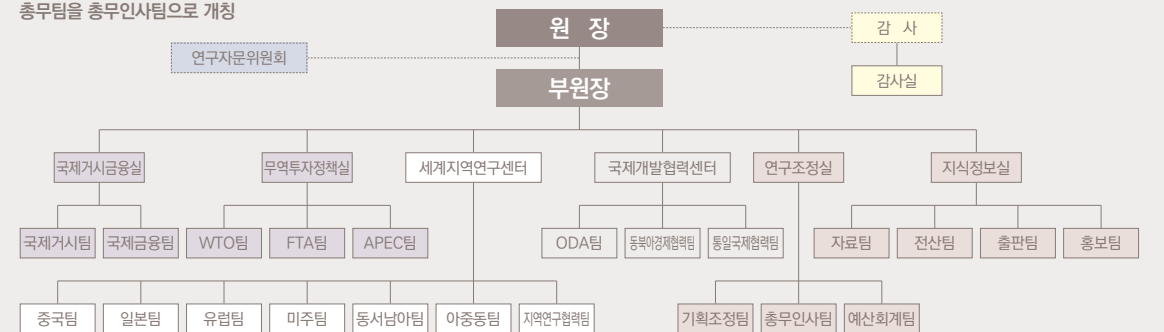
2007. 6
세계지역연구센터에 아중동팀 산설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
동 센터에 ODA팀·동북아경제협력팀·통일국제협력팀을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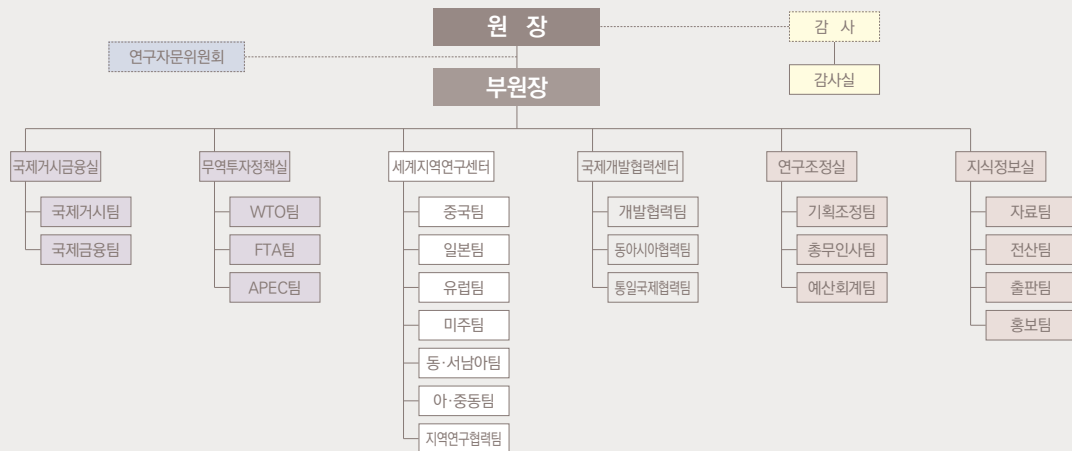


2009.12
경영혁신팀을 기획조정팀
총무팀을 총무인사팀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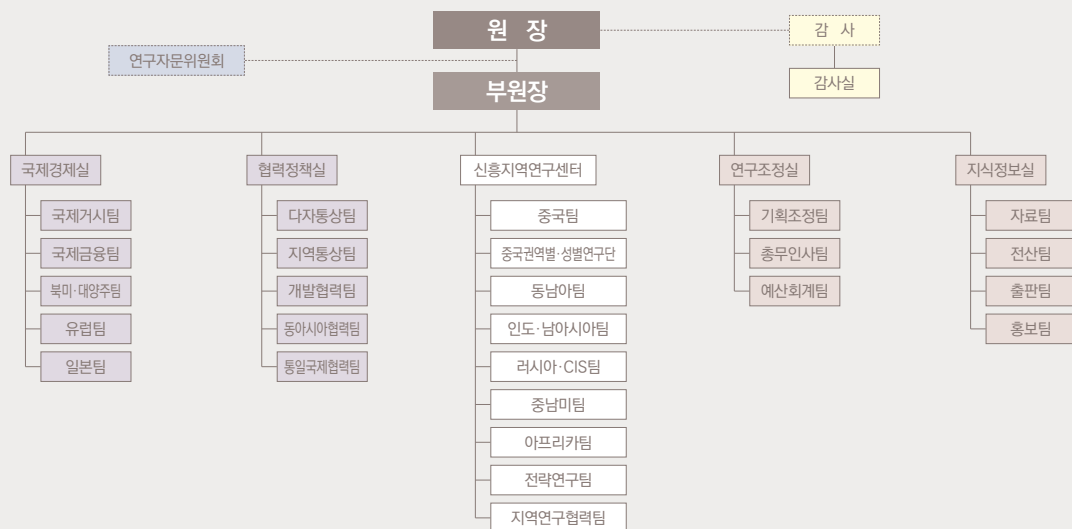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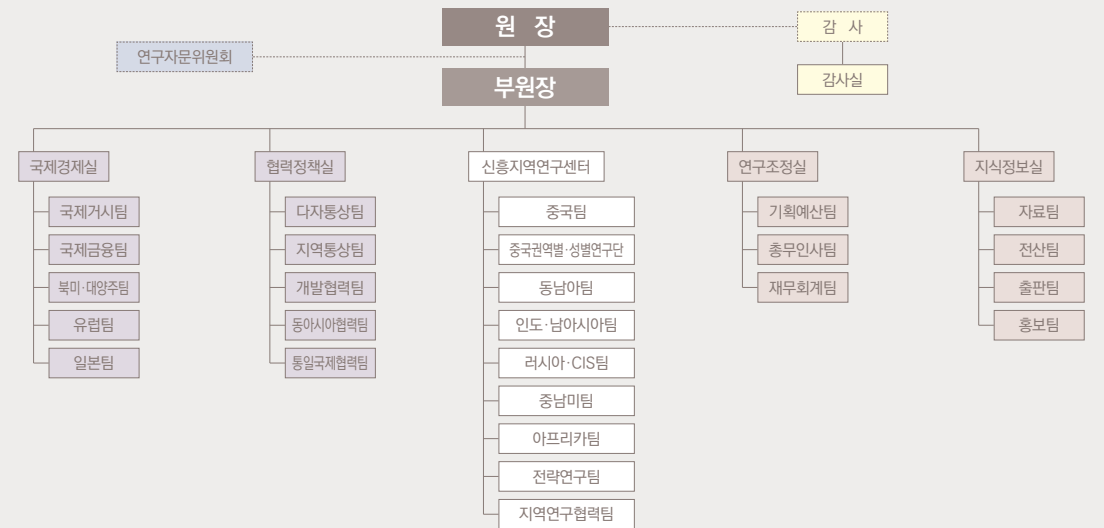
2010. 5
동북아경제협력팀을 동아시아협력팀으로 개칭
ODA팀을 개발협력팀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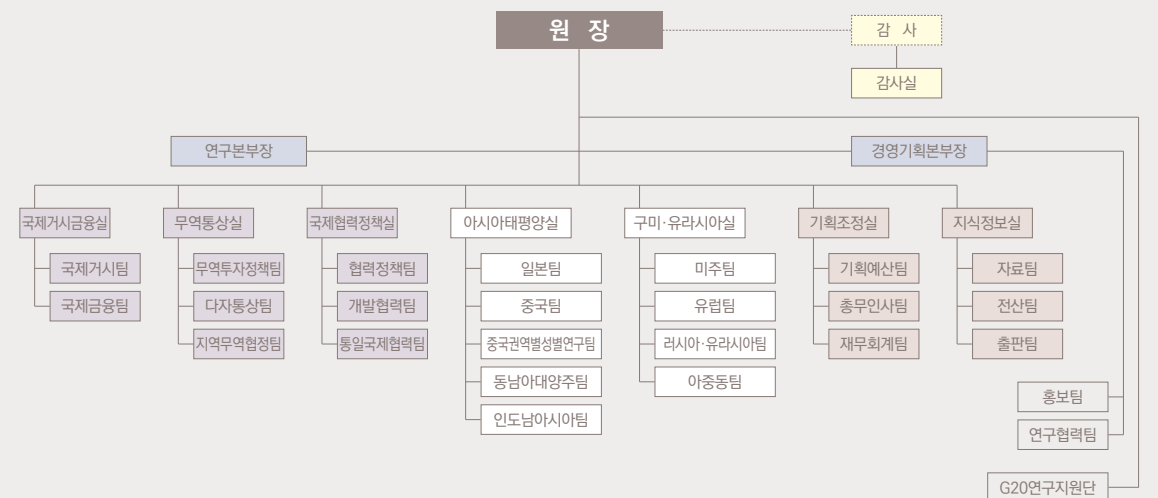
2011. 9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등 연구조직 개편



2013. 4
기획예산팀, 총무인사팀, 재무회계팀으로 개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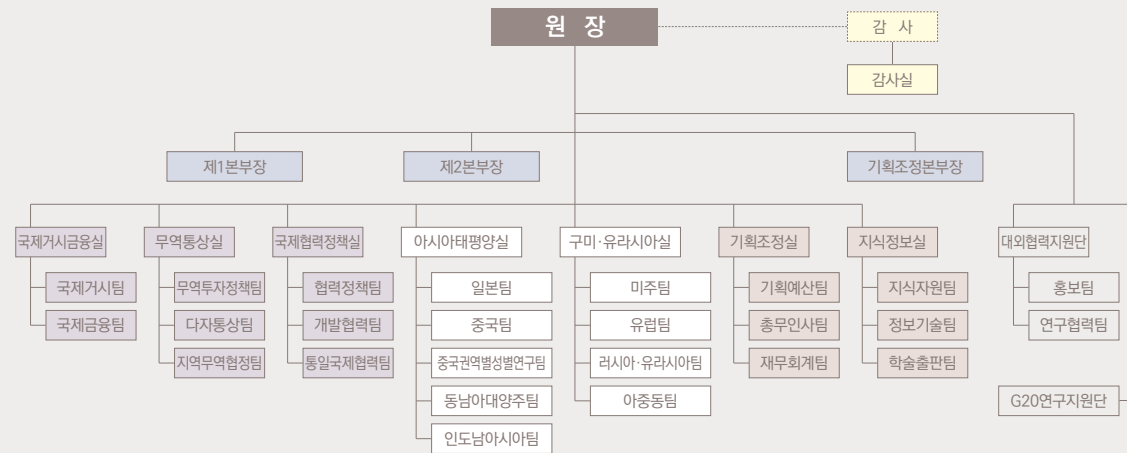


2014. 1
본부장제 도입, 조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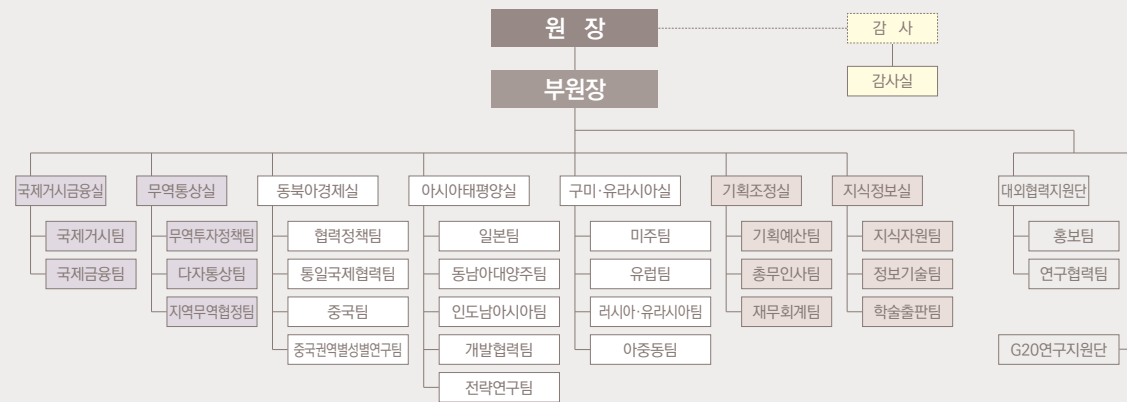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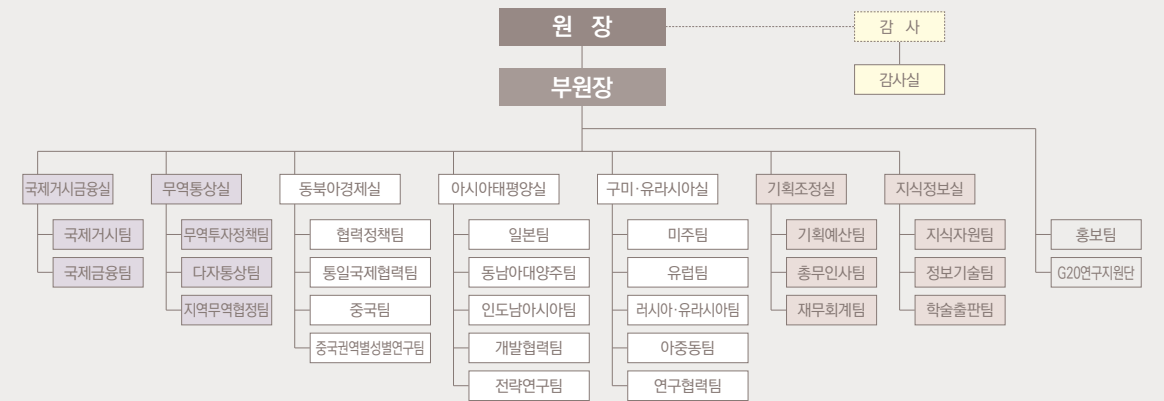
2015. 1
제1본부장, 제2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지원단 등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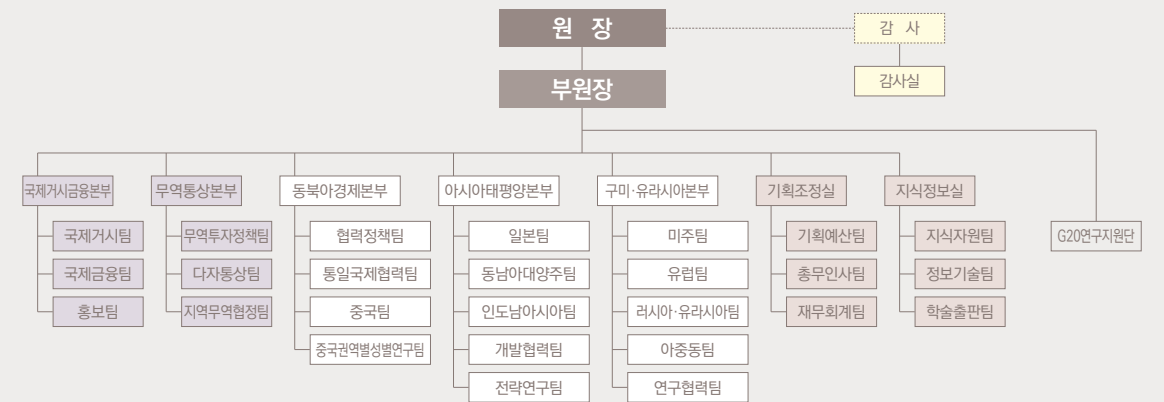
2015. 6
부원장 보직 신설, 동북아경제실과 아시아태평양실 조직 개편



2015. 8
대외협력지원단 해체
소관 연구협력팀을 관련 연구부서인 구미·유라시아실로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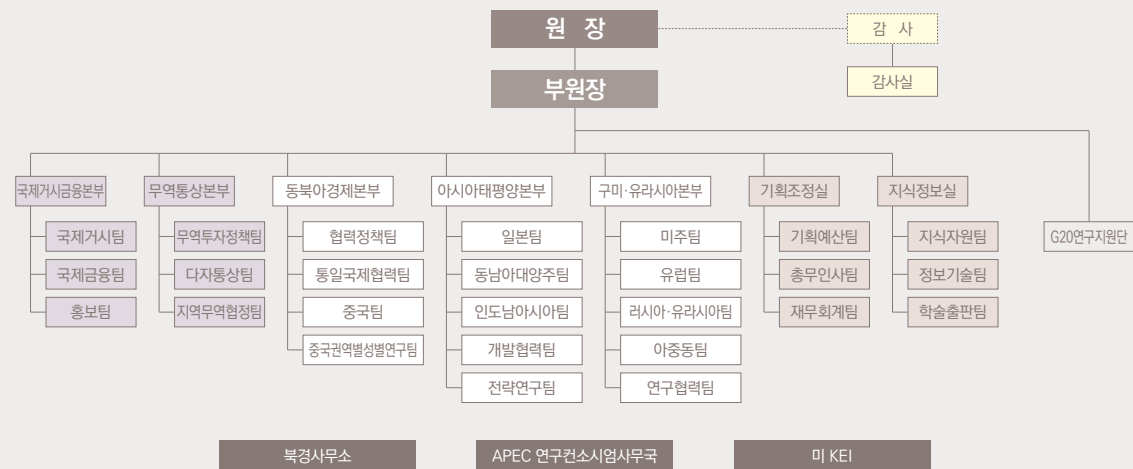
2016. 1
‘실’ 단위의 연구부서를 ‘본부’ 단위로 개편
홍보팀을 국제거시금융본부로 이관



조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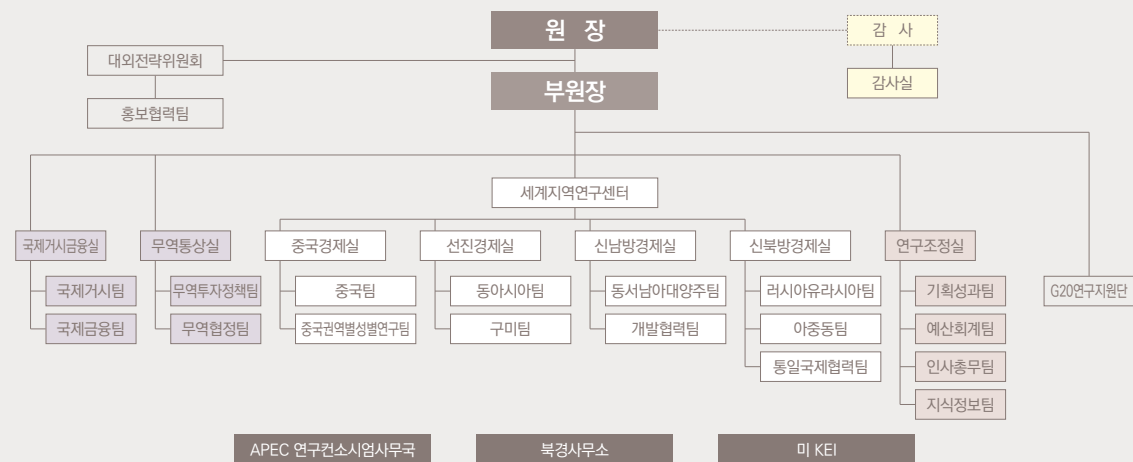
2016. 7

조직도에 북경사무소,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 미 KEI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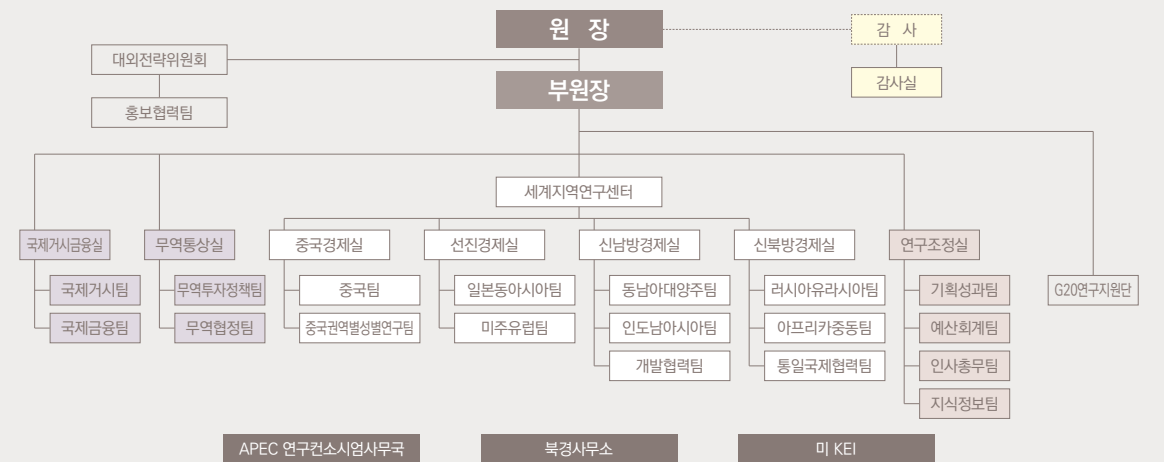
2018. 4

세계지역연구센터 부활 등 연구부서 및 행정부서 조직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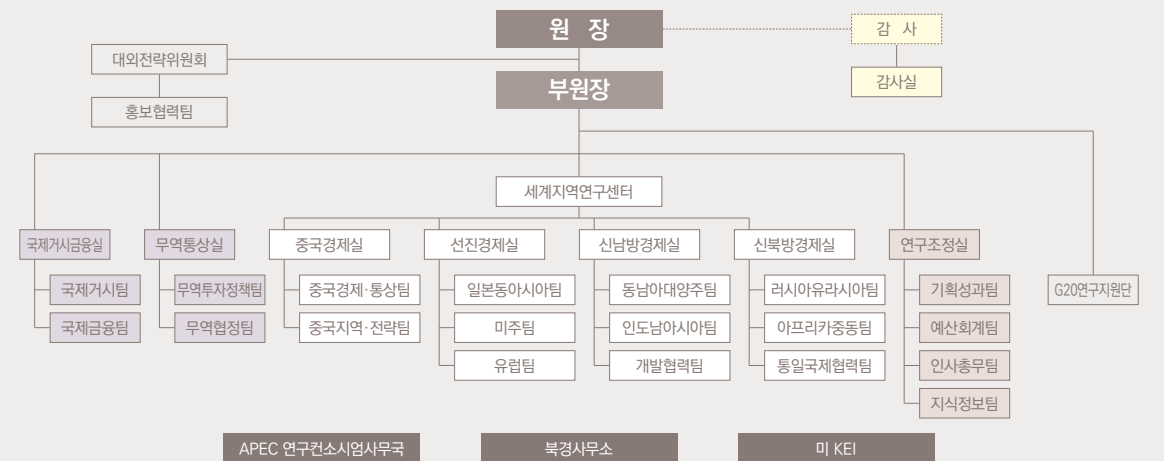
2018. 12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 일본동아시아팀, 구미팀 ⇒ 미주유럽팀으로 명칭 변경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 동남아대양주팀, 인도남아시아팀으로 분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 아프리카중동팀으로 명칭 변경



2019.11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 중국경제·통상팀, 중국지역별성별연구팀 ⇒ 중국지역·전략팀으로 명칭 변경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유럽팀 ⇒ 미주팀, 유럽팀으로 분리



발간자료 목록

1990		
정책연구		
90-01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김학수
90-02	EC 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민충기
90-03	환율제도와 외환위험 관리	김종만
90-04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손찬현
90-05	한국경제의 자유화 현황과 OECD 가입전략	김태준
90-06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 변화	유재원
90-07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장기 경제협력방안	김학수
90-08	미국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김남두
90-09	다자간 서비스협상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화	장의태
90-10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 국제화전략	서상록
정책자료		
90-01	소련·중국 및 동구의 변화와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02	1990년대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의 진전상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
90-04	중국의 경제개혁에 있어서 분권화 및 시장경제화의 전개	소일섭
90-05	미국·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0-01	EC 통합과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0-0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박태호 편
90-03	한국과 사회주의권의 관계발전 및 남북한 관계 변화의 전망	오용석 편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1991		
정책연구		
91-01	미·일 경제마찰과 우리의 정책과제	강흥구
91-02	주요 환율변동의 특성과 정책시사점	김종만
91-03	EC 무역구조의 변화	김정수
91-04	미국금융시장의 구조와 규제제도	이장영
91-05	중국 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오용석
91-06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박제훈
91-07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김시중
91-08	우리나라 서비스교역의 구조와 추이	이상학
91-09	한국·대만·일본의 환율변동과 수출경쟁관계 분석	조종화
91-10	EC의 직접투자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민충기
91-11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김학수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과 활용방안	채 욱
91-13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변화와 생산성의 국제비교	유진수
91-14	구동독의 가격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배진영
91-15	우루과이라운드 금융서비스 협상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김태준

91-16	폴란드 기업제도 개혁과 직접투자여건	홍유수
91-17	한·미간 직접투자의 구조와 투자환경의 변화	김남두
91-18	한국·대만·일본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조정	유재원
91-19	우리나라 주식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김종만
91-20	동북아 경제협력의 여건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1-01	북한의 에너지 수요와 공급	장영식
91-02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강정모
91-03	소련 경제개혁정책과 우리의 대응	이선환·방찬영
91-04	대만·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정책시사점	이장영
91-05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효과분석	최인범·현정택
91-06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전략	김학수
91-07	소련건설시장과 한국건설업체의 진출 가능성 분석	박강식
91-08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	손찬현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1-01	EC 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민충기 편
91-02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Jang-Won Suh ed.
오늘의 세계경제		
91-01	불황국면의 미국경제,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듯	김남두
91-02	걸프 전쟁의 세계질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 전망	공동

91-03	EC 통합의 진전현황과 최근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	민충기
91-04	소련경제의 최근 동향과 개혁의 방향	이창재
91-05	최근 동독경제: 예상보다 악화될 전망	배진영
91-06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한 교역전망	강정모
91-07	미국 금융제도 개혁의 배경과 주요내용	이장영
91-08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의 최근 동향	김남두
91-09	UR 협상을 겨냥한 EC농업정책의 변화	민충기
91-10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추진방향과 전망	김남두
91-11	중국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망	정영록
1992		
정책연구		
92-01	동북아시아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정영록
92-02	무역 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03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배진영
92-04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1: 일본의 무역장벽	유진수
92-05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1: 보험산업의 국제화전략	채 욱
92-06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2: 원산지규정	한홍렬
92-07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3: 일본의 수입품유통과 유통장벽	조병택·이영준
92-08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2: 회계 서비스산업 국제화 추진방안	김종만

발간자료 목록

92-09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3: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장의태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진전과 외국인투자 여건	박제훈
92-11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유 분석	정영록
92-12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김익수
92-13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4: 표준 및 검사제도	성극제
92-14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5: EC의 무역장벽	민충기
92-15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김박수
92-16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과 한국의 자유화 현황	김태준
92-17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6: 금융서비스 관련 장벽	이장영
92-18	유럽 금융통합과 EC 금융시장 진출방안	이재웅
92-19	동구 경제개혁의 유형과 성과	홍유수
92-20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4: 유통산업의 개방효과와 대응전략	신세돈
92-21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5: 광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이상학
92-22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7: 정부조달 관련 장벽	최인범
92-23	선진국의 교역장벽 연구 8: 미국의 무역장벽	김남두
92-24	수입선다변화제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25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손병해
92-26	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27	환율, 금리 및 임금변동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92-28	국내선물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29	일본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김창남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Jin-Chun Kim
정책자료 A		
92-01	중국공업경제효율과 기업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02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박제훈
92-03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김남두·유재원
92-04	EEA 창설의 문제점과 역외국들에 대한 영향	민충기
92-05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노재봉
92-06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민충기
92-07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민충기·유재원
92-08	클린턴 차기 미국대통령의 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2-09	대내외여건 변화와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	김익수
92-10	1993연도 국제경제환경 변화전망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2-01	한·동구 경제협력 증진방안	정중재
92-02	투자사례로 본 대중국 투자전략	백권호
92-03	베트남의 자원개발전략	이문식
92-04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최수웅
조사보고		
92-01	중국의 경제실적과 전망 (1991~1992)	양평섭·안종석

92-02	러시아연방의 외국인투자관련 제도	윤찬혁
92-03	중국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중투자	안종석·양평섭
92-04	슬로베니아공화국의 경제현황	차상민
92-05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수산업 민수전환 현황과 문제	최병희
92-06	해남성의 경제 및 투자개황	노호진
92-07	체코·슬로바키아 양공화국 공업구조 분석	박상현
92-08	심양시 투자환경 분석	박상수
92-09	중국경제의 지방분권화 현황과 문제점	박월라
92-10	중국 국영기업의 고용·임금제도 개혁	조현준
92-11	천진시 투자환경 분석	김경호
92-12	중국의 증권시장 현황	한형구
92-13	러시아연방 석유·가스산업	정민민
92-14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황과 일본의 진출현황	임호상
92-15	폴란드 무역제도 분석	김규판
정책자료 B		
92-01	독립국가연합의 '91년 경제실적	지역정보센터
92-02	러시아 정부의 경제개혁구체화 프로그램	지역정보센터
92-03	헝가리 수출입관리제도	지역정보센터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Chung Ki Min ed.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Jehoon Park ed.

편 란		
92-01	중국 편람	최수웅 외
92-02	러시아연방 편람	윤찬혁 외
92-03	베트남 편람	권 율
92-04	헝가리 편람	이상엽
92-05	폴란드 편람	서승원
오늘의 세계경제		
92-01	미국경제, 하반기부터나 회복될 듯	최인범
92-02	일본경제,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평성경기	김창남
92-03	한·미 통상관계의 새로운 전개	유진수
92-04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국제동향	손찬현
92-05	미국 기술정책의 최근 동향	홍유수
92-06	일본 경기침체의 원인과 향후 전망	임천석
92-07	국제무역의 형태변화에 따른 새 과제들 - OECD/DAES 서울 워크숍의 토의내용을 중심으로	김태준
92-08	GATT의 무역정책검토와 향후과제	박태호
92-09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과 우리의 대응	김박수
92-10	한·중수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김시중
92-11	프랑스 국민투표 이후의 EC 통합 전망	민충기
92-12	통독 2년과 동독경제: 여전히 조정국면	배진영
92-13	최근 일본 엔화 가치의 급등과 한국의 수출	임천석
92-14	1993년 세계경제, 회복국면 예상	김남두
92-15	EC 통화통합의 현황과 전망	조종화

발간자료 목록

1993		
정책연구		
93-01	GATT 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채 욱
93-02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한홍렬
93-03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김시중
93-04	일본의 기술무역	유진수
93-05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김학수
93-06	블럭화시대의 아·태 경제협력: 한국의 역할과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07	중국의 기술도입정책과 중·일 기술협력	오용석
93-08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	박제훈
93-09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분석	강인수
93-10	일본 환율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93-11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하청분업생산의 역할	임천석
93-12	선물거래 상장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조정구
93-13	우리의 대구소련 경제협력 기본전략	이창재
93-14	외환시장 개입정책의 효과분석과 환율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	김태준
93-15	중국의 공업발전전략과 산업정책	김익수
93-16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정영록
93-17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민충기
93-18	한·미·일 산업구조적 특성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성극제

93-19	NAFTA의 출범과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과 멕시코의 경쟁력비교	김상겸
93-20	EC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 분석	김박수
93-21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22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왕윤중
93-23	일본의 대아시아 기술이전전략과 우리의 대응	홍유수
93-24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와 우리의 경제협력방안	이창재
93-25	UR 총점검: 최종 협정의 분야별 평가(증보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26	서비스산업의 국제화전략 연구 6: 엔지니어링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국제화 방향	손찬현
93-27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박성훈
93-28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김시중
93-29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박제훈
93-30	일본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김익수
93-31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 도입현황과 정책방향	임천석
93-32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이호생
93-33	아·태 경제협력의 새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34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자유화의 효과분석	표학길·권호영
93-35	21세기를 향한 한·일 간 기술분업과 기술협력의 기본방향	박우희 외
93-36	중국의 대외무역과 한·중 수출경쟁	오용석
93-37	자본자유화와 환율 정책방향	손정식·박대근

93-38	동구개혁의 진전과 경제협력 확대전략	정갑영
93-39	자본자유화에 관한 사례분석: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	김인준
93-40	아·태 경제협력의 심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41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윤건수
93-42	우리나라의 대동구 교역현황과 전망	권영훈
93-43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경쟁력 분석	최인범
정책자료 A		
93-01	남북한 물자교유와 원산지규정	한홍렬
93-02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한홍렬
93-03	한국의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방안	김학수
93-04	EC 경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민충기
93-05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3-06	서방의 대러시아 경험 전략과 시사점	박제훈
93-07	주요국의 선물시장 규제정책	조정구
93-08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	채 욱
93-09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현황과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김준동
93-10	무역과 경쟁정책: OECD의 논의	김정수
93-11	러시아 경제개혁의 진행 상황과 평가	이창재
93-12	지역주의 심화와 한국의 선택	노재봉
93-13	국내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및 특성	김관호
93-14	일본의 금융자유화와 엔화의 국제화	권재중

93-15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유진수
93-16	통화선물시장 도입에 관한 연구	김철삼
93-17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홍유수
연구보고		
93-01	중국의 물자유통제도 분석	최수웅
93-02	중국의 개혁·개방에 관한 정치적 시각	이보근
93-03	쿠바의 경제현황과 한·쿠바 협력가능성	하태현
93-04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조세제도 연구	정여천
93-05	동구제국의 투자환경 비교분석	정중재
93-06	중국 전자산업의 경쟁력 요인분석과 우리의 대응	백권호
조사보고		
93-01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실태와 향후 과제	안종석
93-02	중국의 외환관리제도	양평섭
93-03	러시아의 상품유통제도 개혁	윤찬혁
93-04	중국의 외자기업 조세제도	조현준
93-05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분석	권 욱
93-06	상해시 투자환경	박월라
93-07	러시아연방 수송체계	정용주
93-08	베트남 수출가공구 개발정책과 현황	권 욱
93-09	미·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안종석
93-10	러시아연방 광물자원개발제도: 철·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최성기
93-11	칠레 경제현황	장광익

발간자료 목록

93-12	동구 주요국의 고용·임금제도 분석: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김규판
93-13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실태	김경호
93-14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박상수
93-15	멕시코 경제현황	김영돈
93-16	브라질의 자원개발현황	박영호
93-17	중국의 건설업 현황과 진출 가능성	조현준
정책자료 B		
93-01	주요 개도국 경제지표	지역정보센터
93-02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 결정과 등소평의 남순강화	지역정보센터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Jin-Young Bae ed.
93-02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Jang-Won Suh ed.
93-03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 Problems and Prospects	Bak-Soo Kim ed.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hang-Jae Lee ed.
편 란		
93-01	1993 러시아연방 편람	윤찬혁
93-02	산동성 편람	이보근
93-03	요녕성 편람	박상수
93-04	우크라이나 편람	서승원
93-05	카자흐스탄 편람	최병희·이철원
93-06	불가리아 편람	박상현 외
93-07	루마니아 편람	박상현 외
93-08	몽골 편람	정재완

93-09	대만 편람	최수웅
93-10	멕시코 편람	김영돈·장광익
93-11	길림성 편람	김경호
93-12	1993 중국 편람	양평섭 외
93-13	쿠바 편람	박영호·장광익
93-14	파키스탄 편람	이주원
93-15	인도 편람	차상민·조충제
93-16	흑룡강성 편람	노호진
오늘의 세계경제		
93-01	EC 단일시장의 출범과 우리의 대응	김박수
93-02	중국·대만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김시중
93-03	최근 미국의 반덤핑규제와 우리의 대응책	채 욱
93-04	엔고 재현과 일본의 환율정책	김종만
93-05	APEC의 현황과 전망	노재봉
93-06	최근의 엔고와 우리나라의 수출입 전망	임천석
93-07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주요과제와 전망	왕윤중
93-08	아·태경제협력: 주요 구상과 전망	이재성
93-09	EC 경기침체의 영향과 전망	김박수
93-10	동경 G7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조종화
93-11	한·중 수교 1년의 경제적 성과와 전망	김시중
93-12	UR 이후 미국의 통상협상 전략	한택환
93-13	한·베트남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공동
93-14	한·미간 경제협력체제의 현황과 전망	최인범
93-15	독일통일 3주년의 경제적 평가	박성훈

93-16	러시아 경제개혁 전망과 한·러 경제협력	박제훈
93-17	아·태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노재봉
93-18	멕시코 국제화 정책의 성과와 전망	김상겸
93-19	UR 타결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성극제
1994		
정책연구		
94-01	전략적 제후와 기술혁신의 국제화	홍유수
94-02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한홍렬
94-03	통일이 동서독의 산업입지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	배진영
94-04	의제 21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전략	한택환
94-05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 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06	한·미간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연구	홍유수
94-07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왕윤중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KIEP
94-09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추진전략	이창재
94-10	한·중 경제협력과 재중국 동포의 역할	김시중
94-11	ASEAN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 그 시사점	노재봉
94-12	한·미간 중장기 산업기술협력방안	홍유수
94-13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정상조
94-14	외환자유화와 환위험관리	주상영

94-15	통일 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변화 연구	김용균·박성훈
94-16	전략적 무역정책으로서의 R&D 보조금정책의 방향	이정연
정책자료 A		
94-01	1994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02	EC 통화통합의 진전과 파급영향	조종화
94-03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조정구
94-04	기술도입과 테크노마트의 활용	왕윤중
94-05	전환기의 대만경제	유재원
94-06	우리 경제의 국제화	김박수·김정수
94-07	신삼자·구삼자의 비교분석과 정책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08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운영현황과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김준동
94-09	북한의 교역현황과 대외경제정책	김상겸
94-10	대일 무역 적자국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대만의 경우	임천석
94-11	환경산업의 국제동향 및 정책시사점	장태구
94-12	UN 지속개발위원회의 논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호생
94-13	1995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14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왕윤중
94-15	서비스교역과 세이프가드	채 욱
94-16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김준동
94-17	두만강지역개발사업과 한반도: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진출에 관한 우리의 전략구도를 중심으로	김익수

발간자료 목록

94-18	러시아 경제개혁의 지방별 파급영향	이창재
94-19	금융감독규제의 현황과 대응방안: 자본적정성을 중심으로	조종화
94-20	ASEAN 자유무역지대의 결성과 한국의 대외무역정책	오상면
94-21	OECD 주요국의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학수
94-22	동북아 환경협력의 추이와 과제	한택환
94-23	서비스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장벽: 미국, 일본, EU의 서비스 양허표를 중심으로	우영수
94-24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와 대동아시아 무역자유화 방안	김상겸
94-25	엔고하에서의 일본기업의 대응실태와 시사점	임천석
94-26	전문직 서비스 자격인정에 관한 연구	김지홍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Eugene John Park
94-28	해외자금조달이 국내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장익태
94-29	기술표준의 국제적 현황과 정책시사점	손찬현
연구보고		
94-01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최수웅
94-02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보근
94-03	중국 통신산업 발전현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백권호
94-04	러시아에서의 기업환경 변화	정여천
조사보고		
94-01	동구 주요국의 국유기업 사유화 정책 및 제도	김규판

94-02	중국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안종석
94-03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박상수
94-04	주요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지원방향	권 울
94-05	주요 선진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우리나라의 경험 방향	조종제
94-06	러시아의 수출입제도	윤찬혁
94-07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양평섭
94-08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투자제도	이철원
94-09	러시아의 고용·임금제도	서승원
94-10	러시아 은행제도	이성규
정책자료 B		
94-01	한·러시아 경험관련 주요제도 해설	서승원·이성규
94-02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사고와 정책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4-03	대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안종석
94-04	일본의 중국 동북삼성 진출현황과 전망	최수웅
94-05	러시아 산업재산권제도	정용주
94-06	환발해만지역의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김경호
94-07	'97년 홍콩의 대중국반환과 관련한 홍콩법규집	신정식
94-08	절강성의 경제현황	노호진
94-09	중국 동북3성의 교통사회간접자본 현황	김경호·노호진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4-01	한·일 경제협력의 신구상	임천석 편

94-02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도	김시중 편
94-03	신세계무역체제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초청강연	손찬현 편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Yoo-Soo Hong ed.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Taek-Whan Han ed.
편 란		
94-01	체코공화국 편람	박상현
94-02	우즈베키스탄 편람	리철원
94-03	1994 러시아연방 편람	윤찬혁 외
94-04	러시아극동지역 편람	최성기
94-05	미얀마 편람	정재완
94-06	1994 중국 편람	양평섭 외
94-07	1994 폴란드 편람	김규판·한정철
94-08	스리랑카 편람	이주원
94-09	사천성 편람	신정식
94-10	브라질 편람	박영호
94-11	칠레 편람	장광익
94-12	아르헨티나 편람	홍순규
94-13	인도네시아 편람	임웅순
94-14	1994 베트남 편람	권 울
오늘의 세계경제		
94-01	UR 체제의 출범과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성극제
94-02	주요국의 국제화전략 (I)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의 경우	김정수
94-03	포괄경제협회의 결렬과 미·일간 통상마찰	유진수

94-04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	손찬현
94-05	미국의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 추진의 현단계	권재중
94-06	지구환경문제와 거래 가능한 오염유발허가권	장태구
94-07	한·중 경제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	김시중
94-08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전개방향	임천석
94-09	개혁파 퇴진 이후의 러시아 경제개혁 항방과 한·러 경험	박제훈
94-10	최근 ASEAN의 경제협력 확대·심화와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박성훈
94-11	OECD 가입에 대비한 향후 정책과제	이정연
94-12	주요국의 국제화 전략 (II) - 대만의 경우	최수웅
94-13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이창재
94-14	WTO 발효관련 미국의 동향	성극제
94-15	한·미간 전략적 기술제휴	홍유수
94-16	UN에서의 환경문제 논의 현황	이호생
94-17	미국의 무역-환경정책: 현황과 전망	한택환
94-18	가격파괴현상과 격화될 국제분업	우영수
94-19	최근 국제통화제도 개편논의의 현황과 전망	주상영
94-20	칠레경제의 국제적 부상: 국제화전략의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김원호
1995		
정책연구		
95-01	일본기업의 대중진출: 주요업종의 성과분석과 향후전망	신만수·이장로
95-02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자본비용	권재중

발간자료 목록

95-03	중국 내수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진입·유통장벽: 소비재 공산품 시장을 중심으로	김익수
95-04	아·태 경제협력의 신구상	이재성
95-05	무역-환경 관련과제와 우리나라의 입장	한택환
95-06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이창재
95-07	일본 대미직접투자의 개발 및 평가	김관호
95-08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왕윤중
95-09	무역과 환경의 연계	이호생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익수
95-11	해외 위탁가공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김준동·강인수
95-12	동북아 지역기술협력체의 구상	홍유수
정책자료 A		
95-01	UR 이후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현안	유진수
95-02	무역과 환경: GATT/WTO의 논의	이호생
95-03	주요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형태 비교분석	강인수
95-04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방안	강봉순
95-05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직접투자	이동기·이윤철
95-06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김준동
95-07	WTO 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이상만
95-08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한홍렬

95-09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유진수
95-10	1996연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11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정영록
95-12	OECD 통계활동 현황과 시사점	윤창인
95-13	북한의 경제실상과 우리의 북한경제 평가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점	조명제
연구보고		
95-01	중국의 유통관리제도 개혁과 유통업 개방 전망	최수웅
조사보고		
95-01	러시아 증권제도 및 시장 현황	최병희
95-02	러시아 자유무역지대 추진 현황	정용주
95-0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	이철원
95-04	시베리아지역의 부존자원 및 개발현황	서승원
95-05	ODA 운용체제 개선방안	권 울
95-06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강화방안: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로	김완중
95-07	중미공동시장(CACM) 및 회원국별 경제현황	박영호
정책자료 B		
95-01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02	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제 증진방안	김규판
95-03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50주년 기념 연설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5-04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	이성규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5-01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김시중 편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Sung-Hoon Park ed.
편 란		
95-01	1995 몽골 편람	정재완
95-02	1995 헝가리 편람	한정철
오늘의 세계경제		
95-01	제4차 EU 회원국 확대의 영향과 전망	김박수
95-02	OECD 다자간투자협정의 추진현황 및 전망	김관호
95-03	미국통상정책의 최근 동향	김남두
95-04	UN 경제안보리 창설논의의 현황과 전망	주상영
95-05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김원호
95-06	최근 국제금융시장 혼란의 배경과 시사점	공동
95-07	M&A형 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및 규제조치	왕윤중
95-08	한·미 경제협력대화(DEC)의 추진결과와 향후 전망	최인범
95-09	미·일 자동차분쟁의 타결과 평가	김남두·김박수
95-10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과 전망	조종화
95-11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최근 동향	왕윤중
95-12	최근 APEC내에서의 경쟁정책 논의	우영수
95-13	총선을 계기로 본 러시아 경제의 향방	이창재

95-14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의 새로운 전개와 과제	김시중
1996		
정책연구		
96-01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원용걸
96-02	한국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 경쟁정책	우영수
96-03	금융·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위기 사례와 정책시사점	주상영
96-04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왕윤중
96-05	WTO 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분석	표학길·정인교
96-06	보호무역의 비용분석	김남두
96-07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방과 위험관리	김인배
96-08	WTO 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손찬현
96-09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인교
96-10	한반도 주변 4국의 대북한정책	이창재
96-11	M&A형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왕윤중
96-12	APEC 경제협력과 중소기업: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	안형도
96-13	신규제무역규범하에서의 중간재 국산화정책	김태형
96-14	CGE 모형에 의한 한국의 수출입구조 및 거시경제 중기전망	문석웅·김건홍
96-15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태형·정인교
96-16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3개국(미국, 캐나다, 한국)의 반덤핑조치 연구: 중국의 사례분석	김원순·엄인호

발간자료 목록

96-17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 GSP도입에 관한 연구	김남두
96-18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조정구
96-19	중국 정치·경제에 관한 국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20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조명제
정책자료 A		
96-01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김상겸
96-02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주요 대외경제 현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03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김시중
96-04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장의태
96-05	국제자본이동이 국내자본형성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	전주성
96-06	APEC 관세협상과 한국의 대응방안	신유균
96-07	1997연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08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김관호
96-09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김준동
96-10	한-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 변화와 정책과제	원용걸
96-11	표준 적합 및 기술장벽: EU의 경험과 APEC에의 시사점	손찬현·이시욱
96-12	APEC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구속화 전환에 대비한 투자제도의 검토	김상겸
96-13	국제 자본이동의 영향과 정책대응	김인배
96-14	주요 선진국 무역규제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	한홍렬
96-15	APEC 과학기술협력과 한국의 역할	홍유수

연구보고		
96-01	전환기 러시아연방의 국가예산과 재정분권화	정여천
96-02	중남미의 신경제질서와 우리의 경제협력 정책방향	김원호
96-03	한국의 대인도 진출전략	이성량
96-04	중국의 식량문제와 9.5계획의 농정과제	최수웅
96-05	중국의 공업화전략과 외국인직접투자	전재욱
96-06	중국 내륙개발의 과제와 전망	박월라
96-07	중·동구 국가들의 EU 가입 전망과 시사점	정여천
조사보고		
96-01	서방의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진출과 우리에의 시사점	서승원
96-02	한국기업의 대CIS 투자 및 과제	이철원
96-03	러시아 경제지역의 경제·사회 현황 분석	정용주
96-04	러시아의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최병희
96-05	대미안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정재완
96-0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김형수
96-07	브라질의 민영화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정선우
96-08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의 전개와 전망	조현준
정책자료 B		
96-01	21세기를 향한 중국의 경제발전계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02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최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03	라오스 경제개혁과 개발과제	권 울

96-04	MERCOSUR 회원국의 경제통합정책과 추진방향	김원호
세미나자료 / Seminar Proceedings		
96-01	21세기를 향한 한·중 공동번영의 모색	북경지원 편
96-02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Jane Khanna and Chang-Jae Lee eds.
96-03	WTO 출범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6-04	한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정영록 편
96-0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Ku-Hyun Jung and Jang-Hee Yoo eds.
편 란		
96-01	페루 편람	권기수
96-02	멕시코 편람	김형수
96-03	불가리아 편람	김규판·한정철
96-04	파라과이 편람	정선우
96-05	필리핀 편람	우수명
96-06	호주 편람	전준모
96-07	광둥성 편람	최의현
96-08	방글라데시 편람	전창호
96-09	말레이시아 편람	김완중
96-10	호북성 편람	김종근
96-11	러시아 편람	최병희 외
96-12	강소성 편람	이인구
96-13	뉴질랜드 편람	전준모
96-14	루마니아 편람	나수엽
96-15	콜롬비아 편람	권기수

96-16	홍콩 편람	남수중
96-17	우루과이 편람	이경희
96-18	하북성 편람	홍익표
96-19	베네수엘라 편람	김진오
96-20	카자흐스탄 편람	이형근
96-21	인도 편람	전창호
오늘의 세계경제		
96-01	WTO에서의 무역-환경 논의 현황 및 전망	이호생
96-02	WTO체제 첫 일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박태호
96-03	제1차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의 배경과 경제적 의의	박성훈
96-04	중국·대만 긴장관계의 분석과 향후 전망	김시중
96-05	환경라벨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동향과 대응과제	한택환
96-06	신통상 이슈시리즈 ① 환경: WTO 무역-환경 협상의 전개와 대응과제	이호생
96-07	신통상 이슈시리즈 ② 투자규범: 다자간투자규범의 추진동향 및 우리의 대응	김관호
96-08	신통상 이슈시리즈 ③ 경쟁정책: 경쟁규범의 국제화 동향과 우리의 대응	우영수
96-09	신통상 이슈시리즈 ④ 노동: 무역-노동기준 연계	왕윤중
96-10	신통상 이슈시리즈 ⑤ 반부패: 부패-무역 연계의 최근 동향	김종범
96-11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와 대미 통상정책 방향	손찬현

발간자료 목록

96-12	WTO내 '지역무역협정' 관련 논의동향 및 우리의 대응	원용걸
96-13	최근의 경상수지 추이와 대응방안	조종화
96-14	WTO 첫 각료회의: 평가와 과제	박태호·이호생
96-15	1996 WTO/TPRM: 결과와 과제	이정연
1997		
정책연구		
97-01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왕윤중
97-02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성과	왕윤중 편
97-03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김준동
97-04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최수웅
97-05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김종범
97-06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이종화·이성봉
97-07	한·미 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왕윤중·나수엽
97-08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이창재·전재욱·조현준
97-09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 과제	김남두·원용걸·전재욱·정 훈
97-10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조명철
97-11	한·러시아 경제교류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여천
97-12	미주지역 경제통합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김원호·김수용·윤미경·이경희
97-13	WTO 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김관호·김인배·송유철·이호생
97-14	중국내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조현준

Policy Papers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Inkyo Cheong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Honggue Lee and Jai-Won Ryou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Sang-Don Lee and Tack-Whan Han
조사분석		
97-01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실태 경영성과 분석	박상수
97-02	베트남의 경제개혁 추진현황 및 경제전망	정재완
97-03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정재완
97-04	서방의 중앙아시아 석유·가스부문 진출방향	이철원
97-05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송체계	서승원
97-06	메콩강유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참여방안	정재완·권경덕
97-07	CIS 경제통합의 추진현황과 전망	이성규·최병희
97-08	인도네시아의 금융산업: 위기의 배경과 전망	김완중
97-09	중국의 에너지산업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최의현
97-10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일본의 주세에 관한 연구	채 욱
97-11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미국의 「취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이호생
97-12	베트남 국유기업개혁의 현황과 과제	권 울
97-13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전망	홍익표
97-14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김종근
97-15	중국의 경제개혁과 중앙·지방관계	박월라

97-16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외국인투자제도	이형근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Young-Rok Cheong ed.
97-02	제5차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	안형도 편
97-03	21세기 한·중경제의 비전과 동반자 관계의 모색 - 한·중 수교 5주년 세미나	정영록 편
97-04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관계	이창재·김병희 편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Bak-Soo Kim ed.
종합공동연구		
97-01	APEC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분석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97-01	APEC 회원경제의 현황과 대한 관계 - 벤쿠버 APEC 정상회의 배경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02	파생금융상품과 외환시장 개입	우영수
97-03	자본시장개방과 안정화정책	박원암·주상영
편 램		
97-01	태국 편람	권경덕
97-02	파키스탄 편람	백정호
97-03	싱가포르 편람	신동화
97-04	대만 편람	이인구
97-05	슬로바키아 편람	한정철
97-06	파나마 편람	김진오
97-07	브라질 편람	정선우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창간호		

1998		
정책연구		
98-01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종합심층보고	장형수·왕윤중
98-02	중국 금융개혁의 현황과 과제	이장규 외
98-03	국내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국경간 M&A의 역할	왕윤중·김종근
98-04	APEC 연구시리즈 1: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권태형 외
98-05	APEC 연구시리즈 2: 1997년 APEC개별실행계획(IPs)의 평가	성극제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왕윤중 편
98-07	APEC 연구시리즈 3: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유재원·이홍구
98-08	러시아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이창재·최병희·서승원·이철원·김병희
98-09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1: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인센티브	이성봉·이형근
98-10	외국인투자정책시리즈 2: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	이성봉·김종근·이형근
98-11	통일대비 국제협력과제: 국제금융기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장형수·이창재·박영곤
98-12	대만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시사점	최수웅
98-1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문제점 및 전개방향	서석흥
98-14	APEC 연구시리즈 11: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 and Eun-Mee Kim

발간자료 목록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금융체제 개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	장형수·원용걸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정인교
98-17	최근 국제투자분쟁사례의 연구	김관호·이성미
98-18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윤창인
98-19	중·동구 및 CIS 지역의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정여천·최병희·한정철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조명철·홍익표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전재욱·최의현
Policy Papers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Chan-Hyun Sohn and Junsok Yang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Yunjong Wang and Hyoungsoo Zang
조사분석		
98-01	80년대 이후 일본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	나성섭
98-02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 전망	정인교·이창재
98-03	APEC 연구시리즈 9: 한국과 멕시코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조윤제·김종섭
98-04	헤지펀드 운용실태와 국별 환투기 사례분석	이영우
98-05	APEC 연구시리즈 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정성철·이명진
98-06	APEC 연구시리즈 7: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박성훈

98-07	APEC 연구시리즈 8: 러시아의 APEC 가입배경과 대APEC 정책	이재유·이재영
98-08	APEC 연구시리즈 10: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박태호·문우식·백진현
98-09	APEC 연구시리즈 4: APEC 비관세장벽의 현황: 조기자유화 분야를 중심으로	손정식·한홍렬
98-10	APEC 연구시리즈 6: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박기홍
98-11	유로화 출범의 파급효과 및 대EU 통상환경의 변화	이종화·이철원·정후영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분쟁	채 욱
98-14	WTO 분쟁해결사례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채 욱·서창배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김유찬·이성봉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98-01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손찬현 편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Environments	Won-Ho Kim ed.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	Mi-Kyung Yun
98-04	21세기를 향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	이창재 편
연구자료		
98-01	신정부의 대외경제정책 여건과 과제: 종합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8-02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전준모 편저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불 ~ 겨울호		
(월간) KIEP 세계경제 창간 (10월호)		
1999		
정책연구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조종화 편
99-02	한·브라질 21세기 협력 비전과 과제	김원호 편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김박수·왕윤종·신동화·이형근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왕윤종·정재완·김종근·이홍배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조종화 편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안형도 편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1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총괄편>	이창재 외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정인교 외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익수
99-10	동아시아 화인경제와 우리의 화인자본 활용방안	최수웅·박상수
99-11	IMF 체제하의 한국경제 II	황상인·왕윤종·이성봉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이성봉 외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 99-0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왕윤종 외

조사분석		
99-0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성봉·이형근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 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김종근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Yung Chul Park·Yunjong Wang eds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불 ~ 겨울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2000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es	Yunjong Wang, Tae-Jun Kim, and Jai-Won Ryou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Chae-Shick Chung, Sangyoung Joo, and Doo Yong Yang
정책연구		
00-01	WTO 뉴라운드 규범분야의 논의 동향과 한국의 협상전략	최낙균·채 욱·김준동·송유철·윤미경·서창배
00-02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김준동·강인수
00-03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정여천
00-04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의 시나리오별 실증분석과 한국의 협상전략	최낙균·이명현·주문배
00-05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김준동·이장영·이한영·김용규·최중희·허 종·이장원

발간자료 목록

00-06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송유철·박지현· 이재욱·어명근· 임정빈
00-0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인교·이경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전략	김준동·채 욱· 양준석
00-0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조명철·권 율· 이철원·김은지
00-10	국제금융체제 개편의 주요쟁점 연구	김세직·양두용· 왕윤중·황상인
00-11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윤창인·강상인· 양준석·윤미경· 이성봉
00-12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발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조명철·홍익표
00-13	WTO 뉴라운드협상의 전망과 한국의 협상력 제고방안	채 욱·최낙균
00-14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윤창인·한택한· 유상희
00-15	제3차 ASEM 정상회의: 경제협력분야의 성과와 발전전략	이종화
00-16	농산물 보호비용과 정책시사점	송유철·박지현
조사분석		
00-01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규범의 개발과 준수현황	박영근·김우진· 나수엽
00-02	주요 이슈별 한·미 통상현안과 정책과제	양준석·김홍률
00-03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원호·강문성· 나수엽·김진오
00-04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안형도·윤창인· 김우진·신승민· 이형근·전준모· 최윤정

00-05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개발 지원방안	장형수·박영근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왕윤중 편
00-02	APEC Forum on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Kyung Tae Lee ed.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	Chong-Wha Lee ed.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and Yunjong Wang eds.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Yunjong Wang ed.
OECD 연구시리즈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양준석·김홍률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송유철·박지현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자본시장	황상인·이형근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윤창인
APEC Study Series		
00-01	An Analysis of CO2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	Kihoon Lee and Wankeun Oh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Byung-il Choi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	Chulwon Kim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Taeho Bark and Hwy-Chang Mo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 based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Yoo Soo Hong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Sung-Hoon Park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Sang-yirl Nam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박영호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정은숙
00-02	동북아경제협력구도에서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방향	오용석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원용걸
00-04	미국경제의 최근 호황에 있어서 IT와 금융화의 역할	이영수·서환주
00-05	일·북 경제협력의 전개구도와 한국의 대응방안	신지호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푸틴의 신국가주의 노선의 전망을 중심으로	박제훈
00-07	지식기반경제의 구축과 정보화 촉진을 위한 EU의 정책방향	채희율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장선덕
00-09	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김정식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엄구호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양평섭

00-12	인도 경제개혁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	김찬완
00-13	동북아 지역 해양도시간 경제협력모델 구상: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 간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창남·천인호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고재모·전재욱
00-15	일본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신원용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윤현덕
00-17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이은구
단행본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김의수 역
한·러 경제교류 10년의 평가와 러시아 경제의 미래		정여천 편
Korea and Brazil: A Partnership for the New Millennium		Won-Ho Kim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봄 ~ 겨울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0-01호 ~ 00-32호		
2001		
Policy Analyses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olicy References		
01-01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	Tae-jun Kim and Doo Yong Yang
정책연구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 부문의 변화	남상열

발간자료 목록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 분석	황상인·신인석·김인배
01-04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김상겸·박인원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환율안정을 중심으로	조종화·김우진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양준석·김홍률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윤덕룡·박순찬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분석을 중심으로	이종화·박순찬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송유철·박지현·임정빈·김태곤·임송수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이한영·장범진·강상인·조성한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최낙균·이경희·이명현·정재호
01-13	신통상외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 협상에의 시사점	윤창인·이성봉·이장원·김관호·한창훈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채 욱·서창배
조사분석		
01-01	싱가포르의 지식기반경제 이행전략과 시사점	정재완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방안	박영호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손찬현·윤진나
01-04	WTO 농업협상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송유철·박지현
01-05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김양희·김종걸
01-06	남북한-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정여천
01-07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권기수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권 욱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김진오
01-10	중·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철원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윤미경·이성미
01-1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조명철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홍익표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	Yoon Hyung Kim and Yunjong Wang eds.
01-02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Hyungdo Ahn ed.
OECD 연구시리즈		
01-01	OECD 규제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양준석·김홍률

01-02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OECD국가들의 비교법적 고찰	장승화
01-03	한국과 독일의 최근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	김유찬
01-04	프로스포츠와 경쟁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김원준
지역리포트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김은지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박영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정후영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박영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하유정
지역연구회시리즈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김영세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박변순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이충열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강응선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정기호·이만기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심의섭·이광훈
01-07	1980~1990년대 브라질산업에서의 구조적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윤택동
01-08	EU국가의 민영화 경험과 시사점: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박명호
01-09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 전략	선우건

01-10	21세기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한종만·성원용
01-11	유럽연합(EU)의 중동유럽확대: 라켄 유럽이사회까지 현황과 전망	이규영
01-12	중국의 지역경제협력 인식과 동북아 경제통합 가능성	안석교·허흥호
단행본		
유로화 출범 이후 유럽경제의 환경변화와 향후전망		이철원·정후영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이경태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인교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Kyung Tae Lee and Justin Yifu Lin et al.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조명철 편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최낙균·윤창인·송유철·이성봉·김준동·양준석·이종화·손찬현·강문성·박순찬·윤미경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침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최낙균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		최낙균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김준동·강준구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정인교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송유철
도하 아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성봉·원신희

발간자료 목록

투자협정 바로알기	이성봉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14호, 15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오늘의 세계경제	
01-00	미국 테러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강문성
01-01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와 최근 미국 통상정책 동향 양준석·김홍률
01-02	미국경기, 올 4/4분기부터 V자형 회복 전망 강문성
01-03	중국 위엔화 평가절하 가능성 희박 정재식·이장규
01-04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출범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정인교·이경희·권기수
01-05	과연 미국은 일본식 장기침체를 겪을 것인가 김양희·강문성
01-06	미국경제동향: 금년 1/4분기 GDP 성장률 발표 강문성
01-07	2001년 슈퍼301조 보고서 분석 양준석·김홍률
01-08	미 연준리 0.5% 포인트 금리인하
01-09	한-미 FTA에 대한 미국 기업의 입장과 정책시사점 강문성정인교
01-10	일본의 보호무역주의 대두 실태와 전망 김양희
01-11	미 행정부의 FTA 정책과 노동의 연계 동향 양준석·김홍률
01-12	미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방안 양준석·김홍률
01-13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역할과 시사점 윤덕룡
01-14	중국 WTO 가입의 한·중 교역에 대한 영향과 정책시사점 정인교·박상수
01-15	6월 들어 미 부시행정부 통상정책 움직임 가속화 양준석

01-16	최근 외국인투자 부진요인 및 대응방안 이성봉
01-17	미 연준리의 추가금리인하와 하반기 경기전망 강문성
01-18	미국 FTA협정과 무역·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 윤창인·양준석
01-19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왕윤중
01-20	최근의 국제통상환경과 향후 전망 채 욱
01-21	WTO 뉴라운드 출범 논의 동향 및 전망 최낙균
01-22	아프리카연합(AU) 추진 배경과 평가 정인교
01-23	최근 신흥시장 위기 현황 및 시사점- 아르헨티나, 터키, 아시아를 중심으로 양두용
01-24	중국의 올림픽 유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장규
01-25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신정부의 출범과 정국 전망 정인교·정재완·권 욱·권경덕
01-26	최근 미국경제동향: 2/4분기 GDP성장률 발표 강문성
01-27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와 의미와 전망 김양희·김은지
01-28	북-러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와 시사점 정여천·하유정
01-29	대만 경제의 침체와 시사점 조현준·오동윤
01-30	최근 미 달러 약세에 대한 평가 왕윤중
01-31	미 연준리의 올 7번째 금리인하와 금리인하효과의 제한 가능성 강문성·나수업
01-32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와 전망 -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번강) 소장 대담 박월라
01-33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조명철·홍익표
01-34	산업생산을 통해 본 미국의 산업별 경기회복 전망: 구경제 회복 먼저, 그리고 신경제 강문성

01-35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영향 및 대응 강문성
01-36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종화
01-37	최근 유럽에서의 Tobin tax 도입 논의에 대한 평가: 당분간 논의 지속, 그러나 도입에는 난망 윤덕룡·이형근
01-38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에 관한 설문 조사 최의현
01-39	미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주식시장 재개 강문성
01-40	현지에서 본 중국경제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선택 박월라·최의현
01-41	미테러사태 전개의 시나리오 별 원화환율 전망 강삼모
01-42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전쟁이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강문성
01-43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강삼모·김양희·김홍중·강문성·정재완·최윤정·정후영
01-44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원인과 전망 김양희·김은지
01-45	USITC 한·미 FTA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정인교
01-46	일·싱가포르 FTA,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타결될 듯 정인교·김양희·권 욱
01-47	한국의 자본자유화에 대한 거시경제적 평가 왕윤중
01-48	중국, FDI 대규모 유치로 기술도약에 박차 조현준
01-49	미 201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우리의 대응방안 양준석·김홍률
01-50	일본의 대한 반도체 덤핑 시비와 대응방안 이종화

01-51	미국경제 침체국면 진입: 미 3/4분기 GDP 성장률(추정) -0.4%	강문성·나수업
01-52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과 파장	권기수
01-53	ASEAN+3 정상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과 정책시사점	정인교
01-54	미-아 통상경제협력포럼의 의미와 시사점	김홍중
01-55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정인교
01-56	WTO 도하각료회의의 의의와 향후 전망	최낙균
01-57	중국의 WTO 가입 의미와 경제구조조정	박월라·최의현
01-58	신익주-단동 특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와 과제	조명철·이종운
01-59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정인교
01-60	최근 한국의 경제여건에 대한 외국계 기관의 평가	김우진
01-61	미국의 11번째 금리인하와 경제전망	강문성·나수업
01-62	대중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종화
01-63	최근 엔화환율 상승의 영향과 전망	강삼모·김우진
01-64	아르헨티나 사태의 배경과 전망	김원호·권기수
01-65	유로화 실물화폐 도입의 영향과 전망	윤덕룡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1-01호 ~ 01-40호		
2002		
종합심층연구		
02-01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강삼모·박대근· 왕윤중·유재원· 이영섭·이인표· 이형근·임준환

발간자료 목록

Policy Analyses		
02-01	Currency Union in East Asia	Han Gwang Choo and Yunjong Wang eds.
02-02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ons	Inkyo Cheong
02-03	Understanding the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Korea: An Empirical Investigation	Sammo Kang, Yunjong Wang, and Sunghyun H. Kim and Soyoung Kim
02-04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Financial Crisis	Chan-Hyun Sohn
정책연구		
02-01	DDA 협상 총점검 - 2002	최낙균·송유철·김준동·강문성·박순찬·노재봉·윤미경·윤창인·이성봉·양준석·남상열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송유철·박지현·이재욱·임송수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범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준동·고준성·구문모·박순찬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최낙균·정재호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강문성·노재봉·이중화
02-06	DDA TRIPs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윤미경·최윤희
02-07	DDA 무역과 개발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남상열·권 울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박순찬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강삼모·왕윤중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나수엽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윤덕룡·조종화·정재식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대중투자와 일본의 대한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창수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경쟁정책적 접근	김양희·조병택
02-14	한국 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지만수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권 울·김윤경
02-16	중국 유통산업의 개방과 활용전략	조현준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양준석·김홍률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윤덕룡·정형곤·남영숙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대중동 통상확대 전략	김홍중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창재
02-21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 지식연계를 중심으로	홍유수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매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김홍률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지화에 관한 연구	백권호·김윤태·설동훈·안종석·정종호·주영하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박대근·양두용·오규택·김은경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이홍배·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백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강문성·나수엽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방안	박영호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송유철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이규억·윤미경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02-01	Korea's Road to a Sound and Advanced Economy	KIEP
02-02	중국 서비스산업의 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박월라·최의현 편
02-03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조명철 편
APEC Study Series		
02-01	Culture and Trade in the APEC- Case of Film Industry in Canada, Mexico and Korea	Byung-il Choi
02-02	Diffusion Factors of Electronic Trade for Trade Facilitation in the APEC Region: A Case of Korean Small Business	Yongkyun Chung and Yongwhan Park
02-03	Narrowing the Digital Gap in the APEC Region	Yoo Soo Hong
02-04	Implementing the Bogor Goals of APEC	Hongyul Han
지역리포트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오동윤·임홍수

02-02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김은지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박영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하유정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일간 협력 방안	최윤희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배희연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 배경과 시사점	권경덕
02-08	동아시아의 산업내무역 증가 추이와 시사점 - 한·일의 대ASEAN 무역을 중심으로	박재욱
지역연구회시리즈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전망	이충언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정 훈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김연철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cent Development	Chang Woon Nam
단행본		
Korean Crisis and Recovery		David T. Coe and Se-Jik Kim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김기환 외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16, 17호		
(격월간) OECD Focus 창간 (2002. 5) 통권 1 ~ 4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오늘의 세계경제		

발간자료 목록

02-01	2002년도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홍익표
02-02	엔저가 과연 일본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강삼모
02-03	ASEM 고베 연구프로젝트 관련 워크샵: 금융협력 및 경제동향점검 강화	왕윤중
02-04	美國經濟에 대한 바둑 論爭과 向後展望: W자형(Double-Dip) 전망의 허와 실	강문성 외
02-05	엔저가 동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	강삼모
02-06	아프가니스탄 재건회의: 성과와 향후 전망	최윤정
02-07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변동과 동조화 현상	강삼모 외
02-08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통상 현안	양준석 외
02-09	韓-美 정상회담 이후 北-美 및 南-北 관계 전망	조명철 외
02-10	중국 위안貨 환율 평가절하할 것인가?	강삼모 외
02-11	미국 부시행정부의 201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양준석 외
02-12	최근 유가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	김흥중
02-13	동아시아의 지역통화협력체 구상	조종화
02-14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의 결과 분석	홍익표 외
02-15	일본경제의 바닥론 관측에 대한 점검 및 회복 가능성 여부	이홍배 외
02-16	美國經濟의 景氣低點 分析: 지난 1~2월경에 경기저점 통과	강문성 외
02-17	중국의 철강 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내용 및 쟁점 검토	이종화
02-18	일본 고이즈미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구상의 내용과 시사점	정인교

02-19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점검 및 전망	강문성 외
02-20	최근 원화 강세의 원인과 전망	강삼모 외
02-21	아프리카연합(AU)과 NEPAD 프로그램의 출범: 향후 과제와 전망	김흥중
02-22	중국의 유통업 개방 가속화와 외국기업의 진출동향	조현준
02-23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	송유철 외
02-24	북한의 물가 인상 및 배급제 폐지의 의미와 시사점	윤덕룡 외
02-26	미국 무역증진권한(TPA)의 도입과 시사점	강문성 외
02-26	한중 경제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지만수
02-27	9.11테러사태 이후의 미국경제와 향후 전망	강문성 외
02-28	중국 승용차산업, 개방확대와 함께 경쟁력강화 추구	조현준
02-29	北·日 정상회담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과제	김은지 외
02-30	제4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성과와 향후과제	김흥중 외
02-31	신민주 경제특구의 설립 배경 및 향후 발전과제	홍익표
02-32	인도 IT 산업의 부상과 한·인도 협력과제	김흥중 외
02-33	아일랜드의 니스조약 비준에 따른 2004년 EU 확대 현실화	이철원 외
02-3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의미와 주요 내용	정인교
02-35	브라질 大選결과와 향후 경제전망	권기수
02-36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중간선거결과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문성

02-37	日, 「종합다플레이이션대책」 발표: 기득권 반발로 개혁성 후퇴	김양희·김은지·이홍배
02-38	韓·싱가포르 FTA: 경제적 효과 및 고려사항	정인교 외
02-39	16대에 나타난 중국의 21세기 경제전략과 시사점	지만수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2-01호 ~ 02-39호		
2003		
종합심층연구		
03-01	2003년 세계경제전망	김박수 편
03-02	2003 중국경제연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olicy Analyses		
03-01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Market Issues	Sung Yeung Kwack, Choong Yong Ahn, and Young-Sun Lee
03-02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Nakgyoon Choi, Soon-Chan Park and Changsoo Lee
정책연구		
03-01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신관호·왕윤중·이종화
03-02	동아시아 주요국의 적정환율과 시사점	강삼모·주상영
03-03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홍유수·이창수·강정실
03-04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안형도·왕윤중·이인표·이종욱·장동구·전승철·주상영·송원호·유재원
03-05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지만수·이 영

03-06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홍유수·지만수·한정화
03-07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정인교·오동윤
03-08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권 율·정인교·박인원
03-09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이홍배·김양희·김은지·정 훈
03-10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조종화·이형근
03-1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협상동향과 경제적 효과분석	강문성·김원호·박순찬·전종규·권기수·김진오·나수엽
03-12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안형도·윤덕룡
03-13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김근식·김연철·김영훈·양문수·윤덕룡·이종운·조명철·홍익표
03-14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조명철·홍익표
03-15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
03-16	DDA 중간점검 - 2003	최낙균·김준동·윤창인·송유철·정인교·남상열·이성봉·윤미경·강문성·박순찬·이창수
03-17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송유철·박지현·임송수·이재욱·서진교·김상현
03-18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김준동·정영호·최병호·안덕선

발간자료 목록

03-19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이 한국의 관세체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낙균·정재호
03-20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강문성·박순찬·이창수
03-21	WTO 경쟁규범 협상: 문제점의 분석과 제정방향의 모색	윤미경
03-22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김준동·김종일·강준구
03-2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이홍배·김은지
03-24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강문성·송유철·박순찬·윤미경·이 근
03-25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경과 주요 이슈 중심으로 小川英治 (Eiji Ogawa)	김준동·김흥기·박대근·신성환·양두용·오규택·이준엽·이형근·小川英治 (Eiji Ogawa)
03-26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신관호·양두용·왕윤중·이중화
03-27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정인교·유관영·어명근·주문배·고일동·강문성·양두용·왕윤중
지역연구		
03-01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확대방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모로코를 중심으로	김흥중·김양희·박영호
03-02	2004년 EU 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김흥중·이철원·박영근·박경석
03-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장규·조현준·오동윤

03-04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정재완·권경덕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03-01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Young-Rok Cheong, Doo Yong Yang, and Wang Tongsan eds.
03-02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Choong Yong Ahn, Takatoshi Ito, Masahiro Kawai, and Yung Chul Park eds.
03-03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Heungchong Kim ed.
03-04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Chan-Hyun Sohn ed.
03-05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Yangseon Kim and Chang-Jae Lee eds.
03-06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Yunjong Wang ed.
정책자료		
03-01	WTO 투자협정 논의의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성봉·김관호·김인숙
APEC Study Series		
03-01	Trade Structure and Complementarity among APEC Member Economies	Sang-yirl Nam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3-01	Korea's FDI in China: Status and Perspectives	Yao Shumei
03-02	금융개발과 금융발전: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상영

03-0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결정요인 및 그 시사점	이종욱
03-04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지역리포트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이철원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최의현·조석균·우진훈
03-03	태국의 FTA 정책과 시사점	권경덕
03-04	이라크의 전후 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박복영·배희연
지역연구회시리즈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오명석
03-02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현황과 전략 - 결론: 대만경제에 대한 영향	魏艾·范錦明·조현준
단행본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Choong-Yong Ahn ed.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18, 19호		
(격월간) OECD Focus 통권 5 ~ 8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오늘의 세계경제		
03-01	2003년도 북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홍익표
03-02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전철화사업 완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사점	김유정·하유정
03-03	미국 『2003년 무역정책의제와 2002년 연례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강문성·김홍률
03-04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석유시장의 변화	박복영

03-05	미·이라크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복영·이장규·강삼모·김양희·김흥중·정재완·나수엽·김권식·하유정
03-06	이라크 전쟁 직후 국제금융시장의 동향과 전망	강삼모·김권식
03-07	이라크전 발발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나수엽
03-08	이라크전 발발 이후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박복영
03-09	이라크전 발발 이후 EU 경제의 향방	김흥중·백웅재
03-10	WTO 서비스협상 교육분야 1차 양허안 제출의 배경과 정책과제	김준동·박순찬
03-11	이라크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현준
03-12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우리나라 1차 양허안 평가와 향후 과제	김준동
03-13	이라크전 이후 일본 경제의 동향과 전망	김양희·김은지
03-14	이라크전 발발 이후 동남아경제의 동향과 전망	권 올·정재완·권경덕
03-15	미국의 하이닉스 상계관세 예비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강문성
03-16	WTO 농업협상 세부방식 시한 내 타결실패와 이에 따른 향후 협상전망	송유철
03-17	이라크전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하유정
03-18	북한의 공채발행 배경과 향후 효과 전망	윤덕룡
03-19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 및 재건비용	박복영
03-20	중동구 10개국 EU 가입조약 서명과 EU 확대의 전망 및 시사점	김흥중·백웅재
03-21	중국경제 1/4분기 실적과 SARS 영향 및 시사점	조현준
03-22	미국경제의 1/4분기 실적과 향후 경기전망	강문성

발간자료 목록

03-23	미·싱가포르 FTA 체결을 통해 본 싱가포르의 FTA 정책과 시사점	정재완
03-24	미국의 대중동 FTA 수립 제안의 배경과 시사점	박복영·김흥중
03-25	IMD의 2003 국가경쟁력 평가방식의 문제점과 시사점	이형근
03-26	UN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해제의 내용과 의미	박복영·배희연
03-27	최근 달러화 약세추이와 적정 원화환율	감삼모·김권식
03-28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하와 하반기 미국 경기 전망	전종규
03-29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	지만수·서창배
03-30	미경제의 2/4분기 실질GDP성장률과 향후 경기전망	나수엽
03-31	로커비사건 해결 이후 리비아경제 전망 - 한국의 건설부문 진출에 대한 시사점	박복영
03-32	칸쿤 각료회의의 문서 초안 수정안의 농업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박지현
03-33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안형도·방호경
03-34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로드맵: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	이홍식·김중혁
03-35	WTO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과 향후 전망	최낙균
03-36	이라크 내 테러사태가 재건에 미치는 영향	배희연
03-37	고이즈미 2기 내각의 출범과 주요 정책과제	이홍배·김은지
03-38	최근 원화환율 하락의 원인과 대응전략	강삼모·김권식
03-39	한·중·일 정상회의의 주요내용과 의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홍식·방호경

03-40	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발리협약 II를 중심으로	권 율·권경덕
03-41	최근 네덜란드의 임금동결 합의 배경과 시사점	김흥중·김균태
03-42	태국의 최근 FTA 추진 동향 : 태국-호주, 태국-인도 FTA를 중심으로	권경덕·최윤정
03-43	이라크 인프라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박복영
03-44	ASEAN, ASEAN-중국, ASEAN-일본의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물류공조체제 논의 동향	이홍식·방호경
03-45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와 의미와 전망	정성준·김은지
03-46	일본-ASEAN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권 율
03-47	2004년 세계경제전망	전종규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3-01호 ~ 03-16호

2004

종합심층연구

2003/04 북한경제 백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중국경제연보: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olicy Analyses

04-01	Saving,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	--	--

정책연구

04-0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김원호·전종규·이준규·권기수·김진오·문남권
04-02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이홍식·이중화·신관호·왕윤중

04-03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남영숙·이창수·지만수·정인교
04-04	한·중·일 분야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창재 외
04-05	WTO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방안	최낙균
04-06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지속가능발전: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창인
04-07	무역원활화·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이창수·임혜준·박지현·양준석
04-08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윤미경·윤창인·이상승
04-09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양두용·조종화·안형도·송원호·정재식·김혁황·박대근
04-10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김흥중·박성훈
04-11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강문성·권경덕·김양희·김흥중·노재봉·이중화·정인교
04-12	한·미 FTA의 무역·투자창출 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박순찬·강문성
04-13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전기전자 및 기계 부문을 중심으로	이홍배·정성준·석전현
04-14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지만수·남영숙·조현준·이홍식·김은국
04-15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 연구	홍익표·동용숙·이정철
04-16	동북아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안형도·오용협

04-17	동북아물류허브: 동북아 항공운송자유화 정책 추진방안	전일수·홍석진
04-18	외국인투자 유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이상학
04-19	동북아 경제협력: NEADB의 논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형근
04-20	2004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이창재 외

지역연구

04-01	1990년대 이후 중동의 경제개혁	박복영
04-02	중·동구 주요 EU 신규회원국의 적정환율 분석과 EMU 가입에 대한 시사점	김흥중·이철원·김병연

행사결과보고 / Conference Proceedings

04-01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Yoon Hyung Kim and Chang Jae Lee eds.
04-02	Enhancing Invest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Joon-Kyung Kim and Chang Jae Lee
04-03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Yonghyup Oh, Deok Ryong Yoon, and Thomas D. Willett eds.

정책자료

04-01	FTA의 득과 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순찬 외
04-02	대중남미 경제협력 중장기 전략: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중심으로	김원호·권기수·김진오
04-03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정재완·김완중·권경덕
04-04	폴란드의 정치·경제현황과 한·폴란드 경제협력 증진방안	이철원

발간자료 목록

04-05	프랑스 정치·경제 현황과 한·프랑스 경제협력	김흥중·김균태
04-06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 분석	강준구·박지현
04-07	수입선다변화제도 철폐 5년의 평가: 가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김정곤·박혜리
04-08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쇠고기시장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박지현
04-09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강준구
04-10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엄부영·강정실
04-11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
APEC Study Series		
04-01	Revisiting the Open Regionalism of APEC	Seok-young CHOI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4-01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Zhaoyong ZHANG
04-02	The Spoke Trap: Hub-and-Spoke Bilateralism in East Asia	Richard E. Baldwin
04-03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Kiyotaka Sato
04-04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Jeong-Pyo Hong
04-05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Facing the Tre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Lee-in Chen Chiu

04-06	An Output Perspective on a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Yin-Wong Cheung
04-07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CHEN Hong
지역리포트		
04-01	남아공 흑인정권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박영호
04-02	EU 확대 이후 중·동구 지역의 교역·투자전망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
04-03	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와 건설시장 확대방안	박영호
04-04	EU의 시장통합과 유럽 자동차산업의 재편	박영곤
04-05	영국경제의 이해와 한·영 경제협력의 과제	김흥중·김균태
04-06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권경덕·김은지
지역연구회시리즈		
04-01	EU의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평가	김은경·김흥중
04-02	거시경제적 성과로 본 유럽경제의 효율성 분석	주상영·김흥중
단행본		
현대 러시아 정치·경제의 이해		정여천·김석환
한·멕시코 경제협력 정책과제		김원호 편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0, 21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오늘의 세계경제		
04-01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김준동·강준구
04-02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쟁점 및 정책과제	김준동

04-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 대응방향	송유철·박지현
04-04	미국·호주 FTA 평가 및 시사점	최윤정
04-05	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의 배경과 시사점	김흥중·박영곤
04-06	일·멕시코 FTA 체결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이홍배·김은지
04-07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유가상승 요인 분석	박복영
04-08	호주·태국 FTA 주요 내용과 시사점	권 울·권경덕
04-09	미국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배경 및 의의	박영호
04-10	2004년 5월 1일 EU 25개국으로 확대	김흥중·박영곤
04-11	최근 중국경제 동향 ('중국발 쇼크' 관련)과 시사점	조현준
04-12	유럽이사회, EU 헌법안 최종 확정	김흥중·박영곤
04-13	일본의 '지적재산전략' 변화와 시사점	정성춘
04-14	미국 연준리의 금리인상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	나수엽
04-15	EU 집행위, 프랑스의 알스톰사 보조금 승인	김흥중·강문성
04-16	중국, 석유확보 위해 중동 진출 본격화-중국·GCC 간 FTA 추진 합의	박복영
04-17	DDA 농업협상 초안 평가 및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창수·박지현
04-18	DDA협상 기본골격(framework) 합의문 채택의 의의와 향후 전망	강문성
04-19	2004년 하반기 대외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	전종규
04-20	최근의 위안화 절상 논란과 절상 가능성	지만수

04-21	Bush 재선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이준규
04-22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강준구·박지현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4-01호 ~ 04-47호		
2005		
Policy Analyses		
05-01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hoong Yong AHN, Inkyo CHEONG, Yukiko FUKAGAWA, and Takatoshi ITO eds.
05-02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Junkyu Lee and Hongshik Lee
05-03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and Policy Implications (I)	Hongshik Lee, Hyejoon Im, Inkoo Lee, Backhoon Song, and Soonchan Park
05-04	Rationale for a China-Japan-Korea FTA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Chang Jae Lee et al.
정책연구		
05-01	유럽지역 주요 환경라벨제도 분석 및 수출에 대한 시사점	윤창인·이재협
05-02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유태환·최윤정·M. Pant·V. Balaji
05-03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남상열
05-0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이창재 외
05-05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방호경

발간자료 목록

05-06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창수·박지현·김용택
05-07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윤창인
05-08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이창수·박지현·권오복
05-09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김흥중·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
05-10	APEC 보고르 목표 실행전략: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김상경·박성훈·박순찬·박인원
05-11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윤덕룡·양두용·오용협·송원호·전종규·신관호·백승관
05-12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한국의 물가안정 목표 제하의 환율정책	김은경·오용협
05-13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소규모 개방경제모형 하에서의 통화정책 비교	양두용·정용승·정재식
05-14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정 외환보유액 정책에 관한 연구	윤덕룡·이영섭
05-1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이창재·김성철·백 훈·한택한·이재영·방호경
05-16	ASEAN+3 협력체제의 성과와 정책과제	권 울·오쿠다 사토루·왕윤중·정재완
05-17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명철·양문수·정승호·박순찬

05-18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지만수·최의현·이남주·김석진·백권호
05-19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조명철·정승호·윤정혁·우상민
05-20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
05-21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조명철·이종운·홍익표·이재영·정형곤·동용승
05-22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유재원·임혜준 편
05-2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안형도·김종혁
세미나자료		
05-01	Diversity in Development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5-02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eds.
05-03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한국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흥중·박성훈·페터 가이 편
정책토론회시리즈		
05-01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울·홍수연
05-02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정책자료		
05-01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최낙균·강문성·김흥중·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

05-02	동아시아 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강정실
05-03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진로와 대응과제	권 울·홍수연
05-04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김흥중·김균태·오형범·나수업·하유정
05-05	ASEAN 및 회원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엄부영
05-06	해외충격이 국내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권식
05-07	WTO/DDA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강문성·강준구·박지현·김정곤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이준규 편
05-09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송영관
05-10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김우영·박순찬·이창수
OECD 연구시리즈		
05-01	Korea's Currency Crisis and Regulations on Merchant Banking Corporations	Doo-Yull Choi
APEC Study Series		
05-01	APEC After Busan: New Direction	Andrew Elek
05-02	A Renewed Vision for APEC: Meeting New Challenges and Grasping New Opportunities	John McKay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5-01	Korea and the Dual Chinese Challenge	Francoise NICOLAS
05-02	Did Efficiency Improve? Megamergers in the Japanese Banking Sector	Kimie Harada

05-03	Measuring the Efficiency of Banks: Successful Mergers in the Korean Banking Sector	Kimie Harada
05-04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in Northeast Asia: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tical Approach	Sumio Kuribayashi
05-05	The Illusive Quest for an Asian Common Currency: Economic Mirage or Realpolitik?	James H. Chan- Lee
05-06	중국 동북3성 진흥 및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상	임 명
05-07	An East Asian Single Market?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	Simon Hix and Hae-Won Jun
05-08	The Impact of FDI from South Korea to China on Bilateral Trade	Liu Xiangfeng
지역리포트		
05-01	터키의 국가 현황 및 경제협력 증진방안	이철원
05-0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방안	이재영·신현준·김선영
05-03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 배경과 효과	배희연
05-04	최근 독일의 정치·경제 현황과 한·독 경제관계	김흥중·김균태·Bernhard Seliger
05-05	일본 M&A 시장의 최근 동향과 과제	정성춘
지역연구회시리즈		
05-01	한·일 경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비교분석	이종윤
05-02	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장형수·정여천
05-03	중국의 기술산업화 모델 및 전략	박승찬
05-04	일본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미무라 미즈히로
05-05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유장희·김은미

발간자료 목록

단행본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남미협회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손병해·김흥중 공편저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2호, 23호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12월호		
오늘의 세계경제		
05-01	최근 고유가와 1970년대 오일쇼크의 비교	박복영·송원호
05-02	한-헝가리 정상회담: 양국간 IT산업 협력증진의 계기	이철원
05-03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	권기수
05-04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본 영화시장 개방	윤미경·윤창인
05-05	일본의 전기전자 대기업의 특허전략과 시사점	정성춘
05-06	프랑스 주35시간 법정 근로제 완화의 시사점	김흥중·오형범
05-07	중국 WTO 가입 3주년의 평가와 전망: 서비스 분야 양허안 이행을 중심으로	김은국·여수옥
05-08	중-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배경과 전망	최윤정
05-09	한·일 김 수입쿼터 분쟁의 패널 설치와 향후 전망	박혜리
05-10	무역자유화 피해 지원제도: 미국·EU 사례와 시사점	임혜준·박혜리

05-11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박지현
05-12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김흥중·김균태
05-13	중동 오일달러의 규모와 그 파급효과	박복영
05-14	'일본 21세기 비전'을 통해 본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정성춘
05-15	최근 미국경제 성장을 저하 원인 분석 및 전망	이준규
05-16	보건의료 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송영관
05-17	국내 기업 주주로서의 외국 자본 : 주요 쟁점 검토	양두용
05-18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과 대응방향	지만수
05-19	일본-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정성춘·권 율
05-20	유럽지역의 주요 환경라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윤창인
05-21	프랑스, 네덜란드 EU 헌법안 부결의 영향과 전망	김흥중·오형범
05-22	한·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정성춘
05-23	석유를 매개로 아시아와 중동 간 관계강화	박복영
05-24	쌀 협상 국회비준 연기에 따른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박지현
05-25	한·EFTA FTA협상 타결의 의의와 시사점	김흥중
05-26	중국 위안화 환율제도 변경의 시사점	양두용·이인구· 김권식
05-27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이홍식·이경희
05-28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준규·김진오· 나수업
05-29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부결의 의미와 영향	정성춘

05-30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추이와 시사점	정성춘
05-31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호진·나수업
05-32	일본 총선결과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	정성춘·김은지
05-33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	박복영·송원호 외
05-34	최근 중국의 무역흑자 급증 배경과 시사점	이인구
05-35	2005년 하반기 이후 미국 및 주요국의 경제 동향 및 전망	이호진
05-36	세계경제 불균형의 지속가능성과 동아시아 환율정책 협조	조종화
05-37	16기 5중전회를 통해서 본 중국 11차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지만수
05-38	2006년 국제유가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전망	박복영
05-39	최근 미국의 대오만·태국 FTA 협상 분석 및 시사점	이준규
05-40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개최 배경과 전망	권 율·이창수
05-41	중국의 최근 외환제도 개혁추이와 2006년도 환율 운용 전망	은종학
05-42	홍콩 각료회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강문성
05-43	2006년 세계경제 전망 및 통상환경	이준규·나수업
05-44	아프리카 석유자원을 둘러싼 미·중간 주도권 경쟁양상 및 시사점	박영호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05-01~05-29호		
2006		
Policy Analyses		
06-01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Chang Jae Lee, Hyung-Gon Jeong, Han Sung Kim, and Ho-Kyung Bang

06-02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	Doo Yong Yang ed.
연구보고서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채 욱·김세원· 유재원 외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김흥중·신정완· 이상호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권 율·김한성· 박복영·황주성· 홍수연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송백훈· 송영관·정지원· 이창수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김상겸·박성훈· 박순찬·박인원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이성봉·윤미경· 현혜정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이홍식·강성진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오용협·조종화· 윤덕룡·송원호· 이호진·이인형· 진 익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호진·송원호· 장국현·정삼영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박월라·이 근· 은종학·박현정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이장규·이인구· 여지나·조현준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성춘·김양희· 이홍배·김은지· 이형근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재영·이철원· 신현준· V. D. Kalashnikov

발간자료 목록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이순철·정재완·최윤정·오민아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박복영·황주성·박철형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사례와 시사점	김원호·권기수·김진오·박수완·곽재성
06-17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이홍식·신관호·이중화·김형주
세미나자료 모음		
Africa in 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KIEP·FONDAD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Doo Yong Yang ed.
정책자료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이창수·김민성·윤창인·김진오
06-02	몽골 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정재완·유민우
06-03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신현준
06-04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여지나
06-05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정성춘·이형근
06-06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연구자료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강인수·김관호·한홍렬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박성훈·박순찬·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유진수 외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이성봉·김관호·이준규·현혜정
APEC Study Series		
06-01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Hwy-Chang Moon and Min-Young Kim
06-02	Evaluation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Efforts by APEC Economies	Taeho Bark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ea and Japan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Zhang Jianping
지역리포트		
06-01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알제리·나이지리아	박복영·황주성·박철형
지역연구시리즈		
06-01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김세원·박명호·김흥중

지역연구회시리즈		
06-01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단행본		
제1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4호, 25호		
(월간) KIEP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06-0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이홍식·이창수·이경희
06-02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전망	정형곤
06-03	싱가포르의 보건 의료 및 교육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정재완
06-04	한·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순철·최윤정
06-05	태국의 의료서비스 허브 추진 동향과 시사점	정재완·홍수연
06-06	호주 자원개발 확대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	김한성
06-07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배경과 시사점	은종학
06-08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정성춘
06-09	일본 금융정책 변화의 영향 및 대응과제	정성춘
06-10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정책과 시사점	김한성
06-11	이란 핵문제와 국제유가 전망	박복영

06-12	중국의 환율변동폭 확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이인구
06-13	DDA 농업협상, 세무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서진교
06-14	원화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양두용·이인구·김권식
06-15	우리나라, 중동 플랜트 시장 점유율 1위	박복용·박철형
06-16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 주요 지역경제의 변화	김진오
06-17	서비스산업의 아웃소싱 확산과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이홍식·이경희
06-18	중국의 반독점법 추진: 한국기업에 주는 기회와 위협	은종학·박현정
06-19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홍익표·정승호
06-20	일본 제로금리정책 해제의 배경과 의미	정성춘
06-21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추가적 대북제재 예상조치와 효과	정형곤
06-22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현혜정
06-23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서진교·송유철
06-24	대외통상전략을 활용한 일본의 가처분소득 성장전략	정성춘
06-25	대외경제 점검: 미·일·중의 경제 현황 및 전망	이호진·이인구·이형근·고희채
06-26	미·일 경제관계가 한·미 FTA 협상에 주는 시사점	정성춘
06-27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김양희
06-28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과 향후 과제	이형근
06-29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박현정

발간자료 목록

06-30	OPEC의 석유생산능력과 국제유가 장기전망	박복영
06-31	북한 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동향분석팀
06-32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명철·홍익표·정승호
06-33	스웨덴 총선 결과의 의미와 시사점	김흥중·오탈현
대외경제전문가폴 토의자료 06-01호 ~ 06-11호		
2007		
연구보고서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김흥중·권 울·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최낙균·이홍식 외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서진교 외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현해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송원호 외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채 욱 외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안형도·박제훈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07-09	한·중 금융 물류허브 경쟁과 우리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형곤·오용협·원동욱·나승권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정성춘·이형근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복영·채 욱·이제민·이 근·이상철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김흥중·권 울·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07-0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양평섭·여지나·박현정·배승빈
07-0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정성춘·이형근·김은지
07-04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권 울·정재완·이재호
07-05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김한성·배희연·Jeffrey Robertson
07-06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이순철·최윤정
07-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박복영·박철형
07-08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박영호·허윤선
07-09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북미	이준규·김종혁·고희채·오민아
07-10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권기수·김진오·박수완·김원호
07-1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김박수·홍유수·이철원·김균태·오탈현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이재영·신현준 편저
07-01-01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 파워 통상전략	이 근
07-02-01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최의현·김완중
07-03-01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 훈
07-06-01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Anjan Roy
07-07-01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인남식
07-08-01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전승훈·허길행·유 철·최미애
07-09-01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안덕근
07-09-02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재우·김민수
07-09-03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정 훈
07-10-0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임배진
07-10-0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 방안 연구	김영철
07-10-0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하상섭
07-10-0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이상현
07-12-01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한종만
지역연구 시리즈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재영·박상남 편저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 파워 통상전략	이 근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최의현·김완중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 훈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Anjan Roy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인남식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전승훈·허길행·유 철·최미애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안덕근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주재우·김민수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정 훈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임배진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 방안 연구	김영철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 및 전망	하상섭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이상현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박상남·강명규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담평분야: 제도 및 예상쟁점	정지원·박혜리·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성한경·강준규·배승빈

발간자료 목록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분야의 이슈 점검: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조미진·엄부영·박현정
연구자료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07-02	중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재영·박상남 편저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안형도·김원배·박세훈·정옥주·이성수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양평섭·구은아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김한성·배희연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박복영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송영관·안준성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방호경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이준규·고희채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김세원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윤창인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신현준·이광우·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김진오·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정재완·김동현·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권기수·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박영호·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박철형·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최윤정·박민준·김정현
단행본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Summaries of Research Report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6호, 27호		
오늘의 세계경제		
07-01	최근 영국경제 호조의 원인과 정책 시사점	김홍중·김균태
07-02	중·파키스탄 FTA 체결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여지나
07-03	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홍익표·정승호
07-04	미 행정부의 TPA 갱신 요청과 한·미 FTA	이홍식·이경희
07-05	DDA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서진교·박지현
07-06	미·중 경제전략대화: 중국위협론에서 중국책임론으로	지만수
07-07	오일머니 2조 달러, 어떻게 사용되나?	박복영
07-08	태국 통화절상으로 유발된 동아시아 외환위기론 평가	신종협·이재호
07-09	외환보유 1조 달러 시대의 중국 외환관리정책 전망과 시사점	양평섭·이인구

07-10	일본의 고용 관련 법률 개정의 최근 동향과 의미	정성춘
07-11	북핵과 북·미 경제관계 전망	조명철·정승호
07-12	2007년 중국 정부공작보고의 주요 내용과 평가	지만수·나수엽
07-13	2007년 세계경제 전망 총괄	이인구
07-14	2006년 대중 무역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박현정
07-15	급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콜센터 아웃소싱산업과 시사점	정재완·이재호
07-16	글로벌 불균형: Time for Action	양두용·이준희
07-17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 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정형곤·박철형·나승권
07-18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한성
07-19	미·중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쟁의 배경과 시사점	지만수·나수엽
07-20	최근 뉴질랜드 연금개혁과 시사점	배희연
07-21	대중남미 수출급증 배경 분석과 향후 과제	권기수
07-22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조명철·정승호
07-23	일본·태국 EPA의 내용 및 시사점	김한성·이재호
07-24	일본 농업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정성춘·김은지
07-25	중·동구 신규회원국의 EU 가입 3주년 평가	김홍중·이철원
07-26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	오용협·이인구
07-27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평섭
07-28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2007년 1분기)	이인구

07-29	헤지펀드의 규제 동향과 시사점	송원호·오승환
07-30	한·미 FTA 비준에 대한 미 의회의 움직임과 그 시사점	성한경
07-31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조명철·김지연
07-32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송백훈·이준규·김흥중·서진교
07-33	국경간 M&A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현혜정
07-3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전망	정성춘·김은지
07-35	DDA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 접근(NAMA) 세부원칙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서진교·송백훈·박지현·김정곤
07-36	글로벌 유동성 축소되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보는 시각에서	양두용·이인구·신종협
07-37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조미진·박현정
07-38	인도 IT 아웃소싱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시사점	최윤정
07-39	호주의 자원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전략	김한성·배희연
07-40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정형곤
07-41	중국·인도 산업 및 교역구조 비교	이순철·양평섭
07-42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교훈과 정책과제	조명철
07-43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2007년 2분기)	이인구
07-44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제 자본 흐름 변화 및 시사점	송원호·오용협·오승환
07-45	이라크 내 쿠르드 지역의 정세와 전망	박복영·박철형
07-46	한·중·일 3국의 생산공정별 분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안형도·방호경

발간자료 목록

07-47	세계 주요국의 해외 M&A 사례와 정책	이순철
07-48	중국의 꿈?: 과학적 발전관의 내용과 의미	지만수
07-49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국내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송영관
07-50	아프리카 개발은행 신탁기금 현황과 시사점	권 울·정지선
07-51	세계경제 동향 및 2008년 전망 총괄	이인구
07-52	발리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정성춘
지역경제 포커스		
07-01	급성장하는 러시아 은행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이광우
07-0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현황과 신(신)정부의 경제정책 전망	신현준
07-03	인도 경제특구(SEZ) 정책과 문제점	이순철·오민아
07-04	중앙아시아의 블루오션, 아제르바이잔: 한국의 경제협력 추진과제	이재영·신현준
07-05	프랑스 1차 대선 결과 및 결선투표 전망	오태현
07-06	일본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동향과 시사점	정성춘·이형근
07-07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의 배경과 시사점	김한성·배희연
07-08	중동 산유국의 산업다각화 동향과 평가: UAE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복영·박철형
07-09	독일경제 호조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	김균태
07-10	프랑스 사르코지 정권의 경제정책	김흥중·오태현
07-11	중국의 신의료개혁방안 논의와 그 시사점	성한경·강준구·배승빈
07-12	경제교류 통계로 본 한·중 수교 15주년	나수엽

07-13	태국 정정불안의 배경과 경제적 시사점	이재호
07-14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홍콩의 현황과 시사점	여지나
07-15	2007 미국 Farm Bill과 국내보조 감축 전망	정지원
07-16	브라질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권기수
07-17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조치: 진출과제 및 시사점	권 울·배희연
07-18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박현정
07-19	태국의 주요 FTA 추진정책과 자동차산업 전망	이재호
07-20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과 향후 과제	이준규·고희채
2008		
연구보고서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김준동 외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김상겸·유재원·한홍렬·김수이·이상현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이장규·이준규·이승신·여지나·배승빈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최낙균·정형곤·김한성
08-05	WTO 체제의 개혁 방향과 한국의 대응	서진교·Sherzod Shadikhodjaev·이경희·박지현·윤창인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송영관·송백훈·강준구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정 철·김정렬·김혁황·성한경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임혜준·김정곤·박혜리·이홍식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현혜정·김혁황·박철형·성한경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조종화·강삼모·이인구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오용협·백승관·김연실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지만수·박월라·이승신·박현정·최의현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김양희·정성춘·이형근·김은지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이재영·이순철·황지영·이종문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권기수·김원호·권 울·김진오·박수완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박복영·이계우·이순철·정지선·박수경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박영호·박복영·권 울·허윤선·강선주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홍익표·김지연
세미나자료모음		
08-01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Kyung Tae Lee and Ramkishen S. Rajan eds.

08-02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Meral Karasulu and Doo Yong Yang
08-03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es	David Daokui Li and Youngrok Cheong eds.
중장기 통상전략		
08-01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김태준·문우식·송치영·유재원·채희율
08-03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매커니즘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08-04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국제금융 포커스		
08-01	최근 환율불안정의 특징과 대응방안	윤덕룡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08-01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정지원·박혜리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여지나·김민성
연구자료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이창영
08-02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바이오연료, TV방송, 프랜차이즈	배희연·정재완·박병국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정재완·방호경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정형곤·나승권
08-0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정성춘·이형근

발간자료 목록

08-05	한·중·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김한성·이재호·백유진
08-06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방호경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김양희·정성춘·정지원·이형근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동향	윤창인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윤덕룡·김태준·문우식·송치영·유재원·채희율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매커니즘 분석	서진교·박순찬·김우영·이종한·이홍식·최종일
08-12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진교·이홍식·박순찬·김우영
APEC Study Series		
08-0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the APEC: Another Common Denominator or Harmonizing Measure?	Byung-il Choi
08-02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PEC Region: An Evolutionary Path to Bogor Goals	Sung-Hoon Park
08-03	The Next APEC Membership from Latin America: A Contextual Approach	Won-Ho Kim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8-01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 금융, 자동차, 전기전자	이재호·정재완·이성훈
08-02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바이오연료, TV방송, 프랜차이즈	배희연·정재완·박병국
08-03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석유, IT, 건축자재, 의약	황지영·이철원·최진형
08-04	UAE의 주요 산업 분석: 건설, 정보통신, 관광, 금융	박철형·이영희

08-05	헝가리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IT, 금융, 제약	이철원·김용성
08-06	칠레의 주요 산업 분석: 농업, 수산업, 광업, IT	김진오·성기주
08-07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가스, 통신, 건설, 전력	박영호·허윤선·심자용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8-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Kye Woo Lee
08-02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Woosik Moon and Yeongseop Rhee
08-03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oosik Moon
08-04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BUI Truong Giang
SNU-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08-01	Prospects for European Foreign Policy	Fraser Cameron
08-02	EU 지역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김은경
08-03	EU 문화정책의 유럽통합에 대한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박성훈·윤성원·김장호
지역연구시리즈		
08-01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오택현
단행본		
08-01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김적교

08-02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정여천 편
08-03	20세기 유럽경제사	이현대·김흥종·윤김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28호, 29호		
오늘의 세계경제		
08-01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혜정·강준구·김준동·김혁황·정형곤
08-02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최낙균
08-03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현혜정
08-04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순철·최윤정
08-05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과제	오용협·김연실
08-06	최근 국제사회 공적개발원조(ODA) 동향과 향후 전망	권 율·정지선
08-07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경제의 항방	이인구·신종협·오승환
08-08	2008년도 북한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홍익표
08-09	일본의 대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 국에 대한 시사점: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김양희
08-10	아프리카 석유자원 개발 잠재력 및 한국의 진출방안	박영호·허윤선
08-11	호주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김한성·배희연
08-12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
08-13	중국 경제 리스크 진단과 전망	이승신·박현정
08-14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재영·신현준

08-15	미국의 경기변화가 한국 경기에 미치는 영향	송원호·이인구·오승환
08-16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및 전망 총괄	이인구 외
08-17	중국·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김한성·여지나
08-18	최근 공적개발원조 현황과 부채탕감 거품 효과	권 율·박수경
08-19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정현곤·나승권
08-20	중국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박현정·방호경·오승환
08-21	DDA 협상: 농업, NAMA 세부원칙 의 장 수정안의 평가와 시사점	서진교·박지현·송백훈
08-22	국제사회의 MDG 이행성과와 향후 추진과제	권 율·박수경
08-23	일본의 고령자 취업 현황과 시사점	이형근
08-24	최근 재부각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발 신용위기 평가	신종협·오승환
08-25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치경제관계와 시사점	박복영
08-26	미국의 2008년 농업법과 DDA 협상에의 시사점	정지원
08-27	비핵화 진전이 북한의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표
08-28	WTO의 DDA 협상 결렬의 평가와 향후 전망	서진교
08-29	2008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 국제금융시장과 경제성장	안형도·윤덕룡·송원호·김종혁·오승환·김연실
08-30	2008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경제전망	이준규·김종혁·고희채·김균태·정성춘·이형근·이승신

발간자료 목록

08-31	2008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 전망	서진교·정 철· 김준동·김혁황· 이경희·송백훈
08-32	2008 신흥경제 5대 포커스	김한성·최윤정· 황지영·권기수· 배희연·정성춘· 정재완
08-33	일본의 저탄소사회 전략의 현황과 시사점	정성춘
08-34	한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 산업별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정형곤·방호경
08-35	국제사회의 파리선언 이행 현황과 시사점	권 율·정지선
08-36	미국 금융시장 위기대책: 배경, 효과, 전망	윤덕룡·오승환
08-37	원화국제화 확대의 필요성과 주요 정책과제	이인구·오용협· 김연실
08-38	통화스왑라인 개설과 시사점	윤덕룡·송원호· 오승환
08-39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이준규·고희채· 오민아·김종혁
08-40	세계 각 지역,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	이준규·박영호· 권기수·박복영· 정성춘·정재완· 최윤정·김균태· 박철형·고희채· 이승신·허윤선· 황지영·김종혁
08-41	엔화 강세의 전망과 파급영향	윤덕룡·오승환
08-42	한·페루 FTA 협상개시 의의 및 대응방향	정 철·권기수· 임혜준
08-43	도하 개발재원회의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정지원·정지선

08-44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오용협·조종화· 윤덕룡·송원호· 이인구·오승환· 김연실
08-45	2009년 세계경제전망: 국제통상환경	서진교·정 철· 현혜정·송백훈· 정여천·김혁황· 이경희
08-46	2009년 세계경제전망: 세계지역경제	미주팀·일본팀· 유럽팀· 동서남아팀· 중국팀·아중동팀
08-47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정형곤·오용협· 김연실·노유연
지역경제 포커스		
08-01	태국 신정부 출범과 경제적 시사점	이재호
08-02	2007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동향과 시사점	이형근
08-03	미국의 대(대)아프리카 정책 강화 동향 및 향후 전망	박영호 · 허윤선
08-04	소시에테 제네랄 금융사건과 프랑스의 보수적 M&A 정책	오태현·오승환
08-05	글로벌 달러 약세, 중동지역 물가 급등 부채질	박철형
08-06	중국 지방간부 평가의 환경조항 추가와 시사점	이장규·배승빈
08-07	대만의 차기 총통 당선: 중국·대만 경제관계 전망과 시사점	박현정
08-08	최근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 현황 및 특징	방호경·노유연
08-09	최근 브라질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배경과 전망	권기수
08-10	유럽의회 50년의 평가와 전망	이현진
08-11	동남아 쌀 가격 폭등의 원인 및 전망	이재호

08-12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와 향후 전망	배희연
08-13	중·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시사점	정성춘·배승빈
08-14	베트남 경제 위기설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정재완
08-15	페루 경제의 성장세와 향후 전망	박수완·이준규
08-16	미얀마 신헌법 채택과 향후 정국 전망	정재완·권 율
08-17	유럽 주택경기 하락의 파급효과 및 전망	오태현
08-18	2008년 아프리카 주요 선거일정과 경제성장 전망	허윤선
08-19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부결과 전망	오태현·이현진
08-20	러시아 경기과열 우려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황지영
08-21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도입과 유로존의 확대	이철원·오태현
08-22	중국 에너지 가격 인상의 배경과 전망	박현정
08-23	아르헨티나 국가채무 디폴트 가능성 분석과 전망	권기수
08-24	FTA가 태국 자동차 수출 확대에 미친 영향	김한성·이재호
08-25	밀레니엄 개발목표(MDG)와 아프리카: 중간평가와 향후 전망	박영호·허윤선
08-26	미국의 석유투기자본 규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이준규·고희채
08-27	중국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전망	박현정
08-28	일본정부의 경기후퇴에 대응한 정책 방향 전망	김은지
08-29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대응과 전망	김균태·오태현

08-30	미국발 금융위기의 동남아 증시에 대한 영향과 전망	이재호·백유진
08-31	미국 금융위기 악화로 인한 중동 주식시장 급락과 평가	박철형
08-32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은지·정성춘
08-33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양평섭·나수엽
08-34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권 율·박수경
08-35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전자무역 구축현황 및 협력방안	정형곤·노유연
08-36	중국 17기 3중전회 경제정책 관련 주요 내용	여지나
08-37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원인 및 전망	김균태·오태현
08-38	헝가리 금융위기와 파급 가능성	이철원·오태현
08-39	중동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평가	박철형
08-40	한·러 가스공급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와 과제	주진홍·정여천
08-41	인도의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최윤정
08-42	중·싱가포르 FTA 체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08-43	WT0, 각료회의 개최 무산의 원인과 영향	서진교
08-44	뉴질랜드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백유진
08-45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현황과 향후 경제 전망	황지영
2009		
연구보고서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정성춘·이형근· 권기수·이철원· 오태현·김진오· 이순철

발간자료 목록

09-02	해외자원개발의 전략적 추진방안: 4대 신흥지역 중심으로	박영호·이철원· 권기수·정재완· 황시영
09-03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내대책 및 구조조정 방향	최낙균·이경희· 김정곤
세미나자료모음		
09-01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	Myung-Chul Cho and Jiyeon Kim eds.
지역연구시리즈		
09-01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김군태·이현진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사덕호드자예브 세르조드·양주용
연구자료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권 울·정지선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이순철·송영철
09-03	한·미 FTA 이행대상 다자환경협약 (MEAs)의 무역규제조치와 시사점	윤창인
09-04	장기 불황 이후 일본경제의 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김양희·김은지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9-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Kye Woo Lee
09-02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Vadis?	Norio Komuro
09-0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Yushi Yoshida
09-04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정형곤·방호경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통권 30호, 31호		
오늘의 세계경제		
09-01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정성춘
09-02	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오용협·김연실
09-03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지원기금 현황 및 시사점	정지원·박수경
09-04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김한성
09-05	2009년도 북한의 대외경제 전망	조명철·김지연
09-06	일본 EPA의 산업별 상품양허 실태와 시사점	김양희
09-07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시사점	윤덕룡·오승환
09-08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 철·오용협· 김연실
09-09	제3기 김정일 체제의 특징과 2009년 예산평가	조명철·김지연
09-10	우리나라의 최근 무역수지 변동 원인과 시사점	정 철·서진교· 김정곤
09-11	한국의 대중국 교역 동향과 시사점	이승신·양평섭
09-12	최근 유엔(UN)의 대북제재 동향과 전망	조명철·김지연
09-13	주요국의 전략산업 FDI 규제동향과 시사점	현혜정
09-14	한·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과제	이재영
09-15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의의와 시사점	오용협·오승환
09-16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안	홍익표·이종운
09-17	원 / 달러 환율의 적정수준 및 전망	이인구·오승환· 허 인

09-1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본정부의 경제대책과 시사점	이형근
09-19	최근 유가상승의 요인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허 인·김연실
09-20	한·EU의 서비스교역 동향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강유덕
09-21	일본의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성춘
09-22	2009년 하반기 국제금융시장 전망	오용협, 이인구· 오승환·김연실· 허 인
09-23	2009년 하반기 국제통상환경 전망	김준동·김혁황· 김민성·이경희· 현혜정·서진교· 정 철·김정곤
09-24	2009년 하반기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세계지역연구센터
09-25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 현황 및 시사점	김한성·김민성
09-26	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손기태·강유덕· 김민희
09-27	북·중 접경지역 중국업체의 대북 거래관행 분석	이종운
09-28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내용과 시사점	박월라·박현정· 배승빈
09-29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손기태·김민희
09-30	초저금리하에서의 주요국 통화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동은·박영준
09-31	일본 민주당 신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김규판·이형근
09-32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조충제·이준규· 송영철
09-33	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윤덕룡·오승환
09-34	중국경제 60년 평가와 전망	양평섭·나수엽

지역경제 포커스		
09-01	중·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여지나
09-02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나수엽
09-03	유럽세계화조정기금의 운영 현황과 시사점	박혜리
09-04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의 시사점	주진홍·황지영
09-05	중국 10대 산업 진흥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나수엽
09-06	동유럽 금융위기의 파급전망과 시사점	이철원·이현진
09-07	일본기업의 고용조정 가속화와 정책대응 변화	김은지
09-08	최근 미국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	오승환·김종혁
09-09	글로벌 위기하의 중동경제: 영향과 대응	박복영·박철형
09-10	말레이시아 경기부양조치의 내용과 평가	배희연
09-11	동유럽 금융위기 이후 EU의 대책과 전망	이철원·이현진
09-12	코카콜라의 중국기업 합병 금지 결정과 시사점	박현정
09-13	남아공 경제에 대한 글로벌 위기의 영향과 전망	박영호·허윤선
09-14	태국의 재정불안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이재호
09-15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여지나
09-16	최근 인도의 경기 동향과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송영철
09-17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 당선과 경제정책	박영호·허윤선

발간자료 목록

09-18	인도 통일진보연합(UPA) 재집권과 전망	조총재·송영철
09-19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1/4분기 경제 동향 및 전망	주진홍
09-20	미국 대형은행 자산실사: 배경, 결과 및 전망	고희채·이희연
09-2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전망	이승신·이장규·배승빈
09-22	1/4분기 러시아 경제 동향과 2009년 전망	황지영
09-23	중국의 지역별 경제성장: 최근의 추이 변화	이장규·배승빈
09-24	남미은행의 출범 배경과 전망	권기수
09-25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강유덕
09-26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	손기태·김민희
09-27	한·폴란드 경제협력, 양국 경제회복 촉진계기	이철원·오태현
09-28	중·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여지나
09-29	싱가포르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시사점	손기태·김민희
09-30	러시아·카자흐스탄·벨로루시 관세동맹 설립과 WTO 가입 전망	Sherzod Shadikhodjaev·황지영
09-31	인도 신정부 신예산안과 주요정책	조총재·송영철
09-32	글로벌 경제위기와 MDG 이행현황	정지선
09-33	최근 중국의 반덤핑 현황 및 시사점	여지나·박민숙
09-34	FTA 대상국으로서 GCC 시장 평가	박철형
09-35	EU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와 시사점	오태현
09-36	'Buy China'의 주요내용과 우리기업의 중국 조달시장 진출방안	박혜리·조미진

09-37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	강유덕
09-38	아일랜드 경제위기 과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김균태
09-39	최근 인도 FDI 유입 급등과 시사점	송영철
09-40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주요 방향과 전망	이준규·이희연·고희채
09-41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평가: 농산물 교역을 중심으로	조미진·박지현
09-42	남미공동시장(MERCOSUR) 자국통화 무역결제시스템 추진 현황과 전망	권기수
09-43	GDP 지출항목별로 본 주요국의 경제회복 과정과 시사점	허 인·박영준
09-44	중·ASEAN FTA 투자협정의 내용과 시사점	여지나·박민숙
09-45	중앙아시아 외국인 농업투자 현황과 시사점	조영관·이시영
09-46	독일 총선의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전망	김균태·이현진
09-47	아일랜드의 EU 리스본조약 비준과 의미	오태현
09-48	중동 국부펀드의 해외기업 인수 동향과 특징	박철형·윤서영
09-49	글로벌 경기침체 속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분석 및 시사점	오태현
2010		
Working Papers		
10-01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of DDA Trade Liberalization: Assessment of Alternative Scenarios	최낙균
10-02	Intra-industry Trade in an Enlarged Europe: Trade of Intra-industry Trade in the European Union and its Determinants	강유덕

10-03	Democracy and Trade Policy: the Role of Interest Groups	이경희
10-04	East Asian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Its Prospect: Beyond the CMI	박용준·오용협
10-05	Regionalism within Multilateralism: WTO Review Mechanisms for RTAs	Sherzod Shadikhodjaev
10-06	Determinants of Exports: Productivity or Fixed Export Costs	김영귀·서정민
10-07	Learning in Neotiations: An Experimental Study	성한경
10-08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김한성·조미진
10-09	Considering Happiness for Economic Development: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Indonesia	손기태
10-10	Information and Capital Flows Revisited: the Internet as a Determinant of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최창규·이동은·오용협
10-11	Who Goes Where and How? Firm Heterogeneity and Location Decision of Korean Multinationals	현혜정·허정
계간		
10-01	대외경제연구 (제1호) 제14권 제1호 통권32호(반년)	공동
10-02	대외경제연구 (제2호) 제14권 제2호 통권33호(반년)	공동
기타 자료		
10-01	제3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수상논문집	KIEP
10-02	주요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중국, 일본	이승신·정성춘·여지나
10-03	호주의 주요 산업: 농축산업, 광업, 신재생에너지	백유진·이재호·이희연

10-04	이란의 주요 산업: 자동차, 전력, 석유화학	윤서영·박철형·강성수
10-05	아르헨티나의 주요 산업: 건설, IT, 재생에너지	권기수·박미숙·민희정
10-06	체코의 주요 산업: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이철원·이현진·김병호
10-07	벨라루스의 주요산업: 석유화학, 기계, IT	황지영·김동묘
10-08	2011년 세계경제전망	김준동 편
10-09	ИмиджЮжной Коре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윤성학·은기수·박수미·박 건·정원봉
동북아연구시리즈		
10-01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형곤·나승권·노유연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0-01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박노형·박성훈
10-02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및 과제	조미진·김민성
연구자료		
10-01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정 철·성한경·이철원·오태현
10-0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이시영
10-03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장용준·남호선
10-04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이재영·이시영·두게르 간바타르
10-05	중앙아시아 플랜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참여방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윤성학

발간자료 목록

10-06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손기태·백유진·김민희
10-07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논의동향 및 쟁점 분석	정지원·박수경
10-08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 및 발전 전망	박영호·허윤선
10-09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 사례와 시사점	한바란·김민희
1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권 울·박수경
10-11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현황 및 중점 협력분야: 가나·콩고(DRC)·남아공·에티오피아	박영호·김민희·전혜린
10-12	아시아·태평양 통상협정 활용률 측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분석	김한성·금혜윤
10-13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현황과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추정 연구	김태운·이재호
10-14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여지나
10-15	OECD 회원국의 서비스산업 분석: 산업구조, 파급효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강준구
10-16	GTI(Greater Tumen Initiatives)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조명철·김지연
10-17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조영관·강명구·김계환·김한철·성원용·이시영
10-18	중앙아시아 에너지 플랜트시장 전망과 한국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성학·문창권·변현섭·장세진·주진홍·최 호
10-19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이재영·김석환·박상남·손영훈

10-20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윤성학·은기수·박수미·박 건·정원봉
10-21	한국형 개발경험 전수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기존 사례 분석 및 우즈베키스탄에의 적용	강인수·이호생·송유철·한홍렬
10-22	중앙아시아: 정치·문화	고재남·신범식·김재관·주장환·주용식·제성훈·윤익중·현승수·김상현·김 혁·민병훈·임영상
10-23	중앙아시아: 경제·자원·과학	배경화·송백훈·무이노프 D.A.·비케예바 E.R.·타가예프 B.·아르지예바 A.K.·김동환·이우성·현성재·김보현
10-24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황지영·장지상
10-25	부상하는 강대국 인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라윤도·이옥순·김찬완·유태환
10-26	아세안의 경제발전과 한·아세안 개발협력	권 울·이재호·조흥국 외
10-27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권기수·김원호·이성형·김종섭
10-28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10-29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10-30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남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10-31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김봉훈·이건준·최진규·정은경·변정민·Ahmad Ishaque
10-32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 -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이성신·박원장
10-33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IT -발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강인수·김태은·홍승연
10-34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금융 -금융산업 현황과 협력방향	정계룡·손승호·이진경·이세린
10-35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신장섭
10-36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신·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 협력방안 모색	배정환·이보람
10-37	한·중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김영철·구경모·김유경·박종욱
10-38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문남권·우제량
10-39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최윤국
10-40	한·중미 녹색산업협력 확대방안	하상섭·정경원·손혜현
10-41	한국·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김광임·박태운·김윤정·Dinh Thai Hung 외
10-42	ASEAN 국가 교통인프라 수준진단을 통한 효과적 ODA 사업 추진방향	이훈기·박지형·이동민·김종신·주유휘
10-43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이광수·이순철·권기철

10-44	인도인의 공동체 의식	최종찬·고홍근·구하원·김형준·박금표·이명무·이은구·이춘호
10-45	인도의 산업발전전략과 이코노믹 거버넌스 :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강화에 주는 교훈과 함의	장지호·김정렬·조영희
10-46	인도인은 누구인가?: 요가샤스트라로 본 그들의 정신세계	김순금·김미경
10-47	인도 지역사회와 경제특구에 대한 연구: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규태·배지연·허 울
10-48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전재성·이수형·공석기
10-49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신윤희·강희정·김은영·송승원·이상국·최호림·이한우
10-50	동남아 분리주의 운동과 갈등관리 : 아세안(ASEAN)의 지역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이동윤·김영일
10-51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	유재원·박성훈·한홍렬·강인수·송유철·이호생
10-52	한국의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에 대한 인적자본 개발원조의 영향력 평가와 협동방안 연구	박인원·강문성·정미경·김태형·신경림
10-53	마약, 조직범죄, 해적 등 동남아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지역적 협력방안	한용섭·이신화·박균열·조홍제
10-54	아세안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ODA 협력방안연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이우성·황정태·김원준
10-55	대(對) 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손혁상·유현석

발간자료 목록

10-56	2010년 총선 이후 미얀마 체제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한국의 진출 전략	장준영
10-57	중남미 원전산업의 발전과 한국원전산업 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MBA(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국가를 중심으로	조희문·하상섭·손혜현
10-5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와 환경문제: 현황과 과제	전경수 외
10-59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 연구	임상래·이상현·박윤주
10-60	중남미 사회·문화적 코드와 방송영상산업의 소비 패턴 연구: '한류'의 효율적인정착을 위한 제언	정경원·전용갑·조구호·임소라
10-61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정형근·김진욱·김홍식·곽채기·이정현
10-62	베트남 미디어의 대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년전지』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송정남·이강우·김성란
10-63	아세안 주요 2개국(베트남, 인니)의 노동시장 현황과 변화 전망	이홍식·김형주
10-64	동남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특성 및 성장가능성 전망: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정영규·정선화
정책연구		
10-01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이홍식
10-02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현해정·장용준·강준구·김혁황·박철형
10-03	포스트교토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서정민·김영귀·박지현·김정곤·금혜윤

10-04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조미진·김한성·김민성·양주영
10-05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10-06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윤덕룡·오승환·김소영
1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허 인·이동은·이윤수·양다영
10-08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박영준·이동은·오용협·안지연
10-09	중국의 외환정책과 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 절상과 국제화를 중심으로	조종화·박복영·박영준·양다영
10-10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만수·박월라·이승신
10-11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이장규·나수엽·여지나·박민숙
10-12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지만수·정지현·김부용·노수연·이상훈·이혁구·최보연·임민경·오종혁
10-13	한·중·일 역내 직접투자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형근·이홍식·방호경·나승권
10-14	일본과 EU의 환경분야 대외협력전략과 시사점	정성춘·김규판·이형근·김균태·오태현
10-15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중·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태현
10-16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이재영·파벨 미나키르·이철원·황지영
10-17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 분석과 한국의 진출 방안	권기수·김진오·고희채·박미숙·허경신

10-18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
10-19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조충제·성한경·최윤정·송영철
10-20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10-21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박영호·한바란·김민희·전혜린·정지선·주진홍
10-22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10-23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순철
10-2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김지연·홍익표
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김양희·강유덕·손기태·김은지·이현진
10-26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정지원·권 율·한바란·정지선·박수경·이계우
10-27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정여천·이종화·성원용·황지영
지역연구시리즈		
10-01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주진홍·김균태·이현진
10-02	EU 로비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강유덕
10-03	고령화·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김양희·김은지
10-04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이현진·윤성원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0-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조이제·이창재 편
10-02	2009 CRES Visting Scholar's Paper Series	김홍중 편
2011		
APEC Study Series		
11-01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an FTAAP the Catalyst for One Community?	김상겸·박인원·박순찬
Policy Analyses		
11-01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박복영·Barry Eichengreen 편
Working Papers		
11-01	Empirical Tests of Comparative Advantage: Factor Proportions, Technology, and Geography	최낙균
11-02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장용준
11-03	Determinants of Domestic Public Debt Crisis	박복영·송원호
11-04	Indirect Subsidization under WTO Disciplines: Financial Contribution to One Entity, Benefit to Another	Sherzod Shadikhodjaev
11-05	Ca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Lessen Capital Volatility in a Country with 'Original Sin'?	박복영·안지연
11-06	Regional Difference and Counterfactual Decomposition of Pro-Poor Growth: An Application to Rural Ethiopia	곽성일

발간자료 목록

11-07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Credit Guarantee Scheme in Asian Bond Markets	박영준·이동은
11-08	Can English Proficiency Boost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이경희
11-09	Strategic Trade Policy with Border Carbon Adjustment	서정민
11-10	Real Convergence and European Integration: What Factors Make the Difference in Growth at Regional Level?	강유덕
11-11	Measuring Arbitrage Costs from Relative Prices: Implication for the PPP Puzzle	허 인·이인구
11-12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정용승·김소영·양두용·윤택
계간		
11-01	대외경제연구 (제1호) 제15권 제1호 통권34호	공동
11-02	대외경제연구 (제2호) 제15권 제2호 통권35호	공동
11-03	대외경제연구 (제3호) 제15권 제3호 통권36호	공동
11-04	대외경제연구 (제4호) 제15권 제4호 통권37호	공동
기타 자료		
11-01	제4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1-02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이철원·이현진·임채익
11-03	이집트의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천연가스, 인프라	윤서영·김호근
11-04	에티오피아의 주요 산업: 농업·농가 공업, 인프라산업, 직물·의류산업	김민희·전혜린·이두영

11-05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 광업, 교통인프라, IT산업	권기수·박미숙·황현정
11-06	베트남의 주요 산업: 유통, 석유화학, 수송인프라건설	정재완·이재호·권경덕
11-07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에너지·광물자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이재호·정재완·이장희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1-01	기발호 FTA에 따른 한국의 상품경쟁력 변화 분석	성한경·김혁황·금혜윤
연구자료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노수연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김정곤·김균태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김부용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손기태·김민희·박수경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권 울·박수경·이주영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정지원·정지선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 분석	정지원·박수경·임소영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정지선·이주영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김종일·황원규·윤미경·김낙연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강인수·송유철·윤진수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정형곤·방호경

11-13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한홍렬·이호생·이시욱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간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노한균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이창재·정재완·방호경
11-18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노수연·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정곤·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2001~10년)	홍익표·이종운·김지연·양문수·이찬우·임수호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고희채·오민아·이보람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박월라·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김부용·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 연구	정지현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김찬완·송승호·임정성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이순철·이영일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조충제·은기수·박 건·장원봉·유성용·정혜원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산업 협력방안	김현제·조상민·박찬국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이 웅·최호상·정무섭·서대교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강대창·박나리·윤현석·김형중·이동윤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김태윤·김홍구·조영희·이요한·신민금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강대창·박나리·김형준·홍석준·원순구·송승호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이호생·강인수·송유철·한홍렬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리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이재영·김석환·정세진·박정호·박병인·나희승
11-39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윤성학·김영진·김일검·김안국·홍미희·성동기·이시영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조영관·주진홍·강명구·김영식·오영일·이상준

발간자료 목록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이재영·이평래·윤익중·이시영·S. Avirmed
11-42	인도	배경화·신중협·서대교·이명무·이한상·한능호·박명섭·조준현·박혜진·박홍윤·허인혜·강경선·김윤호
11-43	동남아시아 1	곽구영·장태구·김한호·틴틴 아웅·나희량·이원희·정미경·조원권·문영주·최종산
11-44	동남아시아 2	김석수·송승원·양승윤·김성건·이운정·정홍주·윤대영
11-45	중앙아시아 1	이경완·김중관·강봉구·엄구호·이채문·윤영미
11-46	중앙아시아 2	김상철·박혜경·심현용·이지은·정경택·홍상우
11-47	몽골·터키	김경환·김용범·김원희·유태규·추원서·김종일·서문석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김원호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김종섭·박민경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서정민·인남식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어문자료 기초 조사	이희수

11-52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실태 및 적극적 활용방안 연구	허재준·염지환·김봉훈·이건준·김상식·변정민·Ahmad Ishaque
11-53	과테말라 자원·에너지 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정우현·추장민·한동훈
11-54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홍현표·장홍석·안재현·한덕훈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박지형·성현곤·황보희·Herber G. Fabian·Varameth Vichiensan
11-56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오삼교·이남섭·최운국·홍욱현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김창민·주종택·최진숙·강정원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정경원·조희문·문남권·유동재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박윤주·임상래·이상현·조영태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김영철·김우성·임두빈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조성권·주미영·박상현·하상섭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문정인·이광열·고아름·김현규·김진영
11-63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연구	조홍식·신동찬·이유봉·황형준·조정익·정대원·강형석·김 인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이충열·이영수·제상영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집단 간 갈등양상에 관한 기초연구: 마그레브 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김정숙·김양주·임기대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황병하·김강석·김선하·김화선·최지원
정책연구		
11-01	미국·캐나다의 녹색성장 전략과 시사점	고희채·이준규·오민아·이보람
11-02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 통합까지: 동아시아 시대를 향하여	이창재·방호경
11-03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윤덕룡·오승환·백승관
11-04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시사점	박복영·오승환·정용승·박영준
11-05	대외 위험요인 진단과 거시경제효과 분석	이동은·박영준·강은정
11-06	국제 단기자본 규제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허 인·안지연·양다영
11-07(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1권)	박복영·박경로·양두용·전종규·윤덕룡·전봉걸·최경욱·서정민·김흥규·조홍식·이동은·강신욱·이강국·이재승·김한성
11-07(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방향(2권)	박복영·박경로·양두용·전종규·윤덕룡·전봉걸·최경욱·서정민·김흥규·조홍식·이동은·강신욱·이강국·이재승·김한성

11-08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종화·박영준·이형근·양다영
11-09	국제곡물가격의 변동성 요인분석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서진교·이준원·김한호
11-10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강유덕·이철원·이현진·오현정
11-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조미진·김영귀·박지현·강준하
11-12	개방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경쟁구조에 대한 연구	김영귀·박혜리·금혜윤
11-13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김영귀·강준구·김혁황·현혜정
11-14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장용준·서정민·김민성·양주영
11-15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김정곤·박순찬
11-16	APEC 경제통합과 원산지규정: 경제적 효과와 APEC의 협력과제	김상겸·박인원·박순찬·임경수
11-17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정지원·권 율·정지선·박수경·이주영
11-18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실태분석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11-19	한·중·일 서비스산업 직접투자 현황과 역내협력 활성화 방안	정형곤·윤미경·방호경·나승권
11-20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박월라·사덕호드·자에브 세르조드·나수엽·여지나·마 광
11-21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정형곤·김지연·이종운·홍익표
11-22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김태윤·이재호·정재완·백유진·강대창

발간자료 목록

11-23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박영호·전혜린·김성남·김민희
11-24	브라질 경제의 부상과 한·브라질 산업협력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고희채
11-25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조충제·최윤정·송영철
11-26	CIS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과 정책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이재영·사딕호드 자예브 세르조드·박순찬·황지영
11-27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승신·최필수·김부용·여지나·박민숙·임민경
11-28	인도 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조충제·최윤정·송영철·손승호
11-29	한국-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강대창·김규판·오윤아·이재호·신민금·Sivage Dharma Negara·Latif Adam
11-30	남미공동시장(MERCOSUR) 20년 평가와 시사점	김진오·권기수·고희채·박미숙·김형주
11-31	중동 노동시장 현황 및 우리의 대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한바란·윤서영·박광순
지역연구시리즈		
11-01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주진홍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1-01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조이제·이창재 편
11-02	2010 CRES Visting Scholar's Paper Series	김양희 편
11-03	중국의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정영록·서장생 공편저

11-04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채 욱·이장규·김부용 편
11-04(1)	중국경제발전방식적전변호구역경제 주세	채 욱·이장규·김부용 편
11-05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I: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조이제·이창재 편
2012		
APEC Study Series		
12-01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Cross Border Mergers in the APEC Region	윤미경
12-02	APEC'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da and the Evolu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Robert Scollay
Policy Analyses		
12-01	CHINA, WORLD ECONOMY AND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채 욱·양평섭 편
Working Papers		
12-0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oductivity: Theory and Evidence	장용준·현혜정
12-02	Multilateral Engagement in North Korea's Economic Rehabilitation and Possibl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이종운·장형수
12-03	A Theory of Economic Sanctions	한바란
12-04	Election Cycles and Stock Market Reaction: International Evidence	안지연·박철범
12-05	Korea's Monetary Policy Response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허 인

12-06	Real Frictions and Real Exchange Rate Dynamics: The Roles of Distribution Service and Transaction Cost	허 인·이인구
12-07	An Assessment of Inflation Targeting in a Quantitative Monetary Business Cycle Framework	조두연·이동은
계간		
12-01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6 No.1)	공동
12-02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6 No.2)	공동
12-03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6 No.3)	공동
12-04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6 No.4)	공동
기타 자료		
12-01	누가 협상 테이블을 지배하는가: 서울 G20 정상회의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논의를 통한 고찰	김용범·박정훈
12-02	제5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2-03	KOREA-INDIA DEEPENING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Parthasarathi Shome·안충영
12-04	2013년 세계경제전망	박복영 편
12-05	읽기 쉬운 中國圖解(China Watch)	KIEP
12-06	2012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무역투자연구시리즈		
12-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김혁황·강준구
12-02	세계무역기구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한국의 정책 대안	안덕근

12-03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이시영·김대영·전성희
연구자료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배찬권·금혜윤·김진오
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쿰을 중심으로	강대창
12-03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전략 연구	여지나·박민숙
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안충영·정성춘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윤덕룡·Charlotte Bue·Jean-Pierre Cling·Jean-Jacques Gabas·Camille Laporte·오용협·Chaponniere Jean Raphael·Mireille Razafindrakoto·Francois Roubaud·Michael H. Thiede
12-06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정지현·최필수·노수연·김홍원·오종혁
12-07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김부용·이상훈·임민경
12-08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상훈·김부용·박진희·여지나·이상희·임민경
12-09	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노수연·何喜有

발간자료 목록

12-10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정지현·박진희
12-11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호생·강인수·이시욱
12-12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 산업역량 구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김종일·윤미경
12-13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유재원·주상영·한홍렬
12-14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송유철·임정빈
12-15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채재은·우명숙
12-16	환경과 개발: ODA 정책 개선 과제	정지원·오탈현·송지혜
12-17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 논의 동향과 ODA 정책 시사점	정지원·강성진
12-18	ODA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곽성일·전혜린·김민희
12-19	한·인도 제약산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과 경쟁 전략	이 웅·송영철
12-20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오윤아·정재완·박나리
12-21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장준영
12-22	라오스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ODA 현황과 한국의 지원전략	이요한
12-23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조영관
12-24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정책과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주진홍
12-25	에티오피아의 중소기업 발전과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곽성일·전혜린·백석훈

12-26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확대방안	권기수·박미숙·이시은
12-27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이권형·손성현
12-28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이권형·박재은·박현도
12-29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 MICE, 의료관광을 중심으로	이재호·박나리
12-30	조지아의 주요 산업: 교통인프라·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민지영·강부균
12-31	멕시코의 주요 산업: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김진오·이시은
12-32	요르단의 주요 산업: 전력, 의료 산업을 중심으로	윤서영·박재은
12-33	모잠비크의 주요 산업: 전력산업, 농업을 중심으로	전혜린·장종문
12-34	논문집 I 인도·동남아시아	김병욱·김장훈·이한상·최호상·허인혜·김윤호·이명무·전인평·신진영·이한우·조흥국
12-35	논문집 II 중앙아시아	성동기·이영형·이지은·김영진·구자정·기계형·정세진·김상철·이채문·김원희
12-36	논문집 III 러시아·몽골	고재남·남혜현·한종만·방일권·문준일·박지원·이평래·최재희

12-37	논문집 IV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엄한진·이상환·김중관·윤근노·김광수·박지광·이충열·이선호·현영석·배경화·구경모·노용석·조성권·주미영
정책연구		
12-01	무역이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한진희
12-02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김준동·서진교·송백훈·안덕근
12-03	한국 기발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배찬권·김정곤·금혜윤·장용준
12-04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서진교·정 철·이준원·정윤선
12-05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김영귀·김종덕·강준구·김혁황
12-06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서정민·김민성·이재형
12-07	신기후변화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 새로운 감축-지원 통합 메커니즘의 모색	서정민·정지원·박혜리·조명환
12-08	국가 채무가 국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 인·안지연·양다영
12-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거시금융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이동은·편주현·양다영
12-10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윤덕룡·박은선·강삼모
12-11	대규모 외부충격(Disasters)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지연·이동은·박영준·강은정
12-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강유덕·김균태·오탈현·이철원·이현진

12-13	한·중·일 경제협력체 구상	이창재·방호경·나승권·이보람
12-14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권 율·정지원·정지선·이주영
12-15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12-16	중국 도시화의 시장 창출 효과와 리스크 분석	최필수·이상훈·문익준·나수엽
12-17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문익준·나수엽·여지나·박민숙·은종학
12-18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양평섭·이승신·문익준·여지나·노수연·정지현
12-19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 유치 확대방안	이재영·이성봉·Alexey Kuznetsov·민지영
12-20	한국의 메콩 지역개발 중장기 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김태윤·정재완·이재호·신민금·박나리
12-21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인력송출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오윤아·허재준·강대창·김유미·신민금
12-22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 웅·정혜원
12-23	안데스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12-24	중동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대중동 신경제협력방안 모색	한바란·최필수·윤서영·손성현·박재은·전혜린·이시욱
12-25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진출방안	박영호·곽성일·전혜린·장종문

12-26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정형곤·김병연·이 석
12-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박복영·김중혁·고희채·박경로
12-2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 모색과 시사점	정성춘·김규판·이형근·김은지·이우광
12-2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강유덕·오태현·이철원·이현진·채희율
12-30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강인수·한홍렬·이호생·송유철
12-31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이재영·제성훈·김홍진·간투무르 몽크나산
12-32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의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조영관·성원용·이상준·주진홍
12-33	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백준기·김재관·이남주·박상남
12-34	남아공의 토지문제 연구	장용규·황규득·설병수·강경화·베텔
12-35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이진상·변 웅
12-36	중남미 엘리트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현·박윤주·김영철·이상현
12-37	동남아시아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 율·김태윤·이재호·김유미
12-38	남아시아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조충제·최윤정·송영철
12-39	중남미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주영·이시은

12-40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박영호·곽성일·정지선·장중문·전혜린
12-41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윤덕룡·박복영·강유덕·권 율·강은정
12-42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김종섭·박명호·이영섭·김종범·박선희·정재원·이은석·김희연
12-43	중국의 인구고령화 대비 지역사회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책 실태분석과 상호협력방안	선우덕 외
12-44	중국의 전통의학-양의학 협진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윤강재 외
12-45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Ⅰ) -도시이주 농민공 가족을 중심으로-	김영란 외
12-46	한·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비교	윤철경 외
12-47	중국의 중장기 유아교육·보육 개혁 추진 현황 연구	이윤진 외
12-48	중국의 외국대학 유치정책 사례연구	구자역 외
12-49	중국의 초·중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손민정 외
12-50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 비교	배규식 외
12-51	한·중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동반발전 방안 연구	강일규 외
12-5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이재호 외
12-53	중국정부의 행정제도와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김윤권 외
12-54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형사정책 대응전략 연구	김한균 외

12-55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외국인투자, 기업, 노동 및 환경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문준조 외
12-56	중국 전력안보역량강화 관련 한·중 전력시장 협력 및 대중국 전력시장 진출방안	박용덕 외
12-57	중국 하천환경 관리 현황 분석 및 한·중 협력방안	강택구 외
12-58	중·중앙아시아 국제협력력을 활용한 중국 서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이주호 외
12-59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종원 외
12-60	중국 중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김천규 외
12-61	중국 축산업의 성장 특성 및 지역화정책 연구	전형진 외
12-62	중국 방송통신 규제체계 분석 및 전망	윤석원 외
12-63	201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 과제 요약집	KIEP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2-01	전환기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전략: 당면과제와 시사점	채 욱·노수연 편
12-01(1)	전형기 중국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 과제호계시(转型期中国沿海地区 经济发展战略:课题与启示) (중문판)	채 욱·노수연 편
12-02	2011 KIEP VISITING SCHOLARS' PAPER SERIES	이장규 편
12-03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김홍중·박성훈·Rudiger Frank 편
12-04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for Northeast Asia	조이제·이창재 편

2013		
APEC Study Series		
13-01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toward Green and Inclusive Growth in East Asian APEC Economies	전신영
13-02	Foste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Global Supply Chain: Capacity Build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APEC	남영숙
Working Papers		
13-01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Trade in Value Added	최낙균
13-02	Joining Pre-existence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mplications for India's Economic Integration to East Asia	서정민·김종덕
13-03	Regional Borders and Trade in Asia	이 웅·배찬권
13-04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이승래·선주연
13-05	Nonlinear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Private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조두연·이동은
13-06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FDI: Implication for India and East Asian Countries	조충제
13-07	European Affiliations or National Interests? Analyses of Voting Patterns on Trade Policy in European Parliament	강유덕
13-08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to Korea	오윤아·정지원

발간자료 목록

13-09	Gains from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Heterogeneous Countries: Implications for Korea-Japan FTA	홍지훈·오수현
기간		
13-01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7 No.1)	공동
13-02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7 No.2)	공동
13-03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7 No.3)	공동
13-04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7 No.4)	공동
기타 자료		
13-01	제6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3-02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KIEP·주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3-03	아랍에미리트연방 건국과 통합의 리더십	아랍에미리트연 구소 저,KIEP 역
연구자료		
13-01	APEC 환경상품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임경수·박혜리
13-02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최필수·조성찬
13-0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임민경·여지나
13-04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이종운·홍이경
13-05	한·중·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방호경·나승권·이보람
13-06	상하이 시 문화산업 현황과 시사점	노수연·곽주영

13-07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고희채·김종혁
13-08	중국 농촌 소비시장 특징과 진출 방안: 베이징 시 근교를 중심으로	김부용·오종혁
13-09	한·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 방안	정여천·박순찬·강부균
13-10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김흥종·정성춘·김태윤·곽성일·이형근·이현진
13-11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김지연·최필수·임민경·나승권
13-12	한·중·일 3국 IT 서비스 산업의 비교 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나승권·방호경·이보람
13-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김종덕·엄준현
13-14	인도네시아 공공공간협력제도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강대창·김유미
13-15	비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금융정책과 시사점: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	강대창·손성현·서영경
13-16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오윤아·신민금
13-17	중·ASEAN 분업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정재완·방호경
13-18	한·인도 수교 40주년: 교역 부문 성과와 과제	이 웅·송영철·이정미
13-19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조충제·최윤정
13-20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제성훈·민지영
13-21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제성훈·강부균
13-22	한·벨라루스 ICT 산업 협력방안	민지영

13-23	키르기스스탄 광산업 투자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주진홍
13-24	태평양 동맹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임태균·이시은
13-25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환경 ODA 공여정책과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전혜린
13-26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 이후 중·이란 관계 동향 및 시사점	최필수·임민경·박재은
13-27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문진영·김윤옥·이민영
13-28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김정곤·김은지
13-29	러시아의 주요 산업: 전력인프라, 의료서비스	민지영·강부균·오명훈
13-30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육상교통 인프라, 바이오에너지	이재호·신민금·정윤서
13-31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 교통 인프라, 통신	송영철·이정미·최원석
13-32	에콰도르의 주요 산업: 플랜트 건설, 자동차	김진오·박미숙·유성준
13-33	카타르의 주요 산업: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	이권형·손성현·장윤희·이용호
13-34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 인프라 건설, 제약	전혜린·장충문·류영규
13-35	폴란드의 주요 산업: 자동차, 인프라	이철원·이현진·강세나
13-3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장준영·신진영·홍재우·김형종·이요한·강희정·이순철·이지석·이명우·라운도
13-3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	주창환·장세화·현승수·정기웅·윤성학·김민수·조준래

13-3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앙아시아, 몽골	고재남·이지은·윤석상·윤지원·박지원·김상철·배경화·강명구·김경환·김용민
13-3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남미·중동·아프리카·터키	하상섭·임두빈·손태우·이성옥·구기연·손영광·임기대·서상현·김관수·권유경·이난아
13-40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권 율·이주영
13-41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정지선·오태현
13-42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곽성일·이주영
13-4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정지원·송지혜
13-44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미얀마 개발협력방향	오윤아·박나리
정책연구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낙균·김영귀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이동은·박영준·양다영·강은정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정 철·김봉근·전영준·이준원
13-04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윤덕룡·김수빈·강삼모
13-05	FTA의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김영귀·배찬권·금혜윤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서진교·오수현·박지현·김민성·이창수

발간자료 목록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이동은 강은정·편주현·안지연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이승래·강준구·김혁황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배찬권·선주연·김정곤·이주미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문진영·김보민·김윤옥·홍이경·이성희·이민영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지원·서정민·문진영·송지혜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정 철·박순찬·박인원·임경수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여천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원동욱·강승호·이흥규·김창도
13-15	러시아 극동 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성원용·이성규·오영일·P. Minakir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 방안	조동호·남영숙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양평섭·나수엽·남수중·이상훈·이혁구·유호림·장영석·조현준·최의현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문익준·정지현·나수엽·박현정·이효진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최필수·박영호·권기수·정재완·이효진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문익준·양다영·허 인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양평섭·정지현·노수연·김부용·박현정·임민경·오종혁·김홍원·박진희·이상희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 전략	김태윤·정재완·이재호·신민금·박나리·김유미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김규판·이형근·김은지·서영경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강유덕·오태현·이철원·이현진·김준엽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이 웅·송영철·조충제·최윤정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이권형·곽성일·박재은·송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박영호·김영기·장종문·전혜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 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임태균
13-29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연구	권 율·정지원·정지선·이주영·유애라
13-30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방안 연구: ICT 산업 중심으로	성한경·이상준·이순철·홍성걸
13-31	‘러시아-북한-중국 삼각관계’의 전략적 함의: ‘미국요인’과 한국에의 시사점	이정철·백준기·김재관·이남주
13-32	몽골 경제 발전 전략: CGE 분석 및 사례연구	이창수·송백훈
13-33	대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김승일·오화석·기현서

13-34	한·중동 금융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은행의 중동 금융시장 진출전략 및 기대효과	양오석
13-35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연구	박복영·이홍식·구정우
13-36	주요 선진공여국의 중점협력국 운용 및 관리체계 사례연구	김세원·김종섭·이영섭
13-37	베트남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채재은·우명숙
13-38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종일·윤미경
13-39	라오스 무역분야 개발협력방안	송유철·강인수·이호생
13-40	주요국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손혁상·안도경·박종희
13-41	중국의 중앙자원 관리 현황과 세계화 전략	윤강재 외
13-42	중국의 사회변동과 가족(II): 가정소비를 통해본 중국인의 가족생활	김영란 외
13-43	한국과 중국의 성평등 현황 및 여성의 복지·고용정책 비교연구	박수범 외
13-44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윤철경 외
13-45	중국의 ECEC 이용 및 운영 실태연구	이윤진 외
13-46	중국의 천인계획 연구	구자역 외
13-47	중국의 기업대학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강일규 외
13-48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문준조 외
13-49	중국 서부 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동남아시아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주호 외
13-50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김천규 외

13-51	중국 해외 석유가스 개발 추진현황과 한·중간 해외자원개발 협력전략	박용덕 외
13-52	중국 조선족 청년의 이주와 노동시장 진출 연구	배규식 외
13-53	對중국 정책의 범정부 협력네트워크 강화 방안	이재호 외
13-54	중국 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김윤권 외
13-55	중국 철도 발전에 따른 한중 협력 및 대응방안: 고속철도와 구제철도 발전을 중심으로	서종원 외
13-56	한·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강택구 외
13-57	중국 인터넷 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한중 협력방안 연구	김성옥 외
13-58	2013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참고자료		
13-0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KIEP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3-01	2012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이장규 편
2014		
APEC Study Series		
14-01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among the Asia Pacific Economies: Implications for APEC Cooperation	박영준
14-02	Promoting Innovative Develop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rough the Internet Economy	남상열

발간자료 목록

Working Papers		
14-01	Inequality and Growth: Nonlinear Evidence from Heterogeneous Panel Data	조두연·김보민·이동은
14-02	Inequality and Fiscal Policy Effectiveness	편주연·이동은
14-03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Competition: Evidence	한민수
14-04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Different Job-Matching Technologies across Regions in India: An Analysis of State-Level Disaggregate Matching Functions	이 웅
14-05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 in East Asia: Policy Proposal for Strengthening the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Pravin Krishna·최지영·임태훈
계간		
14-01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8 No.1)	공동
14-02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8 No.2)	공동
14-03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8 No.3)	공동
14-04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8 No.4)	공동
기타 자료		
14-01	2013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14-02	통일편의비용 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요약집)	KIEP
14-03	Cost-Benefit Analyses of Unific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of the Korean Peninsula(요약집)	KIEP
14-04	제7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4-05	2013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김흥중 편
연구자료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시(重慶), 청두시(成都), 시안시(西安)를 중심으로	오종혁·박현정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강준구
14-03	주요 기간산업 관련 WTO 보조금 분쟁연구	이효영·엄준현
14-04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박현정·이효진
14-05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나승권·홍이경
14-06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문진영·김윤옥·서현교
14-07	미국 하원의 통상정책 결정요인과 시사점	고희채·최호락
14-08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정지원·유애라
14-09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정지원·송지혜
14-10	인도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인도 협력확대 방안	조충제·송영철
14-11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인도 협력 방안: 방송·영화·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최윤정·이정미
14-12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 부진 요인 분석과 과제	권기수·박미숙
14-13	마그레브 지역의 ICT 산업 동향 및 시사점: 모로코·튀니지를 중심으로	이권형·장종문·손성현·성태응
14-14	논문집 I: 동남아, 터키·동유럽	김완중·김이재·김형중·박재봉·오진환·원순구·이요한·이지혁·홍석준·오은경

14-15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강명구·김상현·김용민·김홍진·라승도·어건주·염동호·김재용·윤석상·이영형·장세호·정기웅·정은미·주장환
14-16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중남미	김경학·김윤호·윤주희·모이누딘·아흐메드·이순철·김석수·김한호·윤희상·임기대·이승용·하상섭
정책연구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정형곤·김병연·이재완·방호경·홍이경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조종화·이동은·양다영·김수빈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임태훈·이동은·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윤덕룡·김수빈·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김영귀·금혜윤·유새별·김양희·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서진교·김민성·송백훈·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김종덕·강준구·이주미·엄준현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승래·김혁황·박지현·이준원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선주연·이승래·박혜리·엄준현

14-10	해외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문진영·김윤옥·이성희·이민영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전략과 시사점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원·권 율·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김규판·이형근·김은지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이장규·최필수·나수엽·이효진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김부용·이형근·박진희·김홍원·최지원
14-16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오윤아·이 웅·신민금·박나리·김유미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곽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이 웅·조충제·송영철·최윤정·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김보민·한민수·고희채·김종혁·이성희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강유덕·오태현·이철원·이현진·김준엽

발간자료 목록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민지영·강부균·세르게이 루코닌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이권형·손성현·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 방안	박영호·김예진·장중문·권유경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마커스 놀랜드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진징이·진창이·삐야오인쩌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후카오 교지·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알렉산더 제빈·스베틀라나 수슬리나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성한경
14-31	점진적 통일로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방안	강문성·김형주·박순찬·이만중·이영훈·이중호·이홍식·편주현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전재성·김성배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최보영·선주연·방호경·나승권·이보람·최유정
14-34	중국 방문요양서비스(Home-help service)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북경지역을 중심으로	선우덕·김태완·김병철·양입웅·양찬미
14-35	조선족여성의 경제활동실태와 인력활용방안	김원홍·박수범·김인순·김은주·김철수·김화선·이상원

14-36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중독예방 및 치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이창호·윤철경·최금해·김옥태
14-37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양육가치관 연구	최윤경·장혜진·민정원·배윤진·송신영
14-38	중국의 외국유학생 유치정책 및 사례연구: 대학을 중심으로	구자억·김숙이·김한나·이경자·전춘련·계근호·김주석·서소주·서희원
14-39	중국 양안간 인적자원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성과 연구	강일규·허영준·김유미·이윤진·이천우
14-40	한·중 경험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김명아·박광동·김윤정·최지연·고재중·박용민·양병찬·오일환·이창영·김정진·윤성혜·서련룡
14-41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 연구	김천규·김원배·박인성·조 철·이주호·김 흠·이건민
14-42	중국 동북부물류시장 진출전략 수립: 중국-북한과의 국제협력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박여진
14-43	중국 가스산업의 발전 현황과 대중국 가스산업 진출전략	박용덕·석주현·이성규
14-44	중국의 곡물산업 동향과 한·중 식량안보 협력방안	정정길·성명환·손은애·장난
14-45	2014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14-46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강인수·이호생·송유철

14-47	볼리비아의 국가협력전략(CPS) 이행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김세원·김종섭·이은석
14-48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종일·김정민·강동근
14-49	라오스의 교육분야 개발협력 방안	채재은·김철우
14-50	미얀마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권순만·김태현
14-51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이창수·송백훈
14-52	동남아시아의 금융시장 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분석: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이민환·김정렬
14-53	남미인프라통합구상(IIRSA)의 추진 현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상현·박윤주·김종섭·이미정·임태균·강정원·김유경·최명호
14-54	중부 유럽 4개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경쟁력 분석	김면희·안상욱·김신규·김일곤·송병준
14-55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	한홍렬·박정호·윤성욱·조혜경
14-56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박상남·김선탁·이지은·박상준
14-57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김석환·나희승·박영민
지역연구시리즈		
14-01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강유덕
14-0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오태현·김준엽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4-01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A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	조이제·이창재 편
14-02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중협력 방안	정지현·김홍원 편
14-02(1)	中国区域经济的结构变化与中韩合作	정지현·김홍원 편
14-03	중국의 지역별 환경 변화와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방안	노수연·이한나 공편
14-03(1)	当前中国区域投资环境变化及韩国中小企业的发展机遇研究	노수연·이한나 공편
14-04	Financing Economic Integr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for Northeast Asia: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조이제·이창재 편
2015		
APEC Study Series		
15-01	WTO Discussion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남상열
15-02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of SMEs' Financing in the Asia-Pacific: Lessons from the EU	서은숙
Policy Analyses		
15-01	Why Did Korean Domestic Demand Slow Down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황운중·문성만·안태현·김수빈·김준엽
Working Papers		
15-01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	김세직

발간자료 목록

15-02	The Distribution of Optimal Liquidit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ty	표학길·송새람
15-03	Estimating regional matching efficiency in the Indian labor market: state-level panel data for 1999–2013	이 웅
계간		
15-01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9 No.1)	공동
15-02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9 No.2)	공동
15-03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9 No.3)	공동
15-04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19 No.4)	공동
기타 자료		
15-01	2014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15-02	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5-03	2014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정형곤 편
15-04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 G20을 통한 우리의 역할	이일형 외
15-05	제8회 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5-06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이재영·곽성일· 이철원·민지영· 제성훈· P. Kadochnikov· E. Gherman· E. Rogatnykh· A. Knobel· T. Aliev· A. Sokolyanskaya

연구자료		
15-01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정지현·김부용
15-02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 선군경제노선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임수호·최유정· 홍석기
15-03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US Monetary Policy on China's Capital market stability and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GANG Jianhua· QIAN Zongxin· ZHANG Chao· ZHANG Jiarui
15-04	이스라엘의 기술창업 지원정책과 한·스라엘 협력 확대방안	이권형·손석현· 장윤희
15-05	인도 경상수지 적자의 장단기 요인과 시사점	이 웅
15-06	남아시아 국가 간 주요 경제지표 연관성과 시사점	이 웅·이정미
15-0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강명구·박준호· 김석수·김태기· 김태윤·이재원· 김형중·나희량· 서운석·신재혁· 허인혜·이상환· 장준영·전홍민· 이지윤·왕봉
15-0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고상두·김선래· 김애경·박병인· 서종원·이옥남· 손현익·윤익중· 이성우·전동준· 조정원·조준래· 한종만·황영삼
15-09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인도·남아시아, 중남미	박정석·박태정· 신진영·이지석· 장용준·최정욱· Gouranga Gopal Das· 김순정· 윤희상·최금좌

15-10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V: 중동, 아프리카, 터키·동유럽	성일광·엄한진· 유흥태·권유경· 김병욱·김수원· 이진상·김경필· 강현철·김신규· 김종일·윤석준· 장태석
15-11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권 울·이상미· 유애라
15-12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 조달 현황과 시사점	문진영·송지혜· 이서진
정책연구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호열·최장호· 방호경·임소정· 김준영·주선평· 진화림·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강태수·임태훈· 서현덕·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혜린·한민수· 황운중·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서봉교· 임태훈·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시사점	최낙균·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종덕·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 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배찬권·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이승래·강준구· 김혁황·박지현· 이준원·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수연·오종혁· 박진희·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 평가	이장규·김부용· 최필수·나수엽· 김영선·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정지현·김홍원· 이승은·최지원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최보영·방호경· 이보람·유새별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김준영· 임소정·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김규판·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조충제·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정지원·권 울· 문진영·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곽성일·이창수· 정재완·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김정곤·나승권· 장종문·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오윤아·나희량· 이재호·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박영호·정지선· 박현주·김예진
15-21	저성장 시대의 고용 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강유덕·이철원· 오태현·이현진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사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 박미숙·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윤여준·이 웅· 권혁주·문성만

발간자료 목록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이권형·손성현·박재은·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제성훈·강부균·민지영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서은숙·빈기범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분석	김한성·이홍식·강문성·송백훈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이순철·김완중
15-29	중남미 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이미정·조희문·권정인·김혜민
15-30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한홍렬·윤성욱·변현섭·박지원
15-31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정경원·조구호·신정환·김원호·문남권·정기웅·하상섭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원동욱·성원웅·김재관·백준기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전략	박복영·김용복·박철형·Shaimaa Hussien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윤택동·이성준·이재훈
15-35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 및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황규득·장용규·서상현·허서희·육숙희·최두영
15-36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임호열·김영찬·방호경·김준영·최필수
15-37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 방안	양문수·이석기·김석진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자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장형수·박해식·박춘원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데이빗 달러
15-39-01	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데이빗 달러
15-40	중·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	찐저·쉬원지·위즈싼
15-40-01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DPRK and the possibility of DPRK's economic development	찐저·쉬원지·위즈싼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
15-41-01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he Role of Japan	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	바실리 미헤예브·비탈리 쉬비드코
15-42-01	Main Features and Problems of Russian Economic Transition Process: Political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North Korea	바실리 미헤예브·비탈리 쉬비드코
15-43	탄자니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세원·김종섭·박복영·이은석
15-44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강인수·장준영·Daw Cho Thein
15-45	A Study on Intra-household Gender Relations of Ethnic Minority in Northern Vietnam	Nguyen Khanh Doanh·Tran Nhuan Kien·Do Dinh Long·Bui Thi Minh Hang·Nguyen Thi Thanh Huyen
15-46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 수립 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김영란·김이선·김난주·강승호·이철선·황경진

15-47	중국 유아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 제도와 실태 연구	문무경·양미선·이윤진·박원순·Jiaxiong Zhu·Minyi Li
15-48	한중 고등직업교육기관간 산업인력 공동 양성 및 활용 방안	강일규·허영준·민주홍·이윤진·이천우
15-49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활용방안 : 항만분야를 중심으로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근섭·김은수
15-50	신기후체제에 따른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	박용덕·정성삼·최영선
15-51	한·중 환경사고 대응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추장민·박창석·서양원·정성운·董战峰
15-52	중국의 농산물 수급구조 변화와 대한민국 수출 확대 가능성 분석	정정길·어명근·임채환·李先德
15-53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경제협력	이장규·이승신·서봉교·조 철·조고운·이현태·오종혁·양평섭·박진희·정지현·오윤미
15-54	2015년도 협동연구사업 중국종합연구 총서 요약집	김영란·문무경·강일규·이주호·박용덕·추장민·정정길
지역연구시리즈		
15-01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이재승·오창룡·김유정·김새미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5-01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Charles E. Morriso·Marcus Noland 편

15-02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조이제·이창재 편
2016		
APEC Study Series		
16-01	Paths and Strategies towards the FTAAP: Linking Integration and Inclusive Growth	최병일
16-02	The Economic Effects of Labor Force Enhancement in the Asia-Pacific Region by Trade Liberalization	성한경
Policy Analyses		
16-01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The Cases of Special Economic Zones and Business Hubs	정형곤·Douglas Zhihua ZENG 편
16-02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한민수·김수빈·이진희
Working Papers		
16-01	Access to Credit and Quality of Education in Vietnam	허윤선
16-02	A Short-term Export Forecasting Model using Input-Output Table	표학길·오수현
16-03	A Predic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Trade Growth	천소라
16-04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s Export to China	신꽃비·최보영
16-05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Surprises	김경훈
16-06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FDI: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최혜린
16-07	To Whom does Outward FDI Give Jobs?	강영호·황운중

발간자료 목록

16-08	The Effe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Plants: Market Average Rate Regime vs Free Floating	최보영·편주현
16-09	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Added in Exports: the Role of Offshoring and Transaction Costs	최낙균·박순찬
16-10	Government Spending Policy Uncertainty and Economic Activity: U.S. Time Series Evidence	김원기
16-11	A New Measure of Inter-industry Distance and Its Application to the U.S. Regional Growth	윤여준·황운중
16-12	China's Development Finance to Asia: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오윤아
16-13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t Measures or Trade Remedies?	최낙균
16-14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Welfare in Korea	김영귀·표학길
16-15	What Explains Current Account Surplus in Korea?	한치록·신관호
계간		
16-01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20 No.1)	공동
16-02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0, No.2)	공동
16-03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0, No.3)	공동
16-0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0, No.4)	공동
기타 자료		
16-01	2015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16-02	하바나현장의 이해	박덕영·이영희
16-03	제2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6-04	2015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KIEP
연구자료		
16-01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김주권
16-02	주요국의 대(對)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이재호
16-03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엄준현·손성현·권가원
16-04	Mega FTA 대응전략 연구: TBT 협정을 중심으로	유새별
16-05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박정호·성원용·강부균
16-06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 추정	임수호·김준영·홍석기
16-07	원화 국제화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방안	이장영
16-08	WTO SPS 분쟁사례 연구	강민지
16-09	동북아 초국경 인프라 개발과 자원조달: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최장호·이보람·김준영·张慧智·朴英爱·王箫轲
16-10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이형근
16-11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구축을 중심으로	김종덕·최보영·엄준현·정민철
16-12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 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이정균·김준영·임소정·안국산·미무라 미쓰히로
16-13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오종혁·박진희·김홍원
16-14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유덕·임유진

16-15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이철원·이현진·임유진
16-1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 동남아시아, 인도·남아시아	김이재·김태윤·고석현·전선애·오승곤·고주현·Moinuddin Ahmed·김우성·배경화·이명무·전광호
16-1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 러시아·유라시아, 터키·동유럽	Korgun I.·Sutyryn S.·박정후·변현섭·오영일·이경완·이종수·이재문·조영관·김신규·윤석준
16-18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김순성·김용재·임상수·하상섭·김윤호·김현희·신상윤·안승훈·오창룡·유흥태
16-19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tion)	Pankaj Jha·Ricardo Pagliuso Regatieri·Uallace Moreira Lima·Christopher Mark Davis·Evgeny Kanaev·Sokolov Alexander Vladimirovich·Nigora Talipova·Ganieva Gulnora·Mahmut Tekce·Selcuk Colakoglu
정책연구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이승신·이현태·나수엽·조고운·오윤미·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훈·최혜린·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윤덕룡·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이효영·박지현·이준원·김도희
16-05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조문희·엄준현·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박혜리·금혜윤·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임수호·이효영·최장호·최유정·최지영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최장호·임수호·이정균·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임호열·이현태·김홍원·김준영·오윤미·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김규판·이형근·김승현·이정은
16-11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곽성일·정재완·김제국·신민이·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 웅·배찬권·이정미·신세린·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권 율·정지원·허윤선·정지선·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문진영·정지원·송지혜·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노수연

발간자료 목록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김원기·윤여준·김종혁·권혁주·천소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흥종·김영귀·한민수·김종덕·조문희·임유진·고영노·천창민·최순영·홍성욱·민성환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김흥종·이철원·이현진·양효은·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박정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권가원·예브게니 훔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권형·손성현·장운희·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박영호·방호경·정재완·김예진·이보안
16-23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임수호·최장호·민준규·이상민·최유정
16-24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김영찬·김범한·홍석기·박현석
16-25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	김진수·황규성·Christina Hießl
16-26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박철수·조봉현·정일영

16-27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16-27-01	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 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	Nicholas Eberstadt
16-28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北朝鮮の貿易自由化が日本経済にGVCを通じて与える効果分析	이누이 토모히코·권혁욱
16-28-01	北朝鮮の貿易自由化が日本経済にGVCを通じて与える効果分析/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Tomohiko Inui·권혁욱
16-29	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Росси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реей в контексте меняющихся стоимостных цепочек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세르게이 루코닌
16-29-01	Росси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реей в контексте меняющихся стоимостных цепочек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	Sergey Lukonin

16-30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나희승·최필수·Lkhagvadorj DOLGORMAA
16-31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도시장 진출방안 연구	정학범·김범수·정원혁·강재호·정기수·홍성원·최민규·김영근
16-32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 웅·이정미·김신주·장용준
16-33	신흥 경제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불확실성 연구	양오석·서민교·양민지
16-34	신중견국 이란의 대외관계의 구조적 메커니즘과 경제발전전략	백준기·김태형·류덕현·윤성욱
16-35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박윤주·김유경·김종섭·서지현·손해현·이미정·이상현·임태균
16-36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Deborah Kay Elms
16-37	Regional Inter-dependence and Vietnam-Korea Economic Relationship	Tran Toan Thang·Nguyen Dinh Cung·Dang Quang Vinh·Dang Thi Thu Hoai·Truong Minh Huy·Vu·Thai Thu Phuong·Hoang Thi Hai·Yen·Tran Thi Thu Ha·Pham Viet Tuan
16-38	The Future of Korea's Trade and Business Portfolio in North Africa: A Deep Horizon Political Economy Scan of Algeria, Morocco and Tunisia	Mark Abdollahian·Jaehoon Lee·Zining Yang·Khaled Eid
16-39	결번	
16-40	중국과 대만의 중의학(中醫學)·서의학(西醫學) 관계 설정 현황과 시사점: 인력양성과 보장성을 중심으로	윤강재·강아람·김동수·권수현·안보령·楊建海

16-41	13·5규획시기 중국 제조업 고용관계의 변화	조성재·오선정·정선욱·윤종석·이준구·왕칸·루오스치·멍첸
16-42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이주호·김범중·김찬호·김은수·장현미·이주원·왕뉘·류자이민·양빈·왕장충·중민
16-43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이현주·이백진·어은주·김원배·송쿠이
16-44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중국의 에너지효율 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박용덕·정성삼·최영선
16-45	농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 분야의 한중 협력방안 연구: 중국의 일대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어명근·정정길·전창곤·지성태·임채환·한이천
16-46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이동오염원 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공성용·이승민·정성운·董戰峰·QU Aiyu·HAO Chunxu·ZHOU Quan·LI Hongxiang
16-47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이장규·양평섭·이현태·오종혁·조고운·김시중·김부용·김권식·문익준·이창수·정영록
16-48	2016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KIEP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6-01	Consensu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조이제·이창재 편

발간자료 목록

16-02	2015 Trans-Pacific Intellectual Dialogue	정 철·Charles E. Morrison·Mark Thoma 편
2017		
APEC Study Series		
17-01	Consumer Goods Market Integration among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Member Economies: A PPP-Based Analysis	문성만
17-02	SME Technological Progress and Cooperation in Chinese Taipei: Implications to Selected APEC Economies	이진상·김아미
ODA정책연구		
17-01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세원·안동환·김태윤
17-02	우즈베키스탄의 직업교육훈련 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세원·이호생·최영렬
17-03	캄보디아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은경·오은진·김영택·김복태·김혜영·조영숙·심예리
17-04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지원·송지혜·이상미·오혜경·명수정
Policy Analyses		
17-01	Economic Challenges for Korea : Mega-Trends and Scenario Analyses	Danny Leipziger·Carl J. Dahlman·Shahid Yusuf
Working Papers		
17-01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the Revision of the Company Act in India	이 웅

17-02	Investment Puzzle : Deeper Roots	김수진
17-03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이수영
17-04	The Effect of Resturcturing on Labor Reallocation and Productivity Growth: An Estimation for Korea	최혜린·정성춘·김수빈
17-05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정재욱
17-06	Ecommerc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Korea	이규엽
17-07	Empirical Assessment of Trade Engagements: Africa, China and the Maritime Belt and Road Initiative	Igbinoba Emmanuel
17-08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윤여준·이 웅
계간		
17-01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1, No.1)	공동
17-02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1, No.2)	공동
17-03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1, No.3)	공동
17-0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1, No.4)	공동
기타 자료		
17-01	2016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17-02	2016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KIEP
17-03	제3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KIEP
17-04	2017 KIEP Visiting Fellowship Program	KIEP

연구자료		
17-01	Towards Deeper Integ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최보영·이서영
17-02	APEC 경제통합 논의와 정책시사점	김상겸
17-03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김종덕·최보영·조문희·정민철
17-04	한국과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협력과 향후 발전방안	임수호·김준영·박종상·안국산·박일봉
17-05	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오윤아·신민아·김미림·이신애
17-06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양효은
17-07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엄준현
17-08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라미령
17-09	13·5 계획 시기 한국의 중국 동북지역 경제협력 과제와 전략	이현태·이상훈·김준영·윤규섭
17-10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나승권·김은미·최은혜
17-11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문진영·김은미·최은혜
17-12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산동성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이상훈·김주혜
17-13	Economic Transition in the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정형곤·Gerhard HEIMPOLD 편
전략지역심층연구		
17-0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이재영·이철원·민지영
17-02	중앙아시아 개발과제와 한·중앙아 신흥력 방향	박정호·강부균·윤지현

17-03	아프리카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정재욱·이보안
17-04	인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M&A를 중심으로	송영철
17-05	인도의 도시화와 한·인도 협력방안	조충제·이순철·이정미
17-06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철원·이현진
17-07	이란의 정치·경제 동향과 산업협력 확대방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
17-08	Studies in Comprehensive Regional Strategies-Collected Papers (International Edition)	Christopher Hugh Onyango-Prabir De-Mohammad Masudur Rahman·Gerardo Castillo Ramos·Joseph A. Kéchichian·Tu Xinquan·Yingxin Du·Evgeny Kanaev·Le Quoc Phuong
정책연구		
17-01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정형곤·방호경·이보람·백종훈
17-02	중동지역의 전력산업 정책과 국내기업 진출 확대방안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
17-03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평가와 한국의 대응방안	이승신·이현태·현상백·나수엽·김영선·조고운·오윤미
17-04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 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곽성일·정재완·김제국·신민아
17-05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김상겸·박순찬·강민지

발간자료 목록

17-06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최장호·임수호·이석기·최유정·임소정
17-07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김규판·이형근·김종혁·권혁주
17-08	세계무역 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강준구·이홍식·한치록
17-09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윤덕룡·김효상
17-10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환경 변화와 한·MERCOSUR 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권기수·김진오·박미숙·김효은
17-11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김경훈·김소영·양다영·강은정
17-12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정 철·박순찬·박인원·김민성·곽소영·정민철
17-13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박영호·정재욱·김예진
17-14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윤여준·김종혁·권혁주·김원기
17-15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산업협력 증진방안	박정호·염동호·강부균·민지영·윤지현
17-16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허윤선·정지선·이주영·유애라·윤상철·이종욱
17-17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이 웅·배찬권·이정미
17-18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황운중·이수영·김혁황·강영호
17-19	디지털 상거래가 무역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규엽·배찬권·이수영·박지현·유새별

17-20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임수호·양문수·이정균
17-21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지현·이상훈·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최재희
17-22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김영귀·남시훈·금혜윤·김낙년
17-23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현태·최장호·최혜린·김영선·오윤미·이준구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 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조문화·김종덕·박혜리·정민철
17-2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김규판·이형근·이정은·김제국
17-26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조충제·정재완·송영철·오종혁
17-27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안성배·김기환·김수빈·이진희·한민수
17-28	브렉시트 이후 EU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조동희·이철원·오탈현·이현진·임유진
17-29	한·중·일의 서비스무역규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최보영·이보람·이서영·백종훈·방호경
17-30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지역별 분석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한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17-3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문진영·한민수·송지혜·김은미

17-32	투자주도 성장정책의 이론과 정책의 국제비교	표학길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01	젠더 관점에서 한·중 여성 건강상태 비교 및 보건정책 개선 방안	김영택·김동식·김근태·김인순·천재영·동제연·주영수·차지영·김화선·권해선
17-02	중국의 출산·육아정책 및 실태 분석: 북경,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최은영·문무경·이윤진·양미선·엄지원·Minyi Li·박금해
17-03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배상률·이경상·이창호·고은혜·이재희
17-04	중국의 사회조직에 관한 연구	김윤권·윤종설·李秀峰·李国峰·지규원
17-05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 협력방안 연구: 훈춘 일대를 중심으로	이현주·어은주·김원배·이종림
17-06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서종원·양하은·최성원·장동명·안국산
17-07	한중 권역별 대기오염 저감 정책 비교 및 협력방안 연구 - 고정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심으로	추장민·강광규·주현수·정성운·DONG Zhanfeng·QU Aiyu·ZHOU Quan·WU Qiong·LI Hongxiang
17-08	2017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1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최장호·김범환
17-02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홍순직·이석기·조봉현·이윤식·정일영
17-03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이상제·박해식
17-04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박성훈·한홍렬·송유철·강문성·송백훈
17-05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규엽·조문희·강준구·박혜리·엄준현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7-01	Sustaining the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조이제·정형곤 편
2018		
ODA정책연구		
18-01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전진아·황남희·고제이·이난희·한솔희
18-02	미얀마의 농림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김태윤·박미선·안동환·전병균·김나리
18-03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정지원·윤미경·송지혜·유애라·오혜경
Policy Analyses		
18-01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rea	김흥종·Françoise B. NICOLAS 편

발간자료 목록

Working Papers		
18-01	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Le Quoc Phuong
18-02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정재욱·김경훈
18-03	Exchange Rates and Firm Exports: The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Subsidiaries	최혜린·김효상
18-04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이규엽
18-05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Kodirjon Maxamadaminovich Umarkulov
18-06	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최낙균·박순찬
18-07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구경현·황운중
18-08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Dakshina G. De Silva·이순철·Robert P. McComb·Maurizio Zanardi
계간		
18-01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1)	공동
18-02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2)	공동
18-03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3)	공동
18-0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2, No.4)	공동
기타 자료		
18-01	2017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18-02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	이희욱·김도경·서정경·양갑웅·양 철·천 천·하남석
18-03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러 3각협력	이재영·박정호·김석환·강부균·김초롱·바실리 미헤예프·파벨 미나키르·세르게이 카라가 노프·나탈리아 김
18-04	South Korea–North Korea–Russia Trilater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재영 편
18-05	AI–Powered Intelligent Autom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Implications for Service Jobs in APEC Economies	방민석·이관후
18-06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주장환·유은하·김수한·조형진
연구자료		
18-01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라미령·신민금·신민이
18-02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최장호·최유정
18-03	중·미 간 경상수지 불균형과 위안화 환율의 관계	신꽃비·나수엽·박민숙
18-04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태·서봉교·조고운
18-05	중·EU 통상협안 분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철원·나수엽·임유진
18-06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성과: 사업재편을 중심으로	김규판
18-07	특허자료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지식 확산 경로 분석 연구	이지홍

18-08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정형곤·Gerhard Heimpold 편
18-09	KNOWLEDGE ECONOMY PYRAMID: Transforming Knowledge Value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ctavian SERBAN
전략지역심층연구		
18-01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교역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정재욱·김예진
18-02	아세안 산업분석: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오윤아·이충열
정책연구		
18-01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	정영식·김경훈·김효상·양다영·강은정
18-02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이수영·최혜린·김혁황·박민숙·남시훈
18-03	디지털혁신의 국제비교와 시나리오별 무역영향 분석	최낙균·이규엽·김혁황·장윤중
18-04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자본유출입 안정화방안	강태수·김경훈·서현덕·강은정
18-05	ASEAN 지역의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기업의 진출 방안	곽성일·정재완·이재호·김제국·김미림
18-06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윤덕룡·김소영·이진희
18-07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문진영·나승권·이성희·김은미
18-08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조동희·김종혁·김흥중·문성만·윤여준·임유진

18-09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정지원·정지선·이주영·유애라
18-10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
18-11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경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박영호·정재욱·김예진
18-12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정형곤·김병연·이석·조남훈·이정균·김범환
18-13	푸틴 집권 4기 극동개발정책과 한·러 신경제협력 방향	박정호·강부균·민지영·세르게이 루코닌·올가 쿠즈네초바
18-14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최유정·임소정·이효영
18-15	한국의 대인도 수출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	조충제·송영철·이정미·윤지현
18-16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현상백·박민숙·박진희·조고운·김부용
18-17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배찬권·엄준현·정민철·이장완
18-18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이규엽·조문희·강준구·강민지
18-19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김규판·이현태·오윤미·김승현·이정은
18-20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서진교·김종덕·박지현·김민성·안덕근
18-21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혁신 파급효과와 블록체인기술 발전의 시사점	안성배·김효상·신꽃비·장희수·김지수
18-22	금융불안지수 개발과 금융불안요인 변화 분석	정영식·최혜린·양다영·강은정·고덕기

발간자료 목록

18-23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라미령·정재완· 신민금·신민이· 김제국
18-24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문희·김영귀· 구경현·박혜리· 금혜윤
18-25	한국의 대(對)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최보영·이수영· 이형근·이보람· 이정은
18-26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이상훈·김홍원· 김주혜·최재희
18-27	EU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명현·한홍열· 주상영·정준호· Martin Falk
18-28	EU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김홍중·오탈현· 이현진
18-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럽 주요국의 성공사례 연구	박성훈·안세화· 정세원·김다현· 김근효
18-30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	남수중·왕윤중· 박순찬·박승찬· 조정원·김정인· 최종석·오대원· 유정원
18-31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18-32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01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배상률·이경상· 임지연·이민정
18-02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연구	김영란·조선주· 배호중· Ma ChunHua· Zhang LiPing

18-03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정책과 교류 협력 방안	강일규·허영준· 한애리·이윤진· 이천우
18-04	중국 반부패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김윤권·윤종설· 지규원·이수봉· 이국봉·백계화
18-05	동북아(남·북·중·러) 철도 관광벨트 구축방향 연구 - 중국 동북지역의 초국경 관광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종원·양하은· 최성원·한은영· 장동명·안국산
18-06	중국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과 상생협력모델 연구	정정길·지성태· 유찬희·임채환· 한이천
18-07	한·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비교 및 협력방안	김호석·임혜숙· 김중호·이지예· Dong Zhanfeng
18-08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양평섭·나수엽· 박민숙·이하나· 조고운·오윤미
18-09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양평섭·박영호· 이철원·정재완· 김진오·나수엽· 이효진·조영관
18-10	2018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8-01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김상겸·박순찬· 박인원·오수현
18-02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이홍식·강문성· 김한성·송백훈· 이창수
18-03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이한영·차성민

행사 결과보고 / 세미나자료		
18-01	Momentum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Emerging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조이제·정형곤 편
2019		
Working Papers		
19-01	Push vs. Pull Factors of Capital Flows Revisited: A Cross-country Analysis	강태수·김경훈
19-02	Deeper Regional Integration and Global Value Chains	최낙균
19-03	Repercussions of Negatively Selective Migration for the Behavior of Non-migrants when Preferences are Social	Oded Stark and Wiktor Budzinski
19-04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and Guarantees on Export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for Korea	김경훈·최혜린
19-05	New Delhi's 'Act East' and the India-ASEAN Engagement: What They Mean for India-Korea Relations in the Indo-Pacific	Jagannath P. Panda
19-06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김상겸·박순찬
19-07	Stakeholders' Interest Relations in Korea's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김준동
계간		
19-01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3, No.1)	공동
19-02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3, No.2)	공동
19-03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3, No.3)	공동

19-04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3, No.4)	공동
기타 자료		
19-01	2018 KIEP 정책연구 브리핑	KIEP
연구자료		
19-01	일본 임금정책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성춘·권혁욱
19-02	How to Position South Korea in a Dramatically Changing World	Danny Leipziger and Carl Dahlman
19-03	2000년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 요인 분석과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정민현·민지영
19-04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한 한·중·일 산업구조 분석 및 시사점	이보람·손원주
19-05	외화예금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강태수·김경훈· 양다영
19-06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최창호·최유정· 김범환·김미림
정책연구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김경훈·김원기
19-02	남·북·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이현태·최유정· 최재희·김태만· 림금숙·백지운· 서봉교·안국산· 원동욱·이왕휘· 이현우·이현주· 최필수
APEC Study Series		
19-01	Asia-Pacific Stock Market Connectedness: A Network Approach	YOUNG-JOON PARK

포상 수상자 명단

가. 업무유공 대외기관 포상

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1991	이계은	회계과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박영환	총무과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안태경	자료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1992	김도경	총무과	새생활·새질서	대통령
	김학수	북방경제실	북방경제정책 업무유공	대통령
	임병철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오창배	총무과	보안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이창재	북방경제실	북방경제정책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1993	김남두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기획원 장관
1995	단 체	지역정보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조현준	지역1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권재중	통상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노재봉	APEC연구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문송원	총무과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1996	장광희	총무과	보안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채 욱	무역투자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한정철	구주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유종희	APEC연구센터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1997	이계은	기획예산과	국회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김박수	세계경제실	업무유공	재정경제원 장관 (부총리)
1998	왕윤종	세계경제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신은자	정보자료실 (전산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1999	이창재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조명철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김준동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정인교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외교통상부 장관
2000	노재봉	경영기획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노재봉	경영기획실	업무유공	외교통상부 장관
	안형도	APEC연구 컨소시엄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2001	서창배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기획예산처 장관
	이장규	동북아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안형도	APEC연구 컨소시엄	업무유공	외교부 장관
2003	이창재	동북아경제 협력센터	업무유공	대통령
2004	김박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대통령
2005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실장
	김정운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06	임영숙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강경미	지식정보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이홍배	일본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이준규	미주팀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오형범	유럽팀	업무유공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위원회
	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정형곤	통일국제협력팀	업무유공	통일부 장관
	김권식	국제거시팀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실장
2007	김윤실	홍보팀	업무유공	문화관광부

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임혜준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윤창인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환경부 장관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재정경제부 장관
	채 욱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모란장(훈장)
	조명철	통일국제협력팀	업무유공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함승임	연구조정실 총무팀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08	최현주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동북아경제협력팀
	금혜윤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FTA대책본부파견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권 욱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업무유공	환경부 장관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
2009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업무유공	환경부장관
	심재호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10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국무총리실 실장
	성한경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박영준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대통령
	지만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업무유공	국무총리

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김혜정	지식정보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김정아	무역투자정책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11	정다송	지역연구협력팀	업무유공	국무총리실 실장
	권율	개발협력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2012	이혜정	전산팀	업무유공	고용노동부장관
	김수정	총무인사팀	업무유공	서울지방 병무청장상
	양평섭	북경사무소	업무유공	대통령
	김혜정	전산팀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최낙균	지역통상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2013	서진교	다자통상팀	업무유공	관세청장상
	이장규	전략연구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문진영	전략연구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유혜신	기획예산팀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김홍중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김영귀	지역통상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2014	이승신	아시아태평양실	업무유공	대통령
	김규판	아시아태평양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배찬권	무역통상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함승임	기획조정실	업무유공	국무조정실 실장
2015	임수호	동북아경제실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정성욱	기획조정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포상 수상자 명단

나. 원내평가 우수보고서 포상

연도	성명	소속	내용	비고
2017	최낙균	무역통상본부	업무유공	기획재정부장관
	박영환	기획조정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이승권	지식정보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2018	정여천	신남방경제실	업무유공	포장
	김영귀	무역통상실	업무유공	국무총리
	최낙균	무역통상실	업무유공	산업포장
	정 철	원장실	업무유공	부총리
	곽성일	신남방경제실	업무유공	부총리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	업무유공	부총리
	강성일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부총리
	박현규	연구조정실	업무유공	부총리
	안태경	감사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정순복	신남방경제실	업무유공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연구보고서		
연도	성명	소속
2004	윤창인 외 3명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이홍식 외 3명	무역투자정책실
2006	이호진, 송원호	국제거시금융실
	김흥종	세계지역연구센터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2008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2009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성한경	무역투자정책실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2010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
	서정민	무역투자정책실
	김영귀	무역투자정책실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금혜윤	무역투자정책실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김규판	세계지역연구센터
	이형근	세계지역연구센터
	김균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연도	성명	소속
	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강준구	무역투자정책실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2011	김영귀	지역통상팀
	강준구	다자통상팀
	김혁황	지역통상팀
	조종화	국제금융팀
	이형근	일본팀
	양다영	국제금융팀
	박영준	국제거시팀
	박월라	중국팀
	세르조드	다자통상팀
	나수엽	중국팀
	여지나	중국팀
	서정민	다자통상팀
	김민성	다자통상팀
	장용준	지역통상팀
	양주영	WT0팀
	윤덕룡	국제거시팀
2012	최낙균	지역통상팀
	최필수	중국팀
	이상훈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문익준	중국팀

연도	성명	소속
	나수엽	중국팀
	이동은	국제거시팀
	편주현	국제금융팀
	양다영	국제금융팀
2013	이동은	국제거시팀
	강은정	국제금융팀
	정 철	다자통상팀
	임경수	지역통상팀
	배찬권	다자통상팀
	선주연	다자통상팀
	김정곤	전략연구팀
	이주미	다자통상팀
2014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
	김보민	국제협력정책실
	최장호	국제협력정책실
	임소정	국제협력정책실
	김준영	국제협력정책실
	최유정	국제협력정책실
	김윤옥	국제협력정책실
	최보영	국제협력정책실
	방호경	국제협력정책실
	나승권	국제협력정책실
	이보람	국제협력정책실
	김영귀	무역통상실
	금혜윤	무역통상실

포상 수상자 명단

연도	성명	소속
2014	유새별	무역통상실
	제성훈	구미·유라시아실
	이재영	구미·유라시아실
	민지영	구미·유라시아실
	강부균	구미·유라시아실
	노수연	아시아태평양실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강준구	무역통상실
	오종혁	아시아태평양실
	김홍원	아시아태평양실
	이한나	아시아태평양실
2015	강태수	국제거시금융실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임태훈	국제거시금융실
	최낙균	무역통상실
	김정곤	아시아태평양실
	나승권	아시아태평양실
	장종문	구미·유라시아실
	이성희	아시아태평양실
	이민영	아시아태평양실
	임호열	동북아경제실
	임수호	동북아경제실
	나승권	아시아태평양실
	임소정	동북아경제실
	이서영	동북아경제실

연도	성명	소속
	홍석기	동북아경제실
	김규판	아시아태평양실
	이형근	아시아태평양실
	이신애	아시아태평양실
2016	김영귀	무역통상본부
	박혜리	무역통상본부
	금혜윤	무역통상본부
	김정곤	아시아태평양본부
	나승권	아시아태평양본부
	장종문	구미유라시아본부
	이성희	아시아태평양본부
2017	이규엽	무역통상본부
	배찬권	무역통상본부
	이수영	무역통상본부
	박지현	무역통상본부
	유새별	무역통상본부
	이현태	동북아경제본부
	최장호	동북아경제본부
	최혜린	국제거시금융본부
	김영선	동북아경제본부
	오윤미	동북아경제본부
	이 웅	아시아태평양본부
	이정미	아시아태평양본부
	김신주	아시아태평양본부
	김종덕	무역통상본부

연도	성명	소속
	조문희	무역통상본부
	최보영	동북아경제본부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2018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최혜린	국제거시금융실
	양다영	국제거시금융실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조충제	연구조정실
	송영철	신남방경제실
	이정미	신남방경제실
	윤지현	신남방경제실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박영호	신북방경제실
	정재완	신남방경제실
	이철원	선진경제실
	김진오	선진경제실
	나수엽	중국경제실
	이효진	중국경제실
	김영귀	무역통상실
	남시훈	무역통상실
	금혜윤	무역통상실
	최낙균	무역통상실
	강준구	무역통상실

연구자료		
연도	성명	소속
2005	김권식	국제거시금융실
	엄부영	무역투자정책실
2006	조종화	국제거시금융실
	양두용	국제거시금융실
	윤덕룡	국제거시금융실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김권식	국제거시금융실
	채 욱	무역투자정책실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남호선	무역투자정책실
2007	오용협	국제거시금융실
	김박수	유럽팀
	이철원	유럽팀
	김군태	유럽팀
	오태현	유럽팀
	홍유수	유럽팀
2008	이재호	동서남아팀
	정재완	동서남아팀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2009	서진교	연구조정실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현혜정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2010	여지나	세계지역연구센터

포상 수상자 명단

연도	성명	소속
2011	김부용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오종혁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2012	이 웅	인도·남아팀
	송영철	인도·남아팀
2013	김정곤	전략연구팀
	김은지	일본팀
2016	황운중	무역통상본부
2017	김종덕	무역통상본부
	조문희	무역통상본부
	최보영	동북아경제본부
	정민철	무역통상본부
2018	신꽃비	중국경제실
	나수엽	중국경제실
	박민숙	중국경제실

현안분석자료		
연도	성명	소속
2005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지만수	세계지역연구센터
2006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조명철	동북아경제협력센터
2007	양평섭	중국팀
	양두용	국제거시금융실
	신종협	국제거시금융실
	이인구	국제거시금융실
2008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현해정	무역투자정책실
	김정곤	무역투자정책실
	김혁황	무역투자정책실
	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오태현	유럽팀
	김균태	유럽팀
	강유덕	세계지역연구센터
2009	홍익표	국제개발협력센터
	이종운	국제개발협력센터
2011	주진홍	러시아·CIS팀
	임민경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2012	김윤옥	전략연구팀
	정지현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도	성명	소속
2013	서진교	다자통상팀
	김영귀	지역통상팀
	김종덕	지역통상팀
	이승래	지역통상팀
	강준구	다자통상팀
	김혁황	지역통상팀
	이준원	지역통상팀
	이주미	다자통상팀
2014	김준엽	유럽팀
	정지현	아시아태평양실
2016	김원기	구미유라시아본부
	윤여준	구미유라시아본부
	김흥중	구미유라시아본부
	임유진	구미유라시아본부
2017	양평섭	동북아경제본부
	박민숙	동북아경제본부
	정영식	국제거시금융본부
	양다영	국제거시금융본부
2018	강태수	국제거시금융실
	김경훈	국제거시금융실
	강은정	국제거시금융실
	배찬권	무역통상실
	엄준현	무역통상실
	정민철	무역통상실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1990년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 워크숍: OECD Informal Workshops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Issues and Policies)	3. 20	인터콘티넨탈호텔
아태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6. 21	무역회관
1991년		
UR 협상관련 국제세미나(The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3. 28	쉐라톤워커히호텔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 3	쉐라톤워커히호텔
한·EC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14	신라호텔
1992년		
한·미 의원 합동회의	4. 26	미국 워싱턴
무역정책동향에 관한 OECD/DAEs 워크숍(OECD Informal Workshop with Dynamic Asian Economies on Trade Policy Developments)	6. 17	쉐라톤워커히호텔
한·러시아 경제학술회의	9. 7	인터콘티넨탈호텔
한·중 수교와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개	9. 24	신라호텔
북방진출 전략 세미나: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9. 25	한국종합전시장
통독 2년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10. 1	인터콘티넨탈호텔
국제학술회의: 한·중 경제협력 방향	10. 22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30	
1993년		
한국의 새로운 경제외교와 국제화 전략: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2. 19	신라호텔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국제금융환경	2. 26	대한상공회의소
한·미 의원 합동회의	6. 9	미국 워싱턴
제2회 베트남진출 전략세미나: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과 외자유치정책	9. 17	한국은행 본점 강당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동북아 경제, 정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 (The East Asian Economic Context of Korean Peninsula Developments: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10. 12	

주제	일시	장소
EC 통합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과 전망	11. 10	신라호텔
한·미 통상현안에 관한 회의	11. 11	
1994년		
한일경제협력의 신구상	3. 18	신라호텔
한·중 공동 학술회의 : 한·중 경제협력의 신구상	3. 23	중국 북경
제1회 인도진출 전략세미나 : 인도의 경제개혁정책과 산업별 투자환경	3. 31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환경 문제와 한국의 선택	4. 22	인터콘티넨탈호텔
한·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 협의회)	6. 21	미국 워싱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형성 :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Newly Emerging World Economic Order: European Experiences And Korean Perspectives)	9. 26	
제4차 KIEP/FES 국제세미나: 체제전환과 관련된 제반 경제문제와 북한의 향후 대외경제 정책(Economic Issues of System Transformation i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 Poland,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10. 6	인터콘티넨탈호텔
21세기의 APEC 국제세미나	10. 24	쉐라톤워커히호텔
중국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 무역과 산업협력을 중심으로(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부국장)·최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한국기업에의 시사점(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아주사 한국과장)	12. 2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 베트남 진출전략 세미나	12. 13	한국종합전시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 경제협력의 미래	12. 20	한국종합전시장
1995년		
APEC 세미나: 제1주제 아시아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증가	1. 6	KIEP
APEC 세미나: 제2주제 APEC 에서의 한국과 아시아의 역할	1. 6	KIEP
KIEP-IGE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제1주제: The United States and East Asia: Trade, Investment, and the Emergence of New Policies 제2주제: Korea-U.S. Economic Relations in the New Economic Order	4. 11	KIEP
UR 국제세미나(APEC 18개 회원국 참가)	4. 11 ~ 4. 21	쉐라톤워커히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WTO 체제의 출범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	4. 17	쉐라톤워커히호텔
환황해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4. 21	쉐라톤워커히호텔
한·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 협의회)	5. 8	미국 워싱턴
한국의 OECD 가입 국제세미나: 한국의 OECD 가입	7. 5	KIEP
중남미 진출전략 세미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기업환경	9. 19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제4회 베트남 투자세미나: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외자유치정책	9. 26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1세기를 향한 한·중 공동번영의 모색	10. 16	북경 경광호텔
APEC내의 실질적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Substantial Economic Cooperation Within APEC”	11. 2	한국프레스센터
제5차 KIEP/FES 국제세미나: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현황과 다자간교역규범(갈등과 조화)	12. 13	쉐라톤워커히호텔
1996년		
The Asia-Pacific Roundtable Meeting	1. 26	Marina Mandarin Hotel in Singapore
ASEM 정상회담 관련 국제세미나 : 아시아·유럽의 동반시대 : ASEM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 9	전경련회관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5. 8	중국 심양시 요녕대학
남·북 통일 관련 국제세미나	6. 28	인터콘티넨탈호텔
한·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 협의회)	7. 29	미국 워싱턴
APEC Study Center Network Meeting	8. 12	신라호텔
중남미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한·중남미 새 협력시대의 개막과 SOC 분야 진출방안	8. 26	국동빌딩
세계경제 통합과 경쟁정책 국제세미나	9. 9	인터콘티넨탈호텔
신무역질서의 형성과 WTO의 장래: 신통상의제의 국제규범화 전망	10. 14	인터콘티넨탈호텔
인도차이나 및 미얀마 투자진출세미나: Asian Emerging Markets 투자전략	10. 16	대한상공회의소
제4차 APEC 국제세미나	10. 29	신라호텔
제6차 KIEP/FES 국제세미나	12. 4	쉐라톤워커히호텔

주제	일시	장소
APEC에서의 금융서비스자유화 세미나	12. 18	대한상공회의소
1997년		
다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4. 6	인터콘티넨탈호텔
메콩강경제권 개발관련 국제세미나: 메콩강경제권 개발의 전망과 진출여건	6. 3	대한상공회의소
한·미 통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의회의 경제관련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합동회의 (과학·기술·통상에 관한 한·미 의원 협의회)	6. 8	미국 워싱턴
러시아의 외국인투자환경과 한·러관계 심포지엄	7. 7	롯데호텔
한·중 수교 5주년 기념 북경 국제세미나	8. 22	중국대반점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10. 6	신라호텔
유럽·동아시아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세미나	10. 30	신라호텔
한·브라질 국제세미나 : 브라질의 경제전망과 한·브라질 경제협력	11. 11	인터콘티넨탈호텔
1998년		
제4차 APEC Roundtable 개최: Regional Cooperation and Asian Recovery	5. 26	미 Brandeis대학교
중미시장 진출전략 국제세미나	7. 7	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평가 및 전망	10. 23	인터콘티넨탈호텔
21세기를 향한 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색에 관한 국제세미나: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on into the 21st Century	10. 28	신라호텔
한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외국인투자 증진방안 국제세미나	11. 25	서울교육문화회관
1999년		
아시아 경제발전 모형과 동북아 경제협력	2. 19	KIEP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제세미나: Promo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in APEC Region	6. 17	르네상스 호텔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모색: The Road to Greate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10. 1	신라호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21세기 아시아-유럽의 파트너십: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0. 12	롯데호텔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예의 대응	10. 14	신라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동아시아 비전그룹 1차회의(국제회의)	10. 21	신라호텔
한·브라질 21세기위원회 제4차회의	10. 27	경주·포항·울산지역
다국적기업과 한국경제의 세계화	11. 30	신라호텔
제23회 ACAES국제학술회의: The Post-Financial Crisis : Challenges for Progressive Industrialization of Asian Economies	12. 15	서울대
신흥시장국의 환율제도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y	12. 17	일본 동경 (ADBI 세미나실)
2000년		
21세기 세계경제질서 전망과 시사점	1. 27	신라호텔
정기학술 국제세미나: 21세기 동북아 경제질서의 전망	2. 18	KIEP
APEC의 새로운 번영과 화합을 위한 포럼	3. 31~ 4. 1	힐튼호텔 서울
“The Korea-China Economic & Business Forum 2000” 국제세미나 공동개최: 중국의 WTO 가입과 역내의 경제적 파급효과	6. 28 ~ 6. 29	인터콘티넨탈호텔
제3차 서울 ASEM 회의와 아시아-유럽간 파트너쉽 강화	7. 10 ~ 7. 11	신라호텔
한·중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중국의 서부 대개발전략과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7. 27	대한상공회의소
KIEP/IGE 공동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 신흥시장의 관점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11. 8 ~ 11. 1	신라호텔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12. 1 ~ 12. 2	신라호텔
2001년		
한·중·일 금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2. 22 ~ 2. 24	중국 심천
Korea Policy Challenges for the New Administration	3. 13	미국 워싱턴 미국기업연구소(AEI)
IMF / KIEP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The Korean Crisis and Recovery	5. 17 ~ 5. 19	신라호텔
WTO 체제하에서의 중국경제와 동아시아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Repercussions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8. 25 ~ 8. 26	힐튼호텔(베이징, 중국)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국제세미나 개최: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Korea-Latin America Business Forum): 한·중남미 협력의 새로운 지평 모색	9. 4 ~ 9. 5	인터콘티넨탈호텔
KIEP/ADB/ADB I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 : 제11차 ADB 국제금융세미나: 현대국제금융에서의 도전과 기회	9. 17 ~ 9. 21	타워호텔

주제	일시	장소
KIEP/NIRA/DRC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 Assessment and Prospects)	9. 24 ~ 9. 25	신라호텔
KIEP/CID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개최(The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10. 25 ~ 10. 26	신라호텔
2002년		
Strengthening Financial Cooperation and Surveillance	1. 14	신라호텔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1. 21	신라호텔
IMF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3. 7	리츠칼튼
The 4th Tr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 Financial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3. 14 ~ 3. 16	경주힐튼호텔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5. 13 ~ 5. 15	Keio University(Tokyo)
The Korea-China Economic & Business Forum 2002	7. 3	신라호텔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 방안	7. 11	북경 쿤문호텔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7. 19	신라호텔
국제금융 Workshop	8. 2	신라호텔
Linkages in East Asia : Implications for Currency Regimes and Policy Dialogue	9. 23 ~ 9. 24	신라호텔
2003년		
KIEP / KEI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KIEP-KEI Policy Forum: China's Growing Competitiveness	1. 6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IEP / KEI / IIE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KIEP-KEI Policy Forum : Northeast Asian Energy Cooperation	1. 7	The St. Regis Hotel
KIEP / 태국 Thammasat 대학 공동주최 국제 세미나 : Strengthening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ailand	1. 29	Bangkok Dusit Thani Hotel
A New Financial Market Structure for East Asia : How to Promote Regional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2. 7~ 2. 8	Hilton Waikoloa, Big Island, Hawaii
International Workshop on Intra-Industry Trade	3. 7~ 3. 8	제주신라호텔
KIEP / PRI(일본) / CASS(중국) 공동주최국제세미나 : 5Th Financial Cooperation Seminar	3. 13 ~ 3. 15	Kyoto, Japan
FONDAD / KIEP / SIS(SNU)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China's Role in Fostering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in the Asian Region and the World Economy	3. 27 ~ 3. 28	서울대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2003년 제5차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5. 11 ~ 5. 12	Keio University, Tokyo
KIEP / 한국EU학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Asia-pacific region	5. 30 ~ 5. 31	서울대
KIEP / 재정경제부 / 전경련 공동 주최 국제세미나: 투명하고 세계화된 경제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6. 29 ~ 6. 30	신라호텔
KIEP / 외교부 / 무역협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한-인도 경제포럼	7. 29 ~ 7. 30	인터컨티넨탈호텔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21세기 한중 경제협력 연구회 공동연구	9. 2 ~ 9. 3	KIEP
KIEP / PRI(일본재무총합정책연구소)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Financi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9. 19 ~ 9. 20	KIEP
KIEP / 동경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Economic Analysis on the Japan- Korea FTA	9. 21 ~ 9. 24	일본 삿보로
KIEP / 외교부 / 산자부 / 한-중남미협회 / 한국무역협회 외4기관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2003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미주지역의 경제통합 추이와 한-중남미 협력비전	9. 22 ~ 9. 23	코엑스
KIEP / 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주최 국제학술심포지엄 : 구조개혁과 경제발전 : 한·중·일의 경험(2003 Seoul Conference on Structure Reforms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the Northeast Asia)	9. 26	KIEP
제6차 AEP Meeting	10. 9 ~ 10. 10	KIEP
World Knowledge Forum 2003	10. 14 ~ 10. 17	그랜드힐튼호텔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방안 모색	10. 27 ~ 10. 28	중국 심양
한국과 동북3성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세미나	10. 27 ~ 10. 30	중국 장춘 / 하얼빈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The 11th MFG Meeting	11. 24	신라호텔
KIEP / EIAS(Brussels)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한·EU 수교40주년 기념 세미나 Building a New Era of Partnership: EU-Korea Relations 1963-2003	11. 26	Cercle Royal Gaulois, Brussels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The 4th Informal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11. 28	신라호텔
KIEP / Australia-Foundation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 한·호주 경제협력 포럼	11. 30 ~ 11. 1	호주(캔버라)
재경부 용역 국제세미나 : 21세기 한중 중장기 경제협력 공동연구	12. 2 ~ 12. 3	중국 북경 Guo-hongghxf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the Lessons from Europe	12. 3	KIEP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허브화 전략(Regional Economic Hub Movement in East Asia)	12. 5	신라호텔
Asian Crisis V,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Post-Crisis Asia	12. 9 ~ 12. 10	강원대학교

주제	일시	장소
2004년		
KIEP / KEI / 조선일보사 공동주최 세미나 개최 : Towards a Peaceful Resolution with North Korea : Crafting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2. 12 ~ 2. 13	
한중일 FTA 세미나 개최	2. 13 ~ 2. 14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NAEAK / KIEP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FTA의 확산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 진로	2. 19	대명콘도
Rising China and the East Asian Economy	3. 19 ~ 3. 20	KIEP
EU 확대와 대응전략	4. 29	롯데호텔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and Asia Compared	5. 3	코엑스
Financing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모색)	5. 19	서울대
세계화 시대의 한·중동관계 발전방향	5. 25	신라호텔
동북아 국가들의 지역경제협력과 안보전략 : 한반도를 중심으로	6. 11 ~ 6. 12	롯데호텔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동북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	7. 5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立命館大学) 대학
Understand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n Korea-U.S.Relations	8. 24	힐튼호텔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 in East Asia	8. 26 ~ 8. 27	신라호텔
한·인도 경제협력세미나	10. 4	KIEP
한·중·일 FTA : 산업별 연구	10. 11	인터컨티넨탈호텔
세계지식포럼	10. 11 ~ 10. 13	조선포탈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이슈	10. 12 ~ 10. 13	위커히호텔
The 2nd Informal Meeting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10. 28	롯데호텔
제8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11. 2 ~ 11. 3	코엑스
DDA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전망	11. 5	신라호텔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National Economic Policies : Lessons from the Italian and the Korean Experiences	11. 15	서울대
The 8th Scholarship Conference on East Asian Economy: Toward an 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11. 27	KAL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21세기 번영의 길, 동북아 금융허브 (The Road to Prosperity,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12. 15	조선평호텔
The 2nd KIEP-PRI Seminar : Financial Interdependence and Exchange Rate Regime in East Asia	12. 20 ~ 12. 3	일본 동경
2005년		
Emerging Leaders Program Report	1. 31	워싱턴 D.C
Korea APEC Year Forum and Executive Roundtable	2. 17 ~ 2. 18	워싱턴 D.C
2005년 한·중·일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제1차 워크숍	2. 17 ~ 2. 20	중국 계림
한국 동북아경제학회 KIEP 정기 국제공동학술대회	2. 25	연세대학교
APEC STUDY CENTER CONSORTIUM CONFERENCE 2005, PECC TRADE FORUM 2005	5. 22 ~ 5. 25	제주신라호텔
BOGOR GOAL MID-TERM STOCKTAKE SYMPOSIUM	5. 28	제주신라호텔
2005년 한·중·일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6. 1	일본 삿포로
2005년 APEC Economic Outlook Symposium : The Economic Impacts of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6. 22 ~ 6. 23	하와이 East-West Center
2005 U.S.- 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Schedule	7. 7 ~ 7. 9	워싱턴 D.C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7. 27	고려대
Lessons from History and Challenges for the Prosperous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Brazil (Argentina)	8. 16(브라질) 8. 18(아르헨티나)	브라질 상파울로대학교 (USP),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UBA)
제7차 한·중·일 금융협력 세미나	8. 20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송도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8. 23	신라호텔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Reality and Vision	9. 1 ~ 9. 2	조선평호텔
제9차 한·중·남미 협력 포럼	9. 1 ~ 9. 2	코엑스
APEC-OECD Structural Reform 심포지엄	9. 9	경주
한·중·일 서비스업 발전방안 및 협력과제	9. 23	신라호텔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심포지움 및 기관장회의	9. 25 ~ 9. 27	중국 북경
제6회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 창조와 협력 :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10. 10 ~ 10. 12	워커히호텔

주제	일시	장소
KIEP-한독경상학회 2005년 국제학술대회	10. 14	성균관대학교
New Paradigms for Transpacific Collaboration	10. 16 ~ 10. 18	University of Washington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과제	10. 24 ~ 10. 25	러시아 모스크바
한·중 FTA 민간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11. 5	신라호텔
APEC-OECD Investment Seminar	11. 14 ~ 11. 15	부산시청
ASEAN+3 ABMI FG and CMI WG Meetings	11. 7 ~ 11. 8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금융허브 세미나(Road to Prosperity and Cooperation: Financial Hub in Northeast Asia)	12. 8	신라호텔
제3차 한·중·동 포럼	12. 11	요르단 암만
한-미 FTA 추진 및 한-미 경제 안보 관계증진	12. 12	인터콘티넨탈 호텔
중국 경제발전전략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11차 5개년규획(規劃)의 기회와 위협	12. 23	대한상공회의소
2006년		
3rd KIEP-PRI Seminar : Emerging Financial Risks in Asia	1. 12	제주신라호텔
APEC 재무장관회의 고령화 연구	2. 24	KIEP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	3. 3	전국경제인연합회
The Asian Economic Panel	3. 20 ~ 3. 21	인터콘티넨탈 호텔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운영(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지식공유 사업)	3. 31	EU 대표부
한-GCC 경제협력 확대	5. 1	Gulf Research Center (Dubai)
China and Emerging Asia : Reorganising the Global Economy	5. 11 ~ 5. 12	신라호텔
동북아 3국의 경제전망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6. 16	은행회관
일본경제의 재부상과 한국의 대응	6. 23	코엑스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 방안 :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6. 27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6. 28	베트남 하노이
APEC Symposium on Socio-Economic Disparity : Trends and Cooperative Policy Measures	6. 28 ~ 6. 29	서울 신라호텔
Knowledge Sharing for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6. 29	서울 조선평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Harmonizing Social Policies With Economic Policies : Implications from the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6. 30	서울 신라호텔
중국의 신농촌 건설과 한·중 농업협력	7. 6	경주
From FEZs to a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7. 6	신라호텔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과 OECD”	9. 22	롯데호텔
제10차 한·중·남미 협력포럼	9. 25	코엑스
Asian Economic Panel Meeting	9. 29	Keio University, Tokyo
한·아프리카 포럼	11. 8	롯데호텔,
The Second International Finance Conference of Busan in Commemorizing the 13th APEC Meeting	11. 13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연구와 시사점	11. 16 ~ 11. 17	KOTRA
주요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 경험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11. 2	롯데호텔
한·러 경제협력 국제세미나	11. 22	웨스틴 조선호텔
주요국의 협상 및 이행 경험과 한국에의 시사점	11. 29 ~ 11. 30	무역협회
한·중동 협력포럼	11. 30	롯데호텔
북핵실험 이후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현황과 전망	12. 7 ~ 12. 8	러시아 모스크바
International Conference : Prospects for Regional FTA(s) in Northeast Asia	12. 14	메리어트호텔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12. 1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년		
Globalization, Regionalization and National Economic Policies : Korean Italian Workshop	2. 2	KIEP
동북아 경제통합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2. 13	서울대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5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Treaties of Rome	3. 27	신라호텔
제2회 한국경제세미나 “한국의 금융개방 경험과 개방”	4. 27	북경 천룬왕조호텔
아시아위기 10년 : 국제통화체제와 아시아의 역할	5. 2 ~ 5. 3	신라호텔
International Seminar on Implications of EU accession for Bulgarian Economy and perspectives for Korea-Bulgaria Economic Cooperation	5. 3	불가리아 소피아 경제대학교

주제	일시	장소
2007 IDB 중남미 경제보고서 심포지움	5. 16	대한상공회의소
The 3rd EU-NESCA Workshop	5. 18	고려대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Korea’s Reform Experience	5. 25	KIEP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 베이징포럼	5. 30	베이징 국제구락부 (중국 북경)
EAFTA Study Phase II	5. 31	팔래스호텔
스페인을 활용한 중남미시장 진출 세미나	6. 11	코엑스
한·일기업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6. 15	KIEP
제2차 한·러 공동세미나 “러시아 극동과 동북아 경제”	6. 19	서울 교육문화회관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tin American Studies Council of Asia and Oceania(CELAO)	6. 21 ~ 6. 22	코엑스
제5차 KIEP-AMR 공동세미나 : Global Imbalance와 양국의 경제정책	7. 27	중국 사천성 구체구
한·중 경제관계 현황 및 전망세미나	8. 11	중국 북경원진호텔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EU’s Cultural Policy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8. 24	제주 신라호텔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 심포지엄 및 3차 워크숍	9. 17	메리어트호텔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9. 20	신라호텔
Korea and Africa in Comparative Economic Perspective.	10. 8	케냐 나이로비
한·러 대북정책 협의회	10. 1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The 3rd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Recent Development and Key Agenda”	10. 29	코엑스
The Prospec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Knowledge Sharing in the Service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DPRK	11. 1	조선호텔
EAFTA Study Phase II	11. 16 ~ 11. 17	중국 북경
한·미 FTA, 남북경협, 한-중 경제관계 및 전망	11. 22	KIEP
FTA 정책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1. 28	코엑스
KIEP-KEI Workshop on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11. 30	KEI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2008년		
인민폐 평가절상의 중국 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	6. 12	북경 궈리호텔
ASEM Conference : Asia, Europe and the Futur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6. 15	제주 신라호텔
제3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New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for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and Russian Far East”	8. 11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주
21세기 한중 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	9. 23	제주 신라호텔
Asian Economic Paper(AEP) panel meeting	10. 2 ~ 10. 3	제주 신라호텔
The 4th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10. 23	메리어트 호텔
Soft Power and Asia-Europe Partnership	10. 30 ~ 10. 31	소피텔 엠배서더 호텔
Initiative on Ageing Issues in APEC “Ageing and Public Finance and Others”	11. 28	KIEP
2009년		
Making a New Industrial and SME Polic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EU	3. 10	신라호텔
Asian Economic Panel	3. 22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karta, Indonesia)
한·칠레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	3. 27	코엑스
한·중앙아 경제협력 연구	4. 22	KIEP
Initiative on Ageing Issues in APEC “Ageing and Public Finance and Others”	4. 30	라마다 서울호텔
미 입법보좌관 초청세미나	5. 26	KIEP
The Fifth Joint Expert Group Meeting on EAFTA Study Phase II	6. 6	조선호텔
우즈베키스탄 주요 섹터별 현황과 발전방향	6. 23	우즈베키스탄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현황 및 발전 목표, 투자 유치	6. 26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개발부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licy Respons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North Korea(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	6. 30	신라호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및 전망	7. 12 ~ 7. 15	중국 강서성 징강산

주제	일시	장소
제4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Korea and Russian Far East: Changing Circumstances and Chances for Economic Cooperation”	9. 14	리츠칼튼호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 Issues, Strategies, and Prospects	9. 25	롯데호텔
Workshop on CAREC Corridor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onitoring and Establishment of CAREC Federation of Carriers and Forwarders Associations	10. 11	신라호텔
제13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10. 29	인터컨티넨탈호텔
AEC(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2009 : EU세션 및 국제금융세션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12	인천 송도 컨벤시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Architecture	11. 13	고려대
KIEP 20주년 창립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World Economy with the G20”	11. 20	조선호텔
Global Financial Crisis, New Order and the Future of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에 관한 국제세미나	11. 26	
2010년		
Asian Economic Panel	3. 22	인천 웨라톤 호텔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	4. 5	신라호텔
2010년 한중일 공동연구 국제심포지엄 및 제2차 워크숍	5. 8	신라호텔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국-투르크메니스탄 전략적 협력 체제 구축	5. 11	롯데호텔
한-일 대북 정책협의회	5. 12	일본 도쿄
2010 Asian WTO Research Network(AWRN) Seoul Meeting	5. 22	Palace Hotel
Korea-World Bank High Level Conference	6. 4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KIEP 북경사무소 설립 15주년 기념 “韓中 經濟協力 비전” 국제세미나	6. 24	캠핀스키 호텔 (북경)
The 6h Conference of East Asian Institutes Forum	7. 7	조선호텔
중국 중부지역발전과 한중경제협력 국제세미나	8. 22	중국 후베이성 우한 Ramada 호텔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투자협력	8. 25	조선호텔
21세기 동북아지역의 공동협력과 발전	8. 26	강원도 동해시 망상 그랜드호텔 컨벤션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Asian Economic Panel	9. 11	일본 Keio 대학교
제14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	9. 29	COEX 컨퍼런스센터
World Economic Order After Crisis	9. 30	프레지던트 호텔
제5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Russia, Russian Far East and Korea: Post Crisis Perspectives”	9. 30	러시아 하바롭스크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
Changing Landscape of the ASEAN and Korea-ASEAN Cooperation	10. 7	Park Hyatt, Seoul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전략 관련 인도 현지 세미나	10. 19	델리, 첸나이
아시아경제 공동체 포럼-국제금융분과 세미나	11. 8	인천 송도 컨벤시아
아시아 개발협력 회의(Asian Development Cooperation Meeting)	11. 18	신라호텔
Korea-South Asia Cooperation in an Era of Rising South Asia	11. 25	롯데호텔
G20 정상회담과 한국의 선택	11. 25	프레지던트 호텔
2011년		
ASIA 2050 국제세미나	1. 28	신라호텔
FTA 국제 컨퍼런스	3. 3	COEX 컨퍼런스센터
2011년 한중일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3. 15	조선포텔
Asian Economic Panel	3. 24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 동향과 한·중 협력의 과제	4. 25	중국 단둥 요동대학교
Korea and East Asia in a Changing Regional and Global Environment	4. 28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5. 4	프라자 호텔
The 5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5. 27	롯데호텔
한-미, 한-EU FTA 발효대비 International Origin Conference	6. 9	롯데호텔
Asia-Pacific Economic Association 2011년도 국제학술대회	6. 24	부산대학교
Trade and Development: Asia's Turning Point	6. 30	서울대학교
제3회 한·중 국제세미나: 한중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7. 15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협력방안	8. 17	중국 링샤회족자치구, 인촨

주제	일시	장소
제 2차 한-카자흐스탄 포럼	8. 23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1 한국 국제통상학회 하계 국제세미나: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8. 24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Asian Economic Panel	9. 16	일본 Keio 대학교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9. 2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연방극동대학교
“뉴 노멀” 질서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New Normal Order” and Social Market Economy)	9. 23	프라자 호텔
제6차 한-러(KIEP-ERI) 공동세미나 “Korea-Russia Economic Dialogue toward economic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10. 6	리츠칼튼 호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글로벌 경제협력전략(Global Strategy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10. 10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시아경제 공동체 포럼-국제금융총회	11. 2	인천 송도 컨벤시아
한-UN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경제협력 심층 세미나	11. 3	롯데호텔
제1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11. 4	롯데호텔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 및 독일의 정책대응	11. 11	고려대학교
한중 우호대화	11. 24	한국외국어대학교
2012년 한중일 공동연구 제2차 워크숍	12. 4	인천 쉐라톤 호텔
20 Years On: India's Economic Reforms and Korea-India Cooperation	12. 9	한국외국어대학교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12. 14	롯데호텔
2012년		
Building Green Growth Pathway for Cambodia- Sharing Knowledge and Shaping Policies for Cambodia's Green Future	4. 18	압사라 앙코르 호텔, 캄보디아 시엠립
The 6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5. 10	중국 북경
한-러 대북정책 협의회	5. 14	러시아 모스크바
제1차 한몽 국제세미나 ‘신아시아시대 한국과 몽골의 협력방안’(Cooperation Ways between Korea and Mongolia in the New-Asia Era)	5. 23	몽골 외교부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6. 4	대한상공회의소
유로존 위기의 지속과 우리의 대응방안	6. 7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ee Economic Zone	6. 12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A new paradigm in Korea-GCC economic cooperation (한-GCC 新경제협력)	6. 25	아부다비전략연구소
제 7차 한-러 공동세미나 “Infrastructure Projects as an Economic Development Factor of the Far Eas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6. 28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의회(두마)
KIEA-KIEP-KAEA-KIFA 공동세미나	7. 1	Hilton, San Francisco Union Square, U.S.A.
2012 APEC Workshop on FTA Rules of Origin	7. 10	신라호텔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중협력 방안	7. 18	한국무역협회
한중 경제관계 2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8. 21	중국 요녕성 심양시 요녕대학
Nagoy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Integration and Industrial Globalization in Asia	8. 25	Meijo University, Nagoya, Japan
제 4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한-중앙아시아 수교 20주년과 신경제협력 방안’	9. 6	대한상공회의소
한중 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9. 11	양재동 L타워
한국·우크라이나의 외교통상 협력: 과제와 전망	9. 12	한국외국어대학교
Enhanc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ao PDR and ROK	9. 12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ntiane, Lao PDR
The 8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9. 14	Lao Plaza Hotel, Vientiane, Lao PDR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China-Japan-Korea FTA	9. 19	The Westin Chosun Hotel
KIEP-HASS 세미나	9. 20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르네상스호텔
신흥국 싱크탱크 국제포럼(Emerging Economies Think Tanks Forum 2012)	9. 21	롯데호텔
제1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9. 24	COEX 컨퍼런스센터
KIEP-IWEP-UD Seminar: Korea - Vietnam 20 years and forward	9. 25	베트남 다낭시 Danang University of Economics
Asian Economic Panel	10. 4	일본 Keio 대학교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0. 23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주제	일시	장소
Korea-India Cooperation and East Asian Context	10. 25	인도 델리 - 델리대학교
AECF(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2012	11. 7	인천 하얏트 리젠시
한-동북3성 경제협력 세미나	11. 13	베이징
한·미얀마 산업협력-정책 세미나	11. 13	대한상공회의소
제3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11. 15	롯데호텔
EU-Korea and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sia	11. 23	고려대학교
한-세네갈 수교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11. 29	KING FAHD PALACE 호텔
2013년		
2013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3. 13	롯데호텔
KIEP-KOICA-OECD Joint Conference on “Economic Outlook and Development Challenges in Emerging Asia”	3. 15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Asian Economic Panel	3. 19	말레이시아 페낭 Universiti Sains Malaysia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	5. 15	훈춘 마르코폴로 호텔
KIEP-ECIPE-GSIS Conference on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	5. 23	서울대학교
The 7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6. 6	일본 도쿄
제 8차 KIEP-ERI 세미나 러시아의 지역개발계획과 국제협력	6. 13	경주 현대호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 FTAs	6. 14	조선호텔
제2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6. 19	대한상공회의소
新정부 출범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환경변화와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방안	6. 20	중소기업중앙회관
WEAI 88th Annual Conference	6. 30	Grand Hyatt Seattle, Washington, U.S.A
제11차 KIEP-AMR 공동세미나 : 위안화 국제화와 한중 경제관계 발전	7. 1	중국 후난성 장자제 장자제이천화티엔호텔
KIEP-IWEP (VASS) Joint Conference on “Promoting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7. 18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TPP 국제세미나	8. 30	무역센터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후베이 경제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 (제2차 KIEP-HASS 공동세미나)	9. 3	신라호텔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 창립기념식	9. 13	국회헌정기념관
The 9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9. 13	Jakarta, Indonesia
Harmonizing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European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 26	신라호텔
The Fourth Republic of Korea – SAARC Partnership Seminar	9. 27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The FTAs in Greater China: Implications for Korea-China FTA	9. 27	COEX 컨퍼런스센터
2013 신흥시장 포럼	9. 30	KOTRA
Dealing with Multiple Spillovers: New Frontiers of Policy Coordination	10. 11	미국 워싱턴 D.C. 팔로마 호텔
유라시아 시대 국제협력	10. 18	신라호텔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0. 21	조선호텔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러 지방간 협력 포럼	10. 22	한림대학교
2013 한-우즈벡 금융 포럼	10. 29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AECF(아시아경제공동체 포럼) 2013	11. 1	인천 하얏트 리젠시
제17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11. 5	롯데호텔
The 2013 KIC-IIS-KIEP International Conference	11. 18	경희대학교
Korea-China FT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1. 18	인천 웨라톤 호텔
개방과 글로벌화 세미나	11. 19	신라호텔
WTO 제9차 각료회의 평가와 향후과제	12. 16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014년		
East Asia-Europe Economic Roundtable Meeting 2014	1. 9	중국 북경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과 한국기업 대응전략	2. 11	조선호텔
International Conference :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Asia	2. 18	신라호텔

주제	일시	장소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한-중남미 산업협력 방안	2. 21	대한상공회의소
Asian Economic Panel	3. 13	서울 리츠칼튼 호텔
KIEP-OECD 동남아 경제전망 세미나: 중진국 함정의 위험과 극복 방안	3. 28	조선호텔
2014년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Asia Pacific Era: Economic/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4. 9	조선호텔
The 2nd Korea-Iran Forum	4. 23	이란학재단(테헤란, 이란)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터키 정책토론회	5. 2	터키 이스탄불 Grand Cevahir Hotel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남북경제협력 방안 세미나	5. 8	미국 워싱턴 D.C., 존스홉킨스 대학교
KIEP-중앙아시아 경제학회 공동 국제세미나	5. 9	롯데호텔
제3차 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	6. 3	대한상공회의소
제9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한·러 극동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6. 2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Korea-China FTA & Yellow Sea Economic Integration	6. 27	Ocean University of China, Qingdao
WEAI 89th Annual Conference	6. 30	Grand Hyatt Denver, Colorado
제3차 KIEP-HASS 공동세미나	7. 10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HASS
2014 Korea Dialogue Conference on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7. 25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EWC)
World Congress of Global Partnership for Young Women 2014	8. 4	롯데호텔
한일 새로운 성장모델의 모색: 한일 양국의 경험과 미래	8. 21	건국대학교
The Third EU-Asia Roundtable	8. 22	호주 아델레이드, Crowne Plaza Hotel
제12차 KIEP-AMR 공동세미나 :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과 한중 경제협력	9. 2	신라호텔
한-베트남 경제협력 이슈와 전망	9. 4	Lotte Legend Hotel (베트남 호치민시)
통일편익분석 4개국 국제세미나	9. 17	콘래드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The 8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9. 25	삼정호텔
The 10th East Asia Institutes Forum, ASEAN-Korea Research Institutes Meeting	10. 9	Furama Resort, Danang, Vietnam
제4차 KIEP-IMF 공동 컨퍼런스	10. 21	JW 메리어트 호텔
Enhancing Entrepreneurship and Job Creation in Europe and Korea: Current State, Obstacles and Cures	11. 21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중동 산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금융협력방안의 모색	11. 27	르네상스 호텔
Opportunities and Prosp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GCC	11. 30	American University of Sharjah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2014 ASEAN+3 Conference on Beyond Crisis Response Arrangements	12. 3	도쿄 소재 뉴 오타니 호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2015 G20 Development Agenda	12. 4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12. 4	조선호텔
한중 FTA와 분야별 협력방향	12. 4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한-러 중장기 협력 로드맵 공동연구관련 워크숍	12. 4	롯데호텔
2014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2014 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	12. 8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제1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12. 9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 for Sustainable Growth: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2. 10	서울대학교
한미동맹 비전그룹(KOR-US VG) 세미나	12. 11	CSIS, 워싱턴 DC
2015년		
Pro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and Its Global Economic Effects	3. 6	조선호텔
제6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협력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 26	The Conference Hall of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Kazakhstan
한미동맹 비전 그룹 (KOR-US VG) 세미나	4. 23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워싱턴 D.C.
The 3rd Korea-Iran Forum	5. 21	롯데호텔

주제	일시	장소
The 9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5. 28	중국 북경
제10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 수교 25주년, 러시아 경제와 한·러 협력: 새로운 과제와 전망	6. 9	신라호텔
2015 KIEP - EUSA-AP 공동컨퍼런스	6. 11	고려대학교
Towards Broade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Palestine	6. 15	MAS(팔레스타인 라말라)
제2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유라시아 진출 협의회 해외로드쇼: 한국-몽골 미래를 향한 도전	6. 23	몽골 울란바타르 The Corporate Hotel & Convention Centre
중국경제 뉴노멀과 한중 FTA시대의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방향 모색	6. 25	중국 북경 캠퍼스키호텔
WEAI 90th Annual Conference	7. 1	Hilton Hawaiian Village, Waikiki, USA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국제세미나	7. 14	중국 북경 포시즌호텔
Trade Policy Research Network Conference and Asia-EU Roundtable	7. 30	이탈리아 피렌체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UI)
제13차 KIEP-AMR 공동세미나 : 一帶一路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져올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	8. 2	중국 베이징구 후허하오터
제14차 국제학술대회(Korea and World Economy XIV)	8. 7	중국 북경 인민대학교
FTA 시대의 한·베트남 통상·산업 협력의 새 방향	8. 17	국립타이응웬재경대학
The 11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9. 4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Toward a Low-Carbon Economy: Ways to Enhance Global Participation	9. 9	코리아나 호텔
제4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9. 9	대한상공회의소
Exploring Growth Potential in EU and Korea	9. 18	프레지던트 호텔
수교 25주년, 유라시아의 부상과 한-러 협력의 미래	10. 6	모스크바 알렉산더 하우스 (Alexander House Business Center)
한-독 통일경제정책 네트워크 세미나	10. 13	조선호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RCEP 시대의 도래와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10. 14	부산 BEXCO Auditorium 4
2015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10. 22	밀레니엄 힐튼 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제6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	10. 26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OECD Korea Cooperation in Services	10. 27	롯데호텔
북한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10. 28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_2015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11. 1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북한 개혁개방 자원과 해외 통일자원 조달방안	11. 12	조선호텔
Second Policy Dialogue on the Development of Russia's Siberia and Far East	11. 25	신라호텔
제19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11. 26	COEX 컨퍼런스센터
제4차 KIEP-HASS 공동세미나	11. 26	조선호텔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대상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세미나	12. 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2. 1	프레지던트호텔
동북아 신흥력시대 구축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	12. 3	신라호텔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 세미나: 유라시아 시대 한·유라시아 협력의 미래 비전	12. 9	롯데호텔
제3회 KIEP-한국이슬람법학회 공동 세미나 (국제유가 하락과 중동 경제의 향방: 이슬람금융의 미래)	12. 10	르네상스 서울 호텔
2015 EWC/KIEP Conference Strengthening North Pacific Cooperation	12. 14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 (EWC)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협력	12. 17	밀레니엄 힐튼 호텔
2016년		
2016 제1차 KOPEC 고위자문회의	2. 17	롯데호텔
Korea-Cuba Knowledge Dialogue	2. 22	쿠바 아바나, Melia Cohiba 호텔
Taking Stock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2. 26	Four Seasons Hotel Shanghai at Pudong
TPP Issues & Korea and Japan's FTA Policy	2. 27	메이조대학교 텐파쿠 캠퍼스
Asian Economic Panel	3. 2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호텔

주제	일시	장소
제 7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3. 29	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 타지키스탄 전략연구소
Korean Re-Unification: Prospects and Implications	4. 22	호주 캔버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협력 대화	4. 28	제주도 하얏트 리젠시
한·인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국의 상생협력 모색을 중심으로	5. 2	인도 뉴델리 Taji Palace Hotel
제 5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5. 11	대한상공회의소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development along the Silk Road Economic Belt	5. 13	중국 시안 서북대학교
2016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5. 26	롯데호텔
The 4th Korea-Iran Forum	5. 29	Institute for Trade Studies and Research
The 10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6. 1	일본 도쿄
Korea-Japan Opinion Leaders' Seminar(한일 OLS)	6. 8	동경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he 4th Asia Think Tank Summit	6. 8	IFANS
제11차 KIEP-ERI 국제 공동세미나	6. 23	러시아 유대인자치주 비로비잔 비라호텔
WEAI 91th Annual Conference	7. 2	Hilton Portland and Executive Tower
제1회 동아시아경제파트너십 포럼	7. 3	일본 동경 국제연합대학교
2016 BOK-KIEP-PIIE International Conference	7. 19	서울 플라자호텔
중국 지역경제의 산업혁신전략과 한중 동반발전	8. 4	조선호텔
2016년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5차 "한국과 세계경제" 국제학술대회	8. 5	서울 은행연합회관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8. 11	중국 장춘
일대일로 배경하의 한중 경제협력: 중국 일대일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8. 18	중국 운남성 쿤밍시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14차 KIEP-AMR 공동세미나 : 한중 FTA 시대의 한중 新경제협력 모색	8. 23	하얏트 리젠시 제주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East Asia	9. 8	서울대학교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2016년 제2차 KOPEC 아태전략포럼	9. 9	롯데호텔
유라시아 시대 한·몽 미래 협력 대화	9. 24	몽골 울란바타르
통일 후 주변 4강의 對한반도 경제정책 전망	10. 7	조선포텔
제20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10. 14	롯데호텔
2016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세미나	10. 14	연변대학교
제5차 KIEP-HASS 공동세미나	10. 19	후베이성 우한시 추텐위예하이 호텔
2016년도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10. 20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삼성역 트레이드 타워
2016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10. 20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10. 25	조선포텔
2016 Asia-Europe Trade Roundtable	10. 29	UIBE 회의장
The 12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11. 3	마닐라, 필리핀
The Prospective Policies of Upcoming US Administration	11. 15	롯데호텔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Economy: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from Germany and Korea	11. 25	조선포텔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2. 1	롯데호텔
제4회 KIEP 중동경제 세미나(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경제협력 다변화: 도전과 기회요인)	12. 1	더 플라자 호텔
2016년 하반기 제2차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최근 동북아 정세 변화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12. 1	중국 베이징대학교
OECD 경제협력과 한국 서비스 산업: 도전 및 비전 컨퍼런스	12. 6	신라호텔
Korea-Central Asia: Building Comprehensive Networks for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12. 6	롯데호텔
미국과 아시아의 새로운 통상관계에 대한 전망: 도전과 기회	12. 9	조선포텔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12. 20	조선포텔
2017년		
Korean Unification: Prospect and Global Implications	2. 27	워싱턴 D.C.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3. 1	스탠포드 대학교

주제	일시	장소
2017 상반기 1차 베이징한반도문제포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3. 9	중국 베이징
한-미 FTA와 최근 통상 이슈	3. 14	상공회의소회관
제8차 한-중앙아시아 국제세미나	4. 20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드 일디즈호텔
Korea-Mongolia Workshop on Trade Policy	5. 25	몽골 울란바타르 The Corporate Hotel & Convention Centre
2017 CES Annual Conference in China:New Normal and New Directions of Chinese Economy	6. 10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제6차 한-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6. 13	대한상공회의소
제12차 KIEP-ERI 공동세미나	6. 22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2017 상반기 제2차 베이징 한반도포럼: 최근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 현안점검	6. 22	중국
APEC CBNI Workshop on Trade Remedies	6. 22	서울 노보텔
2017 KIEP-KATIS-TEA 공동세미나	6. 24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WEAI 92nd Annual Conference	6. 25	San Diego, US
2017 한국경제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6. 29	La Thanh Hotel (베트남 하노이)
2017 한국무역학회 국제컨퍼런스	7. 6	라오스 돈찬팰리스호텔 & 컨벤션라오스
2017 EU-East Asia Roundtable Brussels	7. 26	ECIPE 본원(벨기에 브뤼셀)
5th Korea-Ukraine Economic Forum	7. 28	외교아카데미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8. 16	홍콩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육성전략과 한중협력	8. 24	조선포텔
The 5th Korea-Iran Cooperation Forum	9. 5	더 플라자호텔
제2회 동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	9. 6	중국 북경 후난호텔 (湖南大廈)
The 11th Trilateral Workshop of KIEP-PRI-CASS	9. 13	롯데호텔
2017 Asia-Europe Economic Forum	9. 20	오크우드 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제21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9. 21	롯데호텔
The 13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9. 22	태국 방콕
ISEAS-KIEP JOINT SYMPOSIUM	9. 25	MEI Conference Room,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제5회 KIEP 중동경제 세미나	9. 27	알제리, 모로코
2017 위클리비즈 경제경영 글로벌 컨퍼런스	10. 12	더 플라자호텔
KU-KIEP-EUI Joint Conference: Emergence of New Global Governance and the Future of Asia-Europe Relations	10. 13	피렌체, 이탈리아
2017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세미나	10. 14	중국 옌변대학교
제15차 KIEP-AMR 공동세미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 및 산업변혁 발전추세와 전략	10. 17	중국 쓰촨성 청두
2017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10. 19	JW 메리어트 서울
한미 민간합동 경제포럼	10. 23	포시즌스 호텔 서울
2017 IEFS-EAER 공동세미나: International Economic Challenges and East Asian Responses	10. 31	서울대학교
2017 KIEP-KDGW-FES International Conference	11. 2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World Policy Conference (10th Edition)	11. 3	Marrakesh, Morocco
2017 제1차 KOPEC 아태전략포럼	11. 7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1. 10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
2017 Asia Think Tank Summit on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11. 22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Valdai Club Asian Regional Conference	11. 26	신라호텔
'일대일로' 건설과 한중 협력 포럼	11. 30	중국 베이징 중국대만점
통일 후 동독지역 구조변화와 중소기업정책: 한반도에 대한 함의	12. 6	조선호텔
Seeking Solutions on Trade and Sustainability	12. 1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2018년		
Korea-India Relations: Beyond Challenges and Limitations	1. 24	인도 델리, 네루대학교
2018 KOPEC 제1차 고위자문회의 (주제: 트럼프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모색)	1. 24	롯데호텔

주제	일시	장소
북방정책 2.0 시대,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협력공동체 건설	3. 19	은행회관
Asian Economic Panel	3. 29	서울 포포인츠 웨라톤 호텔
제7차 한-브라질 비즈니스포럼	5. 16	대한상공회의소
시진핑 집권 2기 개혁개방 확대와 한-후베이 협력방안	5. 17	조선호텔
The 12th Trilateral Workshop of CASS-KIEP-PRI	5. 24	중국 북경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5. 30	중국 베이징대학교
2018 KOPEC 제3차 고위자문회의	6. 12	롯데호텔
2018 IEFS-EAER Conference: Global Economy in Turbulent Tim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rade and Finance	6. 19	서울대학교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6. 25	제주대학교
제13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6. 28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변강, 자임카
WEAI 93rd Annual Conference	6. 28	캐나다 밴쿠버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협력의 미래	7. 3	롯데호텔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 G2 Risk and Economic Cooper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7. 6	일본 메이조 대학
2018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7. 10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제3회 동아시아 경제 파트너십 포럼	7. 24	더플라자 호텔
27th Annual Conference of the 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8. 8	Hotel Metropolitan Sendai, Tohoku University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러 3각협력의 미래	8. 28	포시즌스 호텔 서울
The 2018 East Asia-EU Round Table	8. 31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
2018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9. 4	COEX 컨퍼런스센터
제16차 KIEP-AMR 공동세미나 : 한중 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및 협력방안	9. 4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제22차 한-중남미비즈니스포럼: 중남미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9. 11	롯데호텔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교훈과 정책과제	9. 13	프레지던트 호텔

국제세미나 개최실적

주제	일시	장소
제6회 중동경제 세미나	10. 3	UAE 아부다비 Emirates Diplomatic Academy
동북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부제: 평화와 번영, 동북아시아 상생협력의 꿈)	10. 10	포시즌스 호텔
신남방정책과 해양수산 과제	10. 11	포스타워
2018 제11회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회의	10. 13	중국 옌벤대학교
The 14th East Asian Institutes Forum	10. 15	Singapore ISEAS-Yusof Ishak Institute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 방안 세미나	10. 26	중국 창춘시
KIEP 한반도 신경제포럼	10. 30	코리아나호텔
중국의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협력	10-30	조선포텔
THE KOR-ASIA FORUM 2018	11. 7	서울 드래곤시티
KIEP-IDE JETRO 지역연구 워크숍: 아프리카	11. 9	IDE JETRO
2018 IIS-KIC-KIEP International Conference	11. 9	경희대학교
The 6th Korea-Iran Cooperation Forum	11. 11	이스파한상공회의소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S Mid-term Elections	11. 15	플라자호텔
Annual KIEP-IMF Joint Conference	11. 20	롯데호텔
NEAC-NSCS Workshop on RAHS (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RAHS programm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11. 26	Fullerton Hotel, 싱가포르
Forum on Industrial Innovation Policies and Labor Market Reforms	11. 29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Wiesbaden(독일)
Korea-Japan Opinion Leaders' Seminar(한일 OLS)	11. 29	호텔 뉴오타니 도쿄
제2차 KIEP 신남방포럼 국제세미나: 신남방정책 구현과 한-베트남 관계의 중요성	12. 3	Melia Hanoi Hotel(하노이, 베트남)
The Honolulu Ad Hoc Group Meeting on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posal for the Northeast Asia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12. 3	Hawaii USA
신남방정책과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12. 5	CSIS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한-독 통일 경제 정책 세미나	12. 12	조선포텔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12. 12	코리아나호텔

주제	일시	장소
2019년		
2019 제1차 KOPEC 고위자문회의: Advancing the U.S.-Korea Economic Agenda	1. 28	롯데호텔
FKI-KIEP Global Insight Seminar: 2019년 G5(미,중,일,EU,아세안) 경제전망과 대응	2. 14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019 KOPEC Asia-Pacific Strategy Forum: Trump's Trade Policies and the U.S.-Korea Alliance	2. 18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WTO Acces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Experiences of Korea and the Implications for Uzbekistan	3. 12	우즈벡 타슈켄트
2019년 베이징 한반도문제포럼	3. 14	중국 베이징대학교
한·중 경제협력 1.5트랙 세미나 -한·중 국가전략 연을 연계한 제 3국 공동진출	3. 27	밀레니엄 힐튼 호텔
한-우즈벡 및 한-카자흐 전략대화	4. 16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The 13th Trilateral Workshop of CASS-KIEP-PRI	6. 5	일본 도쿄
2019 IEFS-EAER Conferenc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Global Value Chains and Financial Risks	6. 5	서울대학교
제8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6. 19	대한상공회의소
제7회 중동경제세미나: Advancing Korea-Egypt SME Cooperation	6. 19	이집트 카이로 IDSC
The Korean Peninsula and U.S.-ROK Alliance: Credibility, Connectivity, and Practicality	6. 19	KEI 워싱턴 DC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	6. 20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East Asia in Disarray: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6. 27	5L Hotel Beijing
WEAI 94th Annual Conference	6. 29	미국 샌프란시스코
2019 U.S.-Korea Opinion Leaders Seminar	7. 15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워싱턴 DC)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2019. 8. 29	판문점 및 DMZ 일대
제17차 KIEP-AMR 공동세미나: 한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방안 연구	2019. 9. 3	중국 원난성 리장
동방경제포럼 성과 세미나: 한-러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2019. 9. 18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2019 제12회 두만강포럼 경제분과 세미나	2019. 9. 22	중국 옌벤대학교

연도별 주요 일지

1989	
1989. 8	재단법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김적교 초대원장 취임
1989. 12	특별법에 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설립 (재단법인 해산)
1990	
1990. 1	미 KEI 감독업무 이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사무국 이관
1992. 1	부설 북방지역센터 설치 (사단법인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해산·흡수)
1992. 3	유장희 2대 원장 취임
1992. 10	북방지역센터를 지역정보센터로 개칭
1994. 1	대외경제전문가풀 출범(대외경제위원회)
1995. 3	북경사무소 설립
1997. 1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설치
1997. 2	양수길 3대 원장 취임
1997.10	부설 지역정보센터를 본원으로 통합
1998. 6	이경태 4대 원장 취임
1999. 1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0	
2000. 4	세계지역연구센터 신설 (지역정보센터를 확대·개편)
2002. 1	안충영 5대 원장 취임
2002. 3	DDA 종합연구센터사무국 설립
2003. 4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신설 (동북아연구개발센터를 확대·개편)
2004. 12	국제행사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2005. 1	이경태 6대 원장 취임
2005. 12	SNU-KIEP EU센터 설립
2008. 5	채욱 7대 원장 취임
2008. 6	동북아경제협력센터를 국제개발협력센터로 개편 ODA팀 신설
2010	
2010. 2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설립
2011. 8	신흥지역연구센터 신설 (세계지역연구센터를 확대·개편)
2012. 3	한·중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13. 4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2013.0	이일형 8대 원장 취임
2014. 1	G20 연구지원단 신설
2014. 5	KU-KIEP-SBS EU 센터 설립
2015. 1	대외협력지원단 신설
2015. 6	동북아경제실 신설, 전략연구팀 신설
2016. 6	현정택 9대 원장 취임
2017. 9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2018. 3	이재영 10대 원장 취임 세계지역연구센터 부활 (중국경제실, 선진경제실, 신남방경제실, 신북방경제실 개편)
2018. 6	KIEP 4대 포럼 발족 (한반도 신경제, 신북방, 신남방, 통상전략)
2019. 1	2018 TTCSP 선정 세계 TOP 싱크탱크 33위, 국제경제정책부문 세계 5위 수상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2003년				
Yao Shumei	중국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7. 6 ~ 9. 26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Kiyotaka Sato	일본	Professor, Yokohama National University	10. 12 ~ 10. 17	Real Interest Rate Linkages in the Asian-Pacific Region: A Time-Varying Parameter Approach
Richard Baldwin	스위스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of Geneva	11. 30 ~ 12. 11	Towards an Integrate East Asia
Masaru Umemoto	일본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ICSEAD)	12. 15 ~ 12. 22	Development of Intra-Industry Trade among China, Korea and Japan: The Case of Automobile Industry
Zhaoyong Zhang	싱가폴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 3 ~ 12. 29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e Pattern of Intra-Industry Trade in China's Manufacturing
2004년				
Hong, Jeongpyo	일본	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1. 2 ~ 2. 1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in the Northeast Asia
Liu Xiangfeng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1. 2 ~ 2. 1	Korea's FDI on China's Trade
Oleksandr Movshuk	일본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2. 16 ~ 3. 12	Changes in Export Competitiveness of Japan and Korea
Kazutomo Abe	일본	NIRA	2. 16 ~ 3. 28	An Introduction to CGE Model
Nakajima Tomoyosh	일본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3. 16 ~ 3. 18	Korea-Japan FTA's Effect and Japan's Strategy
Liu Junsheng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4. 1 ~ 4. 30	Financi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in Chen Chiu	타이완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5. 10 ~ 5. 19	Economic and Political Interaction Across the Taiwan Strait
Yin-Wong Cheung	중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5. 9 ~ 5. 23	Northeast Asia Currency Union
Balaji Venkatachalam	인도	Hyderabad 대학교 연구원	6. 15 ~ 7. 28	Environmental Practices and Trade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 MNCs Affiliate Operating in China
Kazutomo Abe	일본	NIRA, Tokyo Denki University	7. 29 ~ 9. 4	Economic Growth and Technical Progress
Sumio Kuribayashi	일본	Toyko International University	7. 24 ~ 8. 7	Industrial Structural Interdependency and Trends of Econom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Kimie Harada	일본	Daito Bunka University	7. 26 ~ 8. 30	Banking Sector Problems in Korea and Japan
James Chan-Lee	프랑스	Maitre de Conference Sciences- Po(Paris), University of Sciences and Technology (Lille)	8. 25 ~ 9. 4	A Common Currency for Japan, China and Korea
Hong Chen	중국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9. 2 ~ 10. 29	A New Approach to the Asian Finance Cooperation
Francoise Nicolas	프랑스	Institute Franc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9. 6 ~ 10. 5	Korea and the Chinese Challenge: How to Make the Best of it
Yanick Bineau	프랑스	University of Lille	11. 1 ~ 11. 14	A Common Currency for Japan, China and Korea Structural Reform?
2005년				
Saglio-Rossini Sophie CEPN-CERS	프랑스	Centre d'Economie de L'universite de Paris Nord	1. 15 ~ 1. 31	A macroeconomic model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n Min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부교수	1. 23 ~ 2. 22	동북3성 개발과 한반도
Simon Hix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 24 ~ 3. 31	Lessons for East Asia from the Design of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Wang Jiqing	중국	Northeast Forestry University	4. 1 ~ 5. 1	Cultural Heritage Tourism Development and its Economic Impact on Korean Local Communities
Yoshihiro Kameyama	일본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East Asian Development	6. 25 ~ 8. 31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luster in East Asia: Using Data Set of Questionnaire Surver
Kui-Wai Li	홍콩	Associate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6. 26 ~ 7. 2	Paradigm of Economism (Economic Success of East Asia and its Relativity)
Xiyu He	중국	Fudan University	7. 15 ~ 8. 15	중국기업의 대외 투자추세
Tao Qing	중국	China Academy of Telecom Research	8. 3 ~ 8. 30	A Comparison of Changes in Telecommunication Market Structure in Chian and Korea
Xu Changwen	중국	Ministry of Commerce, Chinese Academy of Int'l Trade & Economic Cooperatio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8. 22 ~ 9. 4	Study of Expanding the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Li Zhijun	중국	DRC	9. 2 ~ 9. 30	Clear up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o Enlarge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Boyko Irian	러시아	Leningrad State University	10. 1 ~ 11. 1	East Asian Transition to the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2006년				
Prabir De	인도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 India Habitat Centre	1. 9 ~ 2. 1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Zhang Jianping	중국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NDRC	2. 20 ~ 3. 2	Study on the Problems Faced by China-Korea FTA and its Prospects Analysis
Kenya Fujiwara	일본	Kobe University	3. 29 ~ 4. 14	An Empirical Study of the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both in Korea and Japan
Gang-Zhe Li	일본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4. 17 ~ 5. 12	Cooperative and Competitive Relations of China-Japan-Korea
Xu Wenji	중국	Jilin University	6. 1 ~ 6. 3	Economic Relations' Deepening among China, North and South Koreas and its Effects on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Yueting Tong	중국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 19 ~ 7. 7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nventional Theories and the Role of Industrial Groups
Yuan Bo	중국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7. 1 ~ 7. 28	Improv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OK
Wang Wei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7. 27 ~ 8. 12	Comparative Research on Logistics Service between China and Korea
Lu Jianyong	중국	Tsinghua University	7. 31 ~ 8. 9	Export and Productivity of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Taizo Motonishi	일본	Kansai University	8. 10 ~ 9. 9	Degree of Possible Misalignment of the Korean Won
Liu Yong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8. 15 ~ 8. 3	The Rejuvenation of the Old Industrial Base in Northeast China and the Opportunities of FDI from South Korea
Zuo Chuanchang	중국	AMR	9. 19 ~ 10. 7	The Prospective of Monetary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Economies
Guo Huaiying	중국	AMR	9. 19 ~ 10. 7	Comparison on China and Korea's Service Industr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Zhang Wei	중국	CAITEC	10. 9 ~ 10. 22	The Feasibility Study on Building Free Trade Area among China, Japan and South Korea
Li Dunqiu	중국	DRC 조선반도연구중심	10. 9 ~ 10. 28	북한 핵실험의 북·중 정치경제 관계에 대한 영향과 전망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2007년				
Werner Pascha	독일	Duisburg-Essen University	2. 19 ~ 3. 11	Mechanisms for NEA cooperation in development finance- a European perspective
Marie Soderberg	스웨덴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4. 15 ~ 4. 22	South Korean Development Aid to North Korea and Its Policy Coordination with Japan and China
Tulus Tambunan	인도네시아	University of Trisakti	8. 1 ~ 8. 31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Role of Japanese and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ransfer of Technology to Small and Medium Industrial Clusters in Indonesia
Chen Xiangdong	중국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 Astronautics	8. 8 ~ 8. 31	Interactions between FDI Movement and FDI Policy Change in China and Implications to Korean Enterprises and Investment in China
Kazuhiko Yokota	일본	ICSEAD	8. 23 ~ 9. 22	Vertical Production Network in East Asia
Liu Aming	중국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9. 3 ~ 9. 21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ina's Strategy after the KORUS FTA
Norio Ko muro	일본	Kobe University	9. 17 ~ 10. 17	Research on the Asian Free Trade Agreements
Han Yan	중국	CAITEC	10. 1 ~ 10. 31	Research on China-Korea Intra- Industry Trade under East Asia Production Networks
Jiang Haoduan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0. 20 ~ 11. 20	The Impact of China-Korea FTA on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Xuan Xiaowei	중국	Development Research Center	10. 20 ~ 11. 20	China's Energy-Saving Plan and its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Approach
Li Zhong	중국	AMR	11. 1 ~ 11. 31	The Perspective of Cooperation between Shandong Peninsula Urban Agglomeration and Korea
Luo Songshan	중국	AMR	11. 1 ~ 11. 31	Study on the Policy of Utiliz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amsur Rahman	방글라데시	University of Rajshahi	12. 1 ~12. 31	South Korea's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sistance Policy toward the Developing Countries of East, South East and South Asian Countries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Asia: Bangladesh- A Case Study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Li Xiang Ping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4. 2 ~ 4. 6	남한·북한·중국 3자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Lin Zhaomu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 6 ~ 5. 10	중국경제발전 현황·전망과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Zhao Zixiang	중국	요녕성 전국인민대표대회	10. 7 ~ 10. 13	한반도 경제와 지역 안보 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문화적 차별과 정치적 충돌
2008년				
Robert Scollay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APEC Study Centre	1. 17 ~ 1. 25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FTA Policy of New Zealand
Guo Tianyong	중국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1. 23 ~ 2. 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hina
Jeffrey Robertson	호주	Parliament of Australia	1. 28 ~ 2. 29	Is there a South Korean 'diplomatic style' and how does it affect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Pravakar Sahoo	인도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2. 17 ~ 3. 17	India-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Bao Zheng Dong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원장)	4. 7 ~ 4. 12	Liaoning Development Strategy of Economic Line along the Coas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Gong Wenhuan	중국	Dandong Hi-Tech Development Zone Administration Committee	4. 15 ~ 4. 29	Dandong-a New Developing Area in Northeast Asia
Elbegdorj Tsakhia	몽골	Democratic Party of Mongolia	4. 23 ~ 4. 25	Current Status of Resource Development in Mongolia and the Futur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Leonardo Martinez-Diaz	미국	The Brookings Institution	5. 25 ~ 6. 14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Integration in Four Systemically- Significant Countries
Shandre Thangavelu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 10 ~ 6. 19	Gravitating with Free Trade Agreements in Singapore
Lu Bo	중국	CAITEC	7. 2 ~ 8. 2	CJK FTA: Political Obstacles and Economic Difficulties
Yushi Yoshida	일본	Kyushu Sangyo University	7. 28 ~ 8. 4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Zhu Qinglin	중국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8. 13 ~ 8. 25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ject and the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Cai Penghong	중국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8. 22 ~ 8. 31	FTAAP: its Implication and China's Regional Strategy
Liu Tong	중국	NDRC	2018. 12. 22 ~ 2019. 1. 22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olicy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etween Korea and China
Xu Zhenbin	중국	NDRC	2018. 12. 26 ~ 2019. 1. 22	Sino-Korea Economy Development and Social Salvage System Construction Cooperation Research
2009년				
John Gibson	뉴질랜드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ikato	8. 25 ~ 8. 30	I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in source areas overstated because of inadequate modeling of two types of selectivity?
Tu Xinquan	중국	Associate Professor, China Institute for WTO Studies of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7. 31 ~ 8. 28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KORUS FTA for third countries: a Chinese perspective
Claude Barfield	미국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4. 17 ~ 4. 23	The Politics of Trad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mplications for Asian Regionalism
Shandre Thangavelu	싱가포르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3. 29 ~ 4. 9	Economic Effects of an EAFTA on Manufacturing and Primary Industries: Case of Electronics Sector
Swapan Bhattacharya	인도	Indi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 1 ~ 2. 1	An Estimation of the Potential Effects of Free Trade Arrangements (FTA) between India and Republic of Korea
Guo Chaoxian	중국	Associate Professor, 중국사회과학원(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6. 1 ~ 6. 30	Comparative Study on Changing Pattern of Industrial Structure Between China and Korea
Chiranjib Neogi	인도	Associate Scientist, 인도통계연구소 (Indian Statistical Institute)	6. 24 ~ 7. 23	Forces behind Jobless Growth: A comparative study of India and Korea
Hong Bo	네덜란드	Senior Lecturer,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University of London)	7. 31 ~ 8. 2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ocial Objectives, and Efficiency: Evidence from Chinese State Enterprises
Aradhna Aggarwal	인도	Associate Professor, 델리대학교 경제경영학과 (University of Delhi)	8. 2 ~ 9. 1	Policy and Performance of Special Economic Zones: Analysis of Taiwan, Korea and India
Gbadebo Olusegun Odularu	나이지리아	Regional Policies/Markets Analyst,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9. 1 ~ 9. 30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trade in agricultural and food commodities in Africa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Dmitry Alexandrovich Izotov	러시아	Junior Researcher,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Institute, Far Eastern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9. 16 ~ 10. 16	Economic Development Prospect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Foreign Economic Activity Alternatives
Avaz Mirzamuratovich Alimov	우즈베키스탄	Head of the Department, Republic of Uzbekistan 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Inter-Parliament Relations	11. 12 ~ 11. 24	Factors and directions of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Quoc-Phuong Le	베트남	Deputy Director, National Center for Socio-economic Information and Forecast(under MPI)	11. 16 ~ 1. 15	Trade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between Vietnam and Korea
Qu Fengjie	중국	Vice Division Chief,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search (IIER)	11. 28 ~ 12. 27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ter the Global Crisis: Challenges and China's Response
2010년				
Behzod Tagaev	우즈베키스탄	Project Manag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es under the Cabinet of Ministri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15 ~ 3. 15	The sphere of services as the main factor of maintenance employment & a diversification of economy of Uzbekistan
Shovan Ray	인도	Professor, 인디라간디 개발연구소(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	5. 10 ~ 6. 8	Education for Development: India and East Asia
Mahmut Tekçe	터키	Lecturer, 마르마라 대학교(Marmara University)	5. 31 ~ 6. 30	Korea-Turkey FTA: Implications for Korea-Turkey Relations and for the Global Trade Policy
Umi Karomah Yaumidin	인도네시아	Researcher, 인도네시아 사회과학 경제연구센터 (Economic Research Centre,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7. 10 ~ 8. 8	Asean Economic Community: Prospect for Regional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Tu, Chaw-Hsia	대만	Research Fellow, Taiwan WTO Center, 중화경제연구소(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9. 1 ~ 9. 30	Cross-strait ECFA should be the stepping stone for Taiwan joining the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Timothy John BEAL	뉴질랜드	Research Fellow,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10. 4 ~ 10. 31	Korea's FTA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ine market
Whitney Haring-Smith	미국	Dphil, award,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11. 5 ~ 11. 24	Succeeding on the Frontier: Understanding and Assessing Political Risk in Emerging Markets
Du Feilun	중국	Research Associate,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11. 1 ~ 11. 26	How to Exit and Adjust China's Economical Stimulus Policies In the Post-Financial-Crisis Era
Zhengxue Huang	중국	Deputy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 Regional Economy (ISPR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11. 1 ~ 11. 26	Research on the urban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2011년				
Mao Xiaojing	중국	Assistant Research Fellow,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Ministry of Commerce	2. 21 ~ 3. 18	Practices of China's Foreign Aid and Comparison with Korea's ODA
Ivor Agyeman-Duah	가나	Director and Researcher, Centre for Intellectual Renewal and the University of Ghana	3. 10 ~ 4. 16	Beyon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Patriotism as a Pro-Growth Factor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Juan Jose Palacios	멕시코	Professor, University of Guadalajara	4. 16 ~ 5. 14	Building Trans-Pacific Partnerships: Prospects for a Mexico-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Mohammad Masudur Rahman	방글라데시	Economist, Microcredit Regulatory Authority (MRA), Bangladesh Bank,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6. 2 ~ 6. 30	Trade and Investment Potential Among BCIM Countries: A Dynamic Gravity Approach
Srinivasa Madhur	인도	Former Senior Director, Offic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sian Development Bank (Retired on 7th of January, 2011)	7. 2 ~ 7. 29	Asian regionalism and global economic governance
Stephania Paladini	이탈리아	Associate Professor, Strategy and Management, Coventry University	8. 15 ~ 9. 10	Strategic Materials, Scarcity, Conflicts- A Geopolitical Approach
Wolfgang PAPE	독일	Policy Officer, European Commission	10. 12 ~ 11. 13	EU Development Policies at the Crossroads?
Olga Shuleiko	벨라루스	The Chief of Fiscal Policy, 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9. 1 ~ 9. 28	Features of the fiscal policy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 the conditions of forming the Common Economic Space
Hossam Younes	이집트	Senior Researcher, Egyptian International trade point of Ministry of Industry&Foreign Trade	11. 3 ~ 12. 2	Egyp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 Product Level Analysis
TAN YONGSHENG	중국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AMR of NDRC	2011. 12. 7 ~ 2012. 1. 6	The Influence and Countermeasures of Aging o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KIN-YIP HO	싱가포르	Assistant Professor,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 3 ~ 2. 1	Value Premium and Institutional Ownership in Chinese Stock
Xiang Aibing	중국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ICT) of NDRC	2. 1 ~ 3. 1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Transportation Channels Across Bohai Sea and Yellow Sea to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NAIR
2012년				
Kristy Tsun-Tzu HSU	대만	Associate Research Fellow, Taiwan WTO Center, Chung 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CIER)	3. 1 ~ 3. 31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Taiwan & China: Assessing the Impacts of ECFA & Its future Development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Aynura M. Ismayilova	아제르바이잔	Head of Department, Marketing and Coordination,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on Economic Reforms	5. 1 ~ 5. 30	Economic Integration: WTO membership, learning scientific bases for increasing assistance to competitiveness
Maryna Markusenka	벨라루스	Chief, Belarus State Economic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5. 30 ~ 6. 29	Variation of the currency policy of the Republic of Belarus in the conditions of forming the Common Economic Space
Sandip Kumar Mishra	인도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Delhi(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6. 1 ~ 6. 30	Services Sector of India and South Korea-India Economic Cooperation
Lee-Rong Wang	대만	Researcher Fellow, Chung-Hu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8. 24 ~ 9. 8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enminbi on Asian Economies
Fu Baozong	중국	Research Associate, Institute of Industrial & Technogical Economics Research,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9. 25 ~ 10. 25	Comparative Research on Automotive Industry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Liu Xianwei	중국	Assistant Researcher,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	9. 25 ~ 10. 25	Research on South Korea's Industry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Experience
Vusal Gasimli	아제르바이잔	Acting Chief, The Center of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1. 2 ~ 1. 31	Modernization of Azerbaijan economy: the role of transnational companies
Luis Mah Silva	포르투갈	Research Fellow, Center for African and Development Studies (CEs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ISEG)	1. 5 ~ 2. 1	Building a Korean-Portuguese Business Partnership for Afric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Victor Krasilshchikov	러시아	Head of Research,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Russian Academy of Sciences)	2. 1 ~ 2. 28	The Second-Tier "Tigers(Southeast Asia, Malaysia and Thailand)" in the Light of Latin American Experience
2013년				
Abbas Aminifard	이란	Assistant Professor, Islamic Azad Shiraz University	3. 11 ~ 4. 11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Bilateral Trade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Hu Wenlong	중국	Assistant Professor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4. 1 ~ 4. 30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dustrial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trend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Xin Deng	중국	Assistant Professor,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6. 30 ~ 7. 31	The role of CMIM in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s in AESAN+3 and China-Korea financial cooperation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You-il Lee	호주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11. 18 ~ 12. 13	China's Position on Economic Clustering in Northeast Asia: Political Economy Approach
Jin Meihua	중국	Deputy Secretary, Northeast Asian Studies Center, Jilin Academy of Social Sciences	11. 27 ~ 12. 27	The Study of Feasibility to Build China-ROK Free Trade Zone In China Open Border Regions
Lu Wei	중국	Research Assistnat, Department of China-USA Relationship Research,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conomy,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and Regionaly Economic,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	12. 18 ~ 1. 15	Comparative Study on Green Growth Strategy in China and Korea
Li Dawei	중국	Research Assistnat, Department of China-USA Relationship Research, Institute of Foreign Economic Research, NDRC(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 12. 30 ~ 2014. 1. 24	China and South Korea's status in Global Value Chain after financial crisis
2014년				
Ibrohim Umarov	우즈베키스탄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forecasting and macroeconomic research under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3. 3 ~ 3. 25	Assessing the impact of diversification of export structure on the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economy
Khalid Ahmed	파키스탄	Assistant Professor, Sukkur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IBA)	4. 1 ~ 4. 30	Political Economy of SAARC and Regional Trade Integration: The Recent Ontogeny and Future Prospects
Sudhakar Yedla	인도	Professor, 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IGIDR)	5. 8 ~ 6. 7	Korea-India CEPA - Analysis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Mozafari Mohammad Hassan	이란	Senior Researcher, Academic Cooperations Department Research Division Islamic Culture and Relations Organization	5. 19 ~ 6. 17	The Iranian Economic Policy after the Election (2013) and Lifting the Sanctions
Ni Jinli	중국	Associate Researcher, 길림성 사회과학원 농촌 발전연구소	5. 20 ~ 6. 18	Research on Counties' Economic Development of Jilin Province
Murat Ali YULEK	터키	Professor, Istanbul Ticaret University	9. 24 ~ 9. 29	Industrial Polici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urkey and Korea
Christopher Mark Davis	영국	Reader, Oxford University	8. 25 ~ 9. 5	Russia, the Ukraine Conflict, and Foreign Economic Sanctions: Implications for the Economies of Europe and Asia
Moaness TAHOUN	이집트	First Secetary, Egyptian Commercial Service	9. 5 ~ 9. 30	The Arab Spring, the pathway of South Korea or North Korea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2015년				
Cao Zhongxiang	중국	Associate Director,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and Regional Economy (ISPRE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ission (NDRC), P.R.C.	4. 1 ~ 4. 29	Study on the marine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Sheng Chaoxun	중국	Research Assistant, Institute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Economics,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P.R.C.	4. 1 ~ 4. 29	Study on Innovation Driven Industrial Upgrading in Korea
Kiril Tochkov	미국	Associate Professor, Texas Christian University	5. 1 ~ 6. 12	Trade, FDI, and Regional Integration: Border Effects Between Russia's Far East and Korea
Zhou Mi	중국	Senior Researcher,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CAITEC)	6. 1 ~ 6. 30	Korea's FTA Strategy and Implication to China
Adolfo Alberto Laborde Carranco	멕시코	Professor, Instituto Tecnolo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ey (ITESM)	6. 28 ~ 7. 31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Mexico: Obstacles and Advantages
Nashwa Mostafa Ali Mohamed	이집트	Assistant Professor, Helwan University, King Saud University	6. 28 ~ 7. 20	Are China's Exports Crowding out of Coexisting with Korea's Exports in the Arab Region?
Selcuk Colakoglu	터키	Professor, Yildirim Beyazit University	8. 2 ~ 8. 29	The Role of MIKTA: Understanding Korean and Turkish Perspectives
Xu Man	중국	Assistant Researcher, 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CAITEC), MOFCOM	9. 1 ~ 9. 30	China-US BIT Negotiation Strategy Studies
Andrey Kovsh	러시아	Associate Professor,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11. 10 ~ 12. 10	Comparative Studies on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Natural Gas Trade: The Cases of Russia, Republic of Korea and Iran
2016년				
Zhang Monan	중국	Associate Professor,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CCIEE), Strategic Research Department	3. 20 ~ 4. 20	Trade In Value Added and Sino-Korean Collaboration on Global Value Chains
Benjamin Keddad	프랑스	Associate Professor, Paris School of Business	5. 6 ~ 6. 6	Common dynamic of exchange rate misalignments in Asia: a fractional cointegration approach of BEER
Sun Wei	중국	Research Assistant,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AMR),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7. 16 ~ 8. 14	Study of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on Arctic Governance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Zhang Luqin	중국	Deputy Director,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al System Department, Institute of Economic System and Management (IESM) of NDRC	7. 16 ~ 8. 14	Economic System Reform and Economic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and China (*추후 변경 예정)
Ren Ming	중국	Professor, 길림대 (Jilin University) 동북아연구원, 교수	8. 1 ~ 8. 31	A Research of South Korea's Impact on North Korea's Strategic Transformation
Krishnarajapet V. Ramaswamy	인도	Professor, Indira Gandhi Institute of Development Research	10. 1 ~ 10. 30	Economic Growth, Industrialization, and Spatial inequality in India: A Study of Inter-State differences in Growth and Employment in a Globalizing Economy
Partha Pratim Sahu	인도	Assistant Professor, Centre f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CED), National Institute of Rural Development and Panchayati Raj(NIRD&PR)	12. 2 ~ 12. 28	Expanding Private Business Space for the Marginalized Social Groups in India: Challenges for Inclusive Growth
Rabeh Mahmoud Saleh Morrar	팔레스타인	Head of Department of Economics, An Najah National University	2016. 12. 16 ~ 2017. 1. 14	Innovation in 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 in Palestine: A Conceptual Framework
Oyungerel Baast	몽골	Head for Physical Geography, Institute of Geography and Geo-ecology Mongolia Academy of Sciences	2016. 12. 18 ~ 2017. 1. 16	Research to develop on the possibility of World Park Special Status on some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of Mongolia
2017년				
Chokri Makhlof	튀니지	Head of the Services Standardization Departmen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Property	6. 17 ~ 7. 16	Tourism industry in Arab Spring Effects and Perspectives: The Case of Tunisia
Junaid Ahmed	파키스탄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Management and Social Science, Capit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7. 31 ~ 9. 1	Windfall Gain, Labour Supply, and Consumption Patterns
Xu Jianwei	중국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Economics,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NDRC	9. 1 ~ 9. 29	Chinese Industrial Development and Policy Adjustment in Anaphase of Industrialization
Fengming Su	중국	Deputy Division Chief, Transportation Strategy and Plan Research Division,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NDRC	9. 1 ~ 9. 29	Study on Modernization of Transport Governance Systems in China
Emmanuel Igbinoba	나이지리아	Associate Research Fellow, Stellenbosch University	9. 1 ~ 11. 24	Empirical Assessment of Trade Engagements: Africa, China and the Maritime Belt and Road Initiative
Mokhtari Fayçal	알제리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s, University of Mascara	10. 24 ~ 11. 5	* 자비로 2주간 방문하여 연구성과물 없음.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Le Quoc Phuong	베트남	Former Deputy Director-General, Vietnam Industry and Trade Information Center (VITIC), 前	11. 2 ~ 1. 30	Vietnam's Low National Competitiveness: Caus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2018년				
Oded Stark	폴란드	Distinguished Fellow, University of Bonn	2. 23 ~ 3. 18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 on Trade
Sabuhi Yusifov	아제르바이잔	Assistant Professor, Azerbaijan Technological University	3. 17 ~ 4. 6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for Azerbaijan
Kodirjon Umarkulov	우즈베키스탄	Assistant Professor, Namangan State University	4. 3 ~ 6. 29	A Study on the Dynamics of Foreign Trade and the Issue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sia
Jan Melissen	네덜란드	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Research,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5. 6 ~ 6. 2	Navigating K-Diplomacy into the 21st Century: Online and Offline, at Home and Abroad
Octavian Serban	루마니아	Researche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onomic Studies	6. 15 ~ 9. 15	Knowledge Economy Pyramid: Transforming Knowledge Value in Increasing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Dakshina G. De Silva	미국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Lancaster University	7. 19 ~ 8. 18	The Spillover Effe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 on Trade
Messay Mulugeta Tefera	에티오피아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Development Studies, Addis Ababa University	8. 1 ~ 8. 31	The Economic Development Component of the Ethiopia-South Korea Relationship
Zahra Zamani Nokabadi	이란	Research Coordinator, Center of Excellenc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of Isfahan	8. 20 ~ 9. 17	Main Characteristics of Bilateral Trade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Focusing on Trade Diversification
Zhang Mingshen	중국	Assistant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he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9. 27 ~ 10. 27	China's Digit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Sou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Giovanni Di Lieto	호주	Lecturer, Business School, Monash University	10. 10 ~ 10. 19	Regulatory Implications of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for the Global Services Market: The Case of Trade in Services Agreement (TiSA)
2019년				
An Guoshan	중국	Director and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Peninsula Studies, Yanbain University	1. 17 ~ 2. 16	Ways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n Peninsula for Port Logistics in Tumen River Area
Muhammad Aamir Khan	파키스탄	Assistant Professor, COMSATS University Islamabad (CUI)	4. 15 ~ 5. 12	Potential Pakist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 Options for Pakistan

방문학자(Visiting Fellows) 명단

성명	국적	소속	방문기간	연구과제명
Yang Wang	중국	Associate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Deveopment,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AMR)	5. 20 ~ 6. 18	Comparative Study on Active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Nilanjan Banik	인도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Bennett University	6. 2 ~ 6. 29	Could Online Gig Work Drive Economic Growth?
Pawel Pasierbiak	폴란드	Assistant Professor, Maria Curie-Sklodowska University (UMCS)	7. 13 ~ 8. 13	The Position of South Korea in East Asian Region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 Achievements to Date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auline Gandre	프랑스	Assistant Professor, EconomiX, University Paris Nanterre	7. 14 ~ 8. 9	The G-20 Derivatives Market Reform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ross-Country Disparitie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Xiaobin Cai	중국	Assistant Professor, Academy of Macroeconomic Research (AMR)	8. 1 ~ 8. 30	China's Social Governance in Transition: Historical Phases, Achievement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동호회 활동

설립년도	동호회명	설립목적
2006	사진동호회	사진강좌 수강, 촬영 실습, 사진전 관람, 작품전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작품활동 지원
2015	테니스클럽	테니스를 통한 원내 친목도모 및 꾸준한 건강 관리
2018	체력단련동호회	체력증진을 통한 동호인의 업무성과 및 삶의 만족도 향상과 활력 증진
	댄스 동호회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통한 교양함양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볼링동호회	볼링을 통해 원내 친목도모 및 꾸준한 건강 관리
2019	필라테스동호회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증진과 임직원간 화합을 도모
	대외경제 FC (족구 및 축구)	족구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T/F 명단

총괄		
부원장	정철	
기념행사 개최 분과		
분과장	정성춘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분과원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현진	KIEP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권혁주	KIEP 선진경제실 전문연구원
	강성일	KIEP 연구조정실 책임행정원
국제세미나 개최 분과		
분과장	정형곤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분과원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연원호	KIEP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이철원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원
	손원주	KIEP 선진경제실 연구원
	최준영	KIEP 대외전략위원회 전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발간 분과		
분과장	김준동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분과원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 연구위원
	김효상	KIEP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나수엽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원
	강부균	KIEP 신북방경제실 전문연구원
	우은영	KIEP 연구조정실 책임행정원

30주년 기념동영상 제작 분과		
분과장	권울	KIEP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분과원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이형근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원
	배선희	KIEP 감사실 책임전문원
	장경혜	KIEP 대외전략위원회 연구원
	김정운	KIEP 국제거시금융실 주임연구조원
	최준영	KIEP 대외전략위원회 전문연구원

실무지원팀
인사총무팀, 기획성과팀, 홍보협력팀, 예산회계팀, 지식정보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편집위원회 (가나다 순)

편집위원장	김준동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편집감수위원	김상겸 전 KIEP 부원장 최낙균 전 KIEP 부원장
외부편집위원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유철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왕윤종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객원교수 이장규 전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이홍식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원내편집위원	강태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선임연구위원 곽성일 KIEP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 권울 KIEP 신남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김영귀 KIEP 연구조정실 연구위원 노현주 KIEP 대외전략위원회 연구원 문진영 KIEP 신남방경제실 연구위원 박정호 KIEP 신북방경제실 연구위원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 연구위원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양평섭 KIEP 중국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우은영 KIEP 연구조정실 책임행정원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 연구위원 정성춘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정여천 KIEP 신북방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정형곤 KIEP 선진경제실 선임연구위원 조충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최장호 KIEP 신북방경제실 부연구위원
--------	--

편집간사	황태정 KIEP 연구조정실 선임행정원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년사

발행일 2020년 1월 17일

발행인 이재영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연락처 044-414-1114

디자인 유월애 (02-859-2278)

www.kiep.go.kr